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語教育研究
第 482 輯

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정 보 미

교육학박사학위논문

플롯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연구
-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정 보 미

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의 플롯 교육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문학교육에서 플롯 개념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론의 주요 용어인 ‘플롯(plot)’은 ‘스토리(story)’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서사의 문학과 완결성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학교육에서 ‘플롯’은 ‘스토리’ 개념과 큰 변별성 없이 사용되었으며, 플롯의 본질적 특성이나 구체적 파악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였다. 플롯은 작품의 시간성과 인과성을 파악하는 버리이자 작품 해석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소설 분석 및 소통을 촉진할 도구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롯의 개념을 스토리와는 구분되는 층위에서 ‘사건의 인과적 배열’과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때 ‘사건’과 ‘인과성’, ‘배열’이라는 요소는 플롯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표층적 인 요인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플롯이 담지하는 심층적인 내용과 플롯의 거시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심층적인 내용을 이루는 기저 요인으로는 ‘욕망’, ‘담론’, ‘갈등’이 있으며 이 요인들의 속성은 강조되는 사건의 성격과 인과의 조직 방식, 배열 방식과 각각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최종적으로 플롯의 거시적 형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한 플롯 유형으로는 ‘수렴형 플롯’, ‘발산형 플롯’과 같은 단일형 플롯과, 두 단일형 플롯이 결합된 ‘교차형 플롯’, ‘통합형 플롯’의 복합형 플롯을 상정하였다.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 유형은 각각 ‘질서 실현’과 ‘대안 탐색’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으며,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과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은 각각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플롯 유형과 의미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작품별로 다양하게 마련된 플롯에 대하여 보다 설득력 있고 타당한 해석을 펼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구안한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은 고전소설

에서 개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소설의 몰입 기제로서 플롯 장치의 효과를 체험케 하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제 논의에서 형상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롯 교육의 제재로 17세기 장편소설 네 작품을 선정하였다.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이 그것이다. 이 네 작품은 모두 ‘가(家)’라고 하는 서사 세계를 상정하여 실제 현실의 문제를 재구성하였고, 가능성과 필연성의 원칙에 따라 서사 세계의 논리를 구축하였으며, 전대에 비해 넓어진 서사 편폭에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배열 방식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은 17세기 장편소설에서 플롯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네 작품의 플롯 유형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홍길동전>은 ‘가(家)’의 대안 세계를 탐색하는 ‘발산형 플롯’으로 되어 있고, <사씨남정기>는 ‘가(家)’를 지탱하는 가부장적 질서의 가치를 보여주면서도 균열 또한 첨예하게 다루어 문제 제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으로 되어 있었다. <창선감의록>은 ‘가(家)’의 바람직한 질서 실현이 대안 탐색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문제 해결적 성격을 보여주는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으로 되어 있고, <소현성록> 연작은 ‘가(家)’의 이상적 질서가 실현되어 대안 탐색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수렴형 플롯’으로 되어 있었다. 각 작품들에서 플롯은 ‘가(家)’라는 서사 세계와 실제 세계의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친숙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실 질서에 대한 믿음과 대안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나름대로의 비중으로 조합함으로써 독자에게 교훈과 흥미를 제공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구도를 설정하는 데 토대가 된다. 이는 ‘플롯 유형의 이해를 통한 서사 구조화 교육’과 ‘플롯의 유기적 해석을 통한 주제 탐구 교육’의 두 방향으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향의 교육이 학습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되도록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왜 이러한 플롯이 구성되는지’를 밝혀내는 ‘탐구학습’의 방

법을 참고하여 플롯 교육을 설계하였다.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플롯에 대한 개념 학습’, ‘스토리 요약을 통한 가설 설정’,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플롯을 활용한 주제 해석의 정교화’와 같이 크게 네 단계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중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단계는 다시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근거 수집’, ‘기저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가설 평가’, ‘플롯 유형의 도출과 플롯 효과의 체험’으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플롯의 유형과 의미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내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작품의 서사 구조와 주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한 전이력 있는 분석틀이라는 점에서 문학교육적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주요어 : 17세기 장편소설, 플롯, 플롯 유형, 표층 요인, 기저 요인,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문학교육

학 번 : 2013-30422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7
(1) 플롯 및 플롯 교육 연구사	7
(2) 17세기 장편소설 연구사	20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7
(1) 연구 대상	27
(2) 연구 방법	32
II.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의 이론적 전제	34
1. 플롯의 개념	34
(1) 사건의 인과적 배열	36
(2)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	40
2. 플롯의 주요 유형	44
(1) 단일형 플롯	45
① 수렴형 플롯 : 질서 실현의 플롯	47
② 발산형 플롯 : 대안 탐색의 플롯	49
(2) 복합형 플롯	51
①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 : 문제 제기의 플롯	52
②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 : 문제 해결의 플롯	55
3. 플롯 유형의 결정 요인	57
(1) 표층 요인	58
① 사건의 선택과 강조 : ‘인식(認識)’과 ‘가정(假定)’의 사건 ...	59
② 인과의 조직 : 예정된 인과와 구축되는 인과	61
③ 배열의 순서와 간격 : 비선형적 배열과 선형적 배열	63

(2) 기저 요인	65
① 욕망 : ‘회복’과 ‘극복’의 욕망	67
② 담론 :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	69
③ 갈등 : 열린 갈등과 닫힌 갈등	72
4.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의 의의	76
(1) 고전소설의 개연성 확보 원리에 대한 이해 증진	76
(2) 소설의 몰입 기제로서 플롯 장치의 효과 체험	78
(3) 내용 중심 주제 교육의 형상적 근거 강화	80
 Ⅲ. 플롯 중심의 17세기 장편소설 분석	83
1. 17세기 장편소설 플롯의 형성 배경	83
(1) ‘가(家)’라는 서사 세계를 통한 현실 문제의 재구성	85
(2) 서사적 인과 원칙으로서 가능성과 필연성의 활용	87
(3) 장편의 서사적 긴장 유지를 위한 배열 방식의 모색	89
2. <홍길동전> 플롯의 특징과 의미	90
(1) ‘가정(假定)’의 연속적 실현과 ‘극복’ 욕망의 성취	91
(2) 새로운 인과의 구축과 대항 담론의 형성	98
(3) 서사 공간의 확대와 닫힌 갈등의 환상적 해소	106
(4) 발산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대안 세계 탐색	110
3. <사씨남정기> 플롯의 특징과 의미	112
(1) 두 가지 ‘가정(假定)’에 담긴 ‘회복’과 ‘극복’ 욕망의 경합	114
(2) 인과 조직의 전환과 대항 담론의 패배	120
(3) 서사 공간의 회귀와 닫힌 갈등의 현실적 제시	133
(4)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문제 제기	137
4. <창선감의록> 플롯의 특징과 의미	140
(1) ‘가정(假定)’에 대한 대응의 차이와 ‘회복’ 욕망의 변형	141
(2) 인과 조직의 통합과 기존 담론의 대항 담론 흡수	149

(3) 서사 시간의 중첩과 열린 갈등의 단계적 해소	156
(4)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문제 해결	162
5. <소현성록> 연작 플롯의 특징과 의미	165
(1) ‘인식(認識)’으로의 귀결과 ‘회복’ 욕망의 지속	167
(2) 예정된 인과의 반복과 기존 담론의 장악	182
(3) 서사 시간의 연장과 열린 갈등의 다면적 제시	189
(4) 수렴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이상적 질서 실현	201
 IV.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설계	204
1.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구도	204
(1) 플롯 유형의 이해를 통한 서사 구조화 교육	206
(2) 플롯의 유기적 해석을 통한 주제 탐구 교육	209
2.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내용	211
(1) 플롯에 대한 개념 학습	213
(2) 스토리 요약을 통한 가설 설정	215
(3)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218
①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근거 수집	219
② 기저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가설 평가	223
③ 플롯 유형의 도출과 플롯 효과의 체험	225
(4) 플롯을 활용한 주제 해석의 정교화	228
 V. 결론	231
 참고문헌	233
Abstract	247

표 목 차

<표 1> <사씨남정기>의 교차 배열	134
<표 2> <창선감의록>의 중첩 배열	159

그 립 목 차

<그림 1> <홍길동전>의 스토리	92
<그림 2> <홍길동전>의 플롯	110
<그림 3> <사씨남정기>의 스토리	115
<그림 4> <사씨남정기>의 플롯	135
<그림 5> <창선감의록>의 스토리	142
<그림 6> <창선감의록>의 플롯	161
<그림 7> <소현성록> 본전의 스토리	168
<그림 8> <소씨삼대록>의 스토리	169
<그림 9>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	201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고전소설의 플롯 교육 논의를 본격화하고 플롯 교육의 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해결하여 소설의 ‘기획’과 그 결과로서의 ‘형태’, 그것이 자아내는 ‘의미’를 통합하는 플롯 교육의 정초를 목적으로 한다.

‘플롯(plot)’은 소설론의 주요 용어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사건의 배열’이자 ‘행동의 모방’이라고 정의내린 이래 작품의 인과적, 논리적 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롤랑 바르트(R. Barthes)가 플롯에 대해 “의미의 열정”이라고 한 것을 피터 브룩스(P. Brooks)가 “의미에 대한(for)” 그리고 “의미의(of)” 열정이라고 구체화한 데서 보이듯 플롯은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독자의 열정이기도 하고 서사물이 내함하는 의미 자체의 열정이기도 하다.¹⁾ 작품의 의미를 내면으로 조직화하는 정신 활동이 되기도, 독자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내적 인식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플롯’이라는 용어는 작가의 구성과 독자의 재구성을 연결하는 용어로서 소설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문학의 본질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교육과정 ‘해설’에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였으나²⁾, 그 이후 교육과정부터는 ‘플롯’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다만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을 다루는 단원에서 플롯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 엿보일 따름이다.³⁾ 또한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다루

1) P. Brooks, *Reading for the plot*,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 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강, 2011, 45쪽.

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3) 그 다음 교육과정인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플롯 개념이 명시되지 않고 몇 가지 교육 내용에서 플롯 교육의 가능성이 확보될 뿐이다. 먼저 ‘(1) 문학의 본질’,

는 방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고정된 단계에 맞게 사건을 정리하는 활동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작품의 거시적 갈등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개별 작품의 독특한 의미와 형식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갈등의 구도나 결말과 같이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국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짜임이자 흐름으로서의 플롯 개념이 지니는 역동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의 국면에서 플롯 개념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개념이 지닌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플롯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창작과 비평에 있어 스토리나 구성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서사학의 시도들은 ‘플롯은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한다.⁴⁾ 플롯 개념을 결정하는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 빈도에 비해 그것의 실체에 대한 명징한 규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닌 잠재력이 충

‘(가) 문학의 특성’ 중 ② ‘문학이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 구조물임을 이해한다.’에서 문학이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틀(conceptual framework)’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미적 장치를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플롯 교육의 가능성이 확보된다.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② ‘내용, 형식, 표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작품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또한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작품의 구성 요소로서 내용, 형식, 표현의 의미 이해하기, 내용 측면에서 작품의 특성 이해하기, 작품의 형식적 특성 이해하기,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하기, 하나의 미적 구조물로서 작품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이해하기 등의 세부 내용이 덧붙여진다. ③ ‘작품의 주제는 주제, 구조, 맥락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됨을 이해한다.’에서는 주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적 구조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1997.)

최근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통해 플롯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4) 하지만 대넨버그는 서사 이론 및 실천에서 플롯의 복잡성과 가변성을 그것의 본질이자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플롯에는 그것을 환원해서는 포착할 수 없는 다원적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H. P. Dannenberg,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Plotting Time and Space in Narrative Fiction*, Univ. of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2008, 6쪽, 13쪽.)

분하다면 구체화와 명료화 과정을 통해 개념의 실질적 활용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롯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서사 형태에 관한 것이며 서사성의 정신을 포착하려는 계속되는 노력의 일환이다. 작품의 시간성을 변형하는 장치, 소설의 흥미를 창출하는 장치, 의미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를 지칭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이다. ‘구획’이라는 형태를 지칭하는 어의나 ‘음모’라는 의도성 및 기획성에 대한 함의는 모두 ‘플롯’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뒷받침한다.⁵⁾ 본 연구는 모종의 ‘기획’이자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로서 플롯 개념이 갖는 교육적 유용성을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플롯이 서사학적으로 정의하기 까다로운 용어일지라도 실질적인 서사 창작 및 분석에 활발하게 활용되듯이, 교육 국면에서도 플롯은 명제적 지식이나 방법적 지식으로 교육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활용되며 요청되는 지식이다. 작품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이러한 구성이 참신하고 흥미로운지 등 이야기 전개와 타당성과 합리성, 문학성을 따지는 것은 ‘플롯’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가능한 일인데, 학습자는 플롯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작품 감상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자연스럽게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결과가 자동화된 감상을 벗어나 정돈되기 위해서는 좀더 타당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 발단에서부터 결말에 이르는 순차적 틀로 작품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의 단순한 플롯 교육에서 벗어나 무엇에 주목해야 플롯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러한 플롯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러한 플롯이 왜 나타났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소설을 이루는 문학적 수식과 개성적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명시적 플롯 교육이 가능하다.

5) 1. (a)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토지
 (b) 측량된 토지 : 토지의 구획 단위
 2. 건물을 세우기 위한 토지 계획, 도표, 도식
 3. 서사물이나 극에서 행위의 개요를 이루는 일련의 사건들
 4. 불법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밀한 계획 : 계략
 (Houghton Mifflin Company, *The American Heritage college dictionary*,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1024쪽.)

이때 명시적 플롯 교육은 단순한 ‘스토리’에 대한 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플롯은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스토리가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구성 요소로 하고 내용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플롯은 형식적 측면과 효과를 중시한다. 플롯은 스토리에 논리와 필연성을 부여하여 스토리의 요소들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스토리에서는 잠재태로 존재하는 욕망, 담론, 갈등이 특정한 방향으로 추동되고 예각화되고 해결되는 ‘틀’이 바로 플롯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작품의 의미와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플롯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소설교육의 장에서 감상의 평가와 기준을 명료화하는 데에도 플롯은 중요한 기여를 한다. 서사 갈래의 다성성(多聲性)은 감상자로 하여금 분석의 초점을 분산되게 만드는데, 플롯은 이를 제한함으로써 특정한 형태로 서사를 파악하게끔 안내한다. 물론 플롯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서술들이 존재하기에 감상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서사의 형태와 주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 감상자의 주관이 ‘개인적 플롯’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독자의 개성과 주체적 감상은 독려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작품의 의미와 의도가 충분히 고찰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플롯 구성은 전체 서사의 형식적, 미적 완결성을 보여주는 플롯의 의의를 십분 활용하는 방식은 못 된다. 개인적 감상에 대한 소통과 합의를 위해서도 플롯 교육은 필요하다.

플롯 교육은 고전과 현대 소설을 막론하고 유의미하나 특히 고전 장편소설 교육에 있어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마련해줄 수 있다. 고전 장편소설은 비슷한 인물과 사건, 배경을 제시하며 천편일률적인 주제와 구성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스토리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들은 상당히 다른 미학을 자랑하고 있음을 ‘플롯’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다. 더욱이 고전 장편소설의 긴 서사적 편폭은 생략해도 좋은 아기자기하고 세세한 것을 나열한 결과가 아니라, 이야기의 개연성과 독자의 몰입을 위해 해명되어야 하는 사건과 감정에 대해 충실히 밝힌 결과이다. 장편소설의 이러

한 강점은 긴 분량에 압도되어 읽기를 포기하거나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단순히 따라가서는 포착되기 어렵다. 독자는 이야기를 읽으며 그 향방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얻기를, 가급적 그것을 효율적으로 얻기를 원한다. 이 요구는 이야기가 갖추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표현 및 인식 기제인 ‘플롯’을 통해 해결된다. 플롯 교육의 면에서 고전 장편소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채로운 플롯을 구성한다는 특징 때문에 적절한 제재로 판단되며, 고전 장편소설을 ‘플롯’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작품에 더 잘 몰입하게 하고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플롯이 소설 작품의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를 분명히 해 주는 개념인 만큼,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소설에서 ‘플롯’이 돋보이기 시작한 17세기 장편소설로 한정하고자 한다. 17세기는 소설사적 전환의 시기로 자아와 환경 세계의 관계가 다채로워짐에 따라 장편소설이 출현할 수 있게 된 시기이다.⁶⁾ 이 시기의 장편소설은 특히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였던 ‘가(家)’에 대한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⁷⁾ ‘가(家)’의 바람직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이 당대 사회의 사회적 의제로서 기능하였고, 이것이 장편소설을 통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쫓겨나게 그려져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학적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이때

6) 이전까지 소설사의 주류를 이루었던 전기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장편소설의 출현은 17세기의 새로운 환경을 감당할 소설 양식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철은 이에 대한 결과가 <홍길동전>을 시작으로 <구운몽>, <창선감의록>, <숙향전> 등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았다.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50쪽.)

한편 윤재민은 전기소설과 장편소설은 발생론적 기원이 다른 것이기에 장편소설은 전기소설을 극복했다기보다는 나름의 장르 규범을 토대로 출현한 양식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윤재민,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34쪽.)

7)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1에서는 17세기 전기소설에서 일대기 형식이 강화되고 초월적 질서가 개입되며 가족의 분리와 재회를 낭만적으로 형상화하고 남녀 관계를 복합적으로 형상화한 것에서 가문소설 출현의 내적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주요한 장치로 기능한 것이 바로 ‘플롯’이다.

17세기 장편소설들은 ‘가(家)’를 단순히 배경으로서 다루지 않고 사건의 근본 원인이나 인물이 의식하는 핵심 가치로서 다루었는데, 이는 욕망과 담론, 갈등과 같이 소설의 심층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플롯’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플롯에 주목하지 않고서도 17세기 장편소설이 이룩한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소설의 내용과 시대상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서사의 내적 형식과 그 효과에 주목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의 국면에서 소설 작품 자체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17세기 장편소설의 성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내하는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플롯 교육 내용이 요청된다.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플롯 교육에 대해 논하는 것은 동시대, 동일 계층의 작가에게서 창작된 작품들의 차이에 주목케 하여 작품이 담지하는 시대 인식과 세계관에 대해 섬세하게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17세기 장편소설 작품은 가부장제 질서의 회복과 공고화를 그린다는 공통점이 주로 지적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유사성이 많은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두 작품은 가문 외부의 악인과 그로 인한 일부 구성원의 혼암(昏暗)을 모범적인 구성원의 가문 중심적 태도로 극복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소설에는 서사 구조와 주제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미학적, 담론적 차이 또한 존재한다. 물론 학습자에게 낯선 고전소설과 ‘가(家)’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품 간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유효하나, 개별 작품이 감당하고자 했던 다채로운 환경 변화와 문제의식을 충분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플롯’에 주목한 섬세한 이해와 감상이 필요하다.

플롯은 서사의 형상이면서도 ‘당대를 사는 작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자 ‘독자에 의해 재구성을 기다리는 것’이며, 이념에 의한 굴절을 이미 겪었고 또 겪기를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의해 반영된 당대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플롯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독자도 자

신의 재구성에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플롯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인물’이나 ‘사건’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총체적인 분석이 어려울 때, ‘플롯’은 인물과 사건이 작품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교육적 소통의 장에서 플롯을 서사 형식의 이해 도구로 사용하고 플롯의 ‘기획’과 ‘효과’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II장에서는 플롯 교육의 이론적 전제를 살피고, III장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17세기 장편소설 네 편의 플롯상 특징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IV장에서는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설계를 위해 플롯 교육의 구도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다.

2. 연구사

(1) 플롯 및 플롯 교육 연구사

플롯의 연구사는 곧 플롯의 개념을 정초하기 위한 연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술한 것처럼 플롯 개념에 존재하는 복잡한 변수들로 인해 이 개념은 다양한 방향에서 고찰되어 왔고 논의들마다 주목 지점도 상이했다. 이에 대해 요약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플롯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Peri poietikes)>에서 이야기한 ‘mythos’로부터 출현했다. mythos를 ‘플롯’으로 번역함에 따라 ‘행위의 모방(the imitation of the action)’이자 ‘사건의 배열(the arrangement of the incidents)’이라는 mythos의 정의가 플롯의 대표적인 정의가 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일 어떠한 부분이 대체되거나 삭제되면 전체 플롯이 어그러지거나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며, ‘처음, 중간, 끝’을 포함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플롯을 뛰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생각한 가장 좋은 플

롯은 재인식(recognition; anagnorisis, 무지에서 지로의 변화)⁸⁾과 반전(reversal; peripeteia, 반대되는 상황으로의 상응하는 변화)⁹⁾이며, 특히 비극적 플롯에서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서로 관련될 때가 독자에게 연민과 공포의 경험(카타르시스)을 제공하기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였다.¹⁰⁾ 이렇게 플롯은 처음부터 ‘완결성’과 ‘내적 변화’,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포스터(E. M. Forster)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이때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변화를 개연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 필요한 ‘인과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전통적인 플롯 개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포스터는 “플롯이 너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 인물의 성격 형성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며, 인물 창조의 바탕으로 플롯을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롯의 의미를 축소하였다.¹¹⁾ 포스터는 소설의 중핵이 플롯보다 인물에 있다고 본 것이다.

8)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고대 그리스 비극(悲劇)에서,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선행해서 그 변화가 분명해지는 순간’을 가리킨다. (Aristotle, *Techne rhetorike; Peri poietikes*,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7, 378쪽.)

9) 어떤 일이 한 상태에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운명의 급전’이란 뜻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사건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급전시킴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충격과 함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견(discovery)’의 탁월한 방법으로 반전을 꼽았다. 인물의 운명이 행복의 상태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불행 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불행을 향하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행복 쪽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구성 방식을 통해 주제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불운-복합(fatal-complex)’, 후자를 ‘행운-복합(fortune-complex)’이라고 명명했다. 반전은 비극에서는 주인공을 파멸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 희극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대상이 제거되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에서 왕을 돕기 위해 도착한 사자(使者)에 의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왕의 정체에 드러나는 구성 방식은 동정심과 공포감을 동반하면서 운명의 비극성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는 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1092-1093쪽.)

10) Aristotle, 앞의 책, 2017, 383쪽.

11)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4, 107-109쪽.

이후 플롯 개념은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논의의 방향은 플롯의 내용에 주목하는 측과 형식에 주목하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내용에 주목한 논의들은 주로 플롯의 유형 분류에 관심을 기울였다. 굿맨(P. Goodman)은 진지한 플롯, 희극적 플롯, 소설적 플롯으로 유형 분류를 했고, 프라이(N. Frye)는 봄의 미토스(희극), 여름의 미토스(로망스), 가을의 미토스(비극), 겨울의 미토스(아이러니, 풍자)로 분류를 했다.¹²⁾ 크레인(R. S. Crane)은 플롯을 ‘사건(action), 성격(character), 사고(thought)’라는 세 요소의 복합체로 정의하며 ‘사건의 플롯, 성격의 플롯, 사고의 플롯’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다.¹³⁾ 프리드만(N. Friedman)은 ‘운명(fortune)의 플롯, 성격(character)의 플롯, 사고(thought)의 플롯’으로 나누고 그 아래 14개의 하위 유형을 설정하였다.¹⁴⁾ 프리드만의 유형 분류는 크레인의 성과에 기초한 것인데, ‘종속 플롯들’¹⁵⁾을 고안했다는 데서 발전이 있었지만 ‘플롯이 독자에게 유발하는 정서’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내용에 주목한 연구들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의 결과일 뿐 미지의 작품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

12) 프라이(Frye)가 전체 문학을 교차하는 유형론에 따라 분류하려 한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는 4가지 ‘mythoi’ 혹은 발생적 플롯을 명명한다. 희극(comedy)은 전형적으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이동을 포함하며, 보통 그것은 결혼이다. 로맨스(romance)는 모험이나 탐색 플롯이고, 비극(tragedy)은 어떤 사람이 추락하여 가족이나 사회의 이산을 가져올 때 그 개인을 강조한다. 아이러니(irony) 혹은 풍자(satire)는 사회나 사회 규범과의 투쟁을 재현한다. (S. S. Lanser,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d. Roland Greene and Stephen Cushman. 4th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045쪽)

13) R. S. Crane,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e Jones*,” 최상규 역, 「플롯의 개념」,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14) 김진경, 「플롯의 유형별 지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N. Friedman, “Forms of the Plot,” 최상규 역, 「플롯의 제 형식」,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15) 운명의 플롯 아래에 사건(action) 플롯, 애상적(pathetic) 플롯, 비극적(tragic) 플롯, 징벌의(punitive) 플롯, 감상적(sentimental) 플롯, 감탄의(admiration) 플롯 등 6개를 두었다. 성격의 플롯 아래에는 성숙의(maturing) 플롯, 개심의(reform) 플롯, 시험의(testing) 플롯, 퇴보의(degeneration) 플롯이 있다. 사고의 플롯 아래에는 교육의(education) 플롯, 계시(revelation) 플롯, 감정적(affective) 플롯, 환멸의(disillusionment) 플롯이 있다.

하고자 형식에 주목한 논의들은 플롯 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데 공을 들였다. 프로프(V. Propp)가 31가지 ‘기능(function)’ 혹은 ‘행위(action)’의 변함 없는 순서를 고찰한 이래로 사건의 연속과 그 관계망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브레몽(C. Bremond)은 프로프가 상정한 순서의 불가역성과 논리적 상관성을 바탕으로 플롯의 구조를 고안하였는데, 이는 프로프의 결과론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기능이 복수의 후속 기능을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한 결과이다. 그는 “불변의 것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진척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변의 것은 사건의 상태에 대한 서사적인 허식”이며 “중요한 것은 인물이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물에게 하나의 가능성이 열린 후 그것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기본 시퀀스를 도식화하였다.

그런가 하면 플롯의 ‘문법’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의도 있다. 파벨(T. G. Pavel)은 문학 플롯의 변형 문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그레마스(A. G. Greimas), 토도로프(T. Todorov), 브레몽의 모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레마스로부터는 ‘서사 프로그램’ 개념을, 토도로프에게서는 ‘서사적 내재화(embedding)’ 개념을, 브레몽에게서는 ‘서사적 가능성(possibility)’ 개념을 채택하였다. 그는 플롯 전개, 인물이나 인물군의 기능, 플롯과 그 의미의 연결에 있어 자신이 세운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더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⁶⁾ 그러면서 플롯과 인물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가 연관되는 단순하고 명백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ove’, ‘problem’, ‘solution’, ‘auxiliary(보조)’, ‘tribulation(고난)’, 접두사 ‘pro-’와 ‘counter-’ 등의 용어를 가지고 수형도 구조를 띤 모형을 설계하였다.¹⁷⁾ 이때 ‘move’라는 용어는

16) Thomas G. Pavel, *The Poetics of Plot : The Case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Oxford : Manchester Univ. Press, 1985, 13쪽.

17) 파벨이 이 용어를 바탕으로 세운 도식은 인물이 맞이하는 장애와 그가 취하는 행동의 관계를 나타낸다. 파벨은 브레몽의 체계를 수정하여 근본적인 서사 단위를 “행동, 조치(move)”라고 하였다. ‘move’는 ‘문제(problem)’와 ‘해결(solution)’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하나의 ‘move’는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보조(auxiliary)’를 포함한다. (Matthew Clark,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he “Iliad””, *Phoenix* 55-1, 2001, 1-8쪽.)

플롯 문법에서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으로, 게임 이론에서 차용하였다. 게임 이론에서 ‘move’는 특정한 전략 상황이나 특정 규칙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행위이다.¹⁸⁾ 파벨은 이 용어를 플롯 분석에서 하나의 단위로 삼았다. 또 ‘인물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옳거나 그른 것’인 ‘maxim’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는데,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를 플롯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이다.¹⁹⁾

한편 프로프가 말한 ‘기능’을 언어학적 기술로만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콘텍스트를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논의도 있다. 카팔레노스(E. Kafalenos)는 ‘기능’의 콘텍스트를 보완하여 인과 시퀀스로 재개념화하면서, 특정 사건으로 인한 ‘불안정’을 시작점으로 삼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과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뒤이어지는 시퀀스를 틀로 내세웠다.²⁰⁾ 이를테면 ‘결혼’이라는 사건은 이야기에 따라 ‘보상’으로서도, ‘처벌’로서도, ‘영웅의 탄생’의 계기로서도 기능하기에 ‘결혼’만으로 ‘기능’을 상정하는 것은 해당 이야기의 구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카팔레노스는 ‘결혼’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능 대신 ‘보상’과 같이 맥락을 함축하는 더 구체적인 기능들로 프로프의 체계를 재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프로프를 위시한 구조주의 플롯 연구들이 ‘기능’의 언어적 형식에 치중하느라 서사의 미학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 보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플롯을 내용과 형식 중 어느 한 측면에 주목해 보던 논의들이, 최근에는 언어적 형식에서 콘텍스트나 감정적 측면을 도출할 수 있

18) Thomas G. Pavel, 앞의 책, 1985, 17쪽.

19) 파벨은 또한 문학작품이 그것이 창작된 지역과 역사적 시기와는 별도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이상과 규범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인간 존재의 가치, 열정, 행위에 관한 내용들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영구성’의 층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벨은 Jan Alber의 논의에 대한 리뷰에서 서사의 ‘부자연스러움’을 알레고리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사의 미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Thomas Pavel, “Book review(Unnatural Narrative: Impossible Worlds in Fiction and Drama by Jan Alber, 2016)”, *Modern Philology* 115-1, 2017.)

20) Marie-Laure Ryan, “Book review(Narrative Causalities by Emma Kafalenos, 2006)”, *Comparative Literature* 59-4, 2007.

계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체계 기능 언어학이나 장르 문식성 연구의 흐름과도 유사성이 있는데, 다만 ‘플롯’ 연구는 서사성과 문학성을 지닌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사성과 문학성을 지닌 ‘허구 텍스트’에서 플롯이 하는 역할을 보다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대넨버그(H. Dannenberg)의 논의가 있다. 그녀는 플롯과 허구 세계의 구성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 주목하였다.²¹⁾ 플롯은 ‘가능한 설계’의 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이야기 사건이 독자에게 드러나는 방식과 가상 세계의 꺾진성이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데, 이 순환 고리가 독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간 플롯의 고정성에 주목하는 논의와 역동성에 주목하는 논의가 논쟁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고정성과 역동성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롯은 이야기에 독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목적인 의미의 패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플롯의 내용은 ‘결과’로서, 플롯의 형식은 ‘과정’으로서 고찰되었는데, 대넨버그의 논의에 따라 거시적인 내용의 ‘흐름’을 안내해주는 형식을 명명할 수 있게 되었다. 랜서(S. S. Lanser)도 ‘negative plotting’²²⁾이라는 개념을 통해 플롯의 결합이 상호 대조와 협상, 투쟁을 바탕으로 의미 있어지는 방법²³⁾에 대해 논의하면서 플롯 패턴과 의미의 관련

21)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22) S. S. Lanser, “‘The Shadow Knows’: Negative Plotting and Feminist Thought.” Keynote Lecture, 2nd ENN Conference, Kolding, 2011에서 논의한 개념이다. Colin Burnett에 의하면 ‘negative plotting’이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플롯이다. (Colin Burnett, “ICE POISON (Midi Z, 2014): Realist Transparency and Dedramatization in the Contemporary Art Film”, August 23, 2014 (<https://colinatthemovies.wordpress.com/2014/08/23/ice-poison-midi-z-2014-realist-transparency-and-dedramatization-in-the-contemporary-art-film/>))

23) 이 방법이란 플롯이 상호대조를 통해 의미 있어지기 위해 서로를 ‘shadowing’하는 것을 말한다. ‘shadowing’은 다른 관점과 협상하거나 해석적 선점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 <빙독(Ice Poison, 2014)>같은 현실적인 서사의 지속되는 플롯 패턴은 주인공이 자신의 사회적 붕괴를 극복하려는 것인데, 이 시도를 대조되는 플롯 패턴이 굴복시키려 하는 변증법적 측면이 나타난다. (Colin Burnett, 앞의 자료.)

성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서사에서 플롯이 핵심 개념임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인과성’과 ‘논리성’, ‘시간성’이라는 특성이나 ‘사건 조직의 틀’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나, 플롯이 자아내는 문학적인 효과나 구체적인 플롯 이해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플롯은 스토리와 구분되며 독자에게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각광받아 온 개념인데, 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단지 서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만 플롯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플롯의 문학적 효과와 플롯 이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플롯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플롯 교육에 관한 논의도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크게 소설 교육과 관련하여 플롯 개념의 위상을 밝힌 연구, 플롯을 소설 이해의 기제로 보고 교육론을 전개한 연구, 플롯을 소설 창작의 기제로 보고 교육론을 전개한 연구, 문학교육의 장을 넘어선 플롯 교육을 모색한 연구의 네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설 교육과 관련해 플롯의 개념과 위상을 밝힌 연구들은 스토리와 구분되는 플롯 개념의 교육적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최시한²⁴⁾은 소설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절차는 독서 과정에서의 독자의 반응과 체험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미숙한 독자들은 흥미 위주의 사건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들이 보다 객관적인 형식을 파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플롯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플롯 교육의 주요한 방법으로 ‘요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소설을 읽는 것은 곧 소설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행위가 비평적, 반성적으로 진행됨을 통찰하였다. 요

24) 최시한, 「소설 교육의 한 방법 - 구성(플롯)을 중심으로」, 『배달말교육(모국어 교육)』 4, 배달말교육학회, 1986; 최시한, 「사건의 개념과 갈래 : 서술 층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최시한, 「사건의 개념과 갈래(2) : 스토리 층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약의 결과인 ‘줄거리’는 ‘구성(플롯)’과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학습자에 의해 요약된 줄거리에는 구성의 결과 혹은 효과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요약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며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플롯 교육의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줄거리 요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송기섭²⁵⁾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문학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문학의 양식적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중 하나로 ‘플롯’을 고찰하였다. 플롯은 연결의 논리뿐 아니라 계층구조(hierarchy)의 논리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요성의 차등을 인식하고 핵심 사건을 파악하여 줄거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플롯 개념의 위상을 밝힌 연구 중에는 플롯 교육의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가 있다. 류종렬²⁶⁾은 플롯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6차 교육과정기의 플롯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의 플롯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는 6차 문학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문학의 원리나 이론 학습’을 수단으로 작품 감상 능력의 함양과 지속적 심화를 꾀했다고 하며, 이를 위해 ‘방법과 시각의 다양성’과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교육 내용 중 하나가 ‘플롯’이라고 하며 이것이 어떻게 교과서를 통해 구현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교과서에서는 플롯의 정의, 단계, 종류 또는 유형, 요소를 중심으로 플롯 이론을 도입하고 있으며, 플롯의 정의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토스(mythos)’ 개념과 E. M. 포스터의 개념, 러시아 형식주의의 개념을 종합한 ‘문학적 효과를 야기시키는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들의 결합’이라는 풀이가 보편적임을 확인하였다. 이 논의는 여러 번의 교육과정 변천을 통해 다소 간과되었던 플롯 교육의 구현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플롯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양윤모²⁷⁾도 6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문학 이론을 포함하고 있음을

25) 송기섭, 「소설교육의 세 요소와 분석적 이해」,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26) 류종렬, 「『문학』 교재 플롯이론을 통한 소설의 독해 지도연구」, 『외대어문논집』 14,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9.

고려하며, “문학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개연성과 인과성”을 중심으로 플롯을 통해 소설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는 문학 이론의 교육에 있어 플롯이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는 교과서의 ‘준비 학습’ 및 ‘학습 활동’에서 개연성과 인과성에 관련된 항목들을 분석하여 개연성 개념 이해에 혼란을 주거나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연성 판단이 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품 이해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이해, 작품과 유사한 현실 상황 찾기, 줄거리 요약 및 중요 사건 선별, 인과 관계에 따른 사건 재배열, 감상문 쓰기 및 소설 다시 쓰기의 단계로 된 지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는 플롯 교육이 독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시한의 논의와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런가 하면 김동환²⁸⁾은 플롯을 비롯한 주요 이론적 개념들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의 재설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 이상 플롯 교육이 교실 현장에서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현실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플롯 교육의 핵심 목표와 관련 개념을 설정하려는 거시적 지향을 띠고 있는 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플롯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플롯을 소설 이해의 기제로 보고 교육론을 전개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플롯 개념을 거시적으로 고찰한 바 있는 최시한²⁹⁾은 앞서 살핀 논의에서 구체적인 플롯 교육 활동은 물론 그에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플롯을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의 빈 곳을 채우는 주체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 결과이다.

27) 양윤모, 「소설 이론 교육과 실제 - 인과성과 플롯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28) 김동환, 「소설 교육을 위한 이론 개념의 정착과정 및 재설정 방안 연구」,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29)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0.

최인자³⁰⁾는 서사를 사고 형식으로서 바라보며, 서사 특유의 장르 특성을 고려한 사고력을 ‘서사적 사고’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이 기존의 ‘문학적 사고력’보다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하며 서사적 사고의 추론을 논리적 추론, 정보적 추론, 가치 추론으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화하였다. 지금까지 플롯을 이해하기 위한 추론 활동으로는 형식적 접근과 주제적·의미론적 접근이 있었는데, 전자는 고립된 서사 단위로 행위를 분석하고 그것의 결합 관계를 따졌다면 후자는 담화의 질서에서 주제적 의미 질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자의 관점에서 주로 행해져 온 플롯 교육에는 후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가능 세계 이론’을 바탕으로 인물별 행위의 원인과 그가 지향하는 가능 세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플롯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와 친연성이 있다.

김태호³¹⁾도 ‘사건들에 관한 플롯을 구성하여 인간이 삶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고 양식’을 뜻하는 ‘서사적 사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서사교육이 서사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서사적 사고를 통한 삶의 인식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롯 구성은 소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삶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사적 사고가 사건의 ‘지각’, 관련 사건의 ‘연상’, 플롯의 ‘구성’, 개연성의 ‘반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을 플롯으로 구성하는 서사적 사고에 활용되는 인식적 틀 또는 패턴을 ‘서사적 도식’이라고 하였다. 서사적 도식은 리쾨르가 칸트에 기반하여 ‘서술적 기능의 도식’에 대해 설명한 것과 유사하지만 서사텍스트의 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자의 의식 층위에서 작용하는 인식 틀로서, 사회문화적 조건, 특히 서사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방식의

30)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연구」,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7.

31) 김태호, 「서사적 사고의 작용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김태호, 「서사적 도식의 의미 및 작용 방식과 서사교육적 수용 방향 연구」, 『청람어문교육』 50, 청람어문학회, 2014.

인과를 구성하며 서사적 전통의 변주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에서 인물이 사건의 연쇄를 플롯화하는 방식이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플롯 구성의 주체를 ‘사고하는 독자 내지 학습자’에 두는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고전소설 교육 논의에서는 장미³²⁾가 플롯을 독자의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하나인 <사씨남정기>의 플롯 교육을 기획하여 주목할 만한데, 플롯을 독자의 능동적인 탐색을 유도하는 ‘조직화 원리’로 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갈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층적 갈등은 표층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모순된 정보를 이해하게 해 주기 때문에 더 역동적이고 개연성 있는 구조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독자의 재구성’을 강조한 이 논의의 기조에 공감하면서, ‘작가의 구성’ 차원에도 이미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아내는 기법과 의미, 거시적 형태를 두루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자의 재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한 논의 중 극을 대상으로 한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우수진³³⁾은 <오디세이아>의 서사 구조를 재구성하는 소집단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를 밝혔다. 10년에 걸친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회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는 40일에 걸친 사건 전개만 다루고 있는 작품 <오디세이아>를 각 소집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재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인물의 성격을 변형시키는 방식, 기존 작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관철하는 방식, 연극적 재미를 더하는 방식 등의 재구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재구성의 과정에는 원작에 대한 해석과 비평이 자연스럽게 덧붙여졌음을 지적하며, 플롯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재구성이 원작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층 심화시키고 구체화한다는 점을

32) 장미, 「심층적 갈등 중심의 플롯 이해 교육 연구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33) 우수진, 「소집단 활동을 통한 <오디세이아>의 연극적 읽기 - ‘LG 나는 배우다’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7.

보여준 연구이다.

소설 교육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롯 유형 분류를 제시한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임수현³⁴⁾은 마리-로어 라이언(Marie-Laure Ryan)의 ‘대안 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서사 텍스트에서의 갈등 유형을 분류하고 <지봉전>, <정향전>, <운영전>, <상사동기>의 갈등 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학교육 논의는 아니지만 가능 세계 이론을 바탕으로 고소설의 플롯 분석 방법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

장소진³⁵⁾은 플롯이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의미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또한 수제트와 파블라가 동시 진행되는 순차적인 유형(전향적 지연, 환유적)과 수제트가 과거의 파블라를 추적하는 역진적인 유형(후향적 지연, 은유적), 수제트가 한편으로는 과거의 파블라를 추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후의 파블라와 같이 진행되는 역전과 순차가 병행되는 유형(전-후향적 지연, 제유적)으로 플롯을 분류하였다. 이는 소쉬르의 통합적(syntagmatic) 관계와 계합적(paradigmatic) 관계의 분류를 토대로 ‘지연’의 플롯과 ‘탐색’의 플롯을 구분한 것이기도 하다.

안성수³⁶⁾는 프라이가 주장한 미토스와 플롯의 관계를 토대로 플롯 유형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그 의미를 논하였다. 프라이는 처음 상황과 마지막 상황의 상태와 간극을 바탕으로 희극, 로망스, 비극, 아이러니와 풍자의 플롯을 구분하였는데, 희극적 플롯의 경우 회복적 상승 운동을 하여 마지막 상황이 첫 상황보다 나아지는 개선의 플롯이고, 로망스의 경우 첫 상황과 마지막 상황이 둘 다 이상화되었거나 매우 좋은 낭만적 플롯이며, 비극의 경우 파국적 하강 운동을 하여 첫 상황이 마지막 상황보다

34)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35) 장소진, 『한국현대소설과 플롯』, 한국학술정보, 2007.

36) 안성수, 「플롯의 미적 기능과 유형적 의미」, 『백록어문』 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2.

나은 타락의 플롯이고, 아이러니와 풍자의 플롯은 사태가 계속해서 현실적이거나 절망적인 개선의 결핍 플롯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설 <배따라기>를 ‘로망스’의 플롯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숙명적 비극성 위에 건축된 특징이 있다고 보았고, <광염소나타>는 ‘비극’의 플롯이지만 숙명적 비극성으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운수 좋은 날>은 제목, 기대와 불안 심리, 결말, 주제의 네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의 플롯이라고 보았고, <날개>는 역사적 자아의 회복을 꾀하는 역동적 희극의 플롯이라고 보았다. 네 작품은 고전적인 플롯 개념에 일치하는 단순한 플롯은 아니지만, 그러한 플롯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의미의 심화를 추구한 복합 플롯으로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전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난 복합적 유형에 대해 통찰한 점이 본 연구의 ‘복합형 플롯’의 설정에 시사점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플롯이 본래 작가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창작 기제’로서의 성격에 주목한 논의가 있다. 정래필³⁷⁾은 이야기 창작에 있어 플롯이 사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면뿐만 아니라 주제 형상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며, ‘플롯구성(emplotment)’의 원리를 통한 이야기 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문학이 아닌 다른 텍스트에도 ‘플롯’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며 이 개념을 활용한 교육 내용을 연구한 논의도 있다. 김성진³⁸⁾은 1990년대 이후 서사 이론에서 허구적 서사물과 비허구적 서사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며, ‘플롯’이라는 이론적 개념 또한 문학뿐 아니라 역사 서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플롯을 구축하는 비판적 읽기의 예를 제시하였다. ‘숨은 인과성’을 재구성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층 플롯을 전경화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플롯을 구축하는 독자의 활동을 중시하였다.

최근에는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다른 교과와 텍스트에서 플롯을 논의하는

37) 정래필, 「플롯구성을 활용한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38) 김성진, 「서사 이론 읽기 교육의 소통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경우도 있다. 유준희³⁹⁾는 과학 교과에서 서사 구성 방법이 간요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들며 ‘플롯’ 혹은 ‘스토리텔링’ 개념을 동원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플롯이 소설뿐 아니라 과정을 나타내는 모든 텍스트의 구성 원리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렇게 플롯 개념은 문학교육의 장을 넘어 국어과의 다른 영역에서나 다른 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17세기 장편소설 연구사

고전소설의 플롯에 있어 17세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한문 전기소설에 편중되어 있던 소설사에 국문소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장편화된 전기소설이나 보다 다채롭고 새로운 사건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17세기 소설에 대한 논의는 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⁴⁰⁾ 이때부터 본격화된 장편소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⁴¹⁾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

39) 유준희, 「과학적 설명모형의 구성과 서사교육에서 이야기 구성의 융합적 관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9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40)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전기소설과 관련하여」, 『다국 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88;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경향성과 그 소설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김대현, 「17세기 소설사의 한 연구-전기소설의 변형 야상과 장편화 과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장효현, 「전기소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8; 정출현, 「17세기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대비적 위상」, 『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8;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9; 서인석, 「조선 중기 소설사의 변모와 유교 사상」, 『민족문화논총』 4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41) 신형기, 「장편소설론 전개의 양상」,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14-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

로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면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관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사회경제적 실상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굴절되며 굴절의 방식은 서사 나름의 논리화 방식에 기대고 있으므로 작품의 단편적 특징이 아닌 서사학의 논리화 기제인 ‘플롯’에 입각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사에서 플롯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거시적 서사 구조의 차원으로 논의되어 구체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틀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작과 전과』, 아세아문화사, 1994;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대학사 1996; 남상득, 「조선조 후기 장편 대하소설 형성의 한 양상 - <청백운>과 <구운몽>,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 대비를 통하여」, 『한어문교육』 5, 한국언어문학 교육학회, 1997;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전성운, 「17세기 장편국문소설과 명말 청초 인정소설의 상관성」, 『중국소설논총』 17, 한국중국소설학회, 2003; 장시광, 「17세기의 소설 장르에 나타난 애정에 대한 욕망과 그 속성」, 『온지논총』 13, 온지학회, 2005;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 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차충환, 「고전장편국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 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08;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 연구 - 삼대록계 장편가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 『비평문학』 35, 한국비평문학학회, 2010;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 문화학회, 2011; 이동재, 「대하소설의 창작 방법론」,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2012; 이희수,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족치료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49, 동양고전학회, 2012;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사, 2012; 최수현, 「국문장편소설 공간 구성 고찰 - <임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는 이 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교육의 국면에서 더욱 필요하다. 고전 장편소설은 특히 그 편폭이 넓을수록 교육적 논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조광국⁴²⁾, 한길연⁴³⁾ 등에 의해 편폭이 넓은 고전 대하소설의 교육적 필요성 및 교육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조광국이 지적하듯 국어 교과서에서 고전 대하소설을 다루지 않는 것은 고전소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가 주장한 대로 ‘문화론적 시각’과 ‘정전 논의’와 관련해 고전 대하소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긴 분량의 장편소설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의 연관을 파악해야 하는지 등의 관점과 분석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플롯’이라는 기제가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고 논의 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마련한 후 일반화 가능한 플롯 교육 방안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자 플롯 교육을 위한 제재로 삼은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의 연구사를 살펴보고 플롯 교육과 관련된 쟁점을 도출해보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시도가 다양한 해석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홍길동전>의 경우 주제 및 작가 의식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하는데,⁴⁴⁾ 이는 <홍길동전>의 서사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모순적이

42) 조광국, 「문학 교과에서 고전대하소설의 활용 -<옥루몽>, <하진양문록>, <유효공선행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43) 한길연,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고전문학과 교육』 3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44) <홍길동전>의 주제 또는 작가의식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하, 『창작과비평』 11-4·12-1, 창비, 1976·1977; 이문규, 「<홍길동전>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이강옥, 「<홍길동전>의 제문제와 그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이윤석,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박일용, 「이본 변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서술시각의 중층성」,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이상구,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작가의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52, 국어교육학회, 2013.

라는 지적⁴⁵⁾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⁴⁶⁾ 최근의 논의 중 김동욱은 <홍길동전>을 영웅소설로 보게 되면 비유기성과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홍길동전>에 천상계에 대한 서술이 없고 당면한 문제가 현실 공간에서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일사소설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를 제출하였다. 김민혁은 홍길동이 조선에서 겪은 사건과 율도국을 정벌하는 사건이 비유기적이라고 지적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형을 활용해 심층적 의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서사 구조의 통일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도들과 목적을 함께하면서 ‘플롯’ 개념을 중심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분석 틀을 확립하여 작품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코자 한다.

<사씨남정기>에 대해서도 플롯 개념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해석의 문제가 존재한다. 황병홍은 앞서 본 장미의 논의에서 심층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플롯 분석을 시도한 것과 궤를 같이 하며 표면적으로 교씨의 악행을 중심으로 흐르는 권선징악의 서사가 이면적으로는 사씨를 중심으로 한 성숙의 구조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⁷⁾ 그런데 사씨를 중심으로 플롯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사씨를 당대 가치를 내면화하

45)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46) 김일렬,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 『어문학』 17, 한국어문학회, 1972; 안창수, 「반항과 순응의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986;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엄기주,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박일용, 앞의 글, 2002; 김동욱, 「<홍길동전>의 유형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김민혁, 「<홍길동전>의 이중 서사 구조와 통일 서사 구조」, 『한국언어문화』 6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등.

47) 황병홍, 「<南征記>의 構造와 意味 : 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0,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에서는 처첩간의 갈등에 주목하기보다 심층적인 갈등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목적론적 감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선 화음/권선징악적 구조가 아닌, 성숙의 중첩적 병렬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보다는 ‘경험’이 갈등 해소의 핵심으로 본 결과이다. 이 구조로 분석할 때의 장점은 가정과 국가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서포가 유교의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던 점을 뒷받침한다.

면서도 보편적인 주체성을 구현하는 인간으로 보느냐⁴⁸⁾ 아니면 당대의 규준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인간으로 보느냐⁴⁹⁾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사씨남정기>에는 축첩제에 대한 비판이 사씨를 매개로 하여 역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본 논의⁵⁰⁾와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이념과 욕망의 대립보다 공감과 감동의 측면에 더 주목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지적한 논의⁵¹⁾도 <사씨남정기>의 핵심 의미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게 한다. 본 연구도 보다 총체적인 시각으로 작품의 논리 구조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리기 위해 ‘플롯’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볼 것이다.

<창선감의록>⁵²⁾의 경우에도 <사씨남정기>와 유사한 해석의 문제가 발

48) 류준경은 사씨남정기의 해석이 가부장제 옹호 대 가부장제 비판의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하며 그 이유가 창작 의도와 실제 구현된 서사 세계에 상치되는 면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관음찬에 주목할 때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씨와 아황, 여영의 대화에서 사씨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해명되는데 이는 미진한 논리이며, 관음찬에 주목하여 보상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해할 때 이 미진함이 보충된다고 하였다. (류준경, 「여성 주체성을 향한 여정 : 「사씨남정기」 다시 읽기」, 『한문고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다른 논문에서 류준경은 ‘사씨’ 형상에 주목하여 이 시기 소설사의 전변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씨남정기>는 여성이 향유하던 국문소설에 남성의 의도가 결합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면서, 주인공 ‘사씨’를 모범적 ‘여성’을 넘어서 보편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이상적 ‘인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여성 교화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남성의 세계 인식을 담는 소설이기에 <사씨남정기>는 한문으로도 번역되어 남성들에게 향유되었다. 그러나 도덕적 주체성을 구현하는 형식은 드러나면서도 가부장제 질서를 인정한 까닭에 여성의 주체성에 있어서는 모순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사씨의 형상은 <창선감의록>의 남채봉 등에 영향을 주는데, 사씨가 지닌 보편적 주체의 면모는 사라지고 통속적으로만 향유되는 양상을 보였다. (류준경,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 -사씨 형상의 형성배경과 의미」,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49) 조광국, 「<사씨남정기>의 사정옥: 총부(家婦)캐릭터 -예제(禮制)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50)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51) 이승복,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52)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창선감의록> 연구사 중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소설에 드러난 가문 의식과 윤리 규범을 살핀 부류와 텍스트 해석과 관련하여 소설 속 상징, 서사구조, 미의식 등을 연구한 부류를 살펴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

생한다.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규범성과 교훈성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읽는 독법이 지배적이었다가, 인물의 욕망이 서사 건인의 중심축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⁵³⁾ 이지영은 도덕군자형 인물인 화진이 지닌 은밀한 욕망에 주목하였고, 주형예는 작품 구조가 윤리성 자체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상하는 인과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서정현은 군담 화소에 보이는 화진의 비규범적 모습에 주목하여 기존의 해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양면적 형상에 대한 보

사로는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동아시아문화연구』 2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양민정, 「초기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송성옥, 앞의 글, 2002;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이원수,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 부가의 고민」,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김위경,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양상과 정치의식」,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이지영, 「조성기 사유와 <창선감의록> 작자의식의 간극」,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오춘택, 「18세기 소설비평 -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구운몽> <춘향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4, 민족어문학회, 2011 등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사로는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사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적 구성」,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정규복, 「<창선감의록>과 <원감록> 및 <화진전>의 상관성」, 『순천향어문논집』 2, 순천향어문학회, 1993; 이성권,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를 통해서 본 초기 가정소설의 세계」, 『우리어문연구』 11, 우리어문학회, 1997; 박일용, 「<창선감의록>의 구성 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병권,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학적 의미」,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김현주, 「가문소설 투기 대목의 화소결합방식과 유형화」,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임태식, 「<창선감의록>의 창작 저변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정혜경,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눈물의 작용과 의미」,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무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등이 있다.

53) 이지영, 앞의 글, 2011; 주형예, 「조선후기 소설 장(場)에서 구성된 지식 :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담론의 실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서정현, 「<창선감의록> 군담의 특징과 작자의식」,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다 타당한 해석을 피하는 의도에 십분 공감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플롯을 통해 <창선감의록>을 보다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소현성록>에서도 플롯과 관련해 대극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가부장제를 옹호하고 남성의 가문 창달 의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개별성이 강한 각 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본 논의들이 있는가 하면⁵⁴⁾ 이렇게 느슨한 플롯이나 불분명한 주제의식은 여성주의적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⁵⁵⁾ 이에 대해 작품에 모순되는 표현 방식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분석⁵⁶⁾도 있고, 작품의 의미를 조직하는 중심축의 설정 문제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것이라는 분석⁵⁷⁾도 있다. 분분한 해석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승하며 본 연구에서도 다른 작품에 비해 넓은 편폭을 자랑하는 <소현성록> 연작 전체를 공정하고 유기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 시간을 다루는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그 시간성을 구조화, 논리화하는 개념인 ‘플롯’에 주목할 것이다.

이상의 작품별 연구자들은 대체로 작품 해석의 정합성을 따지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논의들 간 해석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플롯을 결정하는 기저 요인으로 상정한 ‘욕망’, ‘담론’, ‘갈등’ 중 무엇을 작품의 의미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비중과 의미를 보다 온당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주제의 타당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해석의 객관적 도구로서의 플롯을 중점으로 하여 소설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4) 송성욱, 앞의 글, 2002; 서인석, 앞의 글, 2009 등.

55) 정창권, 앞의 글, 1999; 김문희, 앞의 글, 2010a; 김문희, 2010b 등.

56)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57)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 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및 성인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플롯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룬다.

주지하다시피 고전 장편소설은 복수의 주인공이 펼치는 넓은 서사적 편폭을 자랑하고 다양한 성격과 욕망을 지닌 인물을 통해 다채로운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당대의 문화적 정황도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고 수십 명의 인물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라는 뜻을 지닌 ‘고전(古典, classic)’이라는 말에 문학성의 측면에서도, 문화의 측면에서도 깊이 부합한다는 점에서 고전 장편소설은 풍부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전 장편소설은 제재를 고려하여 ‘가문소설’이나 ‘가족사 소설’, 발견된 곳의 명칭을 고려하여 ‘낙선재본 소설’, 분량을 고려하여 ‘고전 장편소설’, ‘대하 장편소설’, ‘국문 장편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⁵⁸⁾ 이 중 본 연구에서 ‘고전 장편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전’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현대 장편소설과 구분지어 논의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고,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 대하소설의 편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학사적으로나 교육적 가치로 보나 중요한 작품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문’이나 ‘한문’과 같은 말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원작이 한문본일 가능성도 있는 작품을 포섭할 수 있고, ‘가문’이나 ‘가족사’와 같은 명칭이 아직 충분히 정착된 용어가 아니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고전 장편소설’이라는 용어는 특히 삼대록 형식의 연작을 파생시킴으로써 작품 분량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킨 작품들을 포괄하는 데 적절하다.

고전 장편소설 가운데서도 본 연구에서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7

58)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3-4쪽.

세기의 장편소설이다. 소설사에서 17세기가 중요한 전환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전기소설의 내용적 변모,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공존과 국문소설의 비약적 성장, 장편소설의 활발한 향유 등의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란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동요와 자본주의적 단초가 나타난 시기라는 점이 17세기 소설의 변화 및 그에 내포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17세기 장편소설로 꼽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17세기 소설의 범위에 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 조동일은 <금방울전>, <양풍전>, <숙향전>, <소대성전>, <구운몽> 등을 1기 영웅소설이라 하며 17세기 소설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정병욱은 《수택본 전기집》에서 17세기의 유통 소설 기록을 찾았다. 진경환은 <유연전>, <운영전>, <상사동기>, <최척전>, <김영철전>, <주생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홍길동전>을 17세기 소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임성래는 <숙향전>, <소대성전>, <임장군전>을 17세기 소설로 꼽았고, 최기숙은 <숙향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한강현전>, <소현성록>이 17세기에 창작,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⁵⁹⁾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확장된 편목을 보이면서도 17세기의 주요한 담론 소재인 ‘가(家)’의 문제를 충실히 다룬 작품인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 네 작품은 고전소설 교육의 제재로 자주 활용되며, 17세기 이후 소설사의 가장 주된 흐름을 대변하는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에 속한다.⁶⁰⁾ 그러면서도 17세기에 초점화되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 ‘가문 승계’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제의 장편소설이 이후 거듭된 발전을 이룬다는 점 또한 연구 대상 선정

59)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1992;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최기숙, 앞의 책, 1999; 정길수, 앞의 책, 2005.

60) 박일용, 앞의 글, 2001, 173쪽.

의 주요한 이유이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부부갈등, 부자갈등, 처첩갈등, 형제갈등 등은 근본적으로 가문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것이다. 가문 구성원의 욕망과 갈등은 복잡한 사건을 야기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해결되지 않고 대를 이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가문의 흥망성쇠에 대한 특정 입장이 작품의 형태를 결정하고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 장편화가 추동되면서 삼대록계 소설로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을 ‘장편소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는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가문소설’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문소설’은 ‘가(家)’를 배경으로 하여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가문 내 갈등 또는 가문 간 갈등을 다룬 소설로 정의된다. 가문 창달, 중앙집권화, 삼강오륜 회복 등의 목적의식을 엿볼 수 있는 가문소설은 17세기 중후반 이후에 꾸준히 창작되었다.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 많으나 몰락양반보다는 벌열양반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태는 삼대록, 양문록, 세대록 등으로 확장된 편목을 보이며 구조적 총체성을 지니고 있어 고대소설과 근대소설을 잇는 가교라고도 평가된다.

그러나 ‘가문소설’이라는 명칭은 제재를 한정하는 명칭이어서 다채로운 갈등이 나타난 경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홍길동전>의 경우 ‘가(家)’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웅소설’로 불리고 있어서 ‘가문소설’이라는 명칭으로 포섭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작품의 다양한 면모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가문소설’보다 ‘장편소설’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물론 ‘장편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분량상의 기준을 고려하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장편소설은 통상적으로 200자 원고지 700매 이상의 분량을 갖출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⁶¹⁾ 이는 150매를 기준으로 하는 단편소설의 분량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중간의 분량을 갖춘 소설을 ‘중편소설’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홍길동전>

6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앞의 책, 757쪽.

과 <사씨남정기>는 장편소설이라 할 수는 없고 단편에서 중편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⁶²⁾

하지만 작품의 분량만으로 단편, 중편, 장편을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단편적인 구분이다. 장편소설은 내용상의 충실성을 고려한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길이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⁶³⁾ 흔히 ‘장편소설’로 번역되는 ‘novel’은 현실을 재현하는 목적과 함께 내적인 완결성과 충실한 서술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인간 중심주의적 장치들의 완벽한 복합체”를 담은 형식으로서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다룰 것이 요구되는 개념인 것이다.⁶⁴⁾ 이는 단순히 브리콜라주(bricolage)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긴 묘사와 종횡무진 분기하는 서사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분량을 갖게 되는 “분량상의 장편소설”과는 차이가 있다.⁶⁵⁾ 이런 상황에서는 장편소설을 “특정한 ‘세계’에서 특정한 ‘문제’를 설명하고 특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서사 전략”으로

62) 정길수는 17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소설의 분량이 확대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16세기 후반까지의 작품은 원고지 3-40매 안팎을 유지하다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분량이 2배가량 늘어난 <주생전>, <최척전> 등의 작품이 나타나고, 17세기 전반에는 다시 그것의 2배 분량인 <운영전>, <동선기> 등이 나타났다. 17세기 후반에는 또다시 그 2배 분량인 <사씨남정기> 등이, 그리고 <사씨남정기>의 2배 이상 분량의 <창선감의록>과 <소현성록> 등이 창작되었다. 시간 순서를 정확하게 고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분량 확대의 추이를 벗어나는 작품이 존재하기는 하나, 장편화 경향이 거시적인 흐름임을 부정하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고찰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장편화 현상이 고도의 플롯 의식을 요청하였다는 분석은 본 연구에서 17세기 장편소설의 플롯에 주목하게 된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정길수, 앞의 책, 2005, 15-18쪽)

정길수는 해당 시기의 주요 작품의 분량도 산정하였는데,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의 분량은 각각 원고지 550매, 1050매, 2100매로 산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홍길동전>의 분량을 산정하였는데, 분석 텍스트로 삼은 경판 30장본의 경우 공백 포함 약 28000자, 원고지 약 134매로 산정되었고, 이 본 중 분량이 가장 긴 김동욱 소장 89장본의 경우 공백 포함 약 50000자, 원고지 약 238매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전>은 분량 면에서는 단편에서 중편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63) Ian Reid, *(The) Short story*, 김종운 역, 『단편소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83-99쪽.

64) Franco Moretti, *Modern epic*,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302쪽.

65) 김영찬, 「오늘의 ‘장편소설’과 ‘이야기’의 가능한 미래」, 『어문논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426쪽.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해 보인다. 17세기 소설의 장편화 경향이 <홍길동전>과 <구운몽>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 요구였다는 논의⁶⁶⁾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까닭은 서사의 ‘길이’보다는 ‘깊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깊이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본이 많고 원본을 규정하기 어려운 고전소설에 특히 유용하다. 실제 분량보다 작품이 지닌 내용적 편폭과 깊이를 더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17세기 장편소설로는 <숙향전>, <구운몽> 등을 더 들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17세기의 특징적 현상인 ‘가(家)’라는 서사 세계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네 작품을 우선 고려하고자 한다. 총체화 기획과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실제 세계와 서사 세계의 재현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편이 유리하기에 <구운몽>, <숙향전>과 같이 환상 공간이 두드러지는 소설보다는 ‘가(家)’가 문제의 중심이 되는 소설에 주목하겠다는 것이다.⁶⁷⁾

이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활용할 텍스트는 경판 30장본⁶⁸⁾ <홍길동전>, 김춘택 한역본 <南征記>(김만중, 이래중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의 번역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彰善感義錄>(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의 번역 참고)은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소현성록>(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의 교주 참고)이다.

66)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 한국전기소설사』, 월인, 1999, 396쪽.

67) <구운몽>도 최종적으로 한 가문의 구축을 그린다는 점에서 ‘가(家)’의 문제를 열마간 다루지만(신재홍, 「김만중 문학에서 어머니의 장르별 형상화와 그 의의」, 『독서연구』 48, 한국독서학회, 2018) 구체적인 생활공간으로까지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68) 경판 30장본은 7종의 경판계열 방각본 중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서 다른 경판계열 이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윤석, 「경판 <홍길동전> 축약의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그러나 장편소설의 플롯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김동욱 소장 89장본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분량의 이본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사에 접근하는 버리로서 플롯 개념이 유용하다고 보고, 플롯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을 문학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왕의 플롯 연구 및 플롯 교육 연구를 토대로 학습자가 주목해야 할 플롯 개념과 플롯의 구성 요소 및 구성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학습자가 소설 이해와 감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이력 있는 플롯 이해의 예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플롯의 개념을 정리하고 플롯 분석을 위한 틀을 정립하였다. 브룩스(P. Brooks)를 비롯하여 독자의 ‘플롯화’ 과정에 주목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플롯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최근의 관점을 통합한 후에, 플롯의 ‘형태’에 대한 통찰과 실제 세계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비교적 선명한 방법론을 제시한 대넨버그(H. Dannenberg)의 논의를 참고하여 플롯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넨버그는 브룩스의 기초처럼 플롯의 개념을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플롯화의 역동적 과정’으로 확장시키면서, 플롯을 분석하는 독자의 인지적 정신 작용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면서 마리-로어 라이언의 가능 세계 이론과 ‘몰입’ 개념을 활용하여 “깊이와 흥미를 붙여넣는 대안적인 가능 세계”⁶⁹⁾가 삶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플롯 패턴을 사용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대넨버그가 상정한 플롯 패턴은 ‘우연의 일치(coincidence)’와 ‘반사실(counterfactuality)’이라는 두 가지로, 인물의 궤도를 서사적 시공간 속에 플롯화하는 방식이다. ‘수렴(convergence)’과 ‘발산(divergence)’라고도 표현되는 두 패턴은 특정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패턴은 독자의 인

69)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45쪽.

지와 감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의 세계와 서사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고 하였다. 대넨버그는 플롯을 단순히 이야기의 순서를 새로이 제시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플롯 패턴이라는 실체에 주목하여 분석의 방법을 정교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플롯 분석의 틀로 활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틀은 사건의 선택과 강조, 인과의 조직, 배열이라는 표면적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있으나 ‘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욕망’, ‘담론’, ‘갈등’이라는 기저 요인을 설정하여 플롯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여지를 확보하였다. 욕망과 담론은 ‘가능세계 이론’에서도 ‘소망 세계’와 ‘이념 세계’ 등으로 고찰된 바 있고, ‘갈등’ 또한 해당 세계 간의 충돌로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넨버그의 틀에 접목하기에 어색하지 않다고 보았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정리한 플롯의 유형과 결정 요인을 바탕으로 17세기 장편소설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7세기 장편소설에서 ‘플롯’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먼저 고찰한 후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을 분석한 것이다. 의미역이 다소 넓고 모호하여 그동안 작품 분석에 명징하게 적용되기 어려웠던 ‘플롯’ 개념의 효과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플롯 분석을 마친 후 IV장에서는 고전소설의 플롯을 효과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단계화한 플롯 교육을 설계하였다. 플롯 교육이 ‘서사 구조화 교육’과 ‘주제 탐구 교육’의 차원에서 여러 작품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탐구학습’의 모형을 참고하여 플롯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학습자가 플롯의 ‘기획’과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플롯을 탐색하며 가설을 설정하고, 플롯의 결정 요인 분석과 플롯 유형 이해를 통해 가설을 해명한 후, 플롯 해석을 정교화함으로써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경로를 구체화하였다.

II.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의 이론적 전제

1. 플롯의 개념

플롯 논의의 역사적 흐름에서 알 수 있듯 플롯 개념은 서사의 구조적 실체라는 의미에서 독자나 저자의 구조화 작용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왔다. 이를 쿠코넨(K. Kukkonen)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⁷⁰⁾

(1) 고정된, 보편적인 구조로서의 플롯.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모든 이야기 사건(story event)의 배열이 고려된다.

(2a) 점진적인 구조화(조직화)로서의 플롯. 이야기 사건과 원인, 결과 사이의 연결이 독자가 그것을 지각할 때 고려된다.

(2b) 저자가 설계한 부분으로서의 플롯. 작가가 특정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사를 구조화한 방식이 고려된다.

위의 세 개념 중 (1)은 플롯을 서사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고정된 패턴으로 본 결과로, 프로프나 토도로프를 필두로 한 형식주의 및 구조주의에서 이야기 사건을 전형적인 시퀀스에 귀속시키거나 혼란에서 평형으로의 재구축으로 파악하는 등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 구조주의 서사학에서는 플롯을 ‘스토리(story)’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기도 하였고 러시아 형식주의의 ‘수제(sjuzhet)’ 개념의 영역어(英譯語)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⁷¹⁾ 이러한 개념

70) Karin Kukkonen, “Plot”,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2014.3.

71)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가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사건(fabula)’에 대비되는 ‘텍스트가 재배열하고 재현하는 순서에 따른 사건(sjuzhet)’을 플롯 개념으로 제안한 것,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이 이를 ‘histoire’과 ‘recit’이라는 개념으로 모사하며 플롯의 메커니즘 혹은 ‘문법’을 확인코자 한 것, 대표적으로 즈네트(Genette)가 스토리의 연대기적 사건들(histoire)이 텍스트의 시공간에 나타나는 순서나 방식(recit)으로 변형되는 시간적 자질을 탐구한 것 등은 모두 구조주의 이론에서 플롯의 의미 생산력을 고찰한 결과이다. (S. S. Lanser, 앞의 글, 2012, 1045쪽)

정의는 플롯을 서사물에 내재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반면 (2)에서 ‘a’와 ‘b’로 나뉜 개념은 공통적으로 플롯이 인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 본다. (2a)는 플롯을 독자가 서사를 읽으며 ‘구조화’하는 사고 활동이라고 본다. 플롯이 고정되어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독자의 정신 활동에 의해 구성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2b)는 플롯을 작가가 서사의 특정 효과를 위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본다. 독자를 의미 있는 서사로 이끌기 위한 작가의 정신 활동이 플롯의 정교한 패턴을 통해 예고된다고 보는 것이다.⁷²⁾

소통론의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보는 경우 플롯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1)의 개념은 지양의 대상이 된다. 속성 중심의 문학교육을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더욱이 (2)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1)에서 (2)로 플롯 개념이 확장되어 온 역사는 문학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플롯 개념 또한 그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2)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 또한 적지 않다. 독자의 인지 과정이나 저자의 표현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인지의 대상이자 표현의 결과는 결국 실체로서의 서사이다. 인지와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적, 개별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의 개념은 큰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역동성은 의미의 구성력을 담보하는 ‘무엇’을 상정하지 않고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 점은 (2)의 개념을 표방하며 플롯 논의를 전개한 브룩스(P. Brooks) 또한 (1)의 개념을 상당히 고려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브룩스는 독자가 서사를 읽을 때의 의미화 과정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고 하며, 플롯이 독자의 능력(competence)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⁷³⁾ 하지만 그는 ‘플롯 읽기’와 ‘플롯 짜기 또는 플롯화(plotting)’가 모두 ‘텍스트를 통한 전진 진행 욕망’의 기제를 갖는다며⁷⁴⁾ 독자의 인지 과

72) Karin Kukkonen, 앞의 글, 2014.3.

73) P. Brooks, 앞의 책, 2011, 71쪽.

74) 위의 책, 13쪽, 71쪽.

정을 플롯의 표현 과정과 구분하지 않는가 하면, 실제로 플롯을 분석할 때에는 등장인물의 욕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주목하였다. (1)에 의거한 구조주의적 플롯 분석을 표방하고 있는 세그레(C. Segre)도 “독자가 이야기 진행과 작중 인물의 동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체소나 내포적 의미의 움직임도 따라간다.”⁷⁵⁾라고 하며 플롯의 구조와 독자의 의미추적 과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렇게 (1)과 (2)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되더라도 상호 조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실상에도 부합하고 온당하다고 볼 수 있다.

플롯은 ‘기획’이다. ‘기획’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에 플롯에 대한 논의는 기획의 방식에 그칠 수 없고 언제나 그 효과에 대한 논의까지 포괄해야 한다. 어느 한 측면만 다루는 것은 플롯이 지니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플롯 교육의 방향 또한 ‘기획’ 차원의 의도와 방식, ‘효과’ 차원의 성취와 개별화 가능성을 포괄해야 한다. 이분화된 플롯 논의의 역사는 보다 총체적인 플롯 개념을 통해 발전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핀 (1)과 (2)의 개념을 토대로 ‘기획’과 ‘효과’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플롯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사건의 인과적 배열’과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라는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사건의 인과적 배열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는 앞서 본 (1)의 내용을 중심으로 (2a)에서 언급한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포스터(E. M. Forster)가 내린 플롯에 대한 유명한 정의이기도 하다.

75) C. Segre, “Analysis of the Tale, Narrative Logic, and Time,” 최상규 역, 「이야기 분석, 서사 논리 및 시간」,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115쪽.

‘플롯’에 대한 초기의 인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mythos’ 개념에서 비롯되었음을 I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mythos’는 ‘스토리(story)’라는 낱것의 뼈대에 시작, 중간, 끝이라는 미학적 단위를 붙여 변환한 것을 말한다.⁷⁶⁾ ‘사건의 배열’로 요약되는 이러한 개념을 이어받으며 포스터는 플롯이 지닌 ‘인과성’을 강조하였다. “스토리는 시간의 연속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인 반면 플롯은 “인과 관계를 강조한 서술”이라고 하며, ‘왕이 죽자 여왕이 죽었다’가 스토리인 반면 ‘왕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는 플롯이라고 구분한 것이 자주 회자되는 예이다. 포스터는 이에 덧붙여 ‘왕비가 죽은 까닭이 왕이 죽은 슬픔 때문이라는 것이 나중에야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간직한 플롯이라고 하며, 스토리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라고 묻지만 플롯에 대해 우리는 ‘왜?’라고 묻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였다.⁷⁷⁾

이렇게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플롯 개념은 스토리와는 변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토도로프는 스토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⁷⁸⁾하는 내용 차원의 것이라고 하였고, 방브니스트(E. Benveniste)는 스토리를 ‘말하는 이의 어떠한 개입이 없이 일정한 순간에 발생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스토리는 행동과 속성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시간적 연속으로 여겨진다. 반면 플롯은 그 어의(語義)부터가 ‘작은 부분의 땅이나 부지’, ‘건물에 대한 토지 계획’과 같이 범위 제한과 경계 표시, 구분과 순서의 설정을 일컫고 있어⁷⁹⁾ 작가에 의한 개입이나 인위적 변형을 강하게 함축한다. 경우에 따라 플롯 개념이 스토리(story)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서사 담론(discourse)이라는 용어로 불릴 때도 있으나⁸⁰⁾ 기본적인 의미는 ‘스토리를 재료로 삼아 미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76)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77) E. M. Forster, 앞의 책, 1984, 98-100쪽.

78) Tzvetan Todorov, *Poétique de la prose*,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25쪽, 51쪽.

79) P. Brooks, 앞의 책, 2011, 34쪽.

80) H. Porter Abbot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학지성사, 2010, 101쪽.

이렇게 플롯이 스토리와 다른 ‘더 복잡한 것’이라는 시각은 많은 플롯 이론들이 공유하는 점이다. 포스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 형식주의자 보리스 토마셰프스키(Boris Tomashevsky)와 빅토르 쉬클로프스키(Viktor Shklovsky)는 스토리로 이해되는 파블라(fabula)의 선형적인 연대기가, 플롯으로 이해되는 수제(sjuzhet)에 의해 재배열된다고 하며 스토리 구조의 전복에 주목하였다. 플롯의 문법 혹은 랑그(langue)를 만들고자 한 구조주의적 시도도 스토리를 치밀하게 만드는 플롯의 기능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¹⁾

그렇다면 플롯은 어떻게 스토리를 더 복잡하게, 미적으로 변형하는가? 이는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가 담고 있듯, ‘사건’이라고 하는 스토리의 핵심 요소와 ‘인과’라고 하는 원칙, ‘배열’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건은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경험되는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의 전이”⁸²⁾, “하나의 사태로부터 또 하나의 사태로의 변화”⁸³⁾이며, 세계의 전반적인 사태에 변화를 일으킨다.⁸⁴⁾ 그러나 ‘서사물이란 그 어느 쪽도 다른 한 쪽의 필수 전제이거나 당연한 귀결이 아닌 최소한 2개의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 및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한 것’⁸⁵⁾이라는 제럴드 프랭스(G. Prince)의 정의대로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서사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복수의 사건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때 ‘인과성’은 플롯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 또는 개연적 인과 관계”⁸⁶⁾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81)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82) Mieke Bal, *Theorie van vertellen en verhalen*,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31쪽.

83) S. Rimmon-Kenan, *Narrative fiction*,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2003, 34쪽.

84) Marie-Laure Ryan,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85) G. Prince, *Narratology*,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개정판)』, 예림기획, 2015, 10쪽.

의 필연성 또는 개연성은 철학적 보편성과 구분되는 문학적 보편성으로 규정되며 문학의 허구성을 정당화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호 간에 개연적 또는 필연적 인과 관계 없이 이어지는 플롯’을 ‘에피소드적인 플롯’이라고 부르며 이는 ‘무능한 시인의 구성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시인의 배우에 대한 배려’⁸⁷⁾라고 한 이유는 강력한 인과 관계로 엮인 플롯의 완결성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과성은 사건의 ‘배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과성은 의미의 질서가 되어 그에 따른 합당한 배열 방식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처음, 중간, 끝을 갖춘 합당한 사건 배열을 통해 소설은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⁸⁸⁾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롯을 훌륭하게 구성하려면 아무데서나 시작하거나 아무데서나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배열에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할뿐더러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통찰을 하였다.⁸⁹⁾ 이때의 크기란 단번에 관찰할 수 있어 통일성과 전체성이 시야에 들어오는 크기, 길이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여야 한다고 하였다.⁹⁰⁾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플롯에 대해 고찰한 것이지만 이는 서사 일반의 플롯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플롯은 특정한 의도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스토리의 사건을 생생하게 만들고자 ‘인과성’에 기초한 통일성을 구축하고, 또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열’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를 플롯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롤랑 바르트의 통찰처럼 서사물에서는 ‘연속성(consecutiveness)’과 ‘결과(consequence)’가 혼동되므로 선후관계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 그렇기

86) Aristotle, 앞의 책, 2017, 370쪽.

87) 위의 책, 374쪽.

88) 오택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47-48쪽.

89) Aristotle, 앞의 책, 2017, 367쪽.

90) 위의 책, 368쪽.

때문에 인과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부족한 플롯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프랭스는 인과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암시하는 것이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해당 인과 관계에 대해 부인할 여지를 확보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⁹¹⁾ ‘인과성’과 ‘배열’은 해당 서사의 의도와 효과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조밀한 인과 관계의 명시가, 정교한 배열만이 우수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⁹²⁾

또한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는 물론 서사 구성 차원의 정의이지만 그 배경에는 ‘의도’라든지 ‘효과’와 같이 작가와 독자의 정신 활동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쿠코넨이 정의한 (1)의 개념은 결국 (2a)뿐 아니라 (2b) 또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온당하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플롯 개념의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

플롯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서사 구성 차원에서의 정의가 서사 전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와 관련된다. ‘인과’라는 말은 텍스트적 징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발견을 기다리고, 또 작가로부터 기획된 것임을 앞서 보았다. 이렇듯 플롯은 작가와 독자에 의해 구성 및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결과로 산출되

91) G. Prince, 앞의 책, 2015, 65쪽.

92) 관련하여 ‘플롯’ 개념을 너무 좁게 규정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플롯형 소설’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등 ‘플롯’을 긴장감을 유도하는 서사 구조로만 좁혀 보게 되면 긴장감을 늦춤으로써 모종의 효과를 자아내고자 한 서사의 플롯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게 된다.

플롯 개념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갖추는 경우 플롯을 갖추지 못했거나 플롯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소설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무플롯(plotless)’이나 ‘나쁜 플롯(poorly plotted)’이라고 간주했을 법한 서사들이 최근에 등장하며 사회적 차이, 문화적 저항, 혹은 언어적 다양성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것이 그 예이다. (S. S. Lanser, 앞의 책, 2012, 1045쪽.)

는 것이 바로 ‘의미’이다. I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플롯은 “의미에 대한 (for) 열정”이자 “의미의(of) 열정”으로 이야기된다. 대넨버그도 플롯이란 이야기에 독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목적인 의미의 패턴이라고 하였다.⁹³⁾

플롯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의미 또한 즉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가가 플롯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고 또 독자에 의해 구축되기가 기대되는 의미는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의미이다. 대넨버그는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플롯과 플롯화의 정신 작용은 포괄적이고 비 유기적인 전체를 환원적이고 선택적인 체계의 구성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⁹⁴⁾라고 하며 플롯이 ‘유기적 의미 부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지점에서 ‘의미의 유기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플롯이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서사 세계’에 관한 의미이다. 그런데 이 서사 세계는 실제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구축되는 일종의 ‘가능 세계’이다. ‘가능 세계(possible world)’란 가정적(假定的) 언어 상황에서 현재적 실제 현실과는 다른 대체적 현실(alternative world)이 존재할 때 이를 상상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⁹⁵⁾ 플롯은 ‘가능 세계’로서의 소설을 정립시키는 구조이며, 이와 관련해 가능 세계 이론을 소설의 플롯과 접목시킨 마리-로어 라이언은 플롯이 “신과 같은 존재인 작가에 의해 구축된 허구 세계에 하향식으로 부여되는 전반적인 기획”이며, “인물의 행동은 이 허구 세계 내에서 스토리를 펼쳐낸다.”⁹⁶⁾라고 한 바 있다.

가능 세계 이론에서 상정하는 서사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계는 일정 정

93) P. Brooks, 앞의 책, 2011, 45쪽.

94)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3쪽

95) 최성민, 「서사텍스트의 가능세계에 대한 서사공학적 연구 - 소설 서사와 디지털 게임 서사의 수용 과정 비교를 통하여」, 『시학과 언어학』 25, 시학과 언어학회, 2013, 194쪽.

96) Marie-Laure Ryan 편, *Narrative across media*, 조애리 외 역, 『스토리텔링의 이론, 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한울, 2014, 301쪽.

도의 교집합을 지닌 관계이며, 이는 서사 세계가 실제 세계를 충실하게 재현하든 혹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재현과 거리가 멀든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 세계는 텍스트에 의해 제시되는 의미론적 우주(semantic universe) 그 자체의 묘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연적 체계와 실제의 텍스트적 체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파악되어야 한다.⁹⁷⁾ 이 때문에 ‘가능 세계’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에 접근하는 것은 형식적 자율성과 현실 반영력을 두루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⁹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 세계 이론에 입각하여 플롯의 유기적 의미 부여 작용이 서사 세계 자체의 질서와 실제 현실의 질서를 함께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플롯이 ‘사건의 인과적 배열’에 유기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서사 세계와 현실 세계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기능은 물론 서사를 보다 흥미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서사성(Narrativity)’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서사성’은 서사의 질적인 측면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프랭스가 ‘더 나은 이야기를 말하는, 다른 것보다 서사적인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흔히 서사성은 묘사, 평가, 일반화, 논평, 판단, 논쟁, 메타텍스트적 언급 등과 대비되는 것이며, 사건이나 행동처럼 지시 대상의 시간적 흐름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는 서사에서 사건과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속성이나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한 부가적 서술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부가적 서술은 스토리로 요약되지는 않지만 ‘시간적·공간적 구성물’로서 서사를 한층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설명하는 문장은 사건 간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고, 평가하는 문장은 사건이 주인공 공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여한다.⁹⁹⁾ 서사성은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존재의 진술을 통해 개개인을 거주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통해 이 세계를 역사 속에 놓이게 하

97) Marie-Laure Ryan, 앞의 책, 1991, 109쪽.

98) 나병철, 「가능세계와 메타픽션—이청준의 메타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26쪽.

99) Marie-Laure Ryan 편, 앞의 책, 2014, 22-23쪽.

고, 실제감을 전달한다. 서사가 단순한 가능 세계의 연속이라는 것에 암묵적으로나 외현적으로 반대할 수 있게 만드는 텍스트의 능력이 서사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¹⁰⁰⁾

이렇게 ‘확장된 서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서사를 보다 흥미 있게 만들어 주는’ 플롯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통찰하며 라이언은 플롯이 되기 위해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개인의 존재를 서술하는 명제와 이런 존재들에게 속성을 부여하는 명제에 기초를 두고 서사 세계를 창조한다.
- 2) 사건과 행위로 인한 상태 변화로 서사 세계의 시간적 차원을 만들어 내고 역사적 흐름 속에 자리매김한다.
- 3) 서술된 사건을 둘러싼 목적, 계획, 인과관계, 심리적 동기 등의 해석적 네트워크가 사건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사건이 플롯으로 변한다.

위 세 가지 조건에 덧붙여 라이언은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조건에 대해 윌리엄 라보프(William Labov) 등의 담론 분석가들의 ‘이야기 능력 원칙들(principles of tellability)’에 관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요약, 지향, 행위의 얹힘, 평가, 결과 혹은 해결, 종결부’ 등이 포함된다.¹⁰¹⁾ 이렇게 플롯은 ‘사건의 인과적 배열’을 넘어 서사 세계를 완결된 세계로 만들고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플롯의 유기성 확보 방식이 이러한 기능을 촉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건의 인과적 배열’과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라는 두 가지 개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0) Marie-Laure Ryan, 앞의 책, 1991, 112쪽.

101) Marie-Laure Ryan 편, 앞의 책, 2014, 23-24쪽.

첫째, ‘사건의 인과적 배열’로서의 플롯은 작가의 ‘유기적 의미 부여’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고, 독자가 스스로 ‘유기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둘째, 작가의 입장에서 플롯은 실제 세계를 바탕으로 구성한 유기적 의미를, 서사 세계라는 가능 세계를 통해 구조화한 ‘결과’이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서사 세계 내의 통일성과 완결성은 물론 실제 세계와의 관계를 따져 유기적 의미를 부여해 해석해야 하는 ‘미지’의 대상으로서의 구조이다. 이 때문에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정의는 ‘유기적 의미 부여’의 표현 결과이거나 이해 단서여서 두 개념은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누어 다룬다 하더라도 각각은 ‘플롯’이라고 하는 실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플롯의 주요 유형

앞서 살펴본 플롯 개념과 서사에서 기능을 소설 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의미화 장치로서 유형화된 플롯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플롯 개념의 연구사가 보여주듯 플롯의 유형은 플롯 논의의 결과로서 중추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수많은 플롯 형태를 유목화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플롯 유형의 분류는 내용에 따른 임의적 분류이거나, 플롯의 세부 구성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서사의 특징이 필연적으로 특정 유형의 플롯을 요청했음을 설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며, 플롯의 거시적 의미를 구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분류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것이 플롯을 자의적이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플롯의 특징에 의해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것이자 플롯의 의미를 충분히 함축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플롯을 설정하고, 이 유형이 단독으로 활용되는 ‘단일형 플롯’과 상호 교섭하는 ‘복합형 플롯’을 상정하여 배제되는 플롯이 없도록 완결성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일형 플롯

개별 작품의 플롯상 특징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개방성을 갖추고 있어서 유기적 의미 부여를 구속하지 않되, 다른 유형과는 배타적 관계를 지니는 분석 틀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형 분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넨버그(H. Dannenberg)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대넨버그의 논의는 플롯의 ‘형태’와 ‘효과’를 밀접하게 관련지은 것으로 본 연구의 기조에 부합한다. 대넨버그는 플롯이 이야기에 독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목적인 의미의 패턴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플롯의 패턴을 우연의 일치(coincidence)와 반사실(counterfactuality)이라는 용어로 이분화하고, 서사의 결말과 그에 이르는 과정의 관계를 고려해 플롯의 의미와 매력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대넨버그는 그간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던 ‘플롯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플롯 패턴의 통시적인 변형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우연의 일치 플롯은 “서사의 경로와 서사 세계 내에서의 인물들의 연결을 미적 구조로서 완결시키고 통합하는” 수렴(convergence)인 반면 반사실의 플롯은 “서사 경로를 분기시켜” “열린 패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창출하는 발산(divergence)으로 논의된다.¹⁰²⁾ 우연의 일치 플롯의 예로는 처음에는 분기하지만 결국에는 집합하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 결말은 ‘재인식’이나 ‘재결합’이다. 반사실의 주요한 형태는 인물의 삶의 궤적을

102)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2쪽.

다른 방식으로 도식화하여 대안적인 결과나 극적인 삶의 변형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와 ‘반사실’의 플롯은 소설이 어떻게 ‘서사성(narrativity)’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 현상이기도 하다.¹⁰³⁾

특정 형태가 준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일정한 방향의 연속을 자아내는 것이 한 시대의 여러 작품을 통해, 또 여러 시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넨버그는 기존 문학사가 우연의 일치 플롯에서 반사실의 플롯으로의 일방향적인 변화로 여겨지는 데 문제의식을 품고, 두 가지 패턴이 각 시대별로 다소간의 변주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두 형태가 개별 작품의 플롯을 판단할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대넨버그의 틀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우연의 일치(coincidence)’와 ‘반사실(counterfactuality)’이라는 용어가 작품의 내용을 한정한다거나 플롯 분석의 결과를 단순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플롯 유형의 일반적 효과와 의미에 대한 정보는 ‘왜 그러한 플롯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롯의 유형 분류 자체가 아니라 플롯을 바탕으로 개별 작품의 의미를 보다 합리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두 용어는 플롯의 ‘기획’과 ‘효과’를 명징하게 파악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플롯의 내용을 국한하는 용어인 ‘우연의 일치’와 ‘반사실’ 대신에 플롯의 형태와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인 ‘수렴(convergence)’과 ‘발산(divergence)’을 채택하고, 이 용어를 특정 효과를 자아내는 ‘원인’으로서, 그리고 플롯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하나의 ‘수식어’로서 사용할 것이다.

103) 위의 책, 5쪽.

① 수렴형 플롯 : 질서 실현의 플롯

‘수렴(convergence)형 플롯’은 서사의 경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합되는 경향을 보이는 플롯을 말한다. 대넨버그의 플롯 패턴 중 “2개 이상의 명백히 무작위적인 사건이 시공간 속에서 기묘하거나 충격적으로 연결된 집합”¹⁰⁴⁾으로 정의되는 ‘우연의 일치(coincidence)’와 관련이 있다. 서사 세계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상호 연관을 맺는 인물 간 관계를 창조하며 근본적으로는 집합하는 경향이 있는 플롯 형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수렴형 플롯은 커모드(Frank Kermode)가 말한 ‘끝의 감각’을 주는 닫힌 결말을 통해 표상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이전 소설에 가장 일반적이었고, 19세기의 ‘결혼으로 끝나는 결말’에서 그 전형이 구성된 바 있다.

이러한 플롯의 형태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그 전통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 ‘친족의 만남’이라는 구심점이 수렴의 힘을 발휘하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언급한 ‘anagnorisis(재인식 혹은 발견)’¹⁰⁵⁾과 관련이 된다. 어떠한 관계에 대해, 언제 재인식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오이디푸스 왕>처럼 의도치 않은 근친상간의 비극이 그려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의 재결합은 환희의 요소로 여겨지며 이러한 형태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 소설들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이후 시기에는 이러한 플롯이 배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넨버그는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었다고 본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혈연관계나 친분관계가 재인식의 대상이었지만, 포스트모던 소설에서는 유동적 상태에 있는 유사(analogical) 관계가 재인식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104) 위의 책, 93쪽.

105)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잡한 플롯의 요건 중 하나로 ‘anagnorisis’를 이야기하였다. 이는 무지의 상태에서 앎의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며, 등장인물이 상대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anagnorisis’가 플롯과 행동에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하며, <오이디푸스 왕>처럼 급반전(peripeteia)을 수반할 때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훌륭하다고 하였다.(Aristotle, 앞의 책, 2017, 376-380 쪽.)

수렴형 플롯은 기본적으로 ‘A. 이전의 관계(역사)’, ‘B. 서사 세계의 시공간에서 인물들의 우연한 마주침(교차)’, ‘C. 서로의 정체에 대한 인물의 재인식(발견)’을 포함한 인지적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B’와 ‘C’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플롯의 서사적 힘을 구성하지만, 전통적인 수렴형 플롯에서 ‘A’는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A와 B는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식의 지연을 통해 ‘서스펜스(suspense)’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넨버그도 개괄한 바 있듯 사실 수렴형 플롯은 18세기 이후 비현실적이거나 낡은 것으로 조롱받아 왔다. ‘이미 정해진 질서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수많은 변수가 제거되고 예정된 귀결이 나타나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렴형 플롯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바탕으로 소설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대넨버그의 주장이다.

수렴형 플롯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는 ‘친구’, ‘사랑’, ‘혈통’, ‘적’ 등 독자 자신의 경험을 자극하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인위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사실주의적’인 특성을 인정받는다. 이런 사실주의적 특성은 친숙함을 통한 몰입에 용이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또한 인물의 인식을 지연시키거나 관계에 대한 서사적인 설명을 숨기고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독자는 서사 세계에 숨겨진 질서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게 되고, ‘연결’의 특성에 의한 정체성의 명확화나 귀가, 소속 등의 사건으로 그 궁금증은 해소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수렴형 플롯은 독자의 실제 세계를 서사 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의미와 흥미를 자아내는 주요한 플롯 유형이라 할 수 있다.

② 발산형 플롯 : 대안 탐색의 플롯

‘발산(divergence)형 플롯’은 서사의 경로가 여러 방향으로 이산(離散)되는 경향을 보이는 플롯으로, 자신의 삶이 달리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물의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반사실(counterfactual)’과 관련이 있다. 반사실은 “실제 세계의 사건에 대응하는 사실성의 다양한 버전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 사건의 연속에 대한 이론적인 변이나 변화”¹⁰⁶⁾로 정의된다. 이는 ‘만일 ~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브레몽(C. Bremond)의 플롯 이항대립에서도 그 징후를 찾을 수 있다. 브레몽은 각각의 인물에 의해 소망되거나 분투되지만 서사 세계에서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사건도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으로 플롯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반사실은 또한 가능 세계 이론의 주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직설법적 가정문(indicative conditional)’과 달리, 일어난 사실과 반대이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경우 사용하는 ‘가정법적 조건문(subjunctive conditional)’이 ‘반사실적 가정(假定)’을 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발산형 플롯은 실제 세계와는 다른 ‘대안 세계’를 탐색하는 내용을 위해 활용되는 플롯 형태라 할 수 있다.

발산형 플롯은 ‘단힌 결말’을 전형적 특징으로 하는 수렴형 플롯과 달리 열린 결말의 형태를 취하며, 서구 소설사에서는 모더니즘의 징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넌버그는 이것이 20세기에만 특화된 현상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소설에 이미 ‘반사실’이라는 수사가 사용되었고, 18세기에는 자전적 생각의 실험 차원에서 반사실이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다니엘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1719)에서만 하더라도 ‘배가 물가 가까이 떨어진’ 사실에 대해 ‘배가 물가 가까이에 난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인물의 모습이 등장한

106)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10쪽.

다. 19세기에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e),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등의 소설에 전형적인 행복한 결말이나 수렴적 플롯 대신 ‘대안 세계’에 대한 구체화가 드러나게 되었다. 전통적인 우연의 일치 플롯 형태가 사용되는 것과 동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플롯 형태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¹⁰⁷⁾ 20세기에 들어서는 SF소설 등에서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여행하는 인물을 통해 복잡한 대안 세계의 탐색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었다.

발산형 플롯의 구성도 수렴형 플롯처럼 일반화할 수 있다. 먼저 대안이 만들어지는 ‘선행사건(antecedent)’이 존재하고, 대안에 따른 ‘결과(consequent or outcome)’가 존재한다.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상향적 반사실(upward counterfactuals)’와 ‘하향적 반사실(downward counterfactuals)’이 구성되는데, 전자는 대안을 통해 실제 세계가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안이 더 악화되는 경우이다.¹⁰⁸⁾

발산형 플롯이 가상의 세계를 환기한다는 점은 일견 독자의 몰입과 인지적 통합을 방해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는 포스트모던 소설의 플롯에 대한 오해라고 대넨버그는 분석한다. 대안 세계에 대한 탐색이 설령 비논리적이어도 이는 실제 세계의 설명적 패턴을 활용한 것이며 실제 세계의 원칙이 해당 세계를 잠재적으로 믿을 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발산형 플롯 또한 수렴형 플롯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실제 세계를 서사 세계와 연결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흥미를 자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탐구케 하는 주요한 플롯 유형이라 할 수 있다.

107) 위의 책, 4쪽.

108) 위의 책, 119쪽.

(2) 복합형 플롯

대넨버그의 논의에는 단일형 플롯만이 설정되어 있으나 ‘질서 실현’과 ‘대안 탐색’의 기획이 혼재된 플롯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19세기 영미소설들에서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 간의 긴장 관계가 포착된다는 진단을 언급한 바 있는데, 대넨버그의 주장대로 각 유형의 플롯이 특정 시대에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함께 지속되어 왔다면 그 과정에서 상호 영향 관계를 맺으며 두 유형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진 플롯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이 각 유형의 변주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그와는 변별되는 의미를 형성하도록 이끈다면 별도의 유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형 플롯’이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유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복합성(complexity)은 문학 작품의 해석에 있어 둘 이상의 국면이 관련될 때 갖는 속성을 의미한다. 모호성이나 비일관성으로 의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해석이 작품의 전체 의미에 통합될 수 있거나 작품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만들 때 ‘복합성’이 있다고 말한다.¹⁰⁹⁾ 복합성은 인간의 사고 과정이 지니는 “동시적이고 중첩적인 수준에서 화성적(和聲的)이고 대위법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¹¹⁰⁾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움’과 ‘생동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플롯’이 지닌다고 하는 것은 ‘단일형 플롯’에 귀속되지 않는, 그래서 요약되거나 생략되기 어려운 흐름이 작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그것이 완결성을 지니는 경우는 단일형 플롯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복수의 흐름이 대등한 세력을 지니며 작품을 지배하는 경우는 단일형 플롯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복합형 플롯’을 따로 두어 그 특징을 섬세하게 고찰하는 것이 더 실상에 부합한다.

109) Stein H. Olsen,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 『문학이 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280-292쪽.

110) A. A. Mendilow, *Time and the novel*, 최상규 역, 『시간과 소설』, 예림기획, 1998, 187쪽.

복합형 플롯은 욕망 성취의 조건이 일방향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건 또한 ‘방향 전환’을 할 때, 담론에 대한 이념적 태도에 있어 옹호와 비판이 공존하여 인과 관계가 복잡성을 띠는 때, 갈등의 간극이 커졌다 작아지며 예측하기 어려운 배열을 보이면서 독자에게 인지적 혼란을 줄 때에 발견된다. 이 경우를 단일형 플롯에 비추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복합형 플롯으로 상정하면 ‘양가적 속성을 지닌 사건’, ‘경합을 통해 합리성 경쟁이 이루어지는 인과성’, ‘시공간적으로 일방향적이지 않은 배열’ 등에 대해 수월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서사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을 때 독자는 변수가 많은 실제 세계를 떠올리며 찝찝함을 느끼고 흥미를 갖는다.

복합형 플롯은 독자로 하여금 ‘예측’을 어렵게 만들기에 단일형 플롯에 비해 고차원적 플롯 운용을 요한다. 또한 두 방향의 플롯이 그려내는 서사 세계가 어색함 없이 종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이 더욱 의식된다. ‘질서’로의 인위적인 귀환이나 ‘대안’으로의 환상적 세계 구성을 경계하기 위해 ‘합리성’과 ‘개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복합형 플롯은 복수의 흐름이 관계 맺는 방식은 각각이 서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교차형 플롯’과 ‘통합형 플롯’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 : 문제 제기의 플롯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전개되지만 서로 어긋나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교차형 플롯’으로 명명할 수 있다. ‘교차(交叉)’란 서로 마주치고 어긋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브레몽이 복합 시퀀스¹¹¹⁾의 결합 방식 중 하나로 이야기한 ‘대위(對位, coupling)’와

그 의미가 통한다. 플롯을 형식주의적으로 정초한 브레몽의 논의에서 대위 결합은 어떠한 시퀀스가 관점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할 때 분리된 기능을 명명하는 방식이다.

브레몽이 제시한 예시는 ‘가해야 할 손실’이 ‘공격 행위’로 이어져 ‘가해진 손실’로 귀결되는 시퀀스와 ‘범할 악’이 ‘악행’으로 이어져 ‘범해진 악’이자 ‘보복해야 할 행위’로 귀결되는 시퀀스가 결합한 것이다. 두 시퀀스는 동일한 사건 진행에서 도출되지만 수행자의 입장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결말에서는 불가피하게 한 가지만이 전면화될 뿐 결코 화합하지는 못한다. 시퀀스의 관점에서는 대위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가리키지만, 플롯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독립된 흐름이 화합하지 못하고 교차되는 양상을 나타내므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교차형 플롯’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플롯에서 상반되는 흐름이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프랭크 커모드도 통찰한 바 있다. 그는 이야기가 상충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에는 늘 논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때 ‘비밀’은 채트먼이 이야기한 ‘위성사건’에 해당하기에 핵심 사건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억압되고, 그 결과 독자는 전경화된 플롯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단일형 플롯’을 상정할

111) 브레몽(C. Bremond)의 용어인 ‘시퀀스(sequence)’는 ‘연속(連續)’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많은 돌발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에서, 엄격한 질서 속에서 연결되어 있고, 여러 민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작은 수의 행동들 또는 기능들(functions)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R. Barthes)는 이 용어를 빌려 “연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핵 단위들의 논리적 연속”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모티프(motif)보다 큰 단위이면서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롯의 기본 단위가 된다.

브레몽은 시퀀스를 ‘기본 시퀀스(elementary sequence)’와 ‘복합 시퀀스(complex sequence)’로 분류하였는데, 기본 시퀀스는 ‘가능성(virtuality)’, ‘현실화 여부(actualization/absence of actualization)’, ‘성패 여부(goal attained/goal not attained)’의 삼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선택지가 양분화된 흐름을 말한다. 복합 시퀀스는 이러한 기본 시퀀스가 ‘순차(end-to-end series) 결합’, ‘포괄(enclave) 결합’, ‘대위(coupling) 결합’ 등의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결합을 통해 서사는 ‘향상(improvement)’과 ‘악화(deterioration)’의 두 방향으로 움직인다(C. Bremond, “The Logic of Narrative Possibilities,” 최상규 역, 「서사 가능성의 논리」,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밀’이 의도적으로 노출되어 핵심 사건으로 상정되는 특정한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이는 국지적인 기이함으로 취급할 수 없고 소설을 관통하는 정신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¹¹²⁾ 이러한 ‘배반적 텍스트’가 충분히 주목되고 작품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칠 때 ‘복합형 플롯’을 상정할 수 있게 되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흐름의 ‘상충’이 부각될 때의 플롯을 ‘교차형 플롯’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교차하는 플롯은 질서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플롯과 대안의 탐색을 향해 나아가는 플롯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흐름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경쟁’이나 ‘경합’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또한 질서의 실현이든 대안의 탐색이든 그것이 간과하기 쉬운 요소, 이를테면 이미 존재하는 질서가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가능성이나, 새로운 가능성이 간과하기 쉬운 기존의 질서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는 ‘문제 제기적 성격’을 보여주기 적합한 플롯이다.

물론 ‘문제 제기’는 특정한 사건이 선택되는 것에서부터 도출되는 소설의 기본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으나, 거시적 플롯 차원에서 뚜렷한 지향을 나타내는 ‘의미’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문제 해결’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흔히 소설의 ‘결말’은 문제의 해결과 동일시되며 작중에서 발생한 갈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톤 체홉이 “질문의 해결과 정확한 문제 설정 중 오직 후자만이 예술가의 의무”라고 말한 것처럼 해결은 필수 요소가 아니다.¹¹³⁾ ‘문제 제기’는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세계의 균열을 인식케 하고 비판적 관점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영역을 차지한다.

수렴형 플롯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전개되고 발산형 플롯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 두 특성이 교차하게 되면 사

112) Frank Kermode, “Secrets and Narrative Sequence,” 전승혜 역, 「비밀과 서술 순서」, 석경정 외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출판사, 1997, 93쪽.

113) H. Porter Abbott, 앞의 책, 2010, 392쪽.

건의 실마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존재하는지,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존재하는지가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쪽이 승리하거나 지지를 받고, 다른 한쪽이 패배하거나 배척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교차형 플롯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느냐이다. 왜 두 방향의 플롯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지, 왜 충돌해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실상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립 관계를 갖는 두 축이 대등한 역학 관계로 드러나서 갈등의 맥락과 향방에 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양측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인과 원칙이 존재해야 하고, 독자의 흥미를 잡아끄는 배열도 갖추어져야 한다. 두 방향의 사건과 인과 원칙, 배열이 충분히 전개된 결과 더욱 타당한 쪽이 가려질 수 있게끔 플롯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 : 문제 해결의 플롯

교차형 플롯과 마찬가지로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그것과 달리 최종적으로 통합의 지점을 찾는 경우는 ‘통합형 플롯’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통합(統合)’은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브레몽이 이야기한 복합 시퀀스 결합 방식 중 ‘포괄(包括, enclave)’과 상통한다. 포괄 결합은 한 시퀀스가 다른 시퀀스를 종속시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브레몽은 예시를 들었는데, 앞서 교차형 플롯에서 예로 든 ‘가해야 할 손실’ → ‘공격 행위’ → ‘가해진 손실’이라는 시퀀스가 악행에 대한 보복과 별개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해야 할 행위’ → ‘보복의 과정’ → ‘보복된 행위’의 시퀀스 중 ‘보복의 과정’에 종속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 흐름 중 한 가지만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흐름이 다른 흐름 속에 포함됨으로써 대립이 극복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역시 시퀀스의 관점에서는 ‘포괄’이나 ‘종속’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지만 플롯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본다면 독립된 흐름의 화합이 부각되므로 ‘통합형 플롯’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교차형 플롯이 서사의 ‘경합’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통합형 플롯은 그러한 경합이 적절하게 ‘협상’되어 문제 제기에 대해 모종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이다. 질서의 실현과 대안의 탐색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이루며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위해 전개되는 교차형 플롯과 달리, 통합형 플롯은 질서의 실현과 대안의 탐색이 일치할 수 있는 국면을 찾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통합형 플롯은 ‘화합’과 ‘문제 해결적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적합한 플롯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의미는 세계의 균열이 극복된 ‘총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교차형 플롯에서처럼 문제 제기를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는 것은, 이질성을 억압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믿음은 교차형 플롯이 자아내는 비판적 관점과는 상당히 구분되는 의미 영역을 확보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통합형 플롯은 단일형 플롯과 유사성을 띤다. 그러나 단일형 플롯에서 수렴이나 발산 중 하나의 방향이 뚜렷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와 이질적인 요소들은 배경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에서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각각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결말이 아닌 플롯의 ‘과정’에 주목하여 보면, 통합형 플롯은 이질적인 요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일형 플롯과 명확히 구분된다.

통합형 플롯은 수렴형 플롯이 의존하는 과거의 사건 혹은 기존의 규범이 발산형 플롯이 의존하는 가상의 사건 혹은 새로운 모험과 상호 보완적 관

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것이 현실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통합형 플롯은 교차형 플롯보다 서사의 통일성에 대한 고려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교차형 플롯도 두 방향의 플롯의 수준을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합리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통합형 플롯의 경우 상반된 방향의 플롯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추가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 구현을 위해 통합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타당하면서도 섬세하고 다채로운 방식의 플롯 구성이 요청된다.

3. 플롯 유형의 결정 요인

2절에서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 그리고 두 유형의 플롯이 복합된 교차형 플롯과 통합형 플롯에 대해 개괄하였다. 이 중 기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은 대넨버그가 약 400년간의 소설사를 바라본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였다. 각각 낱고 비현실적인 것, 최근의 특수한 장르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은 대넨버그에 의해 소설사적으로 보편성을 띠는 플롯으로 상정되었다.¹¹⁴⁾

그러나 대넨버그의 목적은 모든 작품의 플롯 유형을 분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 장치를 통해, 어떠한 정신 활동을 촉진하는지 고찰하려는 데 있었다. 플롯이 거시적으로 두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통찰한 것은 고찰의 근거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함이지, 모든 플롯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넨버그의 틀을 활용하여 ‘복합 유형’을 설정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결과이

114) “이 모델은 ‘플롯’ 개념을 공시적인 유형론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변형이 있음을 보이고 소설에서 다양화되고 발전되는 패턴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6쪽.)

다. 단순 유형 분류가 목적이 아니라 의미의 깊이 있는 이해가 목적이려면, 플롯상의 특성이 혼재할 때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롯의 수렴과 발산, 단일형으로서의 플롯 유형과 복합형으로서의 플롯 유형 등의 분류를 플롯의 자질을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하더라도, 분석의 초점과 목적은 그것이 자아내는 ‘효과’에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할 사항은 플롯이 어떠한 유형의 자질을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서사 내적 근거들이 된다. 서사를 구성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이 중 플롯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사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표층 요인’과 유기적 해석의 과정 중에 발견되는 ‘기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층 요인은 플롯의 효과를 직접 창출하는 기법 차원의 요인이고, 기저 요인은 그 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차원의 요인이다. 두 차원의 요인은 각각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지적해 준다. 대네퍼그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이 요인들은 플롯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풍부화하는 것은 물론, 플롯 분석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그와 동시에 주제 파악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플롯의 심층 내용을 플롯의 유형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각 요인들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 표층 요인

플롯 유형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은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플롯의 일반적 정의를 기반으로 상정 가능하다. 이 정의는 오래도록 플롯의 개념으로서 활용되어 왔지만 실제 플롯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적 지식으로 가공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플롯’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리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사건’, ‘인과성’, ‘배열’은 플롯 분석을 위해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요소들이며, 대네퍼그의 유형 분류도 이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뒷받침되어 있다. 표층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여 플롯 유형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겠다.

① 사건의 선택과 강조 : ‘인식(認識)’과 ‘가정(假定)’의 사건

플롯을 이루는 뼈대가 되는 요인은 ‘사건’이다. ‘사건’은 플롯 구성을 위해 ‘인과적 배열’을 거치기에 앞서 ‘선택’되고 ‘강조’된다. 플롯에 서사의 모든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특정한 기획에 따라 독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사학에서 ‘핵사건(kernels)’과 ‘위성 사건(satellites)’¹¹⁵⁾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건 간 위계를 구분하는 것의 전제가 된다.

무엇이 핵심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서사에 제시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일회적 발생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개되어 전후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찾으려 한다. 눈에 띄는 핵심 사건만을 파악해도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투영된 형태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핵심 사건의 파악’은 여러 논의에서 플롯 파악의 시작점이 된다.

무엇을 핵심 사건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에서는 각각 ‘인식(recognition)’의 사건과 ‘가정(subjunction)’의 사건이 관건이 된다. 사건이 “하나의 사태로부터 또 하나의 사태로의 변화”¹¹⁶⁾임을 고려하면 ‘인식’ 사건의 경우 무지(無知)에서 인식으로의 변화가, ‘가정(假定)’ 사건의 경우 가정에서 결과로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저하게 드러나는 상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식’ 사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실현되는 질서에 관한 ‘수렴형 플롯’에서 주요하게 작용하

115) S. Chatman,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63-67쪽.

116) S. Rimmon-Kenan, 앞의 책, 2003, 34쪽.

고, ‘가정(假定)’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나 예상과 상상을 통해 가늠되는 대안에 관한 ‘발산형 플롯’에서 주요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수렴형 플롯’에서는 ‘인식’의 사건이, ‘발산형 플롯’에서는 ‘가정(假定)’의 사건이 핵심 사건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선택된 사건이 플롯에서 강조되기 위해서는 자주 언급되거나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등의 언어적 표현 방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확장된 서사성’과 관련하여 묘사, 평가, 일반화, 논평, 판단, 논쟁, 메타텍스트적 언급 등의 표현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어떤 경우 핵심 사건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변 사건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활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의미에 비추어 핵심 사건이 갖는 위상을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플롯은 사건에 대한 표현 방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현 방식이 사건을 강조하여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복수의 사건들에 사건 강조를 위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핵심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인과성’과 ‘배열’이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이 작품 전체에서 단독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지, 혹은 다른 사건과 대등한 중요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 간 인과관계와 사건들의 배열 방식을 통해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인식의 사건과 가정(假定)의 사건이 혼재하는 ‘복합형 플롯’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인과성과 배열에는 사건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 요청되는 특정한 제시 방식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인식’은 변화의 결과이고 ‘가정(假定)’은 변화의 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 속성에 의해 인식은 후반에, 가정(假定)은 전반에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배열을 가능케 하는 인과 조직으로는 인식의 경우 원인이 예정된 것으로서 설정되는 것이, 가정(假定)의 경우 합당한 원인을 모색해 가도록 설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사건의 성격과 친연한 방식으로 인과성과 배열의 성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핵심 사건에 대한 혼동이 없기 때문에 수렴형 혹은 발산형 플롯의 ‘단일형 플롯’이 나타나기 쉽다. 반면 사건의 성격과는 이질적인 인과성과 배열이 나타나면 핵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대등한 비중을 갖는 사건들끼리의 관계와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경우 교차형 혹은 통합형 플롯의 ‘복합형 플롯’이 상정될 수 있다.

② 인과의 조직 : 예정된 인과와 구축되는 인과

플롯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연결’의 논리가 바로 ‘인과’이다. 인과의 구성은 인간 정신의 주요한 작용이며 플롯 이해에 있어서는 ‘숨은 인과성’을 찾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된다.¹¹⁷⁾ 인과성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적 구성에 의해 직접적인 일상 언어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곧장 알기 어려운 형태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가 서사 세계를 납득하기 위해서, 또 사건들이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서 유기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하여 믿을만한 세계로서 소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과’라고 하는 원칙이 소설 속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오래도록 소설의, 무엇보다 플롯의 주요 원칙으로 이야기된 인과의 원칙을 거부하는 소설이 존재한다는 관점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경우 인과 원칙을 거부하고 플롯 또한 믿지 않는다는 진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설도 독자적인 인과 원칙을 바탕으로 플롯화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플롯화 없이는 소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로브-그리에(A. Robbe Grillet), 토머스 핀천(Thomas Pynchon), 푸익(M. Puig) 등의 포스트모던 작가들이 플롯화를 즐긴다는 통찰이 브룩스에게서 이루어진 바 있다. 브룩스는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이른바 ‘망가진 내러티브’가 어떤 면에서는 추락(fall)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해방(liberation)이 되

117) 김성진, 앞의 글, 2006.

기도 한다며, 이러한 플롯은 분명한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세계가 해독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수수께끼’라는 중요한 생각을 유효하게 만든다고 하였다.¹¹⁸⁾ 이를 통해 보면 ‘인과성’을 찾는 작업을 특정한 시대에 국한하기보다는 모든 소설사에 두루 적용하여 해당 시대의 정신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대넨버그도 통찰한 바 있다. 대넨버그는 존재론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SF 소설도 충분한 내적 인과 관계를 유지하여 일관된 서사 세계를 만들면서 실제 세계의 인지적 기대에 균형을 맞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수렴적 플롯과 발산적 플롯 모두 이미 결정된 관계를 통해서나, 작가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나, 필요한 조건의 충족에 의해서 인과를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수렴적 플롯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예정된 인과’를 특성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상황 맥락에 의존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부여된 것이어서 독자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장치로는 실제 작가를 대체하는 ‘신’이나 ‘천국’과 같은 존재로 원인을 돌리는 방법과, 독자의 감각을 활성화시키기기 위해 실제 세계의 인간관계 유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실 작가가 궁극적인 층위에서 인과를 예정된 것으로서 부여하더라도 독자는 이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서사 세계의 논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발산적 플롯은 인과 관계의 선을 매우 긴밀하게 다룬다.¹¹⁹⁾ 실제로 일어난 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배경을 만들고 독자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탄탄한 내적 논리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안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묶일 수 있도록 발산적 플롯은 ‘구축되는 인과’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하여 자율적이고 일관된 서사 세계에 대한 믿음이 구축되는 경우 ‘혈통’과 같이

118) P. Brooks, *Psychoanalysis and storytelling*, 박인성 역, 『정신분석과 이야기 행위』, 문학과 지성사, 2017, 177-178쪽.

119)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31쪽.

이미 정해진 원칙이 없이도 충분한 인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렴적 플롯에서는 사건의 원인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성과 무작위성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면 발산적 플롯에서는 당면한 현재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차차 구축해 나가기 때문에 소설 세계 내적으로 사실적인 인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면밀히 이루어진다.

③ 배열의 순서와 간격 : 비선형적 배열과 선형적 배열

인과 관계가 부여된 복수의 사건들이 서사 세계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식의 배열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배열을 위해서는 배열되는 사건의 순서와 사건 간 간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서의 경우 서술되는 사건의 차례가 시간의 순차성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스르는지에 따라, 간격의 경우 관련된 사건들이 다른 사건의 개입 없이 조밀하게 서술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의 개입으로 간극을 두고 서술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각각의 경우를 ‘선형적 배열’과 ‘비선형적 배열’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사건의 배열 순서에 관하여 제럴드 프랭스는 그것이 발생 순서일 수도, 다른 순서일 수도 있음을 통찰한 바 있다. 서사 대상의 수준에서는 사건이 ‘동시 발생(simultaneity)’과 ‘연속(succession)’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지만, 언어 서사물에서 ‘동시 발생’은 ‘그와 동시에’ 등의 부사적 표현이나 접속사에 의해 지시될 수 있을 뿐이며 ‘예상(anticipation)’과 ‘회고(retrospection)’처럼 시간 왜곡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물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사건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자의 반응을 조정하여 서스펜스(suspense)를 만들어낼 수 있다.¹²⁰⁾

서스펜스의 확보는 배열의 순서뿐 아니라 배열의 간격 조정을 통해서도

120) G. Prince, 앞의 책, 2015, 78-81쪽.

이루어진다. 대넨버그는 수렴형 플롯에서 ‘인과 부여의 지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정된 인과일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인식’의 사건이 늦게 나올수록 독자의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하였다. 임시변통적인 우연의 일치 플롯은 예정된 인과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연관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마주치는 것과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인식 내용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없는 데 반해, 복잡하고 강력한 우연의 일치 플롯은 인식의 지연을 포함한다는 것이다.¹²¹⁾

수렴형 플롯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추동되기에 과거 회귀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나는 플롯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은 시간상의 균열을 내포하는 비선형적 플롯이며 균열 속에서 의미가 창출되고 흥미가 유발된다. 마이클 티어노는 “비선형 플롯이 지닌 연대기적인 시간 재배열(뒤섞임)은 반드시 ‘의미’를 창출해야 하고, 그 시간 축 위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불연속(덜컥거림)은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¹²²⁾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말은 수렴형 플롯의 비선형적 시간 구성이 다분히 의도적인 장치라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발산형 플롯은 가능 세계를 탄탄히 구축하여 독자들을 ‘믿게’ 만드는 목적을 위해 지연보다는 조밀한 배열을 취한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재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나빠지게 만들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향방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렴적 플롯이 사용하는 지연의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수렴의 플롯에서도 구심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된 인과가 중간중간 암시되거나 환기되기는 하지만, 발산적 플롯은 사건 연속이 분기함에 따라 인과 원칙이 형성되어 가는 플롯이므로 사건 간 간격이 좁고 긴밀하다.

발산형 플롯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추동되며, 가능한 미래를 가정(假定)하는 플롯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은 정해진 질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논리를 새로이

121)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99쪽.

122) Michael Tierno, *Aristotle's poetics for screenwriters*,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리스토텔레스와 영화』, 아우라, 2002, 194쪽.

구축해 가는 과제를 지니기에 선형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배열의 선형성과 비선형성은 비단 시간의 흐름과만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시간과 연결된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간적 은유(metaphors)를 사용한다는 마크 존슨(Mark Johnson)의 가설처럼, 소설의 플롯도 여러 방식으로 ‘공간’의 요소를 활용한다. 공간은 구체적인 신체 경험을 연결시켜주거나 두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등 보다 유형적인 분류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대넨버그도 이에 착안하여 플롯 패턴에 대한 분석에 공간적 도식을 도입하기도 했다.¹²³⁾

이를 고려하여 수렴형 플롯이나 발산형 플롯과 각각 친연한 비선형적 배열과 선형적 배열을 시간상의 배열뿐 아니라 공간상의 배열과도 관련 지을 수 있다. 시간상으로 역행적인 면모를 보이는 비선형적 배열은 공간적으로는 축소나 집중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인식’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상으로 순행적인 면모를 보이는 선형적 배열은 공간적으로 확대나 이탈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假定)’의 사건이 드러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 방식이 된다.

(2) 기저 요인

앞서 본 표층 요인은 서술을 통해 드러나므로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 가능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플롯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보여 주지만 ‘왜’ 그렇게 결정되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 요인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고찰해야 플롯 형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넨버그의 논의에 접목하여 설명력을 강화

123) Dorothee Birke, “Historicizing Plot: A Poetics of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Review of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Plotting Time and Space in Narrative Fiction)”, *JOURNAL OF LITERARY THEORY*, 2010.2.8.
(URL: <http://www.jltonline.de/index.php/reviews/article/view/159/506>)

할 수 있는 ‘기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층 요인이 플롯 자체를 실현시키는 형식적 요소이며 흥미를 유지시키는 틀이자 장치로서 기능한다면, 기저 요인은 서사적 박진감을 담보하는 내용적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기저 요인으로 설정한 것은 ‘욕망’, ‘담론’, ‘갈등’의 세 가지이다.

욕망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소설 속 사건의 향방이 욕망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플롯의 주요한 기저 요인이 된다. 담론은 사회 질서에 대한 이념적 태도에 해당하며 인물의 욕망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욕망은 인물 개인의 차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 사회적으로 특정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담론과 관련이 된다. 욕망이라는 기저 요인은 인물 개개인의 성격과 행위를 완결성 있게 파악하도록 해 주지만, 담론이라는 기저 요인은 그것이 서사 세계 내에서,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파악하도록 해 준다. 다시 말해 인물의 욕망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며,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갈등은 욕망 간, 담론 간, 혹은 욕망과 담론 간의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며 행위나 사건에서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욕망이나 담론의 내용에 첨예성을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한층 강조해 준다.

이러한 욕망, 담론, 갈등의 관계는 사건의 선택과 강조, 인과의 조직, 배열의 순서와 간격 등 표층 요인의 관계와 대응된다. ‘욕망’과 ‘사건’은 플롯 전개에 있어 동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담론’과 ‘인과’는 그 동력에 외부적 시선이 반영된 명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갈등’과 ‘배열’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일련의 연속이 극적 효과를 자아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관련을 맺는다.

이때 욕망, 담론, 갈등은 인물의 행위나 서술자의 관여를 통해 암시되며 표층 요인이 왜 그러한 특징을 갖는지, 거시적 플롯 유형이 지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풍부한 자원이 된다. 또한 사건의 내재적 힘과 역동성을 나타내고 서사 세계와 실제 세계를 넘나들며 내용상의 몰입

을 자극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욕망 : ‘회복’과 ‘극복’의 욕망

‘욕망(欲望, desire)’은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다.¹²⁴⁾ 억압과 제어를 동반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¹²⁵⁾ 결핍을 전제로 충족을 지향하는 욕망의 속성은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 할 상태’를 지향하는 소설의 속성과도 친연하기에¹²⁶⁾ ‘욕망’은 소설의 계기로서 빈번하게 거론되곤 한다.

욕망의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며 ‘플롯’과의 관련성을 통찰한 이론가로 브룩스가 있다. 그는 욕망이 텍스트 내에서 변형, 전환, 일탈을 거치는 과정이 곧 플롯이라고 하였다. 정신분석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사의 동력이 욕망임을 통찰한 그는, 플롯이 단지 내용을 건조하게 담아내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인격체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가변적 틀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브룩스가 상정한 ‘인격체의 욕망’은 작가와 독자의 욕망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명료한 분석을 위해서는 서사 세계 속 욕망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¹²⁷⁾

124) B. Spinoza, *Ethica*,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1990, 139쪽.

125) 김필호,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욕망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17-18쪽.

126) 베른슈타인(J. M. Bernstein)은 소설이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간극(the gap between is and ought)에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인간과 ‘있는’ 세계 사이에서 긴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J. M. 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 : Lukács, Marxism, and the dialectics of for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 viii.)

127) 서사 세계 속 욕망은 마리-로어 라이언이 이야기한 ‘소망 세계(W-world)’ 개념과 관련이 있다. 소망 세계는 라이언이 설정한 가능세계 중 하나로, 결핍과 욕망에서 비롯되고 인물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마음을 먹게 만드는 세계이다. 이는 지식 세계(K-world)를 통해 계획이나 전략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의무 세계(O-world)로부터 촉구나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세계들 가운데 ‘상태의 변화’를 피하는 사건의 발생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소망 세계이다. 따라서 플롯의

본 연구에서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동력으로서의 욕망에 주목하여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 지니는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욕망은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깨뜨려 서사 세계에서 사건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이때 사건은 평형 상태를 깨뜨리고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인물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때 인물의 욕망은 기존의 상징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인지, 혹은 그에서 벗어난 상상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하게 된다. 상징적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은 ‘지배적 욕망 체계’에 종속되고, 그에서 벗어나 상상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인물은 ‘새로운 욕망 체계’를 따르게 되므로 두 부류의 인물에게 욕망 충족 또는 실현이 갖는 의미는 달라진다. 전자의 인물인 경우 자신의 지배적 욕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후자의 인물인 경우 지배적 욕망 체계가 깨어지거나 그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¹²⁸⁾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방향의 욕망을 각각 ‘회복 욕망’과 ‘극복 욕망’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이것이 추동하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 짓고자 한다. ‘회복 욕망’은 현재를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상태를 이상적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결핍으로 여겨 이전까지 상태로의 회귀를 꾀하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보편적인 법칙에 호소하는 점이나 정해진 질서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인식’ 사건의 동력이 된다. 반면 ‘극복’ 욕망은 이전까지의 상태를 결핍으로 여기고 이 결핍이 충족될 만한 이상적 상황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욕망은 지금까지의 방식에 호소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정(假定)’ 사건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각 욕망은 플롯을 추동하는 사건의 성격을 설명해줌과 동시에 플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 발생의 원동력을 살필 때에는 소망 세계를 형성하는 ‘욕망’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Marie-Laure Ryan, 앞의 책, 1991 참고.)

128) 라캉의 심리분석 범주 중 ‘상징계(Symbolic)’와 ‘상상계(Imaginary)’에 착안하여 대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법’의 세계인 상징계에 대한 욕망은, 타자에 의해 보여짐을 모르는 자아충족적 주체의 상상계에 대한 욕망과 뚜렷이 구분된다.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우찬제, 「욕망현시 소설유형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참고.)

롯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킨다. 욕망에서 촉발된 전체 플롯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아가는지를 따져보면, 회복 욕망이 강조되는 경우 ‘수렴형 플롯’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극복 욕망이 강조되는 경우 ‘발산형 플롯’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러 인물에 의해서 각기 다른 욕망이 대등하게 겨루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단일형 플롯이 아닌 복합형 플롯을 통해 욕망의 향방에 조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담론 :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

‘담론(談論, discourse)’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활성화되고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회적 맥락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기여하는 말화, 문장, 언술들의 집합체’¹²⁹⁾이다. 담론 개념을 형식주의 서사학에서는 ‘플롯’과 동의어로도 사용하지만¹³⁰⁾, 본 연구에서는 그와 달리 실제 세계의 현실을 반

129) Sara Mills, *Discourse*,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25쪽.

130) 담론은 ‘스토리’, ‘파블라’와 대비되어 ‘플롯’, ‘수제’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구조주의 이론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이야기’의 영역으로,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표현을 ‘담론’의 영역으로 나눈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파블라(fabula)’와 ‘수제(sjuzet)’의 구분으로도 이어졌다. 채트먼은 플롯을 ‘담론화된 스토리(story as discoursed)’라고 통합적으로 정의하며 그것이 “어떤 이벤트들을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고, 어떤 이벤트들은 해석하고, 다른 이벤트들은 추론케 하고, 이벤트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혹은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시하고, 코멘트를 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한 이벤트나 혹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였다(한일섭, 「서사문학 플롯의 현대적 개념」, 『서강인문논총』 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99; Karin Kukkonen, 앞의 글, 2014.3.). 서술로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서술되지 않은’ 재현들과 ‘숨은’ 화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서술자의 신빙성과 그가 하는 논평의 성격에 대해서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담론의 영역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채트먼은 플롯에서 담론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것은 서술 자체일 뿐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암묵적이거나 심층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세그레의 경우 ‘담론(discourse)’은 능기로서의 서사 텍스트, ‘플롯(plot)’은 제시의 순서 때문인 텍스트의 내용, ‘파블라(fabula)’는 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순서로 재배열한 내용 또는 내용의 주요소로 보았다. 이때 담론-플롯-파블라가 표층에서 심층으로의 깊이 척도라고 보거나 발생적 개념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적인 분할이라고 간주하는 편이 나으며, 표현과 내용은 동일 대상의 양면이므로 구별하는 것이 유용한 일이라는 하나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C.

영하고 모종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성을 내포하는 담론 개념에 집중하고자 한다. 플롯 유형을 결정하는 기저 요인 중 하나로 ‘담론’을 설정하는 이유는 담론이 강조하는 ‘사회적’ 성격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정신을 보다 섬세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¹³¹⁾

담론 개념은 ‘이데올로기(ideology)’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데올로기란 국가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장치, 곧 ‘제도’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은 구성된다고 알튀세는 주장하였다.¹³²⁾ 지배 계급에 의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는 헤게모니를 행사하며 우리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는 피지배 계급이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의 대항에 부딪친다. 이러한 대립은 이데올로기의 힘을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와 피지배 이데올로기는 서로 관련 없는 단위로서 충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계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서 대립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알튀세의 말을 통해 이 점은 구체화된다.¹³³⁾

알튀세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이어 받아 폐쇄는 ‘담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그것의 의미 형성 기능을 강조하였다. 폐쇄는 “낱말, 표현, 명제 등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라고 하며 ‘담론’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정치학에 주목하였다.¹³⁴⁾ 이때 담론의 의미는 순수한 언어의 자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가로지르며 성립되기에,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식 중 하나가 된다. 이데올로기가 계급 간 대립 관계에 의해 규정되듯 담론도 이에 구속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지닌다는 점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세력 간의 충돌을 동력으로 움

Segre, 앞의 글, 2007)

131) 담론과 플롯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132) Diane Macdonell,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39쪽.

133) 위의 책, 45-46쪽.

134) 위의 책, 35쪽.

직이는 것이다.¹³⁵⁾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용어의 구분이 가능하다. 각각 제도와 친연한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것으로, 언어적 구성물을 통해 그 역할을 행한다. 이 역할을 소설에 적용하여 고찰한 사례로, 특정 문화권의 지배 권력은 문화적 마스터플롯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항서사(counter-narrative)’가 필요하다는 포터 애벗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대항서사는 마스터플롯을 훼손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이 ‘폭로’를 할 수 있게 한다.¹³⁶⁾ 이렇게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은 소설 작품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향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구도로 드러나는지를 포착해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구분이다.

플롯과의 관계에서 ‘담론’이 중요한 이유는 인물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특정한 사고방식을 보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실제 세계에 입각한 설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실제 현실의 논리를 인과 원칙으로서 활용하는데, 이때 바탕이 되는 지식이나 가치가 서사 세계의 모습을 판단하는 준거로 작용한다. 그리고 서사 세계 속 인물들 또한 그러한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건을 겪어 나간다. 그러니까 플롯 구성에서 담론은 인물들이 의식하고 있는 지식과 가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독자로 하여금 서사 세계의 모습을 친연하게 느끼고 몰입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다.

이러한 효과는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명칭을 통해 한층 더 선명해진다. 각 명칭은 플롯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태도를 명료화하는 역할을 한다. 플롯과 담론의 관계에 대해 통찰한 바흐친의 논의에 따르면, 플롯은 담론 재현을 통해 언어를 상호 연결시키고 상호 대비하여 드러내는 과업을 한다. 그럼으로써 화자들과 그들의 이념세계를 재현하고, 그들이 타

135) 위의 책, 13쪽.

136) H. Porter Abbott, 앞의 책, 2010, 358쪽.

인의 언어와 신념 체계를 통해 자신의 언어와 신념 체계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흐친은 전통적인 플롯 구성에서 벗어난 ‘혼종언어적 담론의 재현’에 대해 고찰하며 ‘낯설게 하기’의 기교가 사용된 플롯에 주목하였지만,¹³⁷⁾ 특별히 다성성이 강조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태도로서의 이념, 즉 담론이 플롯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기제는 보편적이다.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은 플롯의 지향을 대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왜 이러한 플롯이 나타나는지’를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명하게 해 준다.

각 담론은 그것이 지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플롯의 인과 구축 방식을 통해서도 대비적으로 드러난다. 기존 담론의 경우 지배적인 질서와 친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그 원인에 대한 서술에 충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대항 담론은 기반이 부족하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원인이 충분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각각 ‘예정된 인과’와 ‘구축되는 인과’를 통해 드러나는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은 각각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과 친연성이 있다. 두 담론 중 하나의 담론이 특별히 주목되는 경우는 단일형 플롯을 보이게 되지만, 두 담론이 팽팽한 대결 구도를 지니는 경우 복합형 플롯을 보이게 된다.

③ 갈등 : 열린 갈등과 닫힌 갈등

“소설은 갈등 관계의 서술 양식”¹³⁸⁾이라는 정의에도 보이듯 갈등은 소설의 본질로 이야기되고, 플롯 논의에서도 갈등을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플롯은 갈등의 발생, 해결, 심화의 추이를 적절한 배열을 통해 보여주며 독자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¹³⁹⁾ “모든 플롯은 긴장(tension)과 해결(resolution)에 의존한다

137)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180-183쪽.

138)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11쪽

139)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토리가 시작되고부터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기 직전까지를

.”¹⁴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갈등은 플롯의 구성 원리와 형태를 좌우하는 가장 가시적인 근거가 된다.

소설의 갈등은 흔히 ‘무엇과 무엇의’ 갈등인지, 혹은 ‘무엇에 대한’ 갈등 인지를 둘러싸고 논의된다. 인물의 내적 갈등, 인물 간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등 갈등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가치나 관념, 감정, 세계관 등 갈등의 소재나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¹⁴¹⁾ 갈등의 유형 분류도 이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플롯 유형의 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라이언은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인물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적 세계가 갈등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갈등 형태라고 하였다. 이때 사적 세계의 종류에는 소망 세계, 지식 세계, 의무 세계가 있다. 소망 세계의 욕망과 의무 세계의 도덕 기준이 갈등하는 것이나, 인물이 지닌 서로 다른 의무 세계와 서사 세계의 사건이 갈등하여 도덕적 갈등 상황이 생겨나는 경우가 주요한 예이다. 라이언은 이러한 갈등을 플롯 유형으로까지 연결짓는다. 서사 세계의 사건이 인물의 사적 세계와 갈등하는 경우 탐색의 플롯이 되고, 인물의 지식 세계와 갈등하는 경우 정보의 결함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오류(비극), 수수께끼(미스터리), 속임수(희극, 민담, 스펀이 이야기)가 탄생된다고 한 것이다.¹⁴²⁾

그런데 라이언의 논의처럼 플롯과 관련해 갈등 유형을 분류할 때 주체나 대상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는가’를 바탕으로 분류할 필요도 있다. 갈등의 내용, 곧 주체나 대상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지시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귀결되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물의 소망 세계의 욕망과 의무 세계의 도덕 기준

‘갈등’으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때부터 끝까지를 ‘해결’로 일컬은 바 있다. (Aristotle, 앞의 책, 2017, 408쪽.)

140) R. Scholes, J. Phelan & R. Kollog,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328쪽.

141) H. Porter Abbott, 앞의 책, 2010, 114쪽.

142)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NY, 2005, 439-440쪽.

사이의 갈등이라고만 분류하면 그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그리고 단지 제시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혹은 해소까지 나아가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소설의 갈등은 현상에 대한 개괄에 그칠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난 배경을 파헤치는 것일 수도 있고, 갈등의 해소까지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¹⁴³⁾ 갈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기저 요인인 ‘욕망’과 ‘담론’을 바탕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플롯에서 ‘갈등’에 대한 고찰은 그것의 내용을 넘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 될 필요가 있다.¹⁴⁴⁾

이와 관련하여 루이스 코저(Lewis Coser)의 논의를 참고하여 갈등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탄력성 있는 사회(elastic society)에서의 갈등은 제도를 통해 조정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융통성 있는 사회는 갈등으로부터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코저의 언급에서 보이는 갈등의 순기능이다. 그러나 경직된 사회(rigid society)에서의 갈등은 ‘단힌 갈등(pent-up conflict)’이 되기 쉽다.¹⁴⁵⁾

이 논의를 참고하면 갈등을 ‘단힌 갈등’과 ‘열린 갈등’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서사 세계가 해당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세계로 묘사되는 경우 ‘열린 갈등’으로, 해당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세계로 묘사되는 경우 ‘단힌

143) 조남현, 앞의 책, 1990, 15쪽.

144)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갈등의 유형 분류로 이원수가 ‘가정소설’을 대상으로 시도한 분류가 있다. 그는 갈등이 가정 내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해결되는 ‘구심적 단일갈등’과 갈등이 가정 외부로 확산되고 제2의 갈등이 개입되는 ‘원심적 복합갈등’으로 갈등 구조를 이분화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진리로 인식되는 가치 규범의 과거 회귀적 성격과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실상의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사씨남정기>의 사씨는 당위 규범에 몰두하여 현실적 패배를 하였다가, 당위적 규범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초월논리를 긍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렇게 초월논리까지 끌어와 당위규범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욕구가 그만큼 강렬하고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의식이 그만큼 강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53-97쪽.)

145) 조남현, 앞의 책, 1990, 28-31쪽. 또한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모습을 지닐 수도, 비현실적인 모습을 지닐 수도 있다. 개인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존재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공격 욕구와 갈등은 ‘현실적 갈등’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 심리를 갖는 것은 ‘비현실적 갈등’이라고 코저는 말하였다.

갈등'으로 갈등의 양상을 명명할 수 있다. 단힌 갈등과 열린 갈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서사 세계의 경직성 내지 유연성도 있지만 갈등 자체의 속성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또한 제시된 갈등이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해소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도 포함된다.

소설이 사회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르일 필요는 없다. 소설이 지니는 수많은 효용 중 하나가 사회 통합의 기능일 뿐, 봉합되지 않은 갈등, 실체가 없으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힌 갈등을 다루든 열린 갈등을 다루든 그 자체가 소설의 질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인간과 삶의 진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플롯을 결정하는 기저 요인으로서 갈등이 '배열'과 관련해 중요한 위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설에서의 '갈등'이 소설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라거나 대립 구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갈등이 소설의 '배열'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갈등의 소지와 내용은 이미 '욕망'과 '담론'에 암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지, 인물과 서사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갈등이 플롯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한다. '갈등'을 '배열'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갈등과 배열, 그리고 플롯의 관계에서 서사 세계가 갈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비선형적 배열'이, 그러한 믿음이 결여된 경우 '선형적 배열'이 요청되며 전자는 '수렴형 플롯'과, 후자는 '발산형 플롯'과 친연성이 있다. 갈등의 속성을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복합형 플롯이 나타나며, 갈등의 해결 여부와 관련해서 '제시'에 그치는지, 혹은 '해소'까지 나아가는지가 결정된다.

이상으로 플롯의 유형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살펴보았다. 플롯 유형은 '사건의 인과적 배열', 그리고 욕망, 담론, 갈등의 종합을 통한

‘유기적 의미 부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회귀적이고 보수적 방향은 ‘수렴형 플롯’,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적 방향은 ‘발산형 플롯’과 같은 단일형 플롯을 띤다. 하지만 선택된 사건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인과성, 배열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경향을 띤 수 있다. 그 원인은 첫째, 소설 장르의 다성성 때문이거나 둘째, 개연성 혹은 필연성의 논리를 위해서이거나, 셋째, 극적 효과를 위해서이다. 작가의 인위적 고려이거나 작가가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명징한 현실적, 감정적 리얼리티를 반영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생겨난 복합형 플롯은 단일형 플롯의 두 유형이 교차되거나 통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플롯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실현되고, 이는 ‘갈등’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갈등은 인물의 욕망과 담론으로 인해 발생되며, 서사 세계의 시공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이는 서술자에 의해 중개되면서 서술자의 의식이나 이념에 의해 굴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 내부의 복잡한 역동에 의해 플롯은 구성되기에 구성 요소를 분절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욕망, 담론, 갈등과 같이 내용을 일컫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형식에 연루된 표층 요인이나 거시적 형태와 관련지어 논해야 하며, 이들 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플롯이 주제 논의에 치우치지 않는 형식의 논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의 의의

(1) 고전소설의 개연성 확보 원리에 대한 이해 증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은 일차적으로 고전소설의 특징이 우연성과 환상성에 있다는 편견을 점검하고 고전소설 특유의 개연성 확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전소설이 허구 문예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거나 우연성·환상성에 기대어 서

사를 전개한다는 인식은 고전소설 작품 자체의 구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의 논리에서 내용의 개연성을 따지거나 현대소설의 복잡한 플롯 구성을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기 쉽다. 플롯은 사회 문화적 조건에 의해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고전소설 플롯의 개연성을 따질 때에는 당대 공동체의 서사 관습과 서사 전통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¹⁴⁶⁾ 당대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진 서사 논리에 따라 플롯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효과를 자아내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플롯이 스토리와 구분되는 차원에서 존재하고, ‘욕망, 담론, 갈등’ 차원에서 존재하는 기저 요인이 ‘사건, 인과, 배열’이라는 표층 요인으로 드러나 최종적으로 특정한 플롯 유형을 형성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플롯 개념이 소설의 자의적 해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 형성과 완결성 부여를 위해 존재함을 뜻한다. 플롯의 거시적 방향을 한층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인들은 서사를 논리적, 미학적인 것으로 정초시킨다.

이러한 절차는 독자로 하여금 해당 서사 세계를 그 자체로 총체적이고 완결된 세계로 바라보게끔 돕는다. 단순히 작품 속의 내용 요소에만 주목하여 플롯을 도출하게 되면 독자에게 이질적으로 여겨질 만한 고전소설 속 욕망, 담론, 갈등은 돌연하고 우연적이며 환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독자에게 자연스러운 실제 세계에 대한 감각이 고전소설의 서사 세계가 따르는 논리와 미학을 불합리하거나 허황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 요소들도 플롯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요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앞서 살핀 플롯 유형과 그것의 결정 요인 간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형식 요소들은 고전소설이라고 해서 결여된 것이 아니며, 당대의 실제 세계를 여러 차원에서 가공하여 서사화한다.

플롯이 실제 세계를 여러 차원에서 가공한다는 점은 ‘핍진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코락스(Corax)는 핍진성을 현실

146) 최인자, 앞의 글, 2007; 김태호, 앞의 글, 2013, 2014.

내지 사실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 곧 여론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또 보마르쉴(Beaumarchais)은 장르의 특수 법칙과 관계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⁴⁷⁾ 이렇게 실제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만이 개연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독자들의 소망이나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는 요소들도 개연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소설의 일부 국면에 대해서는 우연적이거나 환상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국면이 전체 서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작품을 꺾진하고 개연성 있게 만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엄격한 사실성에 대한 반성과 관점의 전환은 고전소설 교육에 활용되는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접근에 기반한 것이다. 반영론적 관점은 현대 학습자가 작품의 낯선 세계를 이해할 때 역사적 사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때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당대의 ‘실상’을 반영한다는 말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온 탓에 문학을 역사적 담론으로 여기고 문학적 형상이 지니는 예술적 의미는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상성이나 우연성에 담긴 개연성의 실체를 확인하는 고전소설 플롯 교육을 꺾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소설의 몰입 기제로서 플롯 장치의 효과 체험

본 연구의 논의는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소설 교육 전반에 적용되는 의의를 지닌다. 그 의의란 고정된 지식으로서 플롯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롯 유형의 결정 요인들을 단서로 삼아 플롯이 이해해 나가면서 그것의 효과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플롯 효과의 체험은 플롯의 기획에 따라 충실히 서사를 읽어나간 독자의 ‘서사적 몰입(immersion)’을 통

147) Tzvetan Todorov, 앞의 책, 1992, 97쪽.

해 획득된다.

‘몰입’이 현대 소설의 성장에 동반되는 서사 현상을 기술하는 데 ‘사실주의’보다 더 유용한 개념이라는 대넨버그의 말대로¹⁴⁸⁾ ‘몰입’은 서사의 질적인 측면을 일컫는 ‘서사성(narrativity)’을 고양시킨다. 서사에 충분히 몰입하지도 않고 분석적인 관점만을 적용하는 것은 작품에 잠재된 서사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롯 유형과 그것의 결정 요인을 긴밀하게 연결짓는 틀을 제시하면서 각 플롯 유형이 자아내는 일반적 효과에 대해 개괄하였다. 수렴형 플롯은 예정된 질서가 언제 실현될지에 대한 서스펜스가, 발산형 플롯은 있었을 법한 사건 혹은 희망하는 사건에 매혹되는 인간의 모습에서 착실하게 구축되는 인과 관계가 몰입의 바탕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플롯 교육 내용이 무엇보다 ‘기획’으로서의 플롯의 체험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플롯 유형의 기계적 습득이나 그것의 결정 요인에 대한 파편적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서 과정에서 느끼는 학습자의 정신 작용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 점이 학습자의 감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관조나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플롯이 자아내는 효과를 작품의 요소들과 연결지어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몰입을 통해 느낀 효과에 대해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과정에도 주목한다. 몰입에 있어서 전체성, 완결성, 유기성에 대한 고려는 감상의 수준을 좌우한다. 대중문화 소비사회의 서사는 매체적 특성을 통해 청중의 이목을 잡아 끌고,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고, 사건 내 에피소드에 흡인력을 공들여 부여함으로써 인내가 필요 없는 몰입을 꾀한다. 그러나 그렇게 소화하기 좋은 플롯은 독자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유쾌하게 만들지언정 여운이나 인지적 충격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가미되었을 때 그러한 효과에 대해 탐구할 동기가 생긴다.

148)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따라서 서사의 표면적, 파편적 요소를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의미 구성을 위해 자료로서 눈여겨보는 것, 특정 패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 수집된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플롯 교육의 국면에서 플롯 효과의 판단 주체인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바이다. 학습자는 대상이 어떤 소설이든지 간에 플롯이 내용 요약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미 장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플롯화’ 작업을 통해 의미의 ‘역동성’이 갖추어지는 기제를 알아야 한다.

플롯은 초점화와 함께, 작품이 ‘왜’ 그러한 감동을 일으키고 주제를 전달할 수 있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플롯에 대한 이해는 작품에 대한 반응의 원인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어떤 반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할 근거 혹은 기준도 마련해 준다. 본 연구에서 피하는 플롯 중심의 소설 교육은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작품을 이루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지, 그리고 해당 작품에서 어떠한 정서적 반응이 가능하며 또 타당한지를 가늠케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내용 중심 주제 교육의 형상적 근거 강화

‘텍스트의 중심 의미’라 할 수 있는 주제를 소설 읽기의 최종 단계로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여겨진다. 주제를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끝에 가서 가지는 것’¹⁴⁹⁾이나 ‘읽기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¹⁵⁰⁾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소설 교육에 있어 주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플롯 교육에서도 ‘주제’에 대한 인식이 이와 다르지 않아

149) 김태기, 「소설의 주제 읽기」, 『배달말교육』 9, 배달말교육학회, 1991, 140쪽.

150) 이강엽, 「소설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시론」, 『국어교육』 87·88, 한국어교육학회, 1995, 117쪽.

서 플롯에 대한 형식적 접근은 주제적, 의미론적 접근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주장¹⁵¹⁾이 있는가 하면 줄거리 요약이 표층에서 심층의 단계로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작품의 주제적 차원을 재구성하는 것¹⁵²⁾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제 교육이 작품을 향유하는 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방해한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주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의미를 도출하기를 요구하는 개념이다.¹⁵³⁾ 다만 주제 교육의 방법이 더욱 섬세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도출하는 교육, 스스로의 합리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롯은 기여하는 바가 있다.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해석의 충돌에 대한 처리 방식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던 주제 교육에,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플롯의 ‘형식’적 측면들은 해석 공동체의 인정을 얻어 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욱이 플롯은 소설의 특징 국면의 형식적 특성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형식적 특성에 대한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의 거시적, 포괄적 형태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해 준다.

또한 표층적으로 드러난 플롯의 기저에는 욕망, 담론, 갈등과 같은 내용적 요소가 혼란스럽게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제’라는 명확한 언어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플롯을 중심으로 한 소설 교육은 주제 교육에 있어서도 형상적 근거를 강화해주는 의의가 있다. 세부 형식을 두루 고찰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주제에 대한 논의에 객관성을 더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롯의 ‘유형’이 형식으로서의 표층 요인과 내용으로서의 기저 요인을 통합한 결과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학습자

151) 최인자, 앞의 글, 2007.

152) 최시한, 앞의 글, 1986.

153) 정진석, 「소설 주제 교육의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의 해석과 다양한 반응에 대한 존중을 표방하는 주제 교육도 의의가 있지만, 형상으로서 플롯이 담지하는 의미를 소통의 닻으로 삼는 주제 교육은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주제에 대한 근거를 보다 정련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Ⅲ. 플롯 중심의 17세기 장편소설 분석

1. 17세기 장편소설 플롯의 형성 배경

Ⅱ장에서 살핀 것처럼 ‘플롯’을 ‘스토리’와는 구별되는 문학적 수식이자 작가 의식이 담긴 정제 장치로 상정할 때 단순성이 강한 서사와 의도성이 낮은 서사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인식의 우수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플롯은 ‘형식적 측면의 질적 세련’에 관한 용어이기 때문에 작가 의식이 서사를 상당히 장악하고 있고 기법적으로 정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자로 하여금 특정 방향으로 서사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작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⁵⁴⁾

이 점은 우리 소설사에서 ‘플롯’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현상이 언제, 어떠한 소설에서 발견되는지를 탐색케 한다. 플롯이 서구 문학이론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를 구비하게 된 시기는 근대소설 이후의 시기라고 보아야겠지만, 그 이전의 고전소설에도 형식적 측면의 이야기 구성 장치는 존재했다. 스토리 차원의 관심을 넘어 소설의 형식이 자아내는 효과에 대해 인식해야만 가능한 플롯의 출현은 사회적 조건과 역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17세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는 ‘소설사적 전환기’로 불릴 만큼 소설에 거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되는 시기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존재한 전기소설에서도 작가 의식이라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개성과 탄탄한 구성력이 발견되지만, 17세기에는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서사의 질적 도약과

154)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플롯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이 ‘소설의 요건’에 관한 문학 연구의 오랜 논쟁에 또 하나의 답변을 제출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말여초의 <최치원>이 최초의 전기소설이라고 보았던 논의에서 그것이 지니는 구성상의 세련도를 근거로 삼는 것은 소설이란 ‘의도성을 토대로 한 모종의 형식에 의거해 짜여진 창조물’이라는 관점이 녹아든 결과이다. 본 연구는 최초의 소설에 관한 논쟁에 본격적인 답변을 내 놓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소설’의 중요한 요건이 ‘플롯’이라고 하는 장치이며 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소설사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있으리라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로 인한 향유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단순한 수식을 넘어서서 서사 전체를 장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원리가 17세기에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플롯의 서사상 필요성과 구체적인 작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후 실제 작품을 통해 명확히 살펴볼 수 있겠으나, 어떠한 시대적 요인이 플롯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 절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세기 소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요인은 이미 그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주로 17세기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런데 실제 환경과 소설 사이에는 사실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의 변화와 소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지적해야만 연구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예컨대 17세기에 자아와 환경 세계의 다채로운 관계가 새로운 소설 양식을 요청했다고 본 김종철의 논의¹⁵⁵⁾는 ‘자아’와 ‘환경’이라는 소설 분석의 용어로 개인과 사회라는 실제 세계의 용어를 환기시킴으로써 실제 환경의 변화와 소설의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보하여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17세기 장편소설 플롯의 형성 배경이 되었는지, 왜 17세기 장편소설을 두고 플롯을 논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55) 17세기에 소설사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자아와 환경 세계의 관계가 다채로워지고 이를 다룰 전기소설 외의 양식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종철은 이에 대한 결과가 <홍길동전>을 시작으로 <구운몽>, <창선감의록>, <숙향전> 등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았다. (김종철, 앞의 글, 1995, 50쪽.)

한편 윤재민은 전기소설과 장편소설은 발생론적 기원이 다른 것이기에 장편소설은 전기소설을 극복했다기보다는 나름의 장르 규범을 토대로 출현한 양식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윤재민, 앞의 글, 1999, 34쪽.)

(1) ‘가(家)’라는 서사 세계를 통한 현실 문제의 재구성

17세기 장편소설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가(家)’¹⁵⁶⁾라는 공간이 주요한 서사 세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6세기까지의 소설에서는 ‘가(家)’라는 공간이 특수한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제시될 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나 고유한 기능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생규장전>과 같은 애정 전기소설은 애정실현의 공간으로, <설공찬전>의 경우도 설공찬의 혼이 빙의하는 특수한 사건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형상화될 뿐이었다.¹⁵⁷⁾ 그러나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 등 17세기 소설에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조직으로서 ‘가(家)’의 모습이 점차 부각되며 그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고민도 형상화되었다.

이때 ‘가(家)’라고 하는 공간은 실제 세계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면서 17세기에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의 대상이기도 한 공간이다. 17세기에는 ‘가계 계승’ 문제가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고 차별적 상속을 통한 재산의 집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되었으며 《주자가례》의 확산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가(家)’를 위시한 역할 행동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이 소설 작품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으로서 다루어지게 되면서 실제 세계와 서사 세계의 긴밀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7세기 소설을 ‘현실의 반

156) 이승복은 주거를 같이하는 혈연 공동체를 공시적으로 지칭하는 ‘가정(家庭)’과 부계친 중심의 혈연 공동체를 대사회적으로 고려하면서 공시적, 통시적으로 가리키는 ‘가문(家門)’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을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창선감의록>을 비롯해 <사씨남정기>, <소현성록>은 가문소설에 해당한다. (이승복, 앞의 글, 1995) 이 점을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의 공통된 키워드를 ‘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 <홍길동전>을 포괄하기가 어렵다. <홍길동전>은 길동이 홍씨 집안을 최종적으로 이탈한다는 점 때문에 ‘가문소설’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관계의 축이 중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가정소설’이라고 명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당대의 가족 문제가 이야기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한 집안의 공시적, 통시적 존재 양상을 동시에 지칭하는 ‘가(家)’라는 용어로 네 작품의 공통분모에 대해 명명하고자 한다. ‘가(家)’라는 용어의 사용은 김종철,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404쪽 참고.

157) 위의 글, 409쪽.

영' 차원에서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의 기반이 된다. '가(家)'를 서사 세계로 하여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우리나라나 중국의 실제 역사 속에 이야기를 정초시키거나, 당대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욕망이나 갈등을 형상화하거나, 당대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담론에 대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가(家)'라는 공간은 서사 세계로서 꾸며진 것이지만 완전한 허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전까지 문제 삼아지지 않았던 서사 세계가 출현하는 것은 단순히 내용상의 변화로만 취급될 수 없다. 해당 서사 세계를 뾰족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플롯의 기획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기획'을 바탕으로 모종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플롯은 실제 세계를 즉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지양한다. 실제 세계에 대한 재구성과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제와 유사하다는 친연감과 실제 사건 자체의 긴장감을 제외하면 서사 세계를 별개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에 몰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장편소설의 플롯은 특별한 과제를 지닌다. 실제 세계와 서사 세계의 강력한 연결 고리는 독자로 하여금 실제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그것을 독자적이고 완결된 세계로 여기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소설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뾰족함은 서사 세계의 독자성과 통일성, 완결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17세기 장편소설이 플롯에 있어 어떠한 고민과 선택을 했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후 살펴볼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의 경우도 그러한 고민의 결과가 드러난 작품이다. 네 작품은 공통적으로 '가(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플롯의 계기로 삼는다. 집안의 계후나 가권을 장악하려는 행위, 가성(家聲)을 유지 및 발전시키려는 행위, 다른 '가(家)'의 부귀를 탈환하려는 행위 등은 모두 실제 세계의 인간에게서 수행될 법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실제 세계의 논리보다 서사 내적 논리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 세계의 논리로는 '길동'의 계속

된 이탈과 성공이, ‘사씨’가 곤혹을 치르고도 첩을 들이고자 하는 행위가, ‘화진’의 극단적 인내와 ‘화춘’의 갑작스런 개과가, 가족 구성원들끼리 때로 극심한 갈등을 겪어가면서도 끝내 ‘소경’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는 모습이 이해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서사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형상화된다. 실제 세계와 달리 서사 세계에서는 현실 문제와 그 해결 방식을 재구성하여 특정한 기획을 투사하고, 그것이 서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17세기 장편소설은 ‘가(家)’라고 하는 공간의 사실성을 활용하면서 그것의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플롯’을 적극 활용하였다. 플롯을 통해 주목하고자 한 현실 문제를 재구성하여 현실 문제를 초월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지, 규범을 공고화하고자 하는지, 균열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균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지 등의 의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17세기 장편소설을 플롯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대인들이 ‘가(家)’와 관련해 설정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

(2) 서사적 인과 원칙으로서 가능성과 필연성의 활용

‘가(家)’라는 서사 세계가 껴안히 구현되기 위해서 사실성을 활용하면서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플롯이 요청되었음을 앞에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세계와 서사 세계의 관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서사 세계 내적으로 긴밀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모종의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이란 서사 세계를 구성하는 사건들 간에 적용되는 인과 원칙이며, 17세기 장편소설에는 ‘가능성’과 ‘필연성’¹⁵⁸⁾이 주요한 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플롯에서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능성과

158) ‘가능성’과 ‘필연성’은 ‘가능 세계 이론’을 성립케 하는 주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나병철, 앞의 글, 26쪽.)

필연성이 강화됨으로써 ‘가능세계’로서의 서사 세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실제 세계를 대체하고 보완할 만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16세기까지의 소설은 ‘가능성’과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 인과 원칙에 상대적으로 무심하였다. 예컨대 16세기 소설 <설공찬전>¹⁵⁹⁾의 경우 ‘환혼(還魂)’ 모티프를 바탕으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아내고 있으나, 이러한 의식이 특정한 서사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설공찬전>은 설공찬의 혼령이 사촌동생 설공침에게 빙의되어 저승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빙의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윤회 담론’인데, 이는 설공찬이 환상 세계의 경험을 통해 우연히 획득하게 된 것이어서 작품 내적으로 긴밀한 인과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가능성과 필연성의 인과 원칙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이전까지의 소설에서 두드러졌던 서사 세계의 우연성과 환상성은 신비한 효과를 내고 여운을 주고 정서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는 유효하였지만 서사 세계 내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장편소설에는 서사 내적 진술의 긴밀함과 서사 외적 세계의 참조를 통해 인과 원칙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 세계의 특정 담론을 끌어와 그것의 실천 양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양상은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개연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사 세계의 정조 차원에 머물러 있던 우연성과 환상성이 가능성과 필연성의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17세기 장편소설의 플롯은 인과 원칙의 논리적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고찰이 가능하다. 플롯은 내용만으로 간단히 요약되지 않는 복잡한 역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인데, 17세기 이후 소설들은 내용상으로는 ‘가(家)’라는 집단적 가치를 당위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를 얼마나 의식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무엇보다 ‘왜’ 그렇게 처

159) <설공찬전>은 1511년에 국문본이 번역되어 유통되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16세기 소설로 상정할 수 있다. (이복규 편저,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 국문본 소설』, 박이정, 1998, 23쪽.)

리하는지 등의 차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사건 전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발과 무시, 수동적 추종과 적극적 복무, 맹목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에 대해, 플롯은 사건의 재구성과 인과 관계의 조직을 통해 형상화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연작은 모두 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설들이다.

(3) 장편의 서사적 긴장 유지를 위한 배열 방식의 모색

17세기에 출현한 ‘소설의 장편화’라는 현상도 이 시기의 플롯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된다. 짧은 편폭 안에 영향력 있는 사건과 그에 대한 앞뒤 맥락을 간결하게 밝히는 단편과는 달리,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장편소설은 인간의 ‘전면적 진실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¹⁶⁰⁾ 이를 위해 서사의 편폭이 넓어짐에 따라, 독자의 집중을 유지시키고 뒷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건 간의 개연성과 합리성이 보다 넓은 범위를 걸쳐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플롯’은 자연스럽게 긴요한 존재가 되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언제 일어날지 궁금해 하는 마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해 하는 마음을 좌우하는 장치인 ‘플롯’이 한층 더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장편은 독자의 긴 호흡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플롯은 적절한 ‘배열 방식’을 모색했다. 이를테면 ‘서사적 정보 예고를 위한 복선의 활용’, ‘지속과 서사의 연장 기법’, ‘정보 통제를 위한 줄거리 요약’ 등 사건에 대한 정보량을 조절하는 배열 방식은 전대에 활용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었더라도 17세기 장편소설에 와서 더욱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된 배열 방식이다.¹⁶¹⁾ 장편에는 복수 주인공이 등장하기에 다수의 단위담

160) 정길수, 앞의 책, 2005.

161) 최기숙, 앞의 책, 1999, 307쪽.

이 파생될 수밖에 없고, 이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시간 역전을 해야 하기에 고도의 플롯 의식에 기반한 배열 방식이 요청된다.¹⁶²⁾

이전까지의 소설이 에피소드 단위의 연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 <홍길동전>을 기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성 자체가 유기성, 완결성을 띠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이나 기이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배열 방식으로 인한 현상이다.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플롯을 고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홍길동전> 플롯의 특징과 의미

<홍길동전>은 17세기 초 허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으로, 필사본과 판각본, 활자본 등이 약 90여 종 정도 전해지고 있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전하는 <홍길동전>이 모두 19세기 이후의 이본이기에 기실 작가와 창작 시기, 원작의 표기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홍길동전>의 선구적인 면모와 17세기 현실에 대한 반영은 이를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기점으로 보기에 충분한 작품으로 여기게 한다. ‘최초주의’에 얽매어 작품의 성격을 한정할 필요는 없겠으나¹⁶³⁾ 17세기 장편소설의 포문을 연 작품으로 볼 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기왕의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는 영웅소설이자 사회 비판 의식을 지닌 소설이라는 것이다.¹⁶⁴⁾ 그러나 영웅소설이라고 부르기에는 홍길동을 영웅으로 인정하고 우상화하는 서술이 부족하고, 사회 비판 의식을 지녔다고 보기

162) 정길수, 앞의 책, 2005, 21쪽.

163) 소인호, 「고소설 기술에 있어서 최초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우리문학연구』 21, 우리문학연구회, 2007.

164) 홍길동이 혁명적, 반항적 인물이고 <홍길동전>은 사회소설, 혁명소설이라는 견해가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그와 같은 분석을 한 이래로 큰 의심 없이 계승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의 문제」,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270쪽.)

에는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는 결말이 석연찮게 여겨진다. <홍길동전>의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영웅소설’이 아니라 ‘일사소설(逸士小說)’이라는 견해도 제출된 바 있다.¹⁶⁵⁾ 그러나 인물의 ‘불우’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일사소설이라고 하면 홍길동의 번영을 해명할 방법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이 플롯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II장에서 정리하였듯이 플롯은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이기에 대극적인 요소들을 작품 나름대로의 기획에 따른 것으로 완결성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플롯은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기에 작품 속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비중과 관련성, 미적 효과를 위해 마련된 조치 등을 포착케 하는 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롯의 표층 요인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을 차례로 살펴보고, 각 요인이 나타내는 특징을 종합하여 <홍길동전>이 어떠한 플롯 유형을 보이고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을 통해 강조되는 주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함으로써, 상술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내려 보고자 한다.

(1) ‘가정(假定)’의 연속적 실현과 ‘극복’ 욕망의 성취

<홍길동전>의 플롯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플롯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플롯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으로서 사건은 해당 작품의 기획 의도에 의해 선택되고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소설의 플롯은 작품에 완결된 구성체로 녹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선택되고 어떻게 강조되었는지를 단번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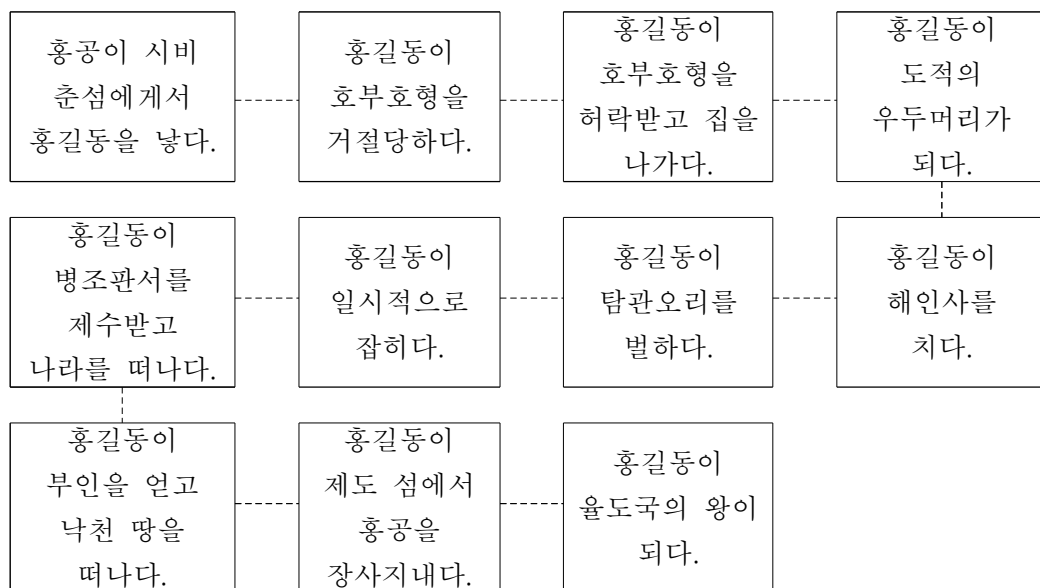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토리 요약을 통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개괄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플롯의 기본 단위이기에 앞서 스토리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스토리 요약만으로는 기획 의도까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등장하였는지와 그 사건의 공통 특징과 방향성은 어떠

165) 김동욱, 앞의 글, 2016.

한지를 짐작케 하는 데에는 충분한 기초 작업이 된다.

스토리 요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선택의 길을 열어 행동을 전진시키는 종류’인 ‘핵(kernel) 사건’과 ‘행동을 확대, 확장, 지속, 지연시키는 종류’인 ‘촉매(catalyst) 사건’을 나누고 이를 ‘소연속(micro-sequence)’으로, 나아가 ‘대연속(macro-sequence)’으로 결합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¹⁶⁶⁾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 자체를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요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플롯과의 변별점을 가시화하기 위해 스토리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핵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연속을 기술하고 이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요약한 <홍길동전>의 스토리는 <그림 1>과 같다. 사각형 칸은 핵 사건에 해당하며, 사건 사이를 잇는 점선은 자연적 질서에 따른 시간성을 뜻한다. 플롯을 통한 변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건의 강조나 배열상의 특징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도식이다. 그래서 사각형의 크기가 동일하고 단순한 순차 배열을 이루는 것이다.



<그림 1> <홍길동전>의 스토리

166) S. Rimmon-Kenan, 앞의 책, 2003, 35쪽.

이렇게 정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건들의 공통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플롯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사건이 무엇인지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 본 <홍길동전>의 스토리는 길동이 ‘천출소생’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부호형’을 허락받는 것,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병조판서를 제수받는 것, 두 부인을 얻는 것, 부친을 사후봉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율도국의 왕이 되는 것 등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길동의 계속된 세력 확장 과정을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스토리를 통해 보았을 때 ‘호부호형’조차 거절당했던 길동이 그것을 허락받는 것은 물론 점차 지위가 높아지는 점은 의문스럽게 여겨진다. 스토리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의문은 ‘왜 이러한 사건들이 선택되고 강조되었는지’에 대한 플롯 차원의 탐색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길동이 겪는 사건이 가능해진 계기를 탐색하면 다음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대장뷔 세상의 나미 공뎡을 본밧지 못흐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대장닌을 요하의 빗기 초고 동정서벌흐여, 국가의 디공을 세우고 일흠을 만디의 빗니미 장부의 쾌시라. 나는 엇지흐여 일신이 적막흐고 부형이 이시되 호부호형을 못흐니 심장이 터질지라.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¹⁶⁷⁾

위 인용문은 ‘장부의 쾌사’를 누리지 못하고 ‘호부호형’조차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는 길동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작품 초반부에 해당하는 이 장면에서 길동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한 근심에 휩싸여 있다.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고 홍공에게 사랑도 받고 있음에도 천출소생이라는 점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핍에 대한 길동의 한탄에서 이후 그의 성취를 견인하는 계기가 발견된다. 바로 ‘대장부로 세상에 난다면’, ‘병법을 써서 국가의 대공을 세운

167)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2면.

다면'과 같이 자신의 처지와는 반대되는 상황에 대하여 '가정(假定)'하는 것이다. 대넨버그는 자신의 현재 처지와는 다르게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하여 '반사실(counterfactual)'이라는 개념으로 통찰한 바 있고, 본 연구는 이것이 '가정(假定)'의 사건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 바 있다. 이 사건은 "실제 세계의 사건에 대응하는 사실성의 다양한 버전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 사건의 연속에 대한 이론적인 변이나 변화"¹⁶⁸⁾를 뜻한다. '가정(假定)'의 사건은 '만일 ~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 촉발되는데, 인용한 <홍길동전>의 초반부에서 이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가정은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길동의 연속적 성취를 통해 현실화된다.

<홍길동전>의 사건들이 '가정(假定)'을 바탕으로 그것의 연속적 실현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다른 이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동욱 89장본에는 길동의 '가정(假定)'이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一日은 秋九月 望日이라. 碧空은 照曜하고 金風은 蕭瑟하되, 길거은 스릅은 興을 돕고 근심 닛는 스릅은 悲懷을 조어니는지라. 吉童이 書堂의서 讀書하다가 書案을 밀치고 歎息曰, “大丈夫 世上의 處하여 孔孟의 道德이 못될진디, 츠아리 出將入相하야 나거든 달만흔 大將印을 腰下의 빗기 츠고 將臺에 놓피 아져 千兵萬馬을 指揮間의 너히두고, 坐作進退하며 東征西伐하여 國家의 大功을 세외 姓名을 傳하며, 드러셔는 一人之下요 萬人之上이라, 理陰陽順四時하야 國家을 忠誠을로외 奇時(特)흔 일흠을 後世에 遺傳하고 얼굴을 麒麟閣의 그려 빗니미 丈夫의 快흔 일이라. 古人이 云하되, ‘王侯將相寧有種乎’ 하여시니 누를 일은 말인고. 世上 스릅이 다 父兄을 브르되 나는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兄을 兄이라 못흔는고.” 말을 맞치며 싹품을 머금고 눈물니 금치 못하여 自然 몸을 일위여 階廷의 徘徊하며 달 그람즈을 귀경하여 劍舞을 쥬더니¹⁶⁹⁾

168)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10쪽.

169) 김동욱 소장 89장본 <洪吉傳傳>, 4-5면.

인용문은 경판 30장본에서 길동의 신세 한탄 대목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는 한탄이 더해져 신분에 대한 원망을 한층 강하게 드러낸 특징이 있다. 또한 이후 ‘왕’의 지위에 오를 것까지를 염두에 둔 가정(假定)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⁷⁰⁾ 이렇게 길동이 자신의 처지와 반대되는 번영을 가정(假定)하는 것은 이후 사건의 속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홍길동전> 플롯의 표층 요인 중 ‘사건의 선택과 강조’의 면에서 ‘가정(假定)의 연속적 실현’이라는 특징을 명료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특징을 결정하는가? 플롯의 표층 요인과 유형을 결정짓는 기저 요인 중 ‘욕망’과 관련하여 이 점을 해명해 볼 수 있다. 길동의 ‘가정(假定)’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그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이 ‘가정(假定)’의 현실화를 이끈다. 그 과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네 무슴 흥이 이서 야심토록 잠을 쯔지 아니호는다?” 길동이 공경 더왈, “쇼인이 맛춤 월식을 사랑호미여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니시미 오직 사름이 귀호오나, 쇼인의게 니르러는 귀호오미 업스오니 엇지 사름이라 호오리잇가.” 공이 그 말을 짐작호나 짐짓 칙왈, “네 무슴 말인고.” 길동이 지비 고왈, “쇼인이 평성 설운 바는, 대감 정기로 당당호은 남지 되여스오니 부싱모혹지은이 겁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호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호오니 엇지 사름이라 호오리잇가.” 호고, 눈물을 흘려 단삼을 적시거늘, 공니 청파의 비록 측은호나 만일 그 뜻을 위로호면 므름이 방즈홀가 져어 크게 쭈지져 왈, “지상가 천비 쇼성이 비단 너썤이 아니거든, 네 엇지 방즈호미 이 갓호뇨. 츠후 다시 이런 말이 이시면 안전의 용납지 못호리라.” 호니, 길동이 감이 일언을 고치 못호고 다만 복지유체 썤이라. 공이 명호여 물너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쇼로 도라와 슬허호를 마지 아이호더라.¹⁷¹⁾

170) 박일용, 앞의 글, 2003 참고.

171)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2-3면.

위 인용문에서 홍공은 길동에게 측은함을 느끼면서도 그의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비소생’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길동이 품은 일말의 희망마저 거두어 버리자 길동은 가출을 결심한다.

“쇼지 모친으로 더부러 전성 년분이 중하여 금세의 모지 되오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그러나 쇼지의 팔지 귀박하여 천한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깃스온지라. 장부 세상의 처한미 남의 천디 바드미 불가하온지라. 쇼지 즈연 기운을 억제치 못하여 모친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복망 모친은 쇼즈를 넘겨치 마르시고 귀체를 보중하소서.” 그 어미 청과의 디경 왈, “지상가 천성이 너뿐이 아니여든 엇지 험한 마음을 발하여 어미 간장을 스로난요.” 길동이 더왈, “넋날 장충의 으들 길산은 천성이로되 십삼 세의 그 어미를 니별하고 운봉산의 드러가도를 닦가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의 유전하여시니, 쇼지 그를 효측하여 세상을 버서나려하오니, 모친은 안심하사 후일을 기다리소서. 건간 곡산모의 형식을 보니 상공의 충을 다희가 하여 우리 모즈를 원슈갓치 아는지라. 큰 화을 님을 가 하옵느니 모친은 쇼즈 나가를 넘여치 마르소서.” 하니, 그 어미 또한 슬허하더라.¹⁷²⁾

위 인용문에서 길동은 홍공의 제어를 받고도 ‘기운을 억제치 못하는’ 자신에게는 집을 떠나는 길밖에 없음을 모친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곡산모 초란이 자신을 위협할 것임을 예측하며 가출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다. 그 예측은 실제로도 실행되어 길동의 가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길동이 실지로 떠나려고 하자 그의 욕망이 충족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쇼인이 일즉 부성모혹지은을 만분지 일이나 갑흘가 하여더니, 가녀의 불의 지인이 잇서 상공과 춤쇼하고 쇼인을 죽이려 하오미, 계오 목숨은 보전하여스

172)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3면.

오나 상공을 피실 길 업습기로 금일 상공과 하직을 고희나이다.” 흐거늘, 공이 더경 왓, “네 무슴 변괴 잇관디 어린 으히 집을 바리고 어디로 가려흐는다.” 길동이 더왓, “날이 붉으면 즈연 아르신런이와 쇼인의 신세는 부운과 갓스오 니, 상공의 바린 즈식이 엇지 참쇼를 두리이닛고.” 흐며 쌍뉘 종횡호여 말을 일우지 못흐거늘,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측은이 녀여 기유 왓, “니 너의 품은 한을 짐작흐느니, 금일노부터 호부호형호물 허흐노라.” 길동이 지비 왓, “쇼즈의 일편지흔을 야애 푸려쥬옵시니 죽어도 한이 업도쇼니다. 복망 야야는 만슈 무강호옵쇼셔.” 흐고 지비 하직흐니, 공이 붓드지 못흐고 다만 무스호물 당부 호더리.¹⁷³⁾

위 인용문에서 하직 인사를 하며 스스로를 ‘버린 자식’이라고 칭하는 길동에게 홍공은 호부호형을 허락한다. 길동이 떠나는 이유가 단지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가출은 철회되었을 것이나, 길동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출을 강행한다. 이렇게 공간 이탈의 직전에 길동은 ‘소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가장 먼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계속해서 홍씨 집안에 머물렀다면 획득하지 못했을 지위이며, 공간 이탈을 결심했을 때 역설적으로 얻게 된 지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듯 길동의 ‘극복’ 욕망이 지니는 특징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길동의 ‘가정(假定)’이 현실화되도록 만든다. 길동의 극복 욕망은 가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홍판서나 국가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선 왕에게 제어되지 못하며, 그들에게 위협을 줄 만큼 폭력적인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길동의 극복 욕망은 가(家)나 국가라는 공간에서는 만족스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길동이 호부호형을 허락 받고도 가출하는 점, 병조판서를 제수받고도 조선을 떠나는 점은 모두 이러한 욕망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일이다.

이러한 특징은 길동이 계속된 욕망 성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극복 욕망을 품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길동이 최초에 한 ‘가정(假定)’의 연속적으로 실현

173)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6-7면.

되는 점만 보면 길동이 더 큰 욕망을 품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매 과정마다 그 성취가 불완전하다면 또 다른 욕망으로의 전이(轉移)가 불가피하다. 길동은 가정(假定)으로만 존재했던 모습보다 그것이 실현된 모습이 더 나아졌는지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나서 곧장 호칭을 바꾸며 욕망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도, 모친의 만류를 뒤로 하고 가출을 하는 것은 ‘나아짐’이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는 ‘가(家)’ 내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최초의 가정(假定)이 모두 실현될 때까지 길동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사회적 출세에 대한 욕망이 화두가 되고 ‘계속된 가정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플롯을 중심으로 살펴본 <홍길동전>의 사건은 최초에 길동이 한 ‘가정(假定)’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이 가정(假定)은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길동은 매 순간마다 ‘나아짐’을 꿈꾸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 그리하여 ‘도적의 우두머리’, ‘병조판서’, ‘세력가의 사위’, ‘율도국왕’ 등 처음에는 가정되었을 뿐인 지위가 모두 달성된다.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천 근짜리 돌을 들어 능력을 입증해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백성 구원을 위해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도술을 부려 그들을 압도함으로써 병조판서 벼슬을 얻으며, 나라를 떠나서는 남경 땅 제도에서 세력가 백용과 조철의 딸을 괴물에게서 구출해 내 그들의 사위가 되고, 나아가 율도국을 침략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안적인 결과나 극적인 삶의 변형을 창조해내는’ 이러한 사건과 욕망의 특징을 토대로 <홍길동전>의 플롯은 발산형 플롯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2) 새로운 인과의 구축과 대항 담론의 형성

그렇다면 스토리를 플롯으로 변형하는 기본 원리인 ‘인과’의 측면에서 이 작품은 특징이 있는가? 이는 길동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벌어지

는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홍길동전>에는 길동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외부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길동 스스로의 욕망과 기획이 모든 성공을 이끈다. 예정된 인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인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과 관계의 선이 매우 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발산적 플롯이 지니는 주요 특성이기도 하다.¹⁷⁴⁾

‘인과’에 주목하여 길동의 행위를 고찰하면, ‘시비’의 자식인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 번의 ‘떠남’, 혹은 ‘나감’을 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길동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다. 길동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천출소생이 아니라면 어떻게할지를 ‘가정(假定)’하면서 일련의 행위를 시도하고 번번이 성공을 거두는 행보를 밟는다. 길동은 이전 상황에서 품고 있었던 기대가 충족되고 나면 해당 상황을 이탈하고, 다시 새로운 기대를 품는다. 호부호형을 허락받고도 집에 머무르지 않고 가출을 감행하거나, 누구도 자신을 잡을 수 없음에도 일부러 스스로 잡힐 단서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모습에서 길동이 스스로 사건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길동은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연속을 스스로 이끌어 나간다.

새로이 구축되는 인과에 의거하여 길동의 삶은 영웅적 능력 발휘와 성취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전형적인 영웅이 그러하듯 길동은 힘과 지략, 도술을 사용하여 압도적인 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홍씨 집안에서 겪었던 고초를, 집 밖의 길동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이겨낸다. 신분상의 결핍에 얽매어 있던 길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전환한다. 정해진 운명의 힘이 아닌 자발적인 욕망과 능력으로 계속된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영향으로 결말도 독특하게 처리된다. 당초에 가정(假定)했던 최고의 지위인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길동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가짜 관’으로 길동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은

174)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31쪽.

‘죽음’이 아닌 ‘사라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사라짐은 임의의 ‘끝’이며, 그 너머를 가늠케 한다. 길동은 가(家)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며 욕망을 성취해 왔기에 지상에서 성취할 욕망이 없으면 미지의 공간으로 이탈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계속된 욕망 추구하고 성취로 굳어진 반복 패턴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으로서 ‘담론’의 특징은 어떠한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길동의 이념적 태도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살펴보면, 길동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는 ‘대항 담론’을 구축하는 인물로 비춰진다. 길동이 추구하는 욕망은 기존 담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오르며, 길동의 비범함은 ‘영웅’의 자질이면서도 그가 처한 신분 조건 때문에 ‘멸문’의 위험을 지닌 자질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길동이 지닌 비범한 능력은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그의 능력이 홍공이 그를 총애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가) “이 공작의 상을 보니 천고 영웅이요 일디 호걸이로되, 다만 지체 부족하오니 다른 염녀는 업슬가 하나이다.” 하고, 말을 니고져 하다가 주저하거늘, 공과 부인이 가장 고히 녀여 문왈, “무슨 말을 바른드로 니르랴.” 상네 마지 못하여 좌우를 물니치고 왈, “공작의 상을 보온즉, 홍중의 조화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기 영농하오니, 진짓 왕후의 괴상이라. 장성하면 장춧 멸문지화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소서.” 공이 청과의 경으하여 묵묵 반향의 므음을 정하고 왈, “스람의 팔즈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는 이런 말을 누설치 말나.”¹⁷⁵⁾

(나) “상공 환휘 위중하시문 길동을 두시미라. 천하온 소견은 길동을 죽여 업시하면 상공의 병환도 쾌츠하실 썸 아녀 문호을 보존하오리니 엇지 이를 심각지 아니시논잇고.” 부인 왈, “아모리 그려나 텃눈이 지중하니 춤아 엇지 형하

175)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4면.

리오.” 초란 왈, “듯조오니 특지라 호는 조식이 잇서 스롭 죽이믈 낭중취물갓
치 혼다 호오니, 천금을 주어 밤의 드러가 히호오면, 상공이 아르시나 혈 길
업스올리니 부인은 지삼 심각호쇼셔.”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녀 왈, “이는
춤아 못헐 비로디, 첫지는 나라을 위호미오, 들지는 상공을 위호미오, 셋치는
문호를 보존호미라. 너의 계교디로 헹혀라.”¹⁷⁶⁾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길동의 영웅성이 ‘멸문지화’를 일으킬 위험성이 지
적되고 있다. 물론 이는 초란의 계교에 의한 것이지만 (가)에서는 홍공이,
(나)에서는 유씨 부인과 홍공의 첫째 아들 인형이 이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홍공은 길동의 비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불길한
예언을 예사로 듣지는 못하지만 길동을 아끼는 마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
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홍공이 병을 앓게 되자 유씨 부인과
인형은 길동을 죽이려는 초란의 계책에 동의하고 만다. 이렇듯 길동의 영웅
성은 실제로 위험성을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서 집안을
동요시키고 있고, 그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길동의 능력은 펼쳐지기 어렵다. 다른 서사 공간들보다
홍씨 집안에서 길동의 괴로움이 가장 강하게 묘사된 이유는 그 때문이다.
길동이 욕망하는 수많은 지위들 중 가장 작은 것조차 홍씨 집안에서는 허락
되지 않았고 그의 능력 또한 환영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초란이 보낸 자객
을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도 길동의 능력에
대한 환영이 아니라 그가 받은 고초에 대한 연민일 뿐이다. 길동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 다음으로는 자
신이 가정(假定)해 본 또 다른 성취에 도전하기 위해 홍씨 가문에 안주하지
않고 공간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길동의 행위가 가문의 안정을 최우선가치로 여기는 17세기
의 ‘적서 차별 담론’에 대하여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알게 한다. ‘적서 차별 담론’은 17세기 ‘가(家)’와 관련된 담론 중 하나

176)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5면.

이다. 적서 차별의 정책은 15세기 초에 시작되어 15세기 후반에는 법제적으로도 뒷받침되었으며 16세기에 들어 점차 강화되었다. 그러나 적서 차별이 강화될수록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적서 차별 담론은 17세기에 들어 치열한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¹⁷⁷⁾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행위는 비단 급진적 욕망 성취 행위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서 차별이라는 기존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길동의 계속된 성취는 기존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홍길동전>의 주제를 신분 차별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시각에 의거한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여 서럽다는 길동의 말에는 서자의 불우함이 함축되어 있어 과거 적서 차별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오늘날에 들어서서는 이를 현대 사회의 주요 가치인 ‘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찍이 출현한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플롯은 기존 담론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홍씨 가문도, 조선국도 길동의 이탈 이후에는 안정을 되찾고 무사히 운영된다. 오히려 대항 담론을 바탕으로 기존 담론과 대결해 왔던 길동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한다. 갈동은 기존 담론을 존중하고 자신이 새로이 구축한 질서에 활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근거로 소설 후반부에 길동이 부친의 죽음을 예측하고 조선국으로 돌아와 상례를 주도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소지 첩음의 맛음을 그릇 먹고 작난헛기로 일삼더니, 부형니 화를 보실가 녀녀헛여 도선지경을 찌나오미, 삭발위승헛고 지술을 비왓 성도를 삼아더니 이제 부친이 기세헛시물 짐죽헛고 왓스오니 모친은 과도히 슬허 마드쇼셔.” 부인과 춘낭이 이 말을 듯고 눈물을 거두며 문왈, “네 지술을 비와시면 천하의 유명헛리니, 너는 부공을 위헛여 장스 지닐 산지를 어더보라.” 길동이 더왈,

177) 이원수, 「<홍길동전>의 논리와 의미」, 『문화와 융합』 17, 문화와 언어연구회, 1996.

“쇼지 과연 디지를 어더스오나 천 리 밋괴 잇스오니 형상흐미 어렵스와 일노 근심이로쇼이다.” 좌랑 의형이 본디 길동의 지조를 아나 일변 허황이 너기는 지라. 그러나 그 효성이 지극흐를 아노고로 이 말을 듯고 디회 왈, “헌제 이미 길지 곳 어더시면 엇지 원노를 근심흐리오.” 길동 왈, “형장의 말숨이 니러흐 시면 명일 상구를 발헿쇼셔. 쇼제 벌서 안장헿 툇일가지 흐여 산역을 임의 시작흐여쓰오니 형장은 넘너치 마르쇼셔.” 흐고, 제 모친 춘낭 다려가물 청흐 니, 부인과 좌랑이 마지 못흐여 허락흐니라. (중략) “이제 친산을 니곳의 뵈셔 시니 디디로 장상이 쓴치지 아일 거시니, 형장은 밋비 고국의 도라가쇼셔. 형장은 야야 성시의 만히 뵈셔시니 쇼제는 야야 샤후의 뵈셔 향화를 극진이 흐 오리니 조금도 넘여 마르시고 또흐 일후 만날 췌 잇스리니 금일 발헿흐여 티 부인의 기다리미 업게 흐쇼셔.” 좌랑이 이 말을 듯고 그러히 녀여 인흐여 하직 하니, 밋서 제인의게 분부흐여 형중 범절을 준비흐여더라. 형헌 지 여러 날만의 본국의 득달흐여 모부인을 뵈웁고 길동의 전후스를 츠시 고희며 디지를 어 더 안장흐 연유를 고희니, 부인이 또흐 신기히 역이더라.¹⁷⁸⁾

위 인용문에서 길동은 효성이 지극함을 형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 상례 및 제사에 대한 주도권을 큰 반발 없이 물려받는다. 밑줄 친 길동의 말에 보이듯 그 명분은 ‘살았을 때는 형이 부친을 많이 모셨기 때문’인데, 애초에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떠날 때가 되어서야 인정받게 된 길동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이국땅에서 상장례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모부인 유씨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지 ‘신기하게’ 여길 뿐이다.

이는 서자인 길동의 지위를 ‘적자’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는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길동에게 가문 승계의 권한까지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모와 생모에 대한 상장례를 모두 자신이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초의 결핍이었던 천출소생의 설움을 능력을 통해 극복하고 최종적으로는 적자에 준하는 역할 행동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8)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23-24면.

한편으로 이는 당대의 종법 담론에서 첩자를 차별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바,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가문 승계도 얼마간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는 홍씨 집안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초반과 자신을 진작에 인정했다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¹⁷⁹⁾과 마찬가지로 적서 차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결이 다르게, 그토록 치열했던 적서 차별에 대한 저항 의식이 특별한 명분 없이 흐려진 모습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입장은 작품 말미에 소개되는 율도국의 질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길동이 왕위를 찬탈한 율도국에서는 장자 승계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세월이 여류하여 삼 년을 지내고 나라 정스를 게을리 아니하니, 강구의 동요와 노인의 격양가는 요순의 비길너라. 왕이 일즉 삼즉 이녀를 두어시니, 장자의 명은 현이이라, 이는 빅시 쇼성이오, 츠즈의 명은 창이이라, 이는 도시 쇼성이오, 삼즉의 명은 열이이라, 궁인의 쇼성이오, 이녀도 궁인의 쇼성니, 부풍모습하여 지기 괴골이 장더하고 문장 필법은 구예 일세 괴남지라. 왕이 아름다이 여겨 장즉로 세즉를 봉하고 기츠는 다 각각 봉군하며 이녀는 츠츠 부마를 간택하니, 그 거룩하미 일국의 진동하며 그 위의 비길 더 업더라. (중략) “그더 인간 부귀와 영복이 엇더하뇨. 이제 우이 서로 처쇼의 모일 씨를 만나시니 혼가지로 가미 엇더하뇨.” 하고, 집혔던 육한장으로 난간을 치니, 호련 뇌정벽역이 텃지 진동하더니 문득 왕과 두 왕비 간디 업는지라. 삼즉와 모든 시네 이를 보

179) “길동아, 네 혼 번 문을 나미 스싱존망을 아지 못하여 부친계서 병입고항하시거늘, 너는 가지록 불효를 끼칠뿐 아녀 국가의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네 무슴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며, 쏘흔 도적이 되여 세상의 비치 못헐 씨를 혼다. 이러무로 성상이 진노하샤 날노 하여금 너를 잡아드리라 하시니, 이는 피치 못헐리라. 너는 일즉 경스의 나아가 텃명을 순수허라.” 하고, 말을 맞츠며 눈물이 비오듯 하거늘,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왈, “싱이 이의 니르른 부형의 위티하물 구코져 하미니, 엇지 다른 말이 잇스리오. 더져 더감계서 당초의 천흔 길동을 위하여 부친을 부친이라 하고 형을 형이라 하여더들 엇지 이의 니르리잇고. 왕스는 일너 쓸 더 업거니와, 이제 쇼제를 결박하여 경스로 올너 보니쇼셔.”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고 망극하여 일장통곡하다가 거죽 관곽을 갖초와 예로써 신능을 정하여 안장
하고 능호를 형능이라 하니라.¹⁸⁰⁾

위 인용문에서 길동은 두 부인을 통해 삼자 이녀를 얻는데, 특별히 장자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진술도 없어 장자로 하여금 세자를 봉한 것은 기존의 종법 담론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길동의 활약과 더불어 적서 차별 담론에 대한 비판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은 초반에 길동이 능력이 뛰어난 서자로서 지녔던 문제의식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홍길동전>의 인과는 이미 정해진 인과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과를 구축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자는 호부호형을 할 수 없다는 법칙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플롯은 어떠한 법칙이든 능가하고 마침내는 생사의 법칙까지도 초월해버리는 모습으로써 형상화된다. 이렇게 길동이 마지막까지 닳을 내리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기존 담론으로부터 길동의 욕망이 지지받지 못했음을 뜻한다. 실제로 길동의 욕망은 그 성취과정에서 기존 담론을 위협하는 ‘대항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면모는 ‘발산형 플롯’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홍길동전>의 말미에 나타난 모습은 기존 담론과 화해하거나 그것을 수용하는 면모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작품의 독특한 면모이기도 하며, 살펴본 대로 <홍길동전>을 발산형 플롯으로 평가하는 데 반론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왜 이러한 면모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공간적 배열상의 특징과 갈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0)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28-29면.

(3) 서사 공간의 확대와 닫힌 갈등의 환상적 해소

앞서 살핀 인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살펴야 이 작품이 어떠한 플롯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고, 작품의 미학적 특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플롯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인 ‘배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다.

<홍길동전>의 사건 배열은 크게는 순차적인 방향을 따른다. 그런데 시간적 순차성과 함께 두드러지는 배열상의 특징은 무엇보다 ‘서사 공간의 확대’라 할 수 있다. 확장된 서사 공간 속에서 길동의 가정(假定)이 실현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삽입하는 등의 역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길동이 소동을 일으키는 데 대해 홍공과 인형이 길동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부호형을 허락받지 못했던 과거의 일이 회상되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회상이며 사건 자체가 역행하여 등장한 것은 아니기에 전체적인 배열의 순차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배열의 ‘선형성’은 발산형 플롯의 특징적 면모이기도 하다. ‘가정(假定)’의 사건과 구축되는 인과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이러한 특성은 대안 탐색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을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작품 속에 한층 더 가시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특징은 어떠한가?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는 기존 담론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갈등을 동반한다. 홍씨 집안에서부터 길동의 우울과 홍공의 병, 초란의 죽음 등 상당한 진통을 수반했던 갈등은 해당 공간을 벗어나서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활빈당을 조직한 후 길동이 벌인 행동들은 ‘의로운 행위’로 묘사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조세 징수와 같은 국가 기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심각한 ‘불충(不忠)’ 행위였다. 이를 통해 보면 서사 공간의 확대는 갈등 규모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길동의 욕망 성취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작품의 말미에는 길동이 보여주었던 대항 담론의 힘은 무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

한 역설적 면모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사건 연속을 바탕으로 갈등의 강도 및 서술의 밀도, 갈등의 지속 시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맨 처음 ‘호부호형’의 성취 사건에서의 갈등은 길동이 가문에 위협이 된다는 예언으로 인해 홍공이 병을 얻거나 초란이 보낸 자객을 길동이 살해하는 등 상당히 높은 강도로 나타난다. ‘가(家)’에서의 사건은 부속 사건에 있어서도 초점이 달라지는 일 없이 밀도 있게 서술된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선 길동의 행보는 그가 저지르는 사건의 강도에 비해 밀도 있거나 심각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길동이 집안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하였던 ‘비범한 능력’의 폭력성을 집밖에서는 제어하지 않고 발휘하여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집밖으로 나선 길동은 집단 활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물리적 힘을 입증 받아 활빈당을 조직하고, 다음으로는 속임수를 써서 해인사를 습격하고, 다음으로는 방화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함경관아를 습격한다. 그러다가는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활용해 개인행동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국가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서술과는 달리 스스로를 복제하여 한낱한시에 전국 감영의 재산과 서울로 가는 봉물을 탈취한다. 이는 명백히 국가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점차 커지는 집단에 걸맞게 스스로의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하며 대결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길동의 행위가 지속될수록 국가와의 갈등도 점차 커진다. 길동의 일을 왕이 알게 되고, ‘이흠’을 명하여 길동을 잡도록 하거나 그것도 실패하자 길동의 가족을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길동의 능력은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강도가 커져도 길동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감당해내며, 최종적으로는 직접 병조판서 벼슬을 요구하고 나라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토대로 그것을 획득하기까지 한다.

이 지점에서 <홍길동전>의 갈등이 지닌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길동이 겪는 갈등은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나, 혹은 기존 담론의 억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동원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달힌 갈등’이다. 길동이 홍씨 집안

에서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초란이 보낸 자객을 해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고, 국가 질서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고, 무엇보다 홍씨 집안이나 조정에 머물러서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인 것이다.

이를 이해할 때 갈등의 강도가 점차 커짐에도 길동은 오히려 점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길동은 자신이 ‘가정(假定)’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담론의 굴레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며 한층 강화된 갈등을 겪으면서도 집안에서처럼 수동적으로 고초를 겪는 모습이 아니라 놀이하듯 대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속 사건에 있어 밀도가 다소 느슨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은 ‘요괴’와의 대결이라는 점, 한 국가를 정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목숨이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훨씬 약화되어 있다. 기존 세력에게서 그가 지닌 가치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녹록치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길동의 뛰어난 지략과 병법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엔 충분한 것으로 그려지기에 ‘환상적 해소’의 특징이 한층 더 강조된다.

서술 밀도도 훨씬 느슨하다. 국외에서 길동의 행보는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화되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에 있는 부모의 상례에 관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억압한 가(家)의 존재는 중반부에 국가와의 갈등에서도 길동에게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성취가 극에 달한 길동이 도리어 가(家)를 돌아보며 그곳의 운용 질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독특하다. 집안의 근심이었다가 국가의 근심이 되었었던 길동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홍씨 집안의 모습 또한 독특하다. 길동과 홍씨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심지어 길동이 마치 서자가 아니었다는 듯이 협심하여 홍공의 장사를 치르고 길동에게 사후 봉양을 맡긴다.

이상 <홍길동전>의 갈등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선형적 배열이 공간 확대를 가능케 하고, 닫힌 갈등의 해소를 위해 확대된 공간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안의 탐색을 위해 이탈과 확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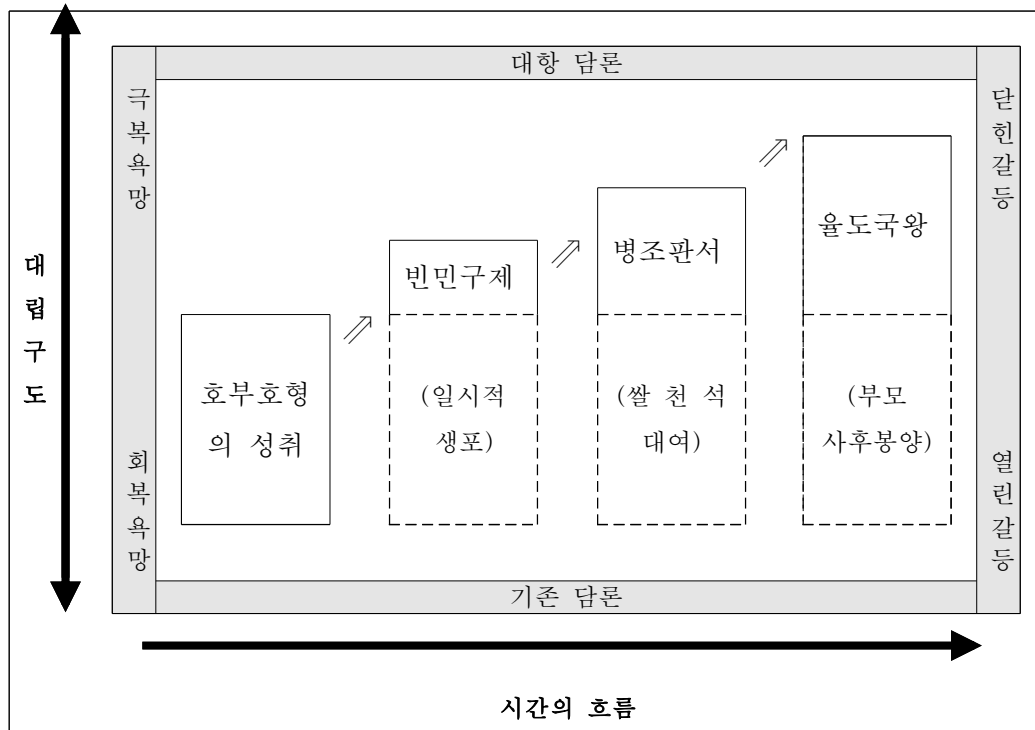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발산형 플롯의 중요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의 특징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스토리 요약에서는 사건 간 관계의 양상 및 미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알기 어려운데, 그림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사각형 칸 안에 기입하고, 인과 조직의 방식을 화살표를 통해 표현하며, 배열 양상을 사각형의 크기나 위치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플롯의 표층 요인을 가시화할 수 있다. 또한 기저 요인인 욕망, 담론, 갈등의 대립쌍들을 표시하여 해당 플롯의 의미역을 추측할 수도 있다.

<홍길동전>의 경우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였던 최초의 결핍이 가정(假定)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통한 최초의 극복 욕망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인공 길동은 사회에서의 성취, 국가에서의 성취, 해외에서의 성취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

이때 사건을 나타내는 사각형들 중 점선으로 된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환기하는 것은 바로 ‘가(家)’에서의 욕망을 의미한다. 호부호형에 대한 욕망이 역설적으로 성취된 이후, 이에 대한 불만족은 더 큰 공간에서의 욕망 성취로 이어지지만 최초의 욕망에 대한 양금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길동은 국가 권력과 대결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형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생포되거나, 국왕에게 쌀 천석을 빌려 조선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최종적으로는 부모의 사후봉양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점선으로 된 사각형은 기존 담론에 의지해서는 성취할 수 없는 욕망이고, 대항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후에야 환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욕망이다.

이렇게 ‘가정(假定)’으로부터 촉발된 대항 담론을 현실화하는 <홍길동전>의 플롯은 대표적인 ‘발산형 플롯’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하지만 ‘환상적 해소’를 통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 점, 서사 공간의 확대에 따른 선형적 배열을 통해 새로운 인과를 긴밀하게 구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발산형 플롯의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2> <홍길동전>의 플롯

(4) 발산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대안 세계 탐색

이렇게 <홍길동전>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두루 살핌으로써 이 작품이 ‘발산형 플롯’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을 촉발한 것이 호부호형을 필두로 하여 여러 층위에 걸쳐 있는 길동의 성취 욕망이며, 이는 ‘자신이 서자가 아니라면’이라는 길동의 가정(假定)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결말부에 율도국왕이 된 길동이 지난날을 반추하는 부분을 참고할 때 타당성이 획득된다.

일일은 왕이 티평연을 비설하고 만조백관을 모아 즐길시, 모친 더비를 띄우고 석스를 싱각하며 우연 탄식 왈, “쇼지 당초의 집의 이실 제, 만일 조국의 손의

죽어던들 엇지 오날날 이갓치 되여스리잇고.” 하며 눈울을 흘녀 룡포를 적시
거닐, 디비와 왕비 더욱 슬허허더라.¹⁸¹⁾

밑줄 친 부분에서 길동은 홍씨 가문에 있을 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지금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을 가정(假定)해 본다. 이는 초반에 자신이 서자의 신분이 아니었을 경우를 가정(假定)한 것과 대를 이루는 부분이며, 이 작품이 ‘가정(假定)’을 기반으로 하는 발산형 플롯에 속함을 확인시켜 준다.

‘구축되는 인과’의 성격에서도 발산형 플롯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호부호형의 욕망이 성취되어도 그것이 더 이상의 성취를 보장해주지는 못하므로 집을 나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배열의 면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이고 확장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발산형 플롯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배열 면에서는 다소 역설적인 면모가 보인다. 사건에 부여된 갈등의 강도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길동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국외로 이동함에 따라 서술의 밀도가 소강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길동이 처음에 품었던 욕망이 환상의 힘을 빌림으로써 해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때문에 길동은 처음에는 거부했던 기존 담론과의 관계를 결말부에서 재설정할 수 있게 된다. 홍씨 집안에서는, 조선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의 왕’이라는 기적적인 지위가 획득된 경우 길동은 자신의 근원인 ‘가(家)’와 조선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 <홍길동전>은 대안 탐색의 과정을 그리는 발산형 플롯 형태를 전형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발산형 플롯은 ‘반사실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욕망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 삶의 특성이기에 이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¹⁸²⁾

181)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182)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10쪽.

사실 말미에 ‘가’의 질서를 포섭하는 장면은 ‘질서 실현’이라는 수렴형 플롯의 특징으로도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처음에 가진 신분에 대한 질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길동에게 그가 고군분투했던 질서는 더 이상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부모에 대한 사후 봉양이나 울도국에서의 기존 질서 모방은 모두 예정된 질서가 실현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길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결핍을 매우 고자 하는 길동의 시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길동은 질서의 자장 밖에 있기에 갈등의 해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홍길동전>이 지닌 이중적 면모에 대한 논리적 모순은 이렇게 플롯 특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스토리만 보면 <홍길동전>은 본 연구에서 다룬 다른 작품들에 비해 사건의 수가 적고 변화의 폭이 커서 비약적인 인상을 준다. 이는 주요 사건의 골자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이본일지라도 행동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설화적 성격이 강한 경관본인 탓도 있으나, 작품의 미학적 구성이 스토리상으로는 감추어지는 탓도 있다. 예컨대 길동이 일부러 국가에 생포되는 것은 호부호형에 대한 욕망을 배척했던 아버지와 형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스토리상으로는 길동의 ‘일시적 순응’으로 요약될지라도, 그 맥락을 두루 살핀 플롯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욕망 성취를 저지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그것이 무력화될 때까지 상대를 지치게 하면서 대신 타협점을 찾는 협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홍길동전>은 스토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기존의 통념보다 훨씬 더 미학적인 플롯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씨남정기> 플롯의 특징과 의미

<사씨남정기>는 ‘처첩갈등’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린다. 유연수의 처 ‘사정옥’과 첩 ‘교채란’의 인물 형상이 대비되고 두 사람의 대립이 첨예하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유연수가 있어 사정옥을 쫓아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나 교채란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켰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정치하는 것은 유연수의 몫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유연수 개인의 의지로 인한 행동이기보다는 사정옥 또는 교채란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물론 처와 첩의 대립으로 한정하는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선악의 차이¹⁸³⁾나 욕망과 이념의 지향 차이만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가족 갈등으로서의 의미는 소홀해지기 쉬우나,¹⁸⁴⁾ 이 대립 관계가 유연수라는 가장을 통해 ‘가(家)’의 문제로 정초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가족 갈등’으로서 작품의 갈등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사정옥과 교채란의 인물 형상을 명확한 대조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연구들은 규범적 인물로서의 사씨 형상을 ‘욕망’의 견인을 받는 형상으로 대체하고, 교씨와의 차이를 욕망의 유무가 아닌 욕망의 성격 차이에서 찾는다. 하지만 <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과 교채란의 대립 구도는 인물의 선천적 성격과 개인적 지향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적극적 간섭으로 추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씨남정기>의 대립은 담론 상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사정옥의 욕망은 기존의 규범적 담론의 영향력에 가려지게 된다.¹⁸⁵⁾

183) 선악의 대립 구도에 주목한 연구로는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 구도」, 『한국문학연구』 12,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김미령, 「<사씨남정기>에 담긴 혐오적 시선」, 『국학연구논총』 17, 태민국학연구원, 2016 등이 있다.

184) 이승복, 앞의 글, 1995, 16쪽.

185) 사씨와 교씨를 ‘전통적 여성상’과 ‘본능적 여성상’으로 대비하여 연구해오던 경향은 1990년 후반 들어 변화가 시도된다.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에서는 사씨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내면화한 것을 넘어서서 “여성의 얼굴을 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학회, 2000에서는 사씨의 행동이 “이념 실천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하였다. 한미한 출신을 던고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총부라는 위치에 집착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양승민, 「<금병매>를 통해 본 <사씨남정기>」,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본 연구는 <사씨남정기>의 플롯을 고찰함으로써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 쟁점 또한 앞서 본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두 방향의 해석이 가능한 서사 요소에 대해 보다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유기적 의미 부여’를 위해 ‘사건의 인과적 배열’을 추적하는 본 연구의 플롯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1) 두 가지 ‘가정(假定)’에 담긴 ‘회복’과 ‘극복’ 욕망의 경합

<사씨남정기>의 플롯도 가장 먼저 ‘사건’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석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사씨남정기>의 스토리를 요약하였다. <그림 1>의 <홍길동전> 스토리 요약과 마찬가지로 플롯을 통한 변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적인 스토리이며 사건의 강조나 배열상의 특징에 대하여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남김 없이 요약하기보다는 상술한 쟁점을 해명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씨와 교씨의 대립을 중심으로 사건 연속을 시각화하였다.

2002에서도 사씨를 적극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여성으로 판단한다.



<그림 3> <사씨남정기>의 스토리

<그림 2>에서 정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건들의 공통 특징을 분석하면 이 작품이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홍길동전>과 달리 복수의 인물이 주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므로 각 인물별로 사건의 속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정옥의 경우 ‘교채란을 첩으

로 들이다’, ‘교채란에게 충고하다’, ‘인아를 낳다’, ‘(쫓겨나) 유씨 선영 아래에 거처하다가 (두부인을 찾아) 남정(南征)하다’, ‘임추영을 첩으로 천거하고 인아를 찾다’ 등의 사건에서 행위 주체가 된다. 교채란의 경우 ‘장주를 낳다’, ‘사정옥을 네 차례에 걸쳐 모함하다’, ‘동청과 집을 떠나 혼인하다’, ‘징치되다’ 등의 사건에서 행위 주체가 된다.

인물별로 나누어보았을 때 사정옥에 의해 견인되는 사건은 공통적으로 ‘유씨 가문의 계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교채란에 의해 견인되는 사건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도덕적 측면을 차치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두 사람의 행위는 모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인물들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일까? ‘왜 이러한 사건들이 선택되고 강조되었는지’에 대한 플롯 차원의 탐색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내 놓을 수 있다. 먼저 사정옥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가정(假定)’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이미 구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실을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그러나 가만히 근세의 부녀자들을 살펴보면 인륜을 무시하고 성인을 모욕합니다. 구고(舅姑)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투만을 일삼아 남의 가문을 어지럽게 하고 남의 선사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첩은 진실로 그를 분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미천하여 풍속을 교화할 수는 없으나 어찌 차마 그러한 잘못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부가 만약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정한 여색에 빠진다면, 첩이 비록 노둔하나 응당 혐의를 무릅쓰고 힘써 간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¹⁸⁶⁾

186) 김만중, 이래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31-32쪽. 이후 작품 인용시 이 책을 번역을 참고하며, ‘<사씨남정기>, 쪽수’로 표시하고자 한다.

위 인용문은 사씨가 혼인 후 십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첩을 구하기 시작하고, 이를 시고모인 두부인이 ‘투기’로 인한 화를 경계하며 만류하자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여기서 사씨는 투기를 일삼는 부녀자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또한 유연수가 부정한 여색에 빠질 경우를 가정(假定)하며 자신이 힘써 간함으로써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시부인 윤희가 혼인날 사정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과도 유사하다. 사정옥은 지아비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라도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고 있고, 형제는 서로 정도로 권면하고, 봉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하는데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¹⁸⁷⁾느냐는 대답을 한다. 그러면서도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간언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이 대답에 크게 만족한 윤희는 임종 시 유언을 할 때에도 유연수보다 사정옥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낸다.

이렇게 사정옥이 최초로 한 행위에 나타난 ‘가정(假定)’은 유씨 가문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유연수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의욕이 사정옥으로 하여금 총부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첩자 계승을 꾀하게 하고, 첩이 유연수를 미혹하지 않도록 음악 연주에 대해서도 충고를 하게 만들고, 모함을 받아 쫓겨난 후에도 유씨 가문을 바로 잡을 기회를 지근거리에서 잡기 위해 선영이나 시고모의 주변에 머무려는 마음을 품게 만든 것이다.

반면 교채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가정(假定)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가) “한림이 이 몸을 들인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이었지. 지금 만약 여아를 낳는다면 도리어 낳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야.”¹⁸⁸⁾

(나) “저 사람이 만일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나는 자연 무색할 뿐일 것인

187) <사씨남정기>, 28쪽.

188) <사씨남정기>, 35쪽.

데...”189)

(다) “저 사람이 걸으로는 어진 체 하고 있지. 하지만 화원에서 나를 책망한 말은 분명히 시기를 부린 것이었어.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참소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90)

(라) “이제 한림의 마음만 한번 변한다면 장차 부인을 참소하려고 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죽을 만한 장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191)

(가)는 자신이 잉태한 자식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이대로 딸을 낳을 경우를 가정(假定)하며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교채란의 말이다. 이에 교채란은 이십낭의 힘을 빌려 복중태아를 남아로 바꾼다. 교채란은 (나)에서도 사정옥의 잉태 소식을 듣고 사씨가 아들을 낳을 경우를 가정(假定)하며 그 경우 또한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걱정한다. 그러나 마땅한 계책을 찾지 못하고, 걸으로는 사씨를 축하하고 속으로는 앙심을 품는다. (다)에서 교채란은 ‘예상우의곡’을 연주하고 꾸지람을 들은 일을 반추하면서 사씨가 자신을 시기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사씨가 유연수에게 자신을 참소할지도 모른다는 가정(假定)을 하며 역시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로 인해 점차 심화되는 모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정옥이 축출된 후 유연수가 지난 일을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자 동청이 교씨에게 이야기한 바이다. 유연수가 이대로 변심한다면 교씨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가정(假定)을 하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참소’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기실 지난 잘못에 대한 징치가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동청의 가정(假定)에 교씨도 동의한 결과, 유연수마저도 쫓아내고 동청과 교씨가 유씨 집안을 나가 혼인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89) <사씨남정기>, 44쪽.

190) <사씨남정기>, 45쪽.

191) <사씨남정기>, 117쪽.

이렇게 사씨와 교씨 모두에게서 ‘가정(假定)’이 이루어지는 점은 <사씨남정기>의 플롯에 대해 ‘발산형 플롯’이라고 판단할 여지를 준다. 대넌버그가 발산형 플롯의 특징으로 꼽은 ‘만일 ~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미지의 사건을 상상함으로써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가정(假定)은 대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발산형 플롯’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기 어렵다. 사씨의 경우 유씨 가문에 위기가 왔을 상황을 가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잡겠다는 다짐을 하는 반면, 교씨는 자신의 생존과 안락에 위기가 왔을 상황을 가정하고, 그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고군분투한다. 여기서 사정옥의 ‘가정(假定)’은 집안의 가장인 유연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덕적 완전성으로 무장하려는 행위를, 교채란의 ‘가정(假定)’은 유씨 가문에서 축출되어 불우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행위를 이끌어 낸다.

이렇게 보면 사정옥의 가정(假定)은 현재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족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유씨 가문을 잘 지탱해 오고 있는 가성(家聲)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발산형 플롯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수렴형 플롯의 특징에 가깝다. 질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假定)하는 것이기에 이는 뒤집어 보면 정해진 질서의 실현을 강하게 염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정해진 질서나 관계의 인식(認識)을 특징으로 하는 수렴형 플롯에 부합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와 교씨에 의해 건인되는 사건은 두 가지 ‘가정(假定)’으로부터 출발한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따져보면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러한 사건을 이끄는 플롯의 기저 요인인 ‘욕망’을 관련지어 볼 때 두 가지 플롯의 충돌이 한층 명확해진다. 사씨의 경우 공고히 유지되어 온 가문의 안정적 질서에 대한 ‘회복 욕망’을 내비치고 있고 교씨의 경우 ‘첩’이라는 자신의 불리한 지위에 대한 ‘극복 욕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욕망은 두 사람의 욕망이 동시에 성취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사씨의 욕망대로 안정적 질서가 회복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씨가 사씨의 충고대로 몸가짐을 단정하고 엄정히 해야 한다. 반대로 교씨가

자신의 불리한 지위를 극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씨의 존재가 없어야 한다. 이 두 욕망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어서 ‘경합’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합 또한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충돌하는 징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인과 조직의 전환과 대항 담론의 패배

사건과 욕망에 대한 통찰에서 나아가 이 작품이 활용하고 있는 ‘인과’ 조직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플롯의 특징을 한층 더 명료화할 수 있다. 사씨와 교씨에 의한 두 가지 ‘가정(假定)’이 촉발하는 사건들은 서로 다른 욕망을 바탕으로 하듯 인과 관계의 구축 방식에도 간극이 있다. 이 차이란, 사씨의 경우 이미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신념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교씨는 혹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사씨는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행위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교씨는 그러한 원칙 없이 매번 다가오는 변수를 피하려고만 한 것이다.

사씨의 ‘가정(假定)’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앞서 본 사씨의 ‘가정(假定)’으로 돌아가 보자.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 상황에서 사씨는 ‘투기’라는 부녀자들의 감정에 자신은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과, 혹여 가장이 미혹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자신이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첩을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정(假定)하여,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인 ‘담론’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요약한 사건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씨는 가부장제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당대의 지배 담론들을 행위의 원칙으로 삼고 그에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씨와의 관계에서 특히 강하게 따르고 있는 담론은 ‘투기 금지

담론¹⁹²⁾이다. 이 담론은 15-16세기에도 《소학》과 같은 교훈서를 통해서도 유통되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였기에 다소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¹⁹³⁾ 각종 설화를 통해서도 사회적인 시각에서보다는 개인적이고 유희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17세기에 들어 송시열(1607-1689)의 <우암선생계녀서>나 한원진의 <한씨부훈> 등을 통해 한층 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다.¹⁹⁴⁾ 가부장제 질서의 공고화와 안정적인 유지가 사회적 의제가 된 상황에서 ‘투기’라는 감정이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투기’라는 감정의 사회적 영향은 “부인의 질투는 심하게는 남의 집안을 망치고 남의 대를 끊어지게까지 합니다. 이것은 의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아들은 곧 자기의 아들이니 만약 자손이 많이 불어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라는 말에도 드러나 있으며, 사대부들은 이러한 의견을 모범적인 것으로 칭송하며 투기 감정을 다스려왔다.¹⁹⁵⁾ 부인들의 입장에서조차 첩의 존재는 처의 덕성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다.¹⁹⁶⁾ 사씨가 최초로 한 가정(假定)의 맥락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 있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假定)일지라도 기존의 담론과 친연성이 있다.

이렇게 사정옥이 한 최초의 ‘가정(假定)’은 ‘가(家)’를 위해서 ‘투기’라는 개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담론적 입장, 또한 가문의 유지를 위해 첩자 승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담론적 입장에 기초해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첩자 승계를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덕성을 강조하고, 가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욕

192) 김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에서는 불투기의 규범이 가부장적 가족 질서 유지를 위해 ‘축첩’에 대한 여성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193) 류정월, 「‘투기하는 부인’의 형상화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61쪽.

194) 위의 글, 63쪽.

195)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 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373쪽.

196)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황수연, 앞의 글, 2006;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망과도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가(家)’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담론’에 조화롭게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사씨의 ‘규범적’ 형상은 훼손되지 않는다.

이후 사정옥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러한 담론적 입장에 기반을 둔다. 교씨가 ‘예상우의곡’을 연주하는 것에 충고를 하는 것도, 동청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유연수에게 권하는 것도, 유씨 가문에서 쫓겨났을 때 유씨 선영에 머무르는 것도, 두부인에게 의탁하고자 장사 땅으로 향하는 것도, 유연수를 다시 만났을 때 사당에 고하는 절차 없이는 사사로이 부인으로서 다시 행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임추영을 첩으로 들여 유씨 가문의 대를 잇고자 도모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담론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번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교씨에게 음악에 대해 충고한 것은 도리어 앙심과 모함으로 돌아오고, 동청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간한 것도 유연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바람에 오히려 동청의 경계심을 사모함의 강도만 높아질 뿐이다. 유씨 선영에 머무를 때도 냉진의 겁탈 위협을 꿈에 나타난 시부모의 예언을 통해 가까스로 벗어나야 했고, 장사 땅으로의 여정도 두부인의 아들 두추관이 상경했음을 뒤늦게 알고 절망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계속된 시련과 실패는 사씨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신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확고한 원칙에 의거한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바람직한 결과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 사정옥이 회의를 느끼게 된 장면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년모월모일, 사씨정옥투수사(謝氏貞玉投水死).” 이윽고 붓을 던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푸른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혹독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가? 옛 사람이 이른바 복선화음(福善禍淫)이라는 말도 부질없는 소리가 아닌가?” 사씨가 다시 말했다. “비간(比干)은 심장을 찢겼고 자서(子胥)는 눈알을 뽑았어. 굴원(屈原)은 상강에 빠졌고 가의(賈誼)는 복조부(鵬鳥賦)를 읊었지. 예로부터 본디 그와 같았다네. 나 또한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시 북쪽을 향하여 축원하였다. “부모님과 구고님의 신령이시

여! 하늘 위에 양양하게 떠 계십니다. 비읍건대 소녀의 뉘를 건져 올리시어 함께 노닐 수 있게 하소서!” 사씨는 유모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다시 술잔을 들고 소사의 사당에 올라가고 싶다네. 이제 그럴 수가 없을 것이야. 내 아이는 생사가 어찌 되었는가? 내 아이와 아우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련만...”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붙잡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파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었다. 그 깊이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일색(日色)은 참담하고 음산한 구름은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원숭이가 슬피 울고 귀신은 휘파람을 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사람의 비분(悲憤)을 돕는 듯하였다. 마침내 세 사람은 함께 큰소리로 울었다. 사씨는 숨이 막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유모와 아환이 사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¹⁹⁷⁾

위 인용문은 사씨가 남정의 최종 목적지인 장사 땅에 도착하기 직전, 두 추관이 더 이상 장사 땅에 없음을 듣고 ‘회사정(懷沙亭)’에 올라 탄식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사씨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이라는 말의 부질없음에 대해 생각한다. 두부인에게 의탁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아이마저 잃어버린 상황은 더 이상 유씨 가문과 연루될 기회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도에 대한 의심은 꿈에 아황과 여영을 만난 장면에서도 이어진다.

“낭랑께서 그렇게 하교하시니 천첩은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첩은 참으로 우매하여 ㉠‘천도(天道)는 무사(無私)하니 오직 선인(善人)을 돕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다시 보니 크게 그렇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충신 의사가 참화(慘禍)를 당한 자로서 오자서나 굴원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 삼아 여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략) 그러나 소사께서 세상을 버리신 후로 집안 일이 크게 어긋났습니다. ㉡첩의 한 몸은 남산(南山)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서 쓴다 하더라도 그 죄상(罪狀)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해(東海)의 물을 모두 길어서 붓는다 하더라도 그 오명(汚名)을 다 씻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197) <사씨남정기>, 97쪽.

첩은 얼굴을 가리고 시가(媿家)의 대문을 나섰으며 눈물을 뿌리며 구고(舅姑)님의 산소를 떠났습니다. 첩의 종적은 인간세상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이 소상강에서 앞이 막혀 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길 물가에 서서 실낱 같은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벌레 같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첩처럼 곤궁한 경우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녀자의 좁은 소견인지라 천지에 유감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망령스럽게도 슬피 부르짖어 낭낭으로 하여금 그 호소를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후략)”¹⁹⁸⁾

인용문에서 사정옥은 ㉠과 같이 ‘하늘이 선인을 돕는다’라는 대원칙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음을 호소한다. 또 ㉡과 같이 시부 유희가 죽은 후 집안의 일이 크게 어긋나 자신의 죄상과 오명이 건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하며, 자신의 행위 원칙이 바람직한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했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보상이나 징벌은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일회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아황과 여영의 말¹⁹⁹⁾을 통해 사씨의 관점은 교정된다. 자서와 굴

198) <사씨남정기>, 100-102쪽.

199) “그대는 굴원의 천문(天問)을 본받고자 하시는가? 내가 조목조목 들어가며 말씀을 올리지요. 오나라 임금은 광패(狂悖)하고 초나라 회왕은 혼암하여 하늘에 죄를 지었소. 그 때문에 하늘은 저 두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었다오. 자서(子壻)와 굴원이 쓰일 수 없었던 것은 사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소. 어찌 하늘이 두 사람을 미워하였겠소? 가령 장공(莊公)이 장강(莊姜)의 보좌를 받았더라면, 위나라는 반드시 초 장왕이 이룩하였던 패업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오. 성제(成帝)가 반첩여(班婕妤)의 경계를 들었더라면, 한나라는 반드시 주(周) 선왕(宣)이 이룩하였던 중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두 임금은 어리석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소. 따라서 두 부인들도 자연히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라오. 하늘이 오와 초를 멸망하게 하고 위와 한을 쇠잔하게 하여 그들 네 임금의 죄를 다스렸소. 그러나 네 사람의 신하는 덕행과 명절(名節)을 훌륭하게 세울 수 있었소. 백 번을 단련해야 좋은 죄를 얻을 수 있고 날씨가 추워야 송백(松柏)의 지조를 알 수 있지요. 그들이 성취한 바는 참으로 우뚝하여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룰 만하였소. 네 사람은 생전에 한때 곤궁을 당했으나 사후에는 만세토록 영화를 누렸던 셈이지요. 천도가 소소(昭昭)하니 어찌 어긋나는 일이 있겠소? 그러나 한림은 너무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아직 천하의 사리를 두루 알지 못한다오. 따라서 하늘이 일시 재앙을 내려 한림을 크게 깨우쳐 주려 하고 있다오. 그 때문에 부인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한림이 허물을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부인으로 하여금 돕게 하

원, 장강과 반첩여가 버림을 받았던 것은 오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임금을 벌하기 위해서였고, 그렇기에 자서, 굴원, 장강, 반첩여의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천도의 밝음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황과 여영의 대답이었다. 이 대답을 통해 사정옥이 실패한 까닭은 ‘한림(유연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된다. 고사 속 ‘장공’과 ‘성제’가 어리석어 두 부인도 자연스럽게 버림받고 신하들도 고초를 겪었듯, 유교 질서의 중심에 있는 가부장과 임금에게 상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공교롭게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씨에게서 신뢰를 상실했던 복선화음의 대원칙은 꿈에서 만난 아황, 여영의 말을 통해 보수(補修)된다. ‘천도(天道)’는 언제나 옳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에 고통을 겪은 선인은 장기적으로 보상받으며, 사정옥이 비록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이는 악인에 대한 더 큰 징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라고 생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후로는 유연수와 혼인할 때 매개가 되었던 여승 청원에게 두 부부가 순차적으로 구조를 받아 재회하고, 장사 땅으로 오는 길에 신세를 졌던 임추영을 통해 인아를 찾고 첩으로도 들일 수 있게 되는 등 사씨를 돕는 방향으로 사건의 전개 방향이 바뀐다. 플롯의 전반부까지는 체감할 수 없었던 천도(天道)의 작용이 이제부터는 이루어리라는 예고가 나타남으로써 사씨와 교씨의 향방이 교차하는 데 명분을 부여한다.

정리하면 사씨가 겪어가는 사건들의 인과는 복선화음의 대원칙 하에 투기금지의 담론을 ‘선(善)’으로 믿었던 것이 원인이 되나, 교씨의 사사로운 욕망과 천도의 기획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로 귀결된다. 그러나 다시 천도의 기획으로 인해 성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에 반해 교씨는 사씨처럼 가부장제 질서 유지를 위한 기존의 지배 담론을 행위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다. 교씨의 ‘가정(假定)’으로 인해 촉발된

려는 것이랍니다. (중략) 부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한때 뜻을 얻어 음란과 사치를 일삼으며 즐거워하고 있소. 하지만 이는 하늘이 저들의 악행(惡行)이 크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임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라오.” (<사씨남정기>, 102-104쪽)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따져보면 모두 ‘당면한 사태를 피하려는 마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교씨도 유씨 가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가부장제 질서에 크게 반발하는 일 없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씨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명예나 지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주는 사씨에게 크게 적대감을 품을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사정옥이 교채란의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 연주에 대해 충고한 일로 교씨의 마음이 변화한다.

“천한 기예라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낭자의 거문고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소. 그런데 나와 낭자는 정리(情理)로는 형제와 같고 의리(義理)로는 벗과 같지요. 이제 낭자를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단만...”

“부인께서 가르쳐만 주신다면 천첩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이지요. 그 곡조가 세상에서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대요. 그러나 그 시대를 논한다면 명황(明皇)의 호화와 부귀가 극에 달했다가 끝내 안록산의 난을 만나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 갔던 때였소. (중략) 그러한 망국(亡國)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하는 듯 하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화평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대요. 비단 옛날 곡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셈이지요. 또한 낭자가 노래한 시를 살펴보건대, 앵앵(鶯鶯)은 실절한 여인이었고 설도(薛濤)는 창녀의 몸이었소. 그 시가 비록 공교롭다고는 하나 그 행실은 매우 비천하였던 것이지요. 고금의 음악이 아조(雅調)가 아닌 것이 없소. 당나라 때 시 가운데에도 또한 노래할 만한 것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낭자는 어찌하여 그러한 곡조를 택한 것이었소?”

교씨는 크게 부끄러워 머뭇거리다 사죄하였다. 200)

위 인용문에는 집안의 기강을 잡기 위해 악곡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사정옥의 말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 이는 사정옥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행동이다. 가부장제 질서의 수호를 위해 음악까지도 통제해야 한다는 사씨의 엄정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정옥의 말을 들은 교채란은 표면적으로는 즉각 사죄하나, 속으로는 앙심을 품는다. 그래서 유연수에게 사정옥이 충고한 일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털어놓는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 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선소사(先少師)의 가품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 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후(呂太后)가 척부인(戚夫人)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병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고 하셨습니다.”²⁰¹⁾

제시된 인용문에서 교채란은 앞서 인용한 사씨의 조언을 왜곡하여 유연수에게 전달하고 있다. ‘가품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자신이 그 말을 들은 이유를 사정옥의 투기라고 말하는 것은 ‘투기 금지 담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내는 사씨의 신념에 공감하지 못한

200) <사씨남정기>, 38-39쪽.

201) <사씨남정기>, 42쪽.

결과이다. 앞서 사씨가 자신을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가정(假定)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듯 교씨는 사씨가 자신을 배척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추측일지는 모르나 사씨는 ‘투기 금지 담론’을 확고히 지지하는 인물이기에 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공연한 불안인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번의 가정(假定)을 통해 보았듯 교씨의 불안은 그치지 않는다. 유연수가 자신의 아들 장주와 사씨의 아들 인아를 비교하며 인아를 편애하자 교씨는 한층 더 극심하게 사씨를 모함한다. 동청으로 하여금 사씨의 필체를 모방하게 하여 교채란과 장주를 저주하는 글을 써서 유연수에게 보이기도 하고, 냉진을 매수해 사정옥의 부정(不貞)을 꾸미기도 한다. 이는 점점 극심해져 장주를 죽게 하여 사정옥이 꾸민 일로 몰기도 한다. 애초에 교채란이 품은 욕망은 득남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유씨 가문에서 내쫓기지 않는 것뿐이었는데²⁰²⁾, 득남 후 사정옥의 충고를 계기로, 또 유연수의 자식 편애를 토대로 점차 그보다 더 큰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정실 부인의 위치에 오른 뒤에는 다른 방향의 욕망까지 품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교씨는 자신이 최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얼굴을 단장하고 말이나 꾸몄다. 또한 음란한 노래와 고운 곡조로 한림을 고혹하려 하였다. 혹독한 형벌을 써서 노복들도 제압하였다. 간혹 자신의 신상에 관한 말을 하는 노복의 경우에는 문득 불로 살을 지지고 칼로 혀를 잘랐다. 집안의 하인들은 너무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 감히 똑바로 교씨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마침내 교씨는 더욱 방자해졌다. 매번 한림이 궁중에서 숙직을 서는 경우에는 유독 납매만을 거느리고 백자당에서 잤다. 그리고 버젓이 동청을 그곳으로 불러들였다. 하인들 가운데에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적지

202) 이는 교씨가 복중태아를 여아에서 남아로 바꾸는 이유가 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데 대한 강박은 다음과 같은 교씨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림이 이 몸을 들인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이었지. 지금 만약 여아를 낳는다면 도리어 낳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야.” (<사씨남정기>, 35쪽)

않았다. 그렇지만 단지 속으로 분통을 터뜨릴 따름이었다.²⁰³⁾

자신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들킬까 봐 폭력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동청과 버젓이 간통하는 교채란에게서 불안감을 이겨내려는 마음이 욕망으로 변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보인다. 이 과정은 사씨가 축출되고 유연수가 지난 일에 대해 의심을 품을 때 지난 일이 들킬까 봐 불안한 마음을 아예 유연수를 쫓아버리고 자신들이 재산을 탈취할 마음을 품는 동청과 교씨의 모습에 다시금 나타난다. 사씨가 ‘담론’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신념을 원인에 두고 행위를 해 나간 것과 달리, 교씨는 매 순간의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행위하고 이는 부정한 술수나 살인, 재산 탈취 등을 가리지 않고 지위나 재산, 쾌락 등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표면적으로는 이십낭의 도술과 동청과 냉진의 철저한 계략 때문에, 심층적으로는 천도의 기획 때문에 교채란의 행위는 매번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교채란의 욕망 성취가 극에 달했을 때, 또한 유연수가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교채란의 성공 가도는 멈추고 몰락을 향해 나아간다. 먼저 동청, 교채란과 한 패였던 냉진이 동청을 배반함으로써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난다.

동청이 보냈던 도적의 무리는 결국 한림을 죽일 수 없었다. 그들은 동청에게 돌아가 그대로 고했다. 동청과 교씨는 몹시 두려웠다. 이에 다시 집안의 장정들에게 명하여 한림의 거처를 찾아보게 하였다. (중략) 동청은 할 일이 많았다. 또한 때때로 영내의 고을을 순행하기도 하였다. 냉진은 오랫동안 동청의 압객(狎客)으로 머물고 있었다. 그는 틈을 타서 교씨와 정을 통하였다. 마치 동청이 유씨 집에 있을 때와 같은 처사였다. (중략) 냉진은 서울에 도착하여 뜻밖의 말을 들었다. ‘천자가 엄승상의 간사함을 점차 깨닫고 그의 관직을 삭탈한 후 시골로 추방하였다. 가재(家財)는 적몰하여 관수(官需)로 편입하게

203) <사씨남정기>, 113쪽.

하였다’는 소문이였다. 냉진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였다.

“동청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 하지만 사람들은 엄승상이 두려워 감히 그를 고발하지 못했던 것이야. 이제 빙산(氷山)이 녹았어. 동청이 어찌 오래 갈 리가 있겠는가? 계책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이야.”²⁰⁴⁾

냉진은 법관에게 동청의 죄를 고하여 참수 당하게 하고, 연좌되어 관비가 된 교씨를 돈을 주고 산다. 늘 의탁할 대상을 찾던 교씨는 순순히 응하고 냉진과 함께 한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몰락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 무렵 교씨는 냉진을 따라 올라가 동창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살림이 영락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교씨는 날마다 냉진에게 욕을 퍼부었다. (중략) 냉진은 이미 재보(財寶)를 모두 잃었다. 더욱이 교녀의 원망과 욕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 왕공자라 하는 동향 사람이 하나 있었다. 집안이 부유하고 나이가 어린 자였다. 냉진은 밤낮없이 그를 유혹하여 창루와 주막을 출입하였다. (중략) 왕공자의 장인이 인근 고을의 태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공자가 냉진의 유혹에 빠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중략) 냉진이 도착하자 큰 곤장으로 백여 대를 치게 하였다. 냉진은 수레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장창(杖瘡)이 심하여 독기가 온몸으로 퍼져 결국 몇 달 만에 죽고 말았다. 교녀는 다시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다.²⁰⁵⁾

냉진은 동청이 유씨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교채란을 얻고 세력가의 자제를 꺾어 쾌락을 누리지만, 동청에 대한 징치가 그랬던 것처럼 역시 더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징치를 받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동청의 몰락과 냉진의 몰락이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되는 것은 교씨가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동원한 모든 행위들이 그 방향을 되돌려 실패로 향해

204) <사씨남정기>, 145-146쪽.

205) <사씨남정기>, 165쪽.

나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갈 곳이 없어진 교씨는 결국 창기가 되어 서주에 머무르는데, 창기로 전락한 이후에도 그 욕망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때 교녀는 이미 서울에 도착하여 가까운 곳에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하인들은 교녀를 교자에 태우고 유씨 집의 대문 앞으로 갔다. 교녀가 깜짝 놀라 종자에게 물었다. 저것은 곧 유한림의 집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종자가 대답했다.

“유한림이 귀양을 떠난 후 우리 노야께서 저 집을 사셨답니다.”

교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참으로 저 집과 인연이 깊구나. 필시 다시 백자당으로 들어가 살 것이야.”²⁰⁶⁾

위 인용문은 교채란이 유연수의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일말의 반성 없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장면이다. 사정옥이 최종 순간까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교채란은 계속해서 대상을 바꾸어 가며 진행되는 욕망에 의존해 행위한다. 그러나 교씨가 다시 찾은 유씨 집에는 개과한 유연수와 복귀한 사정옥이 있었고, 교씨는 그간의 잘못을 모두 징치 받는다.

이렇게 교씨는 집안에서 축출되지 않으려는 ‘불안’을 바탕으로 행위했고, 그 행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인적 ‘욕망’의 추구로 번져갔다. 독특한 것은 교씨의 불안은 유씨 가문에 있을 때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유씨가문에서 벗어난 후에는 동청이 죽어도, 냉진이 죽어도, 창기가 되어도, 다시 말해 자신이 그토록 불안해했던 상황이 차츰 실현이 되어도 교씨는 그에

206) <사씨남정기>, 168-169쪽.

대한 특별한 감정적 반응이나 적극적 저항을 내보이지 않는다. 이는 교씨의 불안이 ‘가(家)’라는 특수한 서사 세계 속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유씨 집안에서 벗어난 후에는 유씨 집안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처럼 교씨는 명예나 지위보다는 어디든 의탁할 곳이 있는 것이 중요한 규범 바깥의 인간으로 돌아간다. 그렇기에 교씨의 몰락도 ‘가(家)’와 관련해서야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씨와 교씨는 각각 기존 담론과 그에 반하는 대항 담론을 바탕으로 행위하고, 사씨와 유연수가 쫓겨나기 전까지 각각의 행위는 실패와 성공으로 승패가 뚜렷이 나뉜다. 그러나 그러한 승패는 모두 ‘천도의 기획’이라는 기존 담론과 친연한 인과 조직에 의해 전환된다. 이를 기점으로 사씨가 지지하는 기존 담론이 대항 담론보다 우세하게 되는 것이다. 사씨가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교씨가 실패한 이유는 예정되었던 천도의 법칙이 사씨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교씨는 그러한 법칙에 대한 고려 없이 불안을 피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성취하려는 이유로 행위에 왔고 그렇게 구축된 인과의 원칙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담론의 실현을 위시하는 수렴형 플롯과 대항 담론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발산형 플롯이 서로 교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구축되는 인과 관계가 예정된 인과의 실현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회사정에서 사씨가 아황, 여영과 만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이전까지 구축된 인과가 천도의 기획에 따라 ‘한 걸음 물러선’ 결과였음이 설명되고 있다. 결국 최종 승리는 예정된 인과의 실현과 그를 가능케 하는 기존 담론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중반까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밀하게 구성되어 온 대항 담론은 기존 담론에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비록 대항 담론이 패배했어도 초점은 패배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존 담론이 겪은 진통에 있다. 제목에서 보이듯 <사씨남정기>는 교씨의 실패와 사씨의 성공이 아니라, 사씨가 왜 ‘남정’이라는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다시 말해 기존 담론에 대한 신념이 있더라도 대항 담론의 영향을 받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는 플롯인 것이다.

(3) 서사 공간의 회귀와 닫힌 갈등의 현실적 제시

그렇다면 플롯을 완결성 있게 구축하고 미학적 효과를 자아내는 표층 요인인 ‘배열’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홍길동전>과 비교했을 때 <사씨남정기>는 배열의 측면에서 ‘서사 공간의 회귀’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사씨남정기>의 사건은 <홍길동전>처럼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홍길동전>이 ‘극복’ 욕망에 기초하여 결핍된 지위를 획득하고자 공간을 이탈하는 과정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사씨남정기>에서는 ‘이탈’의 의미가 인물에 따라 다르고, 어떤 인물은 ‘회귀’를 하고 어떤 인물은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사씨남정기>에서 이탈과 회귀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유씨 가문은 사씨에게는 ‘회복’ 욕망의 대상이 되고 교씨에게는 ‘극복’ 욕망의 대상이 된다. 전반부까지는 교씨의 극복 욕망이 우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며, 이는 긴밀한 사건 배열을 통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중반부에 그 모든 배열이 ‘천도(天道)’에 해당한다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후반부 사건은 천도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이 펼쳐지며 사씨의 ‘회복’ 욕망이 사건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러한 인과 관계의 전환과 궤를 같이하며 사건 배열도 공간에 있어서의 ‘회귀’로 드러나는 것이다.

서사 공간상의 회귀는 시간상의 배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길동전>은 서사 공간의 확대와 시간적인 순차 배열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는 <홍길동전>이 부친이나 국왕 등 대결 상대가 있더라도 그들이 길동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인물의 행위가 배열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씨남정기>처럼 대등한 세력을 가진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서사적 시공간이 일방향적 배열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사씨남정기>는 <표 1>과 같은 교차 배열이 특성을 보인다. 전반부까지 <사씨남정기>는 중심인물의 수가 여러 명이기에 각 인물이 각자 다른 공간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갈 때는 해당 인물의 일을 충분히 전개한 후에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다른 인물의 일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

한 서술 방식은 사정옥, 유연수, 교채란이 차례로 집을 나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다. 이 부분의 사건 배열 양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시간의 흐름	사정옥	유연수	교채란
	1) 사정옥이 유씨 선영 아래에 거처하다.	3) 유연수가 유배가다.	4) 교채란이 동청과 집을 떠나 혼인하다.
	2) 사정옥이 남정(南征)하다.	5) 유연수가 회심하고 해배되다.	
	6) 유연수와 사정옥이 재회하다.		7) 동청과 냉진이 몰락하다.
	8) 유연수와 사정옥이 지위를 회복하다. 9) 사정옥이 임추영을 첩으로 천거하다. 10) 유연수와 사정옥이 임추영을 통해 인아를 찾다.		
	11) 교채란이 징치되다. 12) 유가가 번영하다.		

<표 1> <사씨남정기>의 교차 배열

사건 앞에 붙은 번호는 배열의 순서를 표시해 준다. 사정옥에게서 1), 2)의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유연수에게 3), 5)의 사건이 일어나고 교채란에게는 4)의 사건이 일어나는 식이다. 그런데 5)의 사건에는 해배된 유연수가 계림 태수로 부임하는 동청과 교채란의 행렬을 목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복수 인물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때의 서술 범위는 인물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이다. 이러한 교차 배열의 방식은 사건 간의 비약이나 순서의 역행을 최대한 방지하여 긴밀한 서술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지니지만 하나의 서사 속에서 완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영역이 조화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긴밀한 서술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사건 배열은 핵심 사건뿐 아니라 부속 사건 차원에서도 엮보인다. 교채란이 사정옥을 모함하는 사건 중 ‘사통’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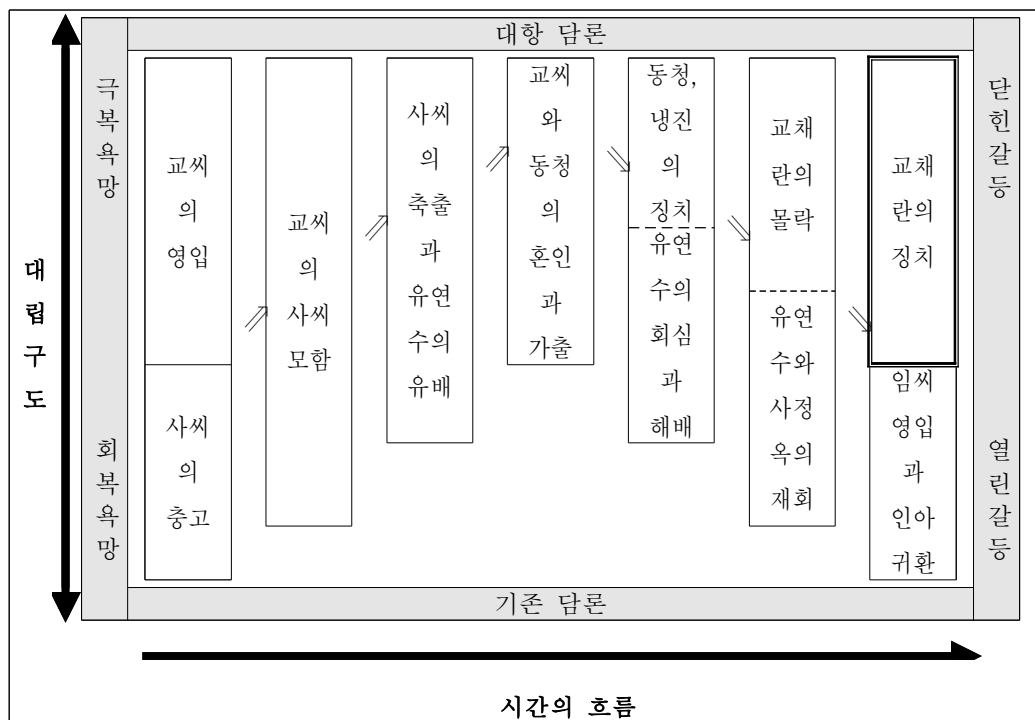
다는 모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 사건을 개연성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부속 사건에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숙한 사정옥에게 ‘사통’이라는 모함을 덮어씌우는 것에 대해 유연수가 의심을 하지 않게끔 그럴 법한 사건이 적재 적소에 배치되는 것이다. 예컨대 ‘친정모가 위독하여 사정옥이 친정인 신성으로 간’ 사건은 유연수로 하여금 사정옥이 그 시간 동안 사통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느끼게 만드는 조건이다. 또한 그 시간이 ‘유연수가 산동으로 부임한’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교체란이 사정옥의 옥환을 훔쳐 계략을 꾸밀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냉진이 주저하며 옥환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유연수가 냉진을 더욱 신뢰하고 사씨에 대한 의심을 한층 깊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 조건을 치밀하게 배열하여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씨남정기>의 사건 배열 특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의 특징은 어떠한가? 먼저 <사씨남정기>의 갈등도 <홍길동전>의 갈등처럼 ‘단힌 갈등’의 양상을 띤다. 그러니까 기존 담론이 대항 담론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개방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사 공간의 회귀’를 통해 사씨와 교씨는 분리되고 교씨는 구제의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홍길동전>은 이를 환상적인 공간으로의 이탈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기존 담론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반면, <사씨남정기>는 현실 공간으로 회귀함으로써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사씨가 아황, 여영과 만나거나 시부모의 꿈을 꾸고 목숨을 건지는 장면은 환상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례이기는 하나, 작품에 제기되는 핵심 문제를 해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처첩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심각성은 끝내 해소되지 못하고 교씨의 몰락을 통해 현실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패배하는 욕망과 담론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화합이 불가능한 세계의 균열을 노출한다.

배열과 갈등의 측면에서 <사씨남정기>가 보여주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서사 공간의 회귀와 복수 주인공에 의한 사건의 교차 배열, 단힌 갈등의 현

실적 제시가 주요한 특징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충하였을 때, 그리고 끝내 동질화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이 복합되어 교차의 양상을 보이는 플롯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롯 특징은 <그림 4>와 같이 시각화가 가능하다.



<그림 4> <사씨남정기>의 플롯

<그림 4>는 극복 욕망에 의해 추동된 교씨의 영입이 사씨의 충고에 담긴 회복 욕망과 경합하여 ‘모함’ 사건을 일으키고, 대항 담론에 기반한 교씨의 지위 탈환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중반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담론을 지지하는 사씨 측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교차’가 이루어진다.

이때 교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은 ‘교채란이 동청과 집을 떠나 혼인하는 사건’이며, 이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씨와 동청, 냉진의 몰락과 정치라는 점에서 ‘갈등의 해소’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저 이전까지의 사정옥의 실패와 교채란의 성공이 다시 사정옥의 성공과 교채란의 실패로 하나씩 바뀌어갈 뿐이며, 갈등의 결과보다는 성패의 교차와 변화 과정이 있는 그대로 제시될 뿐이다. 갈등의 첨예함을 환상적 해소로 덮으려 하지 않고, 현실적 제시를 통해 그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수렴과 발산의 방향이 공존하되, 이를 특정 방향으로 통합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씨남정기>는 교차형 플롯의 특징을 지닌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문제 제기

지금까지 살펴 본 <사씨남정기>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은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의 공존을 다루는 복합형 플롯에 해당하며, 또 두 플롯이 서로 배타성을 띠는 교차형 플롯임을 알 수 있었다. 교씨에 의해 추동되는 발산형 플롯과 사씨에 의해 추동되는 수렴형 플롯이 화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애쓰는 ‘가(家)’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사씨와 교씨는 모두 서사의 시작점에서는 만일의 상황을 ‘가정(假定)’하고 있으나, 사씨의 경우 그 ‘가정(假定)’에 대한 대안으로 확고히 기대고 있는 행동 원칙이 있었고, 그것은 미지의 대안이 아닌 ‘질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면 교씨는 매 순간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에 기초하여 대안을 탐색해 나갔다. 사씨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자신이 지닌 확고한 신념에 의한 것 밖에 없었던 반면, 교씨는 그때마다의 욕망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식의 대안을 구축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처에 대한 첩의 순종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대항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서사의 전반부까지 교씨의 행동 방식은 계속된 성공을 거두며 지지받는

듯 했다. 계속된 성취의 끝에 교씨는 스스로도 ‘잘못’이라고 생각할 만큼 타락하게 되며, 천도의 기획에 따라 교씨의 번영은 진행된 순서를 되밟아 실패로 귀결된다. 마침내 죽음으로 징치 받는 교씨의 모습은 대안 탐색의 과정이 영원히 실패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써 발산형 플롯은 긍정적인 끝을 맞이하지 못한다.

반면 사씨의 행동 방식은 전반부까지는 번번이 좌절되는 듯 보이나 역시 천도의 기획에 따라 실패해 온 순서를 되밟아 성공으로 귀결된다. 사씨는 하늘이 선인을 돕는다는 대원칙을 믿고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가문을 위한 담론과 조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모든 행위를 해왔다. 이는 곧 바람직한 질서의 실현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추영을 첩으로 들여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교씨를 들인 일은 ‘실수’로 처리가 되고, 처음에 사씨가 지향했던 ‘투기 금지 담론’이 순조로이 성취된다. 사씨에 의해 지지되고 천도의 기획에 의해 예정된 질서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렴형 플롯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예정된 질서의 실현을 보여주고자 한 기획이었다면 교씨에 의해 진행되는 발산형 플롯이 존재감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소현성록> 연작이 보여주듯 갈등이 충분히 커지지 않도록 하거나 에피소드 차원에서만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씨남정기>가 이와 같은 플롯 구성을 취한 것은 서술자의 논평이나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도 언급되는 ‘부부 간, 처첩 간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가) 아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씨는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²⁰⁷⁾

(나) “내가 들으니 사씨는 어진 부인으로 소사의 사랑과 한림의 경대가 세상에 비할 데 없었다 하더군. 하루아침에 저와 같이 되었다니... 그 곡직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하지만 부부 사이란 참으로 어려운 관계가 아니겠는가?”²⁰⁸⁾

(가)는 교채란이 사정옥을 처음으로 모함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다. 여기서는 사정옥의 의도가 변호되고 있고 교채란이 그것을 왜곡하여 받아들인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를 교채란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요약하지 않고 ‘부부와 처첩 사이의 어려움’으로 요약하는 것이 독특하다. (나)는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사씨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의 일부이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씨의 처지에 ‘창해상전(滄海桑田)’을 느낀다고도 말하고, 인용한 것과 같이 ‘곡직은 모르겠으나 부부 사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사씨남정기>는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진술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초점이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하는 문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갈등이 최대치로 극대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갈등이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방법 또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家)’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담론을 깊이 내면화한 사정옥과 스스로의 생존과 안정이 더 중요한 교채란의 행보를 교차시키는 플롯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으로써 누구의 행보가 더 바람직한지를 가시화하고 번영의 이유와 몰락의 이유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보여주었다.

207) <사씨남정기>, 43쪽.

208) <사씨남정기>, 79쪽.

4. <창선감의록> 플롯의 특징과 의미

<창선감의록> 역시 17세기에 창작되어 260여 종에 달하는 필사본으로나 1900년대 여러 번 간행된 활자본으로 널리 향유된 작품이다. 국문본과 한문본 모두 존재하며 무엇이 원작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한문본은 서술시점이 다양하고 등장인물의 묘사가 사실적이라는 평을 받는 반면 국문본은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등장인물 간 선악 구도가 명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²⁰⁹⁾ <소현성록>에 비해 길진 않지만, 가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충분히 제시되면서도 군담이나 애정담 등 흥미 요소와 늑혼 등의 정치적 갈등 요소도 담겨 있어 후대 가문 소설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선감의록> 연구의 중심은 ‘화진’에게 있었다. 전체 서사의 비중이 화진과 윤여옥으로 양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모든 갈등의 실마리가 화진의 인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사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플롯을 살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이렇게 보면 심씨와 화춘이 화진을 맹렬하게 학대한 이유나 화진이 어떠한 억울함도 토로하지 않은 이유, 심씨와 화춘이 특별한 계기 없이 개과하게 된 이유 등이 석연찮게 여겨진다. 또한 ‘창선(彰善)’과 ‘감의(感義)’를 목적으로 쓴 작품이라는 서술자의 말을 참고하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존재인 화진보다는 그의 존재를 곁에서 경험함에 따라 ‘저절로 감화되는’ 심씨와 화춘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 플롯의 특징과 의미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로서 <창선감의록>이 지니는 완결성과 미적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플롯을,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라는 기본적 틀을 바탕으로 구축해보고자 한다. 비록 동일한 계층의 인물들이지만 ‘화진’과 ‘심씨와 화춘’이 보여주는 대립구도에

209) 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460쪽. 이후 작품 인용시 이 책을 번역을 참고하며, ‘<창선감의록>, 쪽수’로 표시하고자 한다.

주목함으로써 <창선감의록>의 플롯을 보다 섬세하게 고찰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가정(假定)’에 대한 대응의 차이와 ‘회복’ 욕망의 변형

<홍길동전>이나 <사씨남정기>처럼 스토리 요약을 통해 사건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주요 사건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5>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화진’과 ‘심씨와 화춘’의 관계이며, 이 둘과 연루된 인물들의 사건도 필요한 만큼만 요약하였다. 이 사건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질서는 시간에 따른 순차성이다. 그런데 채봉이 뽕박받고 쫓겨났다가 구제를 받는 사건과 윤여옥이 옥화를 구하는 사건, 화진이 옥에 갇혔다가 구제를 받는 사건 등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거나 중첩되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순차적으로 나열하더라도 서술 순서를 중요시하는 플롯 차원에서는 이 부분의 동시성과 중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술 자체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나 부사 표현에 의해 ‘동시 발생’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프랭스의 통찰을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²¹⁰⁾ 이에 대해서는 이후 3항의 ‘배열’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다.

210) G. Prince, 앞의 책, 2015, 78-81쪽.



<그림 5> <창선감의록>의 스토리

일단은 스토리 요약을 통해 파악된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속성을 포착하여 플롯 이해의 단서로 삼는 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5>에 나열된 스토리를 보면 작품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재회’, ‘개과’, ‘징치’, ‘보

상'과 그것의 계기인 '학대', '살해/겉탈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구조'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들의 주체는 심씨와 화춘이고, 대상은 화진, 화빙선 남매와 화진의 두 부인인 윤옥화, 남채봉이다. 그러니까 집안의 적모인 심씨와 적장자인 화춘이 차자인 화진 부부와 장녀 빙선을 학대하는 구도인 것이고, 가족 내 권력 관계로 일반화하면 상위자가 하위자를 학대하는 구도이다. 이는 하위자가 상위자를 포함하는 <사씨남정기>의 구도와는 반대의 구도이며, 권력 관계와 행위의 역학 관계가 일치하기에 과연 갈등이 증폭할 수 있는 구도인지 표면상으로만 보면 의문이 든다.

이렇게 스토리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왜 이러한 사건들이 선택되고 강조되었는지'에 대한 플롯 차원의 탐색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의 배경을 추적해야 하는데, 그 시작에는 화옥의 '가정(假定)'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이 아이는 요람을 갓 면했을 무렵부터 식견이 남달랐다. 이제 시 짓는 재주마저 뛰어나니 타고난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 또 두 편의 시를 보니 모두 왕공으로 부귀를 누릴 상이구나. 우리 집안을 망칠 아이는 춘이고,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진이야.”²¹¹⁾

(나) “어린 자식이 이리도 막돼먹었으니 우리 집안이 망할 징조다.” (중략) “아니다, 아니야. 시를 잘 짓고 못 짓고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경박함과 음탕함이 시에 가득하니, 이런 높은 앞으로 집안을 어지럽힐 게다.” (중략)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를 전통으로 하고 있다. 오로지 바른 도로써 마음을 단속하여 혹 술 마시고 농담하는 자리라도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낳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아버지와 형 앞에서조차 이처럼 어지럽고 방탕하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 먹고 행실을 닦으며 일거수일투족 모두 네 아우를 본받아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²¹²⁾

211) <창선감의록>, 25-26쪽.

212) <창선감의록>, 24-26쪽.

(가)는 화욱이 화진에게 내린 평가이고 (나)는 화춘에게 내린 평가이다. 이 평가에서 화욱은 화진과 화춘의 현재 상태로 미루어 집안의 흥망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개연성 있는 미래에 대한 가정(假定)에 해당한다. 화춘과 화진을 대상으로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 이러한 가정(假定)은 집안을 이끌 권한을 두고 내린 것이어서 한층 심각해 보인다. 또한 여기에는 현재의 화진에 대한 희망과 현재의 화춘에 대한 근심이 뒤섞여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정(假定)’의 성격은 앞서 <사씨남정기>에서 본 사씨의 가정(假定)과 비교할 만하다. 두 가정(假定)은 모두 가부장제에 입각한 바람직한 규범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사씨의 경우 이에 대해 자신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규범을 수호하겠다고 해 ‘인식(認識)’에 경사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 나타난 화욱의 말에서는 바람직한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당사자로 장자 화춘이 지목되고 있다. 이것이 ‘인식(認識)’의 역할을 하려면 화춘에게서 그러한 다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화욱은 이러한 가정(假定)을 함으로써 화춘이 자신의 책무를 깨닫고 사씨가 한 것과 같은 ‘인식’적 태도를 갖기를 바랐을 것이나, 화춘은 그 기대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진에 의해 그러한 기대가 성취된다.

이렇게 화욱에 의해 가정(假定)된 바는 기대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뿐더러 화춘과 화진에게서 각기 다르게 대응된다. 화춘은 화욱의 말을 듣고 무안함과 창피함을 느끼며 심씨에게 고하는데, 그 때 ‘자기더러 진에게 배우라고 한 일’을 특히 마음상해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심씨는 화욱이 부인 정씨와 아들 진에게 미혹되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이 “춘추시대 진헌공과 원소의 일처럼 맏아들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²¹³⁾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화욱의 말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기에 심씨에게 신경증적 태도가

213) <창선감의록>, 26쪽.

보인다고 진단한 논의도 있으나, 심씨가 느낀 위협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다. 이는 ‘진헌공’과 ‘원소’의 고사를 살펴볼 때 드러난다. ‘진헌공’은 진나라의 19대 군주로 총희인 여희의 모함을 믿고 본래 태자였던 신생을 죽게 만든 인물이고, ‘원소’는 후한 말의 명문 귀족으로 장남인 원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형의 양자로 입적시키고 셋째 아들 원상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인물이다. 심씨가 인용한 두 사람은 계후 갈등에서 장남이 느낄 수 있는 위협을 구체화한다. 장남으로 태어났어도 부친과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잃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총애를 받는 다른 처첩이나 다른 아들의 존재는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애초에 화옥이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적장자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씨와 화춘은 화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는 화옥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화진에 대한 오해로 집착된 ‘가정(假定)’을 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 성부인 일행이 떠난 이후로 심씨는 등에 있던 가시를 빼버린 듯 후련하여 회파람을 불면서 그 아들과 모의했다.

“예전에 정씨는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은 데다가 또 화진처럼 기특한 아들을 낳아서 그 권세가 날로 높아만 갔지. 나리께서는 화진을 장자로 세우려는 뜻마저 두어 집안 하인들까지 우리 모자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진이의 두 아내는 미모와 덕성이 정씨보다도 빼어난 데다가 또 진이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종족들이 우러러보고 종놈들까지도 꼬여드는 모습이 예전보다도 더하구나. 저놈이 한번 서울로 가서 위로는 천자의 총애를 얻고 아래로는 친구들을 동원하여 세력을 얻는다면, 용이 구름을 타고 호랑이가 바람을 얻은 것 같아서 그 세력을 어찌하지 못할 게야. 그러니 이곳에 머물게 해놓고 괴롭히면서 상춘정의 원한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²¹⁴⁾

214) <창선감의록>, 109-110쪽.

(나) 심씨는 크게 화를 내며 임씨를 꾸짖고 내쫓으려 하였다. 집안의 하인과 계집종들은 모두 목놓아 울었고, 윤부인과 남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퍼했다. 한림은 관을 벗어놓고 벼선발로 뜰에서 통곡했다. 마침내 심씨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지금 나 죽으라고 곡을 하면서 저주하는 거냐? 경옥이 당나라 중종처럼 부인에게 잡혀 매사를 따르는 것이 아닌데도 임씨의 악행은 위황후보다도 더했다. 게다가 공연히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하니 경옥이 궁형 당한 고자도 아니니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들였다. 그런데 조씨가 들어온 후로 임씨의 투기가 날로 심해져서 내 방에 저주하는 물건을 묻는 등 요악한 일까지 하니 이런 짓은 진나라 기황후도 차마 하지 않았어. 이뿐이냐? 경옥은 지금 스무 살인데 아직도 자식 하나 없으니 임씨 한 사람 때문에 백 대 넘게 이어져 온 우리 화씨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 오라, 지금 너는 형이 자식을 못 낳게 하여 장차 네가 종통을 이을 속셈인 게로구나.”²¹⁵⁾

(가)는 성준이 급제 후 태수 벼슬을 부여받고 성부인을 모시고 화부를 떠나자 심씨가 한 말이다. 심씨는 화진을 장자로 세우려는 분위기가 화옥 생전부터 가내에 뚜렷하게 조성되었고, 화진이 아름다운 부인을 얻고 높은 벼슬에 오름에 따라 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화진이 서울로 가서 출세를 할 경우 그러한 분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고, 화진의 권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가정(假定)’을 하고 있다. ‘가(家)’의 대표자로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해야 하는 적모와 적장자가 가문을 빛내는 구성원의 출세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강해진 권세로 인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에는 임씨를 쫓아내고 조씨를 정실로 맞이하려고 화춘이 심씨에게 임씨를 포함한 상황에서 화진이 이를 말리기 위해 통곡하며 간하자 심씨가 화를 내며 한 말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밑줄 친 부분은 화춘과 잠자리를 하

215) <창선감의록>, 113-114쪽.

지 않는 임씨를 두둔하는 것은 곧 화춘이 대를 잇지 못하게 하여 적장자 자리를 탈환하려는 의지가 아니냐는 심씨의 추측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심씨는 화진의 출세도, 또 억울한 만며느리를 지키려는 행동도 모두 ‘탈적 의도’로 ‘가정(假定)’한다.

하지만 심씨의 뜻대로 베풀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며 학대를 달게 받는 화진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가정(假定)’은 오류이다. 화진이 아무리 인내하며 자신의 무해함을 증명하여도 그 오류는 좀처럼 교정되지 않는다. 이는 조씨, 범한, 장평 등의 외부인의 농간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 조씨가 채봉을, 범한이 화진을 죽이려 하고, 장평이 옥화의 절개를 훼손하려 하는 등의 행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적모와 적장자의 어리석음이 ‘가정(假定)’의 오류를 한층 심화시켜 화진 부부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가운데 여승 청원, 하춘해, 윤여옥, 유성희 등의 구제가 상황을 타개하는 데 기여한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남채봉이 목숨을, 윤옥화가 정절을, 화진이 목숨과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범한에게 조씨를 빼앗기고 장평에게 고발을 당하는 등 주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화춘은 지금까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게 된다. 심씨도 그러한 사태로 인해 화진의 원통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며 새로운 마음을 품는다.

한편 심씨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마음으로 말했다.

“내가 형옥을 박대한 것은 선공의 편애가 너무 심해서 마음이 상한 데다가 상춘정의 일 때문에 원한이 맺속까지 사무쳤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십 년 동안 형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정성을 다했고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니,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야. 그러니 선공께서도 형옥을 아끼고 편애하셨던 게야. ㉠이제 나날이 내 허물이 드러나고 형옥의 원통함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걸 보면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야. 게다가 돌아가신 뒤로 한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선공께서 근래에는 자주 꿈에 나타나 온화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처음에 악한 사람이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착하던 사람이 악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소. 이제 아이와 며느리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잘 사시오.’라고. 그러다가 깨어 보면 이마에 땀이 흥건하곤 하지. 아아! 평생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짓는 일밖에 없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천지에 사죄해야겠지. ㉔그렇지만 내가 죽고 나면 형옥의 효성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구차하더라도 꼭 참고 살아남아서 효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겠다.”²¹⁶⁾

위 인용문에서 심씨는 과거의 일을 반추하면서 화진의 효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화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점을 ㉓과 같이 ‘하늘이 아는 바’로서 ‘재인식(再認識)’하고 있다. 그러면서 효성에 보답하기 위해 ㉔과 같이 ‘살아남아 화진을 위로’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초반에 했던 가정(假定)의 오류를 극복하고 화진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화진의 마음이 한결 같았음을 ‘인식’하는 이러한 전환은, 비록 상위자의 하위자에 대한 학대이지만 단단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어 극복할 길이 요원했던 모자 갈등 및 형제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하여 ‘구제’에 기여한 가문 외부자들은 ‘보상’을, ‘학대’에 기여한 가문 외부자들은 ‘징치’를 받고, 그와는 별개로 ‘학대’의 주체이지만 가문 내부자로서 마침내 자신들의 오류를 재인식한 심씨와 화춘은 ‘개과’를 하는 결말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가정(假定)’을 바로 잡아가는 사건은 어떠한 욕망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때의 욕망은 이 작품에 나타난 ‘가정(假定)’의 변화에 의거하여 가변적 속성을 갖는다. 심씨와 화춘은 처음에 탈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가정(假定)이 현실화될 것을 염려하며 ‘적장자 계후’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염원한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회복’ 욕망에 해당한다. 한편 화진은 그러한 가정(假定)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며 역시 ‘회복’ 욕망을 보인다. 이 두 욕망은 같은 ‘회복’ 욕망임에도 그 결이 다르다. 심씨와 화춘의 회복 욕망의 경우 당대의 가

216) <창선감의록>, 201-202쪽.

부장적 질서 가운데 ‘적장자 계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문의 명예와 위상보다는 개인적 지위 획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과를 통해 화진의 심정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심씨와 화춘의 회복 욕망은 변형을 거친다.

최종적인 ‘인식(認識)’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이들이 지닌 욕망이 ‘회복 욕망’이라는 점만 보면 <창선감의록>의 플롯 유형은 ‘수렴형 플롯’의 형태를 띤다. 하지만 상술하였듯 이 작품의 시작에는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친 화옥의 ‘가정(假定)’이 있었고, 그것은 오해를 낳아 오류 섞인 가정(假定)을 재생산했다. 더욱이 오류 섞인 가정(假定)의 주체인 화춘과 심씨에게 존재하는 회복 욕망이란 ‘이상적 질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질서의 단편을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화춘과 심씨가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있는 동안은 수렴이 아닌 ‘발산형 플롯’의 징후가 지속된다.

하지만 화옥의 ‘가정(假定)’에 담긴 경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家)’의 이상적 질서 실현을 위해 묵묵히 회복 욕망을 지속해 온 화진에 의해 심씨와 화춘의 ‘인식(認識)’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수렴형 플롯의 모습이 나타난다. 심씨와 화춘의 개과 전까지 화옥의 ‘가정(假定)’으로 촉발된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수렴형 플롯의 귀결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반부에 지속되었던 발산형 플롯의 징후가 무마되지 않는다. 수렴이나 발산 중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플롯이 아니라 수렴과 발산이 결합된 유형의 플롯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인과 조직의 통합과 기존 담론의 대항 담론 흡수

그렇다면 수렴과 발산의 결합은 어떠한 논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를 위해 플롯의 표층 요인인 ‘인과’의 측면에서 사건 간 관계를 따짐으로써 플롯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화옥에 의해 촉발되었던 ‘가정(假定)’이 심씨와 화춘에게서 왜곡되고, 또 오래도록 그것이 지속된 이유는 가부장이었던 화옥의 편애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심씨의 말에도 등장했듯 가문 구성원들의 지지를 화진이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씨와 화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한 질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안의 탐색이 필요한데, 이들이 택한 대안은 ‘화진을 억누르는 것’이다.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화진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탈적(奪嫡)’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덮어씌우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인과의 특징은 ‘구축되는 인과’인데, 문제는 그것이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처음에 심씨와 화춘은 화진에 대한 강한 질투심 때문에 화진의 실질적 행동에 근거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일부러 왜곡해 평가했다. 그런데 이후 조씨, 범한, 장평 등의 외부인들의 농간에 의해 화진이 실제로 탈적을 행한 것처럼 꾸며지자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왜곡된 인과의 구축이 그 어리석음을 노리는 외부인들에 의해 더욱 심화됨으로써 ‘대안의 탐색’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애초에 화옥이 화춘과 화진을 평가하며 내린 가정(假定)에서 화춘에게 ‘화진을 본받을 것’을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를 따랐다면 화옥이 걱정한 ‘가(家)’의 위기도, 심씨와 화춘이 걱정한 화진의 탈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화진은 이미 화옥에게서 충실히 지켜지고 있고 그 결과 고매한 가성(家聲)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가부장제 질서의 수호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의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화진을 본받을 때 심씨와 화춘은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뚝뚝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현실에 대한 불만 타개의 방법이 새로운 대안에 있다고 본 심씨와 화춘의 인과 방식은, 기존의 질서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통합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통합은 상술하였듯 처음부터 단서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인과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담론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창선감의록>의 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의

로서 ‘담론’은 ‘복선화음의 담론’과 ‘장자 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복선화음의 담론은 인물 간 조응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장자 우대 담론은 17세기에 특히 중요하게 취급된 계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입장들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담론은 인과 조직의 통합이 왜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먼저 조응의 원리는 말미에 서술된 다음과 같은 논평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충효는 인간의 본성이고 사생과 화복은 하늘이 내리는 운명이다. 운명은 내가 알 바 아니니, 다만 마땅히 나의 본성에 충실할 뿐이다. 범한과 조씨는 온갖 술수와 나쁜 짓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의 부귀를 재촉했을 뿐이고 그 목숨은 끊어지게 되었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춘해와 유성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화진을 돕다가 명성을 얻게 되었으니 이런 일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는가? 저 왕겸과 유이숙 등은 또한 뜻과 기운이 서로 감응한 사람들이다. 무릇 고니가 울면 뱀새가 고개를 들고 두약이 향기를 품으면 풀들이 바람결에 그 향내를 맡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하물며 구름이 나면 구름이 따르며 말이 울면 말이 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화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덕을 쌓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렇게 쉽게 돕지 못했을 것이다.²¹⁷⁾

위 인용문에는 선인이 선인을 돕고 악인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원리에 의해 <창선감의록>과 같은 결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있다. 이는 작품 속에서 화진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 있다. 먼저 범한의 고발장을 받은 최지부가 화진의 자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도왔다. 아래 인용문처럼 최지부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진의 효성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217) <창선감의록>, 285쪽.

“죄인의 사정이 참 딱하구려. 어머니가 이미 고발장을 냈으니 효자된 도리로 어떻게 발명할 수 있겠소? 그렇지만, 한나라 때 동해의 효성스런 며느리가 시 어머니를 죽였다고 죄 없이 허위 자백하는 바람에 처형된 뒤 삼 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태수된 자는 후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었소. 지금 나 최형도 그렇게 되면 억울하지 않겠소?”²¹⁸⁾

뿐만 아니라 최지부를 만난 도어사 하춘해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키기까지 한다. 하춘해는 화진을 ‘군자’로 인정하며 부디 죽음을 택해 천추에 남을 부끄러움을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편지²¹⁹⁾까지 써서 화진에게 보낸다. 또한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간하기도 한다.

“신이 폐하의 명을 받들어 소흥을 지날 때에 소흥지부 최형이 이 사건을 가지고 신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 처음에는 놀라고 끔찍하게 생각해서 죄인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고 그 말하는 기색을 살펴보니, 어질고 효심 있는 군자이며 절대로 흉악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이 가만히 들으니 화진은 심씨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의붓아들과 의붓어미 사이에는 서로 악다구니 쓰며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 사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은밀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신중하게 자세히 살펴서야 합니다. <중략> 또 화진이 자백한 것 역시 효심 때문입니다. 만약 민손의 계모가 민손을 불효하다고 관

218) <창선감의록>. 134쪽.

219) ‘저는 좋은 옥은 불에 들어가서 더욱 밝게 빛나고 꽃다운 난초는 화로에 들어서서 더욱 향내가 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족하(足下)가 오늘 만나신 고초는 하늘이 족하를 더욱더 단련하시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지금 족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된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끝내 이렇게 비명에 죽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족하의 기린과 봉황 같은 덕과 빙설 같은 모습과 광풍 같은 얼굴, 가을물 같은 정신은 알지 못하고 ‘여양후 화공의 아들이 강상(綱常)의 죄를 저질러 동쪽 저자에서 처형되었으니 집안을 망하게 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였으며 고을의 이름이 없어지는 수모로 마을 사람을 치욕스럽게 하였다’고 함부로 욕하고 침 뱉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 지하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략)’ (<창선감의록>, 136-137쪽)

가에 고발하였다면 민손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계모에게로 죄가 돌아가도록 했겠습니까?”²²⁰⁾

또한 하춘해는 다음과 같이 화춘의 징치보다 화진의 구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화형옥은 우애가 지극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형이 아침에 죽으면 아우는 저녁에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통쾌하지만, 어진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²²¹⁾

이렇게 화진의 표면적인 말만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없도록 화진의 선함을 알아보는 이가 존재하여 화진은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화진의 행동이 심씨와 화춘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또 앞서 본대로 배신만 당한 자신들과는 달리 화진은 주변의 도움으로 구제된 것을 알고 심씨와 화춘은 일순간에 잘못을 뉘우친다. 그간 화진의 어떠한 해명에도 오해를 거두지 않던 그들이 화진과 주변 사람들이 몸소 보여준 ‘복선화음의 담론’을 이해함에 따라 개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집안의 대표자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화진을 통해 목도한다. 화진은 짓지도 않은 죄를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는데, 이는 집안의 대표자인 적모와 적장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장자 우대 담론’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행동 방식이다.²²²⁾ 화진은 화옥이 지녔던 ‘가문 의식’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고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심씨, 화춘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불리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가문의 대표자에게 흠집이 가는 일은 가문 전체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청렴함을 훼손하더라도 가문의 청렴함이 지켜지기를 바랐다. 이는 개인의

220) <창선감의록>, 138-139쪽.

221) <창선감의록>, 201쪽.

222) <소현성록>에서 윤성이 장자 윤경을 가장 먼저 구하려고 했던 것과도 관련된다.

지위나 안위보다 ‘가(家)’라는 집단의 존립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훌륭한 가문 대표자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장자 우대(長子優待) 담론’은 정통론적(正統論的) 종법(宗法) 질서의 확립이 강화됨에 따라 가문의 부와 권력의 집중을 위해 관습화된 담론이다. 그러나 적장자가 반드시 현명하고 통솔력 있는 가장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통론을 보완할 방법이 다각도에서 고민되기도 하였다. 화춘은 범한과 장평 등 외부자의 꾀에 빠져 화진을 패륜아로 모는 등 적장자로서 치명적인 단점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그런 적장자를 존중하는 화진의 모습을 보고 화춘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자 우대’를 권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화춘은 장자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칙대로 화춘이 가문을 승계받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화춘이 화진의 아들을 입후하여 가문을 승계하게 된다. 화진은 자신이 펼친 장자 우대 담론대로 화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지만, 화춘에 의해 자발적으로 화진의 아들이 적장자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창선감의록>의 플롯은 화진과 같이 능력 있는 차자에 의한 가문 승계를 표면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화진의 덕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가문이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이면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플롯이다. 화진에게 은밀한 욕망이 있었다고 본 논의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²²³⁾

이상과 같이 복선화음의 담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장자 우대 담론을 심씨와 화춘이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과 조직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심씨와 화춘의 개과는 ‘왜 화진을 꾀박해서는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완료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심씨와 화춘은 정신적 덕성의 확립을 본질로 삼는 복선화음의 담론과 장자 우대 담론을 왜곡하여 수용하고 있었다. 조씨, 범한, 장평 등의 무리와 어울리며 화진을 배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질서 확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의 구도로 표현하자면 왜곡된

223) 이지영, 앞의 글, 2011.

기존 담론을 대항 담론으로 삼고 그것을 무기로 오류를 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선(善)이 선을 돕고 악(惡)이 악을 벌하는 조응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했을 때, 그리고 장자 우대는 태어난 순서가 가져다주는 이권이 아니라 책임감과 덕성, 능력을 요하는 자리임을 깨달았을 때 극복된다. 잘못된 방식으로 구축된 심씨와 화춘의 대항 담론은, 그로 인한 피해를 묵묵히 견디며 차자임에도 가(家)를 위해 헌신한 화진의 모습에 감화된 결과 반성된다. 심씨와 화춘은 범한, 장평, 조녀 등으로 인한 홍역을 치른 후 가문의 위기가 얼마나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지 절절하게 깨닫고, 자신들의 행적을 반추하면서 그 오류를 하나하나 인식적으로 극복해나간다.

한편 화진에 의해 고수되어 온 기존 담론은 ‘개과(改過)의 소중함’을 높이 사며 그러한 대항 담론을 포용한다. 심씨와 화진은 자신들이 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에게서 화진이 온전한 지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이전의 과오를 버리고 기존 담론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 그 결과 화춘은 화진의 자식을 양자로 삼는 등의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존 담론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시종일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데에서 대안을 찾는 대항 담론이 나타나는 점이 <창선감의록>의 특징이다. 이때의 대항 담론은 기존 담론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허약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의 허약함을 완전히 실감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상당히 오래도록 대항 담론이 기존 담론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 담론이 그 공격을 감내하며 포용력을 보인 결과 대항 담론이 자체적인 오류를 깨닫고 기존 담론에 흡수된다. 이러한 양상은 최종적으로는 수렴형 플롯의 징후라고 할 수 있으나 대항 담론의 흡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서사 시간의 중첩과 열린 갈등의 단계적 해소

이상과 같은 사건 선택과 인과 조직을 바탕으로 <창선감의록>이 어떻게 사건을 배열하는지 살펴보겠다. 앞서 <창선감의록>의 스토리가 시간적으로 순차성을 보이는 가운데 동시 진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창선감의록>은 서사 시간에 있어서의 ‘중첩’을 특징으로 하여 스토리로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바를 플롯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서사 시간의 중첩이 자아내는 효과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으로 인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선감의록>은 ‘상위자의 하위자에 대한 킥박’이라는 갈등 구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주인공 화진이 기존 담론, 특히 ‘효(孝)’라고 하는 가치를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창선감의록>은 이를 극복하는 장치를 사건 배열의 면에서 마련하고 있다. 바로 부속 사건을 ‘삽입(插入, embedding)’하는 배열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단계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앞서 요약한 스토리에서 부속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사건으로는 ‘화진이 옥화, 채봉과 혼인하는 사건’과 ‘조씨가 채봉을 죽이려 하고 청원이 구하는 사건’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화진의 혼인 상대인 옥화와 채봉의 과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화진과 채봉이 벌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회상이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부속 사건의 삽입을 통해 인물들의 생애를 요약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비선형적 배열’이 나타나 있는 점이 <창선감의록>의 특징적 사건 배열 양상이다.

이러한 사건 배열의 특징은 <창선감의록>과 마찬가지로 수림과 발산의 플롯상 징후가 복합되어 있는 <사씨남정기>와 대조된다. <사씨남정기>는 등장인물들이 만나는 국면까지만 개인별 사건을 서술한 후 만남이 끝나면 다시 또 개인별 서술을 재개한다. 이는 앞서 <표 1>에서 ‘교차 배열’이라는

명명을 통해 고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창선감의록>은 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순간 그 인물의 생애를 필요한 만큼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나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사건별 진술이 짧고 호흡이 빠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채로운 배열을 통해 스토리를 플롯으로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면모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세련된 플롯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삽입된 서사에는 화진 외의 주요 인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 서사는 평행선을 그리는 갈등 구도에서 서사의 흥미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윤여옥, 남채봉, 진채경이 모종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성을 표출하며 ‘육망의 성취’를 지향하는 점이 흥미롭다. 화진과 심씨, 화춘이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윤여옥, 남채봉, 진채경 등은 각자의 삶의 문제를 두고 시간을 보낸다.

윤여옥은 정혼자와 지기(知己), 쌍둥이 누이가 위기에 빠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출에 나선다. 화진의 부인이기도 한 쌍둥이 누이 옥화 대신 여장을 하여 정적(政敵) 엄송의 집에 들어가고, 엄송의 딸 월화와 잠자리를 함께 하여 연분을 맺게 되는 일은 중심 서사인 화진의 이야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창선감의록>은 보다 생동감 있는 육망에서 추동되는 사건들도 포괄하게 된다.

남채봉은 윤옥화와 함께 화진의 부인이 되는데, 천상득죄(天上得罪)로 적강한 인물이라는 설정이 있어 혼인 전과 후에 어느 인물보다도 갖은 고초를 겪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인물이다. 부친 남표의 귀양길에 부모를 잃고, 진채경의 집과 윤옥화의 집에 순차적으로 의탁하는 과정은 채봉의 녹록치 않은 삶을 보여준다. 혼인 후에는 남편 화진이 겪는 학대를 함께 당하는데, 특유의 강직한 성격 때문에 옥화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구출되고 부모도 찾게 된다. 앞서 윤여옥이 아기자기한 재미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추동한다면, 남채봉은 여성의 갖은 수난사를 추동한다.

진채경은 윤여옥의 정혼자로, 부친이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장을 하여 도주한다.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윤여옥

행세를 하여 그의 새로운 배필을 구해주는 등 윤여옥이 보여준 것과 같은
아기자기한 사건을 추동한다. 그러면서 남북으로 떠돌아야 하는 여성의 수
난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진채경은 남채봉이 윤옥화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화진과 혼인할 수 있게 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
는 인물이다.

이렇게 화진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 삽입되는 여러 인물의 이야기로 인해
<창선감의록>에는 역순행적 구성이나 축약²²⁴⁾과 같은 변형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 이는 여러 인물의 서사를 조밀하게 직조하기 위한 장치이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의 경우 삽입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빠른
호흡으로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상당한 길이를 확보하고 있는 점
은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결집시켰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플롯은 각 인물에 대한 서술이 적재적소에 겹치게끔 구성되어 있
으며 서로가 결과적으로는 관련성을 맺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플롯에서 상
당히 완성도 높게 시간성을 운용한 결과이며, 특정한 욕망의 전개보다는 다
양한 종류의 ‘감정’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열
상의 특징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4) <창선감의록>, 243-245쪽에 제시된 것처럼 편지나 전언 속에 사건이 압축되기도
한다.

↓ 인 과 의 흐 름	1) 화진이 옥화, 채봉과 혼인하다.		
	1-1) 채봉의 가족 이 산	1-2) 채경의 남북과 백소저에게의 청혼	
	2) 조씨가 채봉을 죽 이려 하고 청원이 구 하다.		3) 장평이 옥화의 절 개를 훼손하려 하고 윤여옥이 구하다.
	2-1) 채봉의 촉망으로의 이동		3-1) 윤여옥의 여복 과 월화와의 만남
	5) 남표 부부와 채봉 이 재회하다.	4) 윤여옥이 진채경, 백소저와 혼인하다.	6) 윤여옥이 조월화를 첩으로 삼다.

<표 2> <창선감의록>의 중첩 배열

<표 2>는 총 6개의 핵심 사건을 토대로 배열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사건 앞에 붙은 번호는 배열의 순서를 표시해 주며, 1-2), 2-1) 등 ‘-’로 부속 사건을 표시하였다. 위 표를 보면 핵심 사건 속에 여러 갈래의 부속 부속 사건이 삽입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다른 핵심 사건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인과의 흐름은 배열에 따라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건과의 중첩으로 인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다. 2)의 채봉 구출 사건의 결과가 그와는 별개 사건인 3), 4)가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식인 것이다. 이러한 중첩 배열은 사건 간의 비약, 순서의 역행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 서술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자로 하여금 인지적 부담을 요한다. 그렇지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놀라움을 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수렴형 플롯이 귀가나 소속, 정체성의 명료화 등의 사건이 독자에게 서사적 기쁨을 주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넌버그는 이상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주는 서사적 기쁨 외에, 예상치도 못했던 일치와 관련성이 주는 서사적 기쁨도 있다고 통찰한 바 있다.²²⁵⁾ <창선감의록>의 중첩 배열은 이렇게 발산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알고 보니 수렴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여줌으로써 서사적

재미를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열 방식에 영향을 주는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선 <창선감의록>에서 중심이 되는 심씨·화춘 측과 화진 간의 갈등은 심씨와 화춘의 오해에 기초해 있다는 점과 상위자의 일방적인 핍박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구도를 띠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애초에 이 갈등은 심씨와 화춘이 개과하고 이상적 질서를 인식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어서 ‘열린 갈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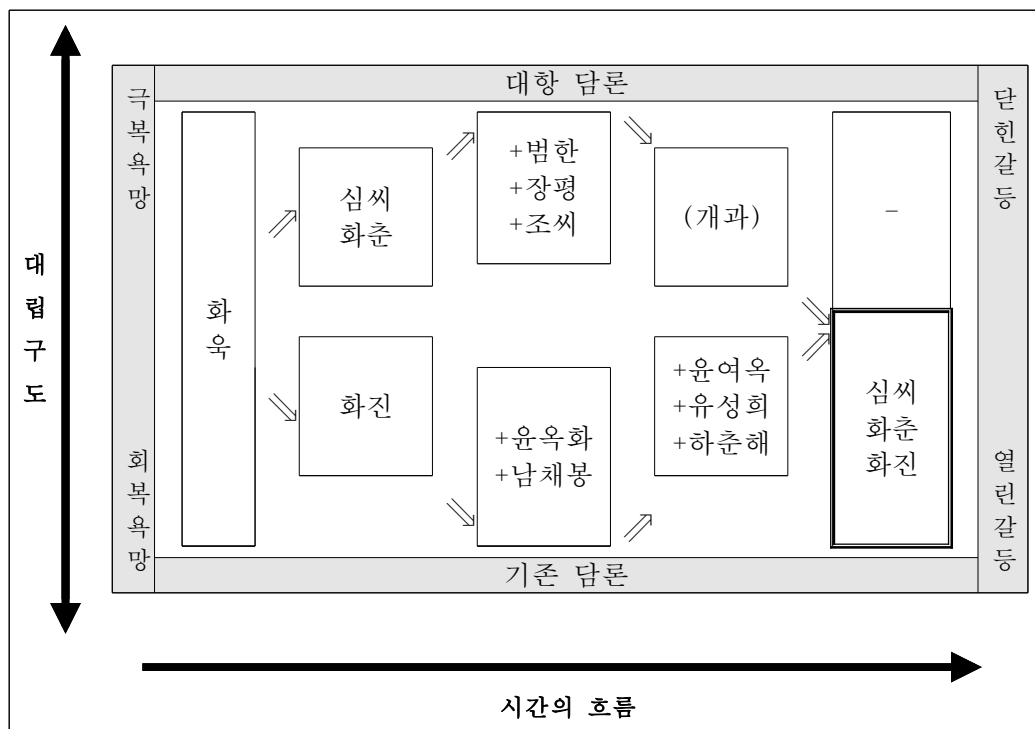
그리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단계적인 속성을 지닌다. 작품의 초반에는 심씨의 시기심이 상당했기에 갈등 강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외부인의 영입과 화진의 혼인으로 갈등은 더욱 극심해진다. 가족 갈등에 머무르던 일이 조씨, 범한, 장평과 같은 외부인이 주체가 된 갈등으로 번지고, 옥화와 채봉이 이들의 악심을 자극하여 그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여승 청원, 하춘해, 윤여옥, 유성희의 도움으로 상쇄된다. 화진의 행실을 흠모하고 있던 이들이나 일전에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조응의 원리’가 발현되어 이후부터는 해결 국면이 시작되고, 선인의 고초가 극복됨과 동시에 악인의 정치가 시작된다. 이때 윤여옥, 남채봉, 진채경 등의 서사도 함께 해결된다. 이 서사들은 갈등의 심화와 유지 국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사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 바 있는 부속 사건들이었으며, 역시 ‘조응의 원리’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한 사건들이다. 심씨와 화춘 중심의 갈등 전개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부속 사건으로 존재하다가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 함께 해소됨으로써 전체 서사의 단계적 갈등 해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상의 특징을 토대로 <창선감의록>의 플롯은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의 통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특별히 분화되지 않았던 ‘화옥’의 욕망과 그에 따

225)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08쪽.

른 ‘가정(假定)’을 심씨와 화춘이 오해함에 따라 ‘외피만 기존 담론을 지지하는’ 채 대항 담론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범한, 장평, 조씨에 의해 더욱 부추겨져 기존 담론의 위치에 선 화진과의 간극이 한층 더 벌어지게 된다. 화진의 혼인은 이 간극을 한층 더 벌어지게 만들지만, 이후 윤여옥, 유성희, 하춘해의 도움으로 인해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생긴다. 최종적으로는 심씨와 화춘이 추구하던 대항 담론은 그 토대가 허약한 허상임이 밝혀져 심씨와 화춘을 부추긴 외부인들은 과국을 맞이하고 심씨와 화춘은 개과를 통해 화진이 지켜오던 기존 담론에 포용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러한 플롯은 수렴으로 귀결되지만 발산의 소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온 플롯이기에 ‘통합형 플롯’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6> <창선감의록>의 플롯

(4)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문제 해결

<창선감의록>도 <사씨남정기>처럼 발산형 플롯과 수렴형 플롯이 함께 등장하는 플롯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씨남정기>의 플롯이 수렴형 플롯의 성공과 발산형 플롯의 실패로 귀결되어 두 플롯이 ‘교차’하는 형태를 보인 반면, <창선감의록>의 플롯은 발산형 플롯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 발산형 플롯과 수렴형 플롯이 통합되는 형태를 보인다.

플롯의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대안 탐색과 질서 실현이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씨남정기>와의 비교를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에 의해 행해진 대안 탐색이 개인적 불안을 해소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개되었음을 보았는데, <창선감의록>에서 심씨와 화춘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가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교씨의 경우 현재의 지위를 잃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더 큰 지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반면, <창선감의록>에서 심씨와 화춘은 이미 가내에서 적모와 적장자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지위에 대한 욕망은 없고 현재의 지위를 고수하고자 하는 불안과 그에 걸맞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씨남정기>의 대안 탐색의 강도와 비판의식이 훨씬 강하다. <사씨남정기>가 ‘문제 제기’의 의미를, <창선감의록>이 ‘문제 해결’의 의미를 자아내는 것은 이러한 특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질서 실현의 경우도, <사씨남정기>가 황제를 일깨우기 위해 유씨 가문이 곤혹을 겪게 되었고 또 유연수를 위해 사씨가 곤혹을 겪는다는 천도의 원리가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 구체화되는데, <창선감의록>에도 유사한 논리가 나타나 있다. <창선감의록>에서도 엄승과 같은 간신으로 인해 남표와 같은 충신을 귀양 보내는 임금의 어리석은 행보가 나타난다. 그러다가 화진의 일을 계기로 점차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되며 천도의 원리가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의 뜻에 대한 원망이 ‘남채봉’에게서 제시되고 ‘여승 청원’이라는 신이한 존재에 의해 해명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점도 유사하다.

청원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이런 말은 하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로부터 성인들 중에 액운을 만나지 않고 도를 터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께서 설산(雪山)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나 공자께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져 곤경을 겪으신 것이 그러합니다. 부인처럼 세상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특별히 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세상은 부인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부인을 격발하여 덕이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재앙과 복록은 다 때가 있고 영화도 치욕도 모두 부질없음을 알았던 옛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과 서리를 질리도록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더욱 씩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위에 홀로 있는 오동나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눈서리가 내리고 더운 바람이 불어도 그 가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안으로 고통을 참아냈기에 잘라서 비파를 만들면 금석도 그 소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을 놀라게 하여 성품을 굳게 한다(動心忍性)’는 것은 남자뿐 아니라 부인들에게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²²⁶⁾

인용문에는 채봉이 수난을 겪는 이유와 수난의 의의에 대한 진단이 나타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가 아황, 여영에게서 듣는 말과 마찬가지로 채봉도 ‘천도(天道)’의 원리에 의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세상에 더 잘 드러나기 위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논리는 채봉이 받아 온 일견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했던 고난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²²⁷⁾ 이는 말미의 서술자 논평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치’가 표현된 것이어서 채봉은 물론 화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천도의 원리는 그들을 위해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창선감의록>에서 질서 실현이 가져오는 행복한 결말 속에 심씨

226) <창선감의록>, 126쪽.

227) <창선감의록>, 56-57쪽.

와 화춘이 포함되는 것이 독특하다. 이는 곧 심씨와 화춘이 느꼈던 불안감과 그것에 대한 폭력적 행위들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앞서 본 윤여옥과 진채경 등의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젠더 위반의 시도가 제재 받지 않고 흥미 요소로서 사용되는 점, <사씨남정기>의 교씨가 인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과 달리 심씨와 화춘은 인식의 기회를 부여받는 점 등에서도 드러난다. 개과를 통해 질서 실현에 대한 인식이 재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사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창선감의록>이 ‘가정(假定)’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시각은 후대 장편 가문소설의 것으로 계승된다고 볼 수 있다. ‘가문의 복록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서발의 말을 참고할 때 보다 거시적이고 유연한 시각에서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창선감의록>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씨남정기>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정(假定)’의 사건이 완전히 봉쇄되지만 <창선감의록>에서는 가치 평가 끝에 일부 ‘가정(假定)’은 구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의 다툼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창선감의록>은 부자 갈등, 형제 갈등, 처첩 갈등, 동서 갈등, 계모와 전처 소생의 갈등 등 가족 관계 내 갈등과 국가 내 정치적 갈등 및 국가 간 갈등 또한 나타나 있어서 정길수는 “당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총망라”하였다고까지 표현했다.²²⁸⁾ 또 <창선감의록>이 이를 모두 다루기 위해 ‘선악’의 갈등 구도를 두고 각 측이 결속하도록 하면서 세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갈등의 파생과 전이를 통해 해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이 중국 소설 <옥교리>가 단조롭게 곡절만 부풀렸던 방식과도 다르고 우리나라의 다른 장편소설 <소현성록>이 하나의 갈등이 해소된 뒤 다른 갈등을 제시하는 방식과도 다르다고 하였다. 불필요한 늘리기를 하지 않아 서사 편폭에 비해 실제 분량이 짧다고도 하였다.²²⁹⁾ 이렇게 <창선감의록>은 여러 가문의 개성적 인물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228) 정길수, 앞의 책, 2005, 260쪽.

229) 위의 책, 272쪽.

밀도 있게 등장하고 있어 가문소설과 세대록 소설이 활용할 수 있는 장편화 원리의 모범이 된다.

<창선감의록>의 플롯은 시간의 역전과 인과 관계의 밀도 있는 설정을 통해 ‘이중 플롯’, ‘완결형 플롯’ 등의 용어로 명명될 정도로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에 의거한 객관적 시간 지표를 내세워 인물의 생애 주요 사건을 실제 역사적 시간 속에 위치시킨 점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비중이 높은 인물들 여럿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병렬시킨 점도 완결성을 담보하는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다.²³⁰⁾

5. <소현성록> 연작 플롯의 특징과 의미

<소현성록> 연작은 본전인 <소현성록>과 소경(소현성)의 자식 대 이야기인 <소씨삼대록>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²³¹⁾ 옥소 권섭의 모친 용인 이씨가 <소현성록>을 필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7세기 후반에는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된다.²³²⁾ 소경의 아버지 소광과 소경의 손자 세현, 세광 등 총 4대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17세기 소설 중 등장인물의 수가 가장 많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사건 또한 다채롭다.

‘별서(別序)’를 통해서도 드러났듯 이 소설의 주인공은 소경이다.²³³⁾ 그는

230) 위의 책, 253-255쪽, 330쪽.

231) <소현성록> 결미에 <소씨삼대록>으로 이어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소씨삼대록>이라는 제명의 문헌이 부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임치균은 서울대본 21권 21책의 권6 중간 이후가 <소씨삼대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박영희는 이 문제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대본 <소현성록>의 권1~4까지가 <소현성록>의 내용이고 5~15권이 <소씨삼대록>의 내용임을 밝혔다. 임치균은 <소현성록>이 단일 작품이었다가 <소씨삼대록>으로 연작되었다고 본 반면에, 박영희는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이 애초에 연작 형태로 합본되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구사」, 『고소설연구사』, 2002, 월인, 1045-1047쪽.)

23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44-45쪽.

233) 소경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제약하는 인물이 모친 양부인이라는 점에서 양부인을 중심인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위의 글;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02;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모친 양부인에게 지극히 효성을 다하는 인물로, 한결같고 금욕적인 성품이 특징적이다. 소경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모친 양부인은 소경보다 더 규범적인 인물로 소경의 실수나 편협함을 엄중히 꾸짖는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이야기는 “여러 권 이야기를 지어 세상에 전하는 것은 대개 사람의 어미 되어서는 공의 모친 양씨 같고 자식이 되어서는 공처럼 효도하기를 권하는 까닭”²³⁴⁾이라는 별서의 언급처럼 ‘양부인의 어미됨’과 ‘소경의 자식됨’을 보고 깨우치도록 하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량 면으로 보면 소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보인다. <소현성록> 본전으로 불리는 1-4권까지 소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소씨삼대록>으로 불리는 5-15권까지는 그의 자식 대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 인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현성록> 연작의 초점이 소경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긴 분량에 걸쳐 전개되는 소경의 자식 대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의문을 느끼게 된다.

별서에서는 이에 대해 “공이 기뻐하거나 화를 내거나 웃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일이 적고 행실이 높은 까닭에 사람들이 이 전을 본다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공경은 하겠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빛나고 화려한 사건은 없다. 그러므로 공의 자식들 이야기를 지어서 내용이 풍부하게 되도록 하였다.”²³⁵⁾라고 해명한다. 소경의 성품으로 인해 이야기가 단조롭기 때문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그의 자식들 이야기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경의 자식 대 이야기는 소경의 인물 형상을 통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본전’의 주제 의식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보아야 하는가? 소경의 자식 대 이야기는 잉여적인 것으로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논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별서’에서 소경의 성품과 행적 서술에 집중한 점과 <소씨삼대록> 말미에 덧붙여진 ‘몽유록’에서 명나라 개국공신 유기가 소경의 아들 운성을 만나 ‘부모의 행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며 <소현성록>을 전해받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경이 주인공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소경에 의해 강조되는 ‘기존 담론’을 양부인이 더욱 철저하게 따르는 점 때문에 서술 비중에 비해 양부인의 형상이 더 뚜렷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234) 이대본 <소현성록> ‘소승상 본던 별서’,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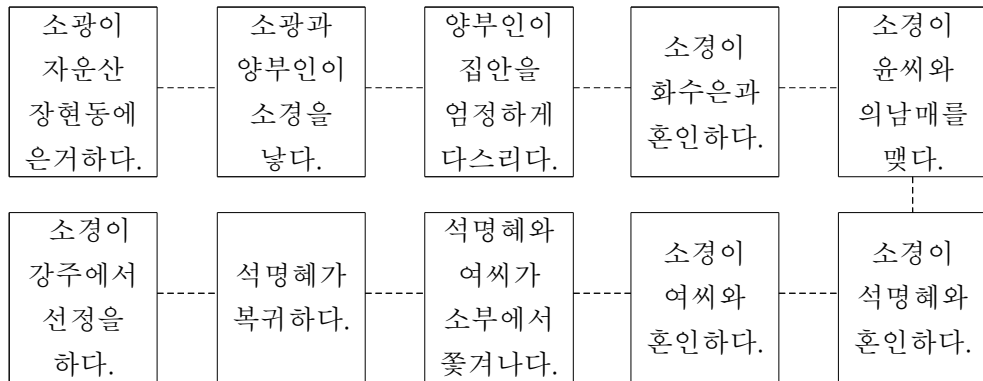
235) 이대본 <소현성록> ‘소승상 본던 별서’, 2면.

<소현성록>이 지닌 본래의 창작 목적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 일관성을 떨어뜨리는가?

본 연구에서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져 온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플롯 분석이 도움을 주리라 본다. 플롯은 간극이 큰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최초의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소현성록> 본전과 <소씨삼대록>은 ‘연작’의 관계를 맺고 등장인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면에서 상당한 간극이 발견되기에 <소현성록> 연작 전체의 주제를 둘러싸고도 대극적 논의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보다 완결성 있고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작품 전체를 통어할 주제를 도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플롯의 표층 요인 및 기저 요인의 검토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를 여타 삼대록계 소설로의 확장적 이해로 이끌 때에도 도움닫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인식(認識)’으로의 귀결과 ‘회복’ 욕망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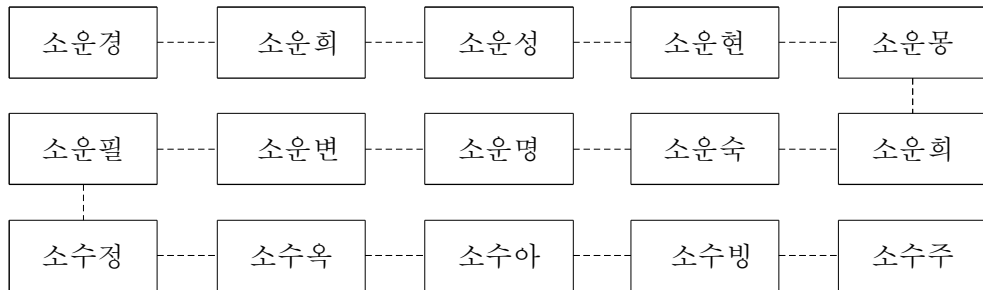
<소현성록> 연작 플롯의 분석에 앞서 ‘사건’이라는 기본 요소를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 연작은 긴 분량만큼 많은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에 보다 효과적인 스토리 요약이 요구된다. 그런데 핵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했을 때 분량에 비해 매우 소략한 요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수준에서 핵 사건을 설정할지에 따라 요약되는 사건의 수는 더 줄어들거나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부속 사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작품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의 여부를 토대로 1-4권에 이르는 <소현성록> 본전의 스토리는 <그림 7>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소경의 선정’ 이후에도 많은 수의 사건이 전개되지만, 요약된 사건들에 비해 파편성을 띠고 있고 다른 사건들만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림 7> <소현성록> 본전의 스토리

<그림 7>에서 사건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질서는 시간에 따른 순차성이다. 추상도가 높은 핵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사건 간 긴밀성이 떨어져 보이고, 스토리 나열만으로도 대강은 파악이 가능한 단순한 인과 관계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플롯에 대한 접근을 통해 특별히 선택되고 강조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는 5-15권에 이르는 <소씨삼대록>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5-15권에 이르는 <소씨삼대록>에는 소경의 자식과 손주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아들에서 딸 순으로 소개되고 그들이 겪는 사건이 차례로 나열된다. 각 인물이 겪어 나가는 사건들은 본전에 제시된 것 이상으로 다채롭기 때문에 특정한 핵 사건으로 묶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그림 8>과 같이 인명을 사용해 스토리의 방향성만 짐작케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때의 방향성은 본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순차성’이며, ‘소운성’이나 ‘소운명’ 같이 비중이 큰 인물의 경우 다른 인물이 중심이 된 사건에도 연루되기 때문에 ‘순차성’에 다소의 변주가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창선감의록>과 같이 중첩적 특성이 심한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순차성이 자연적 질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소씨삼대록>의 스토리

스토리 요약을 플롯 특징의 이해로 전환하기 위해 <그림 8>에서 인물의 이름을 통해 지시되는 사건들까지 고려하여 <소현성록> 연작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되고 강조되는 사건의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전을 중심으로 보면 ‘양부인의 엄정한 치가’와 ‘소경과 화씨, 석씨, 여씨의 혼인’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석씨는 쫓겨났다가 복귀하고, 여씨는 완전히 쫓겨나는가 하면, 윤씨와는 소경이 혼인이 아닌 의남매를 맺는 사건이 두드러진다. 이 모든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이들이 구성하는 ‘가(家)’에는 뚜렷한 질서와 규범이 있기에 이를 근거로 한 행동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질서와 규범에 따라 양부인은 계속해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소부를 다스리고, 소경은 가문을 어지럽히는 부인을 쫓아낸다. 이 중 석씨의 경우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기에 결국에는 질서와 규범의 구제를 받아 복귀하게 된다. 일견 소경이 부인을 많이 둔 것은 ‘가(家)’의 안정과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보이지만, 그것이 소경의 호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윤씨와 맺는 관계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가(家)’의 규범과 질서가 다양한 사례에서 행동을 결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이는 <소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여러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넌버그가 이야기한 ‘인식(認識)’의 속성을 강하게 환기한다. 인식은 기존에 존재했던 질서나 관계의 불확실성을 재배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과거의 사건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인식의 가능성으로 스토리 시간을 진행시키면서 호기심이나 서스펜스를 만든다.²³⁶⁾ <소현성록> 본전의 사건들은 소경이 여러 여인과 맺어가는 관계 속

에서 사사로운 욕망이나 상황의 가변성에 기대지 않고 모친 양부인에 의해 확고히 단속되고 있는 규범과 질서를 계속해서 조희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판단들이 각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소현성록> 연작에는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다양한 등장인물에 의한 다채로운 사건이 등장한다. 이 말은 곧 인물의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욕망이 등장한다는 뜻도 된다. 소경과 양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유교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회복’ 욕망이 드러나는가 하면, 화씨나 소운성 등에 의해 스스로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들이 자아내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앞서 살펴본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다채로운 욕망들을 제어하는 확고하고 압도적인 질서가 초반부터 설정되어 있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사건들도 최종적으로는 이 질서에 제약을 받아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다. 크고 작은 ‘극복’ 욕망들도 ‘회복’ 욕망이 추동하는 ‘인식’의 사건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용식²³⁷⁾은 인물의 지향점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데 주목하여 1세대는 가계 계승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욕망을 극도로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2세대는 가문의 창달을 실질적으로 꾀하며 ‘가(家)’의 응집을 최상의 과제로 삼는다고 하였다. 3세대는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들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여 ‘가’의 번성을 보여주며, 애정 추구의 지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인식’이란 1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욕망 억압’과 2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의 응집’이 소부에서 하나의 질서가 되어 다양한 가문 구성원들이 다채로운 욕망을 펼칠 때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236) H. P. Dannenberg, 앞의 책, 2008, 108쪽.

237)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제약을 가하는 행위 원칙으로서 상기된다는 말이다. 이는 1세대, 2세대 인물에 의한 직접 발화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후손들의 회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소현성록> 본전과 <소씨삼대록>에 두루 나타나는 특징이어서 통일성을 확보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본전과 별전의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으로 귀결되며 ‘회복’ 욕망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을 보여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본전에서는 ‘양부인의 엄정한 치가’와 ‘소경의 세 차례에 걸친 혼인’이 핵심이 된다. ‘양부인의 엄정한 치가’를 보여주는 사건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양부인이 소경의 누이 교영을 죽음으로 징치한 사건이며, ‘소경의 세 차례에 걸친 혼인’에서 두드러지는 사건은 화씨와 여씨의 투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애정’ 욕망에 의해 외람된 행동을 한 인물이 단속을 받는다는 점이다.

먼저 교영의 욕망이 양부인과 소경의 제어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교영은 소광과 양부인의 둘째 딸로, 모친 양부인과 남편 이기휘가 얼마간 염려하는 인물이었다. 양부인은 월영에 대해서는 “비록 날카로운 칼끝 같은 쟁기로 위협해도 그 곧은 마음은 고치지 않을 아이”라고 평하는 반면, 교영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냉담하고 뜻이 팽팽하게 선 듯하나 그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거미줄 같”다고 하며 “이 아이가 소씨, 양씨 두 가문의 맑은 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²³⁸⁾ 이기휘도 월영과 경의 인물됨에 감탄하며 “어찌 홀로 내 부인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나무람이 아니라 인물이 단정하지 않은 것을 탄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²³⁹⁾

교영에 대한 모친과 남편의 걱정은 이후 사건을 통해 선견지명이었음이 확인된다. 이기휘의 집안이 간신의 모함으로 몰락하고 이기휘 또한 죽음을 당하여 교영은 홀몸으로 유배를 가게 된 입장에 놓인다. 양부인은 사위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귀양 가는 교영에게 《열녀전》을 주며 절개를 지킬 것을 당부한다. 이는 동생 경 또한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영은 유배지에서 이웃에 사는 홀아비와 사통을 하여 가족의 당부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 양부

238)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17-18면.

239)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19면.

인과 소경이 미리 단속하였지만, 교영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정욕을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교영이 해배되어 돌아오게 된 다음에 벌어진다. 교영과 사통하였던 유장이 장현동을 찾아오자 교영이 실절한 일이 밝혀지고 양부인은 죽음으로 찻값을 치를 것을 명한다.

네 타향의 덕거흐나 몸을 조히 흐야 도라올 거시어늘 문득 실절흐야 죽은 아비
와 사랏는 어피게 욕이 미츠며 조선의 불행을 갓치니 엇디 츠마 살와두리오 친
가의 불초 네으 구가의 더러운 겨집이 되어 텃디간 죄인이니 당당이 죽엄죽혼
고로 금일 즈모의 정을 긋쳐 혼 그릇 독쥬를 주느니 쾌히 먹으라 교영이 고왈
쇼네 비록 그릇흐여시나 모친은 잔명을 용샤흐쇼셔 부인이 즐왈 네 스스로 네
몸을 생각흐면 죽으미 타인의 지축을 기드리디 아니려든 어느 면목으로 용샤
두 지 나느뇨 내의 즈식은 이러티 아니리니 날드려 어미라 일궂디 말나 네 비
록 덕소의셔 약흐므로 절을 일히시나 도라오매 거절흐미 울커늘 문득 서르 만
나를 언약흐야 거두를 ㄱ르쳐 이에 츠자 와시니 이는 날을 토목궂티 너기미라
내 비록 일 너지나 즈식은 처티흐리니 이런 더러운 거술 가뉘의 두리오 네 비
록 구천의 가나 니싱과 네 부친을 어느 낯츠로 볼다 언필의 약을 지축흐야 교
영을 먹이니 월영이 머리를 두드려 익결흐고 석파 등이 계하의 꾸러 슬피 비러
살기를 바라디 부인의 노귀 등등흐고 스귀 널널흐야 삭풍한월 궂트니 소싱은
눈물의 금포이 저저 좌석의 고이디 입을 닷고 혼 소리 비는 말을 내디 아니니
그 쥬의를 아디 못홀너라²⁴⁰⁾

위 인용문에서 양부인은 교영의 실절이 그녀의 시택과 친정에 상당한 욕을 미쳤음을 들면서 사약을 먹이려 한다. 목숨을 살려달라는 교영의 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영이 저지른 불효에 대해 조목조목 꾸짖는다. 절개를 잃었다 해도 상대와 다시 만날 언약을 하지 않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여 집으로 찾아오게 만든 것은 어머니인 자신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양부인은 이

24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39-40면.

렇게 교영의 실질을 그 자체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모녀 관계에 존재해야 할 도리까지도 무너뜨렸다는 점에 큰 분노를 표출한다.

마침내 교영은 사약을 받아 죽고, 양부인은 교영을 이씨 가문의 선산에도, 소씨 가문의 선산에도 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해 소경의 서모 석파가 지나친 처사라고 호소할 때, 양부인의 처분을 묵묵히 지켜보던 소경에 의해 그 행위의 의미가 요약된다.

경이 비록 무식 쇼이나 쏘흔 슈족의 정은 아노니 엇디 니미를 죽과져 뜻이 이시며 우리 선산의 장홀 뜻이 업스리오마는 스세 이러흐니 장춧 엇디흐리오 모부인이 세 남미를 두샤 만금궂티 너기시던디라 스랑흐시미 적으미 아니며 정이 혈흐미 아니로디 텃성이 건강흐고 널널흐야 정대흐기를 취흐시는 고로 그 산궂튼 정을 궂치 죽이시니 물읏 남군과 부되 그룬 일이 잇거시든 곡진이 간흐미 네어니와 올흔 일을 흐시논디 그르쇼셔 간흐기논 이 즈식의 도리 아니라 즈당의 처단흐시는 배 가티 아닌 배 업스니 장춧 므어시라 말니오며 간흐리오 청컨 대 셔모논 볼기 ㄱ르치라²⁴¹⁾

위 인용문에는 양부인의 처사가 겉보기에는 냉정하고 무자비해 보일지라도, 사랑이나 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위신을 더 중히 여긴 결과라는 소경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를 이해하기에 소경도 그것을 말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영의 일은 소부가 얼마나 강한 가문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로, 대를 이어 암암리에 전해 내려오면서 양부인과 소경의 엄혹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이따금씩 회자된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기에 소부의 어두운 기억으로서 상기되며, 이러한 태도가 지닌 비인간적인 측면에 대해 원망하거나 질책하는 맥락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이후 계속해서 반복되

24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41-42면.

는 가문 구성원의 욕망 발현과 그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구도를 처음으로 보여주는 일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가문 구성원을 통합시키기 위한 단속과 배제하기 위한 단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영은 애정이 뒷받침된 가문 구성원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죽음으로 징치를 받고 만다.

교영의 일이 있는 후에 <소현성록> 본전에는 애정 어린 시선이 뒷받침된 욕망 발현의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구분되어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전자는 소경의 첫째부인 화씨의 경우이고 후자는 셋째부인 여씨의 경우인데, 두 사람의 욕망 발현에 대한 단속의 방식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화씨는 아래와 같이 천성이 영민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강하며, 지나치게 소경을 사랑하는 병통이 있는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화씨 천성이 영민호나 성되 [조급]초강호고 또 사랑 둥히 너기를 태산갓티 호야 은정이 그죽호야 병되이 다르고 친이호미 극진호디 사랑이 석석호야 일즉 스스 정을 니르논 일이 업고 공경호나 너무 의등호기로 투기호논 일 심이 □□ □□ 아닐 괴습이라²⁴²⁾ 사랑이 일즉 방외에 창첩이 업고 가뉘의 흥장 시네 무궁호디 유정호미 업스며 언어간의도 지취를 일코디 아니코 겸호야 으지 이시니 통세 극호디라 스스로 일신이 복되를 깃거호더니 석패 단정호 가부를 도도와 지취호라 혼다 호니 엇디 분분티 아니리오²⁴³⁾

화씨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닌 인물이나, 소경이 기생첩을 두지 않는 등 화씨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지닌 단점은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스스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경의 서모 석파가 둘째 부인을 들일 것을 권하니 화씨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스리는 소경의 태도가 돋보인다.

242) 문맥상 화부인의 투기가 기이한 습성이라고 서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혜란·정선희 역주, 앞의 책, 107쪽.)

243)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92면.

“당초는 실노 아모 연권 줄 아디 못호고 차악호더니 즈시 듯조오매 이 쏘흔 경의 죄라 화시의 패악호미 다 제가 못흔 죄라 혼낫 화시의 혼단만 잇디 아냐 내의 허물이 더욱 등흔디라 셔모씨 불공호미 족히 내침죽호오디 모친이 불평홀 거시오 유즈식 불거를 슬퍼 머무르니 이 쏘흔 경의 죄로소이다 지어 손이 상호믈 서르 무심둥이라 엇디 일로써 개회호시리잇고 청컨대 내 늦출 보와 식노호쇼셔”

언필의 좌우로 화시의 유모를 잡아내여 수죄호야 대척호고 시노로 호야곰 큰 매를 굴히여 형당 늑심을 터니 유씨 혼절흔디라 석패 도르혀 말니니 쓰어내라 호고 셔모를 향호야 직삼 쇼샤호고 위로호니 석패 감격호고 뉘웃츠나 오히려 화시의 분을 프디 못호엿더라²⁴⁴⁾

인용문에는 석파가 화씨의 질투를 부추긴 것보다, 비록 서모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석파에게 화씨가 불경한 태도를 보인 것을 더 문제 삼는 소경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화씨는 자식이 있으므로 내칠 수 없으니 대신 화씨의 유모를 크게 꾸짖고 매질하는 데서 화씨를 얼마나 엄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는지가 엿보인다. 이에 화씨의 분노는 날로 극심해지는데, 소경은 이를 다독이기 보다는 더욱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물읷 녀지란 거시 스덕이 ㄱ죽호고 칠거를 삼가며 유순호믈 힘쓰고 지아비게 붓그리믈 두어 섬겨야 가히 사름의 즈식이 되야 부모를 욱떡이디 아니며 사름의 안해 되야 은의를 일치 아니코 몸이 평안호느니 부인은 그러치 아냐 모친을 밋드오매 효성이 게어르고 디인접물호매 괴식이 초강호고 혹심을 섬기매 당돌호고 더뎐호며 말슴을 발호매 온화호 일이 업스니 무스 일을 가히 칭션호야 경더호리오마는 내 ㄱ춤 ㄱ옴이 녀식의 잇디 아니호고 쫓이 물외에 버셔나므로 호화히 혼단의 논호는 일이 업고 위 춘경의 니르도록 혼낫 창기 업스니 이 엇

244)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97-98면.

디 부인의 복이 아니리오 죽헌 줄을 아디 못흐니 이 진짓 부인의게 형시 〇교의 잇도다 연이나 혹성이 무데의 쾌흐를 본밧디 아니흐고 그디로 가권을 전일흐고 고당의 한가흐니 무슨 일이 부족흐미 잇노뇨 (중략) 일즉 악당과 화싱 등이 널오디 그디 유병흐미 내의 미물흐므로 비로섯다 흐니 내 싱각흐니 부인의 죄 둥흐디 칙흐미 업고 내친 일이 업서 일즉 유모를 잘못 ㄱ르친 일노 경각흐야시니 각별 날노 흐야 병들미 업스며 악당이 니르시디 네 드러가 보면 병이 나으리라 흐시니 만일 내 보와 나을 병이면 이 문득 나를 싱각흐여 심병이 되엿는작가 즈고로 녀지 엇디 지아비를 상스흐야 병 나리오 사름으로 흐야곰 드르매 엄면슈괴흐니 내 일즉 사름을 꾸지즈미 업고 그 허물을 아디 못흐더니 부인의 일은 한심흐야 흐느니 녀즈의 투괴는 칠거의 잇는디라 그디 또 고스를 니기 박남흐니 알디니 임스 번희의 투괴 아님과 녀후의 척희 인테 삼으며 위당의 체 지아비 늦출 상히오니 다숫 사름을 의논흐매 뉘 어덜며 뉘 사오나오뇨 (중략) 내 비록 어디디 못흐나 칠세부터 슈형흐야 선비 도를 문허브린 일은 업스니 부인의 패려타흐른 내 감심티 아넛느니 내의 패려흐른 근심 말고 그디 쾌악흐미나 궂티라 어디 부인 궂튼 결뵈 이시리오 넷 글을 날거시나 그 쫓을 모르고 말을 흐니 사름의 우음이 될디라 경도흐미 이대도록 흐를 실노 싱각디 못흔 배로다”²⁴⁵⁾

위 인용문은 소경이 어머니의 명으로 화병이 날로 심해진 화씨를 찾아 왔을 때 화씨가 소경을 원망하는 말을 하자 그에 대해 조용하고 엄숙하게 책망한 말이다. 여기에는 화씨가 석과를 원망하게 된 마음에 대한 위로는 일절 나타나 있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여 병을 얻은 화씨의 마음이 도리에 맞지 않고 한심하다는 질책이 나와 있다. 이렇게 화씨가 지아비 소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첫째부인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효를 중시하는 소경에 의해 단속받음으로써 끝내 충족되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경이 위와 같이 모진 말을 하여도 실제로 화씨를 미

245)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二, 7-12면.

위한 것은 아니며 “원니 화시로 더브러 은정이 둥흐디 그 허물을 칙흐노라 짐쫓 밋물흔 괴상을 지어 면목을 보디 아니흐고 수죄흐미”²⁴⁶⁾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경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대의를 내세워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정을 엄격히 다스리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이 교영에게 취한 태도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의를 위한 것이었듯, 화씨에 대한 소경의 태도에도 애정과 욕망에 대한 단속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영, 화씨와 달리 단속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셋째부인 여씨의 경우이다. 여씨는 임금의 주선을 통해 소경이 억지 혼인을 한 상대자이다. 원치 않는 혼인을 통해 맞이한 인물인데다가 소경과 양부인은 금욕을 중시하기에 달가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에 더하여 소경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화씨와 석씨를 투기하고, 개용단을 먹고 두 부인 행세를 하며 음탕하게 행동하거나 양부인의 음식에 독을 탄 후 석씨를 모함하는 등 상당한 비행을 저지르기까지 한다. 소경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이 사건들에 대해 소경은 애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어지럽힌 죄를 들며 여씨를 내쫓고 혼인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한다.

사실 상대의 애정을 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씨의 욕망은 본질적으로는 화씨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인물의 지위와 혼인의 배경, 욕망 발현의 행동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소경의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는 첫째부인으로서 화씨가 소경과 맺은 관계가 긴밀해서이기도 하지만 이후 운성과 명현공주, 운명과 정씨의 결혼 생활²⁴⁷⁾에서도 보이듯 능혼(勒婚)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투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소씨 가문이 주체가 되어 치른 혼인에 대해서는 욕망에 대한 단속에도 회복에 대한 믿음과 애정 어린 시선이 나타나 있는 반면, 소씨 가문이 주체가 될 수 없었던 혼인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는 욕망으로 배제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

246)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二, 15면.

247)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결혼과 운명과 정씨의 결혼은 모두 왕가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씨의 비행이 일으킨 고초보다 더 극심한 고초를 소부 가문에 일으킨다. 이에 대해서는 ‘갈등’ 부분으로 다루고자 한다.

에서 언급한 <소현성록> 연작의 ‘가문 이기주의적’ 면모와도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²⁴⁸⁾

가문 구성원들의 욕망이 질서에 대한 ‘인식’으로 귀결되는 양상은 소경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속의 주체인 소경은 양부인에 의해서는 단속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경은 15세 때 여러 친구들에게 잡혀 원치 않게 창기들과 풍류를 즐기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데, 이때 창기들에게 가사를 지어 주게 된다. 그를 모시겠다는 창기들의 말을 소경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차 집에 머무르기를 청하자, 이 사실을 안 양부인은 매섭게 소경을 꾸짖는다.

내 일죽 선군을 여회고 너를 의디호야 아롭다이 성인호믈 브라거놀 네 엇디 감히 요괴로운 거술 외당의 모도와 방즈호기를 전쥬호노 (중략) 부인의 공즈의 온화호 말슴과 두려하는 거동을 보고 노기 태반이나 업스디 형허 혈기 미덩호 쇼의 취쳐 전의 입홀가 두려 다시 칙호디 네 쇼년의 님신타 텃은이 둥호시니 당당이 경심게지호야 테면과 위의를 정히 홀 거시오 외로운 어미를 드리고 자 최 처랑호니 호화호미 가티 아니려든 과부의 문당의 창악과 봉우를 어즈러이 모호리오 다시 방즈호미 이시면 결연히 용셔티 아니리라 공지 곱히 뉘우쳐 돈 슈복죄호고 플러와 스창을 보내고 일로벗터 더욱 슈히호야 온둥단엄호미 날로 더으더라²⁴⁹⁾

위 인용문에서 양부인은 소경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고도 혹여나 제대로 부인을 얻기 전에 여자를 들일까 봐 걱정하며 단단히 단속을 한다. 소경의 기질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양부인이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를 일탈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 간에, 또 세대 내에서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단속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현성록> 본전의 특징이다. 이는 현실적 욕망에 의해 잊히기 쉬운 가문 질서에 대

248) <소현성록>의 가문 이기주의적 측면에 대하여는 조혜란, 앞의 글, 2009 참고.

249)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44-46면.

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해 ‘극복’ 욕망을 단속하는 ‘회복’ 욕망의 지속적 강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소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소경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서도 반복된다. <소씨삼대록>에서는 소운경, 소수빙, 소수주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욕망²⁵⁰⁾을 제외하면 소경으로부터 단속을 받는 욕망들이 부각된다. <소씨삼대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운성의 욕망과 그와 늑혼을 하는 명현공주의 욕망,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운명의 욕망과, 역시 그와 늑혼을 하는 정씨의 욕망이 그것이다. 이들의 욕망은 소운성의 처 형씨와 소운명의 처 이씨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쉽게 성취되지도, 완전히 반성되지도 않은 채로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명현공주의 죽음과 정씨의 내쫓김을 통해 마무리가 된다.

운성의 경우 <소현성록> 연작에서 가장 기질이 강한 인물이다. <소현성록> 본전에서 소광이 소경을 낳는 태몽을 꿔운 때부터 소운성의 존재는 예고되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²⁵¹⁾ 소운성은 석파가 천거

250) 화씨의 소생인 첫째아들 소운경의 정혼자인 위선화가 계모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배다른 남매인 위유홍이 모친의 죄를 씻기 위해 자살을 택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다. 여기서는 위씨의 계모인 방씨의 욕망이 문제가 되는데, 위유홍의 효심과 우애가 방씨의 욕망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욕망의 단속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씨 가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소운경의 입장에서는 위씨를 구해내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석씨 소생인 넷째딸 소수빙의 경우 남편 김현의 욕망과 그의 가족의 욕망이 소수빙을 고통스럽게 한다. 김현이 소부에서 수빙의 초상을 보고 반하여 혼인하는데, 본부인 취씨와 형 김환 부부, 모친 왕부인이 수빙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과정의 단속이 이루어진다. 김환이 수빙을 모함하기 위해 고발장을 가져가자 운성이 김환을 심문하고, 김현이 소부에 형의 구원을 요청하자 소경이 김현의 효심과 우애를 높이 사 김환을 용서한다. 이후 김환은 잘못을 뉘우치고 김현과 수빙이 모친을 모시고 자운산에 살도록 조치한다. 소경과 운성이 김환의 욕망을 단속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빙이 고통을 받게 된 계기인 김현의 욕망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못했다는 점, 김현의 가족애와 운성의 가족애가 충돌하는 점 등을 보면 수빙의 이야기는 욕망의 일시적 차단을 보여주기보다는 ‘효(孝)’와 우애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출가한 딸이 친정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게 됨으로써 소부의 결속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씨 소생인 다섯째딸 소수주의 경우도 황후가 되는 과정에서 인종황제를 둘러싼 광후의 투기를 받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은 다른 후궁들의 고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소경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였다.

한 소경의 둘째부인 석씨의 소생이며, 다른 아들들과 달리 삼태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다.²⁵²⁾ 과거시험에서도 운성이 장원을 차지하고 윤경과 윤희가 그 뒤를 잇는 점²⁵³⁾, 후손들이 따로 나가 살지 않도록 하라는 소경의 유언이 소운성의 당부에 의해 지켜지는 점²⁵⁴⁾ 등을 고려하면 소운성이 소경의 자식들 중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운성의 욕망은 자신의 능력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소현성록> 본전의 교영, 화씨, 여씨가 보인 것과 같은 애정에 대한 욕망을 넘어서서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운성은 어릴 때부터 강한 기운 때문에 부모의 염려를 받고, 글공부 대신 병법서에 탐닉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석파가 실수로 운성의 팔에 앵혈을 찍고 그것을 놀리자, 석파가 데려다 기르는 친척 소영을 겁탈하여 자신의 앵혈을 없애는 방자한 행동까지 한다. 나아가 형공의 집에서 만난 형씨에게 첫눈에 반해 외조부에게 부탁하여 구혼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운성은 자신의 기질과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번번이 소경에게 상당한 단속을 받는다. 특히 소영을 겁탈한 일에 대해서는 운성의 생모 석씨에게까지 소경이 극심하게 화를 낸다. 소영의 일은 한때의 비행으로 여겨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숨겨지다가, 소운성이 형씨와 혼인한 후에야 석파의 입을 통해 밝혀진다. 석파로부터 앵혈에 관한 일을 들은 석씨가 눈썹을 찡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다 이 말을 들은 소경은 석씨과 운성 모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피 어디디 못하면 즈식이 사오나오니 이제 운성의 형씨 이 곳되 아비 이
셔 모르고 어미 이셔 아득하니 이 곳 나의 불명희미어니와 어미된 재 태임의

251) 소경을 낳는 태몽에서 ‘금장식이 있는 백옥을 주자, 옥은 용이 되고 금은 구름이 되었으며, 신선은 구름 운(雲)자와 빛날 수(秀)를 쓰며 그것이 소광의 성손(聖孫)이라고 말하다.’라고 한 서술은 <소현성록> 본전 이후에 중심인물이 되는 운성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전체 작품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252)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五, 55-56면.

253)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五, 98면.

254)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72-73면.

티교호든 법밧디 못흔들 불초즈를 브러 동심호야 아비를 물너자호미 이시리오
운성의 횡스를 드르매 한심호되 어미는 두긋거이 너겨 우스니 진짓 상덕호 모
지라 호리로다”²⁵⁵⁾

소운성의 사나움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혐의로 인한
석씨에 대한 분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한다.

“남지 혹 방탕호야 삼가디 못호미 잇거니와 너는 황구쇼으로 가등의 드러 음난
호기를 방즈히 호고 방외에 노라 성식을 엿보아 비례로 혼인을 구호니 날을 업
손 것7티 너기니 내 어너 면목으로 네 아비 되며 즈식 7르치디 못흔 죄 참과
호니 더디로 조선 도덕이 네게 니르러 문허디미라 나의 너 나흔 연과니 엇디
불형티 아니리오 명일로 부즈 의를 굿쳐 너를 보디 아니려니와 또흔 금일 내
죄를 묻져 다스려 조선의 청죄호리라”²⁵⁶⁾

위 인용문은 소운성이 비례로 혼인한 것과 소영을 겁탈한 일을 두고 소경
이 부자의 연을 끊자며 크게 꾸짖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운성은 즉각 죄를
청하고 석씨 또한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하였으나 소경은 쉽게 용서하지 않는
다. 이를 용서하는 계기는 딱 하나, 양부인이 용서할 것을 권한 것밖에는 없
다.

소운성이 소경의 단속을 받는 일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늑혼으로 명현
공주와 혼인한 후 부인 형씨를 친절로 돌려보내게 되자 소운성은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형씨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 간다. 운성의 행동이 예
에 맞지 않음을 들어 형씨가 냉담하게 대하자 운성은 상사병이 드는데, 병이
든 상황에서도 소경은 운성을 차갑게 꾸짖는다. 팔왕의 중재로 형씨가 둘째
부인으로서 소부에 복귀한 후에도 소운성이 명현공주를 찾지 않고 형씨의 처
소에만 머무르려 하자 소경은 소운성을 매로 다스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소

255)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五, 73-74면.

256)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五, 81-82면.

운성의 욕망은 소경에게 계속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다.

운명의 욕망 또한 소경에게 단속을 받는다. 화씨 소생인 여덟째아들 운명은 박색(薄色)인 임씨와 혼인한 데 불만을 품는다. 이에 창기를 모아 소경에게 꾸짓음을 받기도 하고, 유람 중 만난 이옥주와 혼인을 하려 한 점 때문에 소경에게 매질을 받기도 한다. 황제의 교지로 정씨와 억지 혼인을 하게 된 후 정씨의 모략으로 인해 집안이 어지러워지자 악인의 꾀에 빠져 가문의 명성을 더럽힌 죄 때문에, 또 화씨가 현명하게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까지 함께 받아 역시 소경에게 매질을 당한다. 아름다운 부인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촉발된 운명의 행동도 소경에게 매번 단속을 받는다.

이와 유사한 일은 또 있다. 소경이 조정에 간 동안 여러 아들이 첩과 기생을 불러 방탕하게 노는데 이를 알게 된 소경은 아들들을 결박하여 깊은 집속에 가둔다. 이 일 또한 양부인이 아끼는 손자들을 오랫동안 못 보았다는 말 때문에 겨우 해결된다. 이렇게 소경은 예에 어긋난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시종일관 단속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소씨삼대록>에서 <소현성록> 본전에 비해 한층 적극적이고 다채롭게 벌어지는 여러 자식들의 ‘극복’ 욕망에 대해서도 소경과 양부인의 ‘회복’ 욕망은 계속해서 구속력을 발휘하며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인식’으로의 귀결을 촉구한다. 작품 말미에서 ‘극복’ 욕망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던 소운성이 소부의 결속을 강조하는 ‘회복’ 욕망의 주체로 형상화되는 것은, <소현성록> 연작의 기조가 통일성 있게 유지 및 계승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다채로운 사건이 ‘인식’으로 수렴되는 면모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수렴형 플롯’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이 짐작된다.

(2) 예정된 인과의 반복과 기존 담론의 장악

주지하였듯이 ‘인과’는 서사 플롯의 구성에서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오래도록 손꼽혀 왔다. <소현성록> 연작과 같이 스토리 요약부터 만만치 않은 긴 편폭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 근본 원칙이 보다 강한 견인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갈래로 분기되는 플롯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II장에서 통찰한 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의 형식이든 분산의 형식이든 그것이 작품을 통어하는 주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이를 위해 ‘예정된 인과’라는 형식을 ‘반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의 예정된 인과 원칙은 ‘부모된 도리’나 ‘자식된 도리’, ‘아내된 도리’ 등 가부장제에서 강조되는 바람직한 역할 규범이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각양각색의 행동을 통해 개인적 욕망을 분출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악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배제되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역할 규범에 고통은 받을지라도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 원칙은 여러 인물들에 의한 다양한 사례에서 행동을 구속하는 원리로 작용하며 반복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앞서 살핀 ‘인식’의 사건이 이러한 인과 원칙을 통해 한층 강조되며 서사 세계 내적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과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예정된 인과 원칙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효(孝)’ 담론이 작품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 색(色)을 경계해야 한다는 ‘금욕’의 담론,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가문 결속’의 담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소현성록> 연작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행위를 적재적소에 단속하는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담론, 특히 17세기에 들어 당대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한 담론으로 ‘가문 결속(家門結束)’ 담론’을 들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유난히 가문 구성원들의 결속이 강조된다. 이 점은 소광에게서 발현된 소부의 가계 계승과 유지의식이 양부인을 통해, 소월영과 소경을 통해,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 공고히 다져지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경의 부친 소광은 오래도록 자식이 없다가 딸만 연달아 낳자 오열하며 “하늘이 었디 내게 홀로 적악을 누리오시나뇨 십스연을 기드려 문득 두 쏘을

년호야 나호니 일신 후스와 조상혈식을 뉘게 의탁호리오”²⁵⁷⁾라며 하소연한다. 소경이 태어나기도 전 죽을 병을 앓게 되어 유언을 남길 때에도 “악부는 쇼서의 정스를 어엿비 너기사 두 낫 쫓즈식을 보호호야 나의 녕혼을 위로호시고 비록 외로오나 이 즈운산의 두샤 쇼서의 쫓을 덕히게 호쇼셔.”²⁵⁸⁾라고 장인에게 부탁한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자녀를 외가에서 양육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소광의 부탁은 파격적이다. 또한 소광은 양부인의 복중태아가 남자아이일 것이라며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약 딸이라고 해도 그 딸로 하여금 제사를 잇게 하라고 당부하는데 이 역시 가문 승계에 대한 강한 염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광은 양자나 첩자를 통한 계승 대신, ‘기이한 꿈’으로 태어나 가문을 잘 이끌어나가리라 기대되는 딸을 통한 계승을 택한다. 이는 가문 구성원의 분산을 막고자 노력하는 시대, 아들 대신 딸로 하여금 제사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임을 보여준다. 17세기의 복합적인 가문 승계 양상이 엿보이는 가운데 가문 승계 의식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 소광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된다.

소광의 강한 염원은 양부인의 강인한 생존 의지를 통해 차츰 실현된다. 소광이 세상을 떠난 직후 양부인은 오직 남편의 제사와 가문의 후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태로워진 기력을 되살리기 위해 ‘육즙’을 마시는 강인함을 보여준다.

이윽고 망호니 춘취 삼십이세오 시세 삼월이라 일개 호곡호물 마디 아니호더라
 습념호야 초상을 못고 양부인이 설우물 품어 제스를 일우더니 일삭이 디나매
 양시 기력이 장춧 위티호더라 스스로 복둥이 상홀가 두려 저근 설우물 강잉호
 고 관대호 의리를 싱각호야 호 그릇 육즙을 들고 관 알피 나아가 널오더 군의
 정녕이 머디 아니시니 반드시 쇼감호라 내 이제 투싱호미 아니라 형혀 복둥이
 남질딘대 소시 후스와 군의 녕혼을 위로호를 거시오 설스 녀지라도 또호 내 몸이
 보전호여야 군의 삼년 제스와 슬하 유태를 거둘디라 임의 죽디 못홀딘대 또호

257)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7면.

258)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10-11면.

보전홀 거시므로 스스로 괴운을 짐작호야 브디티 못홀 줄 알고 육즙을 나오느
니 정녕이 알미 잇느냐 설파의 실성통곡호고 마시기를 다 호고 침소의 도라와
제스를 밧들고 티가호기를 더욱 엄정히 호더니²⁵⁹⁾

위 인용문에는 복중의 태아가 남자라면 소가의 후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자라 해도 소가의 제사를 모시려면 본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함부로 죽어
서는 안 된다는 양부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가문의 안
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양부인의 가문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부인은 남편의 유언
대로 친정에 돌아가지 않고 소부에 머물며 남편의 두 첩인 석파, 이파를 보
살피고 자식들을 양육하며 소부를 다스린다.

소부의 실질적인 가권이 양부인에게서 소경의 누이 소월영에게 전수되는
것 또한 소광이 유언으로 남겼던 가문 결속의 의지와 가문 발전을 위한 염원
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작품 말미에 향년 115세가 된 양부인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나의 텃명이 딴호엇거늘 너히 속절 업슨 슈호는또다 드디여 소부인의 손을 잡
고 넣어 왈 내 너히 부친을 여히고 네 그 때 나히 스세라 어르몬져 길너더니
이제 나히 늙기의 쇠히고 즈손이 번성호니 구천의 도라가나 혼이 업스리로다
너도 나히 쇠히고 경이 혼가디로 늘글 거시니 내의 삼년을 부디홀 기히 업는디
라 엇디 믹옴의 니즈리오 너히는 웨블멸성을 싱각호야 혼가디로 보호호고 화시
의 성되 조협호여 가뉘 천여 인 상하를 원망 업시 거느리디 못호리니 석시는
츠레 글너더니 네 맛당이 내 디신의 드러 즈손의 닻살기를 금호고 거느려 넷
법제를 고티디 말나 네 즈근 후는 화시찌 느리오고 위시는 쏘흔 너를 죽히
디홀 재니 원너는 아니커니와 당가의 세거를 효측호라”²⁶⁰⁾

259)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11-12면.

26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54-55면.

만며느리 화씨의 성품이 집안을 이끌어 가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석씨는 순서가 아니라는 점이 딸 월영으로 하여금 가권을 계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 소가만의 독자적인 가내 질서가 엿보인다.

이렇게 소가는 일반적인 종법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소가가 소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계후가 암묵적으로 소운성에게 전해지는 것 또한 독특하다. 소부의 계후를 이어야 하는 장자 소운경이 소경이 죽고 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죽고 뒤이어 차차 소운희까지 죽자, 아직 어린 운경의 아들 세현 대신 운성이 소부를 실질적으로 다스린다. 황제가 소경을 계후로 봉하려 했을 때 소경이 이를 사양하자 운성이 대신 그 자리를 받아 진왕이 되는 것 또한 독특하다.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능력이 뛰어난 운성이 실질적으로 가문의 중심인물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소가가 하나의 ‘촌(村)’을 구성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양부인에게서 소경으로, 소경에게서 소운성으로 전해진 유언에 따라 인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다음 인용문은 소경이 죽고 난 후 따로 나가 살려 하거나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는 구성원들이 생기자 모든 아우와 조카들을 모아놓고 소경의 유서를 내놓은 채 통곡하며 운성이 한 말이다.

“우리 명되 기구하야 부모를 여히고 유서를 밋즈와 이십 년이 못흐였느니라 선형이 기세하실 적 우형으로 가스를 맛다 돈목하를 당부하시니 명을 드러빠오므로 부지 부덕한 사름을 외람흔 소임을 하며 여튼 정신을 갈넉하야 화의를 브라더니 실덕하미 크고 효성이 업서 모든 형데 거느리믄 잘못하므로 닷살고져 뜻이 이시니 우형이 성전의 유서를 저버린 죄인이 되고 디하의 도라가 부모씨 뵈을 늦치 업스니 지삼 싱각건대 현데 등은 내의 허물이 잇거든 규정하야 곳치고 하고 내의 처첩이 그른 일이 잇거든 날드려 닐너 다스리고 하야 서르 칙하고 스랑하야 비록 맛당티 아니나 썩나디 아니미 가하니 너희 구뜰여 듯디 아니하고 닷살고져 홀딘대 이곳의셔 유서를 불덜너 선인의 말숨을 업시하고 넷 사름의 분지홀 적 남기 감동하야 죽으믄 늦길 썩롭이로다” <중략> “형데 혼 가지로 사는 바는 뎡흔 일이라 던시의 삼형데는 닷살고져 하매 남기 감동하야 죽으니 우리 형데는 밍세하야 썩나디 아니려니와 제수와 제달이 불합하야 기리 앙

양호느니 이시면 구투여 강잉호미 도로혀 화괴 곳쳐디미니 각각 쫓대로 힝크
호라”

모든 부인과 즈덜이 다 감누를 드리워 닷살 쓰디 업스니 왕이 대열호야 즉시
빅마를 죽여 삼혈호고 혈서로 밍세호야 칠인이 혼 가지로 밍약호되 츠후 가니
의 어즈러운 말이 이시면 인정을 두디 말고 다스리고 므움을 혼글궂티 호야 비
약호면 부모의 지턴지령이 벌을 느리오리라 호니 인츠로 가니의 다시 말이 업
고 지극 화평호야 규문의 몹으미 물 궂트며 너외에 화혼 괴운이 춘풍의 므르늑
아 딘가의 목죽과 당가의 세거를 블워 아닐너라²⁶¹⁾

인용문에는 비록 유서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족 구성원 간 자발적인 화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가문 결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
다. 그래서 혹시나 아우들의 부인이나 자식들이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면 굳이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따로 살 뜻이
있었던 식솔들이 모두 감화를 받는 바람에 자발적인 결속이 이루어진다.

사실 종법은 ‘통(統)’ 의식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고, 그 대신에 ‘연(緣)’
의식의 수평적 관계를 약화시킨다.²⁶²⁾ 그런데 <소현성록>의 인물들은 수평
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식하며 혈통 가족의 결속을 확보하는 데 온 노
력을 기울인다. 이는 조선 중기의 《주자가례》가 의도한 바 사대부 계층 전
체의 동질성보다 개별 가문의 동질성 확보에 주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²⁶³⁾
이렇게 소가는 독자적인 결속력을 토대로 “둘레가 백 리에 달하”며 “사면에
는 울창한 푸른 대나무와 아름답리 큰 소나무가 둘러 있”어 “무릉도원 같은
별천지였고 봉래산이나 방장산 같은” ‘자운산 장현동’²⁶⁴⁾에 대대로 거주하며
소가촌의 번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가문 결속 담론은 18세기 이후와는 또 다른 17세기만의 현실을 담

26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72-75면.

262)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화 - 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이혜순
외,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 -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69쪽.

263) 고영진,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79쪽.

264)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4면.

은 가문 의식으로, 양자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구현하는 후대의 것보다는 좀 더 이른, 친족의 결속력을 더 중시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면서 소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개인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단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외부자에 대한 배타성을 처리하는 방식도 ‘가문 결속 담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소경은 호광순무사로 떠났다가 복귀하는 길에 만난 그 지역 평장 딸 윤씨를 만난다. 그녀는 화적때로 인해 부모를 여의고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에게 붙잡혀 억지로 며느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소경을 찾아가 ‘부모의 시신을 장례 지내게 해 줄 것’을 부탁한다. 소경은 이 부탁이 효에 합당하다고 여겨 들어주고, 혹시나 생길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씨와의 관계를 ‘의남매’로 규정한다. 사실 윤씨는 소경의 두터운 덕에 반해 남편으로 섬길까 하는 뜻을 두기도 했고, 의남매를 맺자는 말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확고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소경의 태도에 최종적으로는 감탄한다. 이는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처나 첩을 들이는 행위를 옳지 않게 여기는 소경의 인물 형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점을 지닌 외부인을 가문의 결속에 활용하는 현명한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문 결속 담론’은 <소현성록> 연작에서 전개되는 각양각색의 사건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예정된 인과 원칙’으로서 작용하면서 ‘기존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화한다. 사적 욕망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인물들, 그리하여 가문의 질서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인물들에 의해 ‘대항 담론’의 존재가 암시되는 되지만, 그것이 기존 담론의 권위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문 결속 담론이 특수한 담론이 아니라 모든 작중 인물들에게 표면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동조되는 ‘기존 담론’으로서 그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러 갈래의 사건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어나야만 하는 확고한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라 전개되는 ‘수렴형 플롯’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3) 서사 시간의 연장과 열린 갈등의 다면적 제시

<소현성록> 연작은 ‘남녀 간 애정 갈등과 처첩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소설’²⁶⁵⁾이나 ‘여성 세계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부부생활을 소설화한 작품’²⁶⁶⁾으로도 해석된다. ‘질서의 실현’을 강조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다채로운 갈등을 펼쳐내는 소설로서의 미학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렴형 플롯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가지면서도 유형 분류를 단정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플롯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인 배열의 측면을 살폈을 때 그러한 해석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가능하다. <소현성록> 연작의 배열상 특징은 스토리에서도 암시된 것처럼 계속된 순차성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 순차성은 <홍길동전>과 달리 ‘선형적 배열’로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홍길동전>은 시간에 따른 공간의 확대를 보여주었기에 선형적 배열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 연작은 사건 자체는 시간에 따라 배열되지만, 부분 부분 ‘서사 시간의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잠시 중지된 채로 충분한 묘사가 나타나거나 과거 사건으로의 회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비선형적 배열’이라고 판단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비선형적 배열은 수렴형 플롯의 주요한 징후이다. 그러나 이 징후가 실제로 작품 속 인물들의 갈등을 제어해야만 수렴형 플롯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의 경우는 서사 시간의 연장을 통해 질서가 작용하거나 작용해야 하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는 가운데 인물들에게 할애된 서술의 공간만큼 그가 겪는 갈등을 빚진하고 심각하게 다룬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은 확고한 질서에 대한 회상과 믿음으로 귀결되는 서술로 인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떠한 갈등이든 충분히 통어할 수 있는 서사 세계가 펼쳐지고, 이러한 서사 세계가 수렴형 플롯의 특징을 한층 강화한다.

265)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266)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소현성록>의 갈등은 그것이 충분히 제어되는 서사 세계 속의 갈등이기에 ‘열린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서술을 통해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면모를 통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면적’으로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열린 갈등’이라는 점에서는 <창선감의록>과 유사한 성격의 갈등이지만, <창선감의록>처럼 유기적으로 관련 맺으며 해소되는 갈등이 아니라 다만 제시될 뿐인 갈등인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서술 공간 속에서 갈등이 그 심각성은 물론 제어되는 모습까지 보여 주려면, 또한 다면성도 보여주려면 특별한 서술 방법이 요청된다. 이 서술 방법이란 사건 중심의 ‘동적 서사’보다 묘사나 서술 중심의 ‘정적 서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적 서사는 스토리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장편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서술이며, 근대 리얼리즘 소설에서 활용되는 ‘세부 묘사’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²⁶⁷⁾ <소현성록>에 대해서는 ‘동적 서사’를 ‘정적 서사’가 압도한다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 때문에 스토리 전개 차원에서는 진행이 더딘 데 비해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분석이 있다.²⁶⁸⁾

정적 서사가 강화되면 동적 서사가 지니는 강한 결속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 간 유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현성록> 연작은 개별 사건들 사이의 유기성보다, 세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공고한 세력을 유지하는 ‘가(家)’의 이상적 질서와 개별 사건들의 유기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래서 <소현성록> 연작에 등장하는 정적 서사들은 비록 사건 전개를 위한 동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상적 질서’의 작동을 보여주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러한 특징은 <소현성록> 연작을 ‘수렴형 플롯’으로 보는 데 더욱 확고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면 실제 작품에서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소현성록> 본전과 <소씨삼대록>을 아울러 고찰하면서 확인해 보겠다. <소현성록> 본전에는 ‘소경의 선정’ 이후부터 정적 서사가 집합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 서사

267) 정길수, 앞의 책, 2005, 248쪽, 259쪽.

정적 서사는 경험의 강렬함이나 심도 깊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8) 위의 책, 296쪽.

들은 <창선감의록>이 밀도 있는 주요 사건들을 빠른 호흡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여기서는 소경이 화씨의 친정 부모와 석씨의 친정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석씨가 가지고 있는 양금²⁶⁹⁾, 그간 거론되지 않았던 윤씨의 열등감²⁷⁰⁾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반복되는 ‘잔치’ 자리에서 부인들이 서로를 비교하거나 한가로이 농담하는 모습²⁷¹⁾ 등은 서사 진행과는 무관한 과거로의 회귀와 반추이다. 석씨가 과거에 글을 감추었던 일에 대한 회상이라든지, 양부인이 과거 상중에도 육즙을 먹으며 가문을 위해 버틴 일의 회상, 교영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재론²⁷²⁾도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소현성록> 본전의 말미에는 양부인과 소현성의 흘룽함, 화씨의 용렬함과 석씨의 단정함이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되며 과거 사건을 반복한다. 새로이 해결을 요청하는 이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전의 말미에 모여 있는 이러한 정적 서사의 양상은 사실 <소현성록> 연작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다. 자주 등장하는 종류를 제시해 보면 먼저 비중이 크지 않고 유기성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사건을 통해 소경의 인물됨을 나타내는 서사가 있다. 소경이 과거를 보러 가서 무능한 유생들이 효성스럽다는 이유로 답안을 대신 써주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소경의 효심을 드러내는 차원과 이후 소경 후손들이 맺는 혼인 관계의 근거를 설명하는 차원에 기여할 뿐 주요 사건을 파생시키는 기능은 하지 못한다. 그밖에도 소경의 사소한 행동과 그 의도를 설명하는 서술이 많은데, 예컨대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는 것과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서술²⁷³⁾, 소경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이유에 대한 서술²⁷⁴⁾ 등은 소경의 성격과 내면을 때마다 섬세하게 합리화하는 특징이 있다. 소경이 문하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한 교훈의 말이나 조명의 일화²⁷⁵⁾ 또한 그러한 기능을

269)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四, 15-16면.

27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四, 23-38면.

27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四, 42-47면.

272)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四, 100면.

273)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九, 84면.

274) 승상이 비록 온화호야 사람을 사랑호고 후더호나 그룬 일이 이시매 요더티 아니코 준절이 썩지저 그 허믈을 감초디 아니디 쏘호 늑드려는 그 사람의 허믈을 다 감초와 니르디 아니호니 이 진짓 군지라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 47면.)

수행한다.

인물의 개별적 특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소부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서사도 반복되는 정적 서사 중 하나이다. 형씨의 형부인 손생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음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운성이 일부러 손생을 칭찬하자 석파가 운성의 뛰어난 점을 소광, 소경 등 조상과 비교하거나 부인인 형씨와 비교하는 말을 한 일화²⁷⁶⁾가 있다. 이 일화는 소부 사람들의 우수함을 과시하기 위해 관련성이 크지 않더라도 덧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석파의 주도로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고하를 따지는 일화²⁷⁷⁾, 잔치 자리에서 모든 딸들에게 자신의 흠을 이야기하게 하는 일화²⁷⁸⁾ 등도 그러하다. 사건 전개에 필수적이지 않으나 황제까지도 자주 찾을 만큼 우수하고 유력한 소부의 모습²⁷⁹⁾이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고찰되는 효과가 있다.

불교에 대한 소부 남자와 여자들의 태도가 비교되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정적 서사이다. 소경과 운성은 불교에 대한 배척심이 매우 강하기에 양부인이 여승을 불러 만나 보았을 때 여승을 잡아매려고 하고, 유람 중 들른 절을 불태우려 한다. 어떤 일이든 효심을 가장 중시하는 소경이, 모친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불교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부인이 반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소경이 자신을 비판하는 모습을 대단히 여기며 이를 더 보려고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모습²⁸⁰⁾, 여승을 들인 일에 대해 운성이 문제 삼자 양부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불도를 변호하는 모습²⁸¹⁾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술은 갈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현성록> 연작의 정적 서사들은 핵심 사건 사이에 배치되어 인물의 일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이 작품이 위시하는 가문 결속 담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거의 완벽한 인물형으로 그려지는 ‘양

275)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二, 78-84면.

276)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九, 66-67면.

277)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 66-74면.

278)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三, 137-140면.

279)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1-2면.

28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 87면.

28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 97-98면.

부인'과 '소경'을 영원한 질서이자 이상향으로 그리면서도, 이들의 속성이 이후 세대의 구성원들에게서 분산 소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구성원들의 부족함을 탓하고 교정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상적인 규범을 상기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후대의 가문소설에 나타나듯 여러 명의 중심인물에 대해 차례로 서술의 초점을 옮김으로써 장편화를 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중심인물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되 관련 담론의 설득력을 높이려 그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과 평가를 덧붙임으로써 장편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소현성록> 연작의 배열상 특징인 서사 시간의 연장은 장편화를 이끌고, 장편화를 통해 마련된 정적 서사들이 '인식'으로의 귀결을 돕는다.

이러한 배열이 이끄는 '갈등'의 양상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 앞서 '극복' 욕망을 발현하는 인물들이 '회복' 욕망을 위시하는 인물들에 의해 단속을 받고, '가문 결속 담론'이 예정된 인과 원칙으로서 작용하여 대항 담론의 소지를 제어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보면 일견 <소현성록> 연작은 어떠한 갈등도 충분히 전개될 수 없는 작품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제로 <소현성록>에는 한번 단속을 받고도 꺾이지 않고 재발하는 욕망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갈등의 모습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길일이 다드르 매즈기 네 스롭과 양참정이 니르니 양부인이 [기즈 네 스롭과] 부친을 밋드러 좌를 덩흐고 시각이 넘흐니 소시 더 화시의 즈가욕흐를 그릇 너기나 더의 심히 설위흐를 보고 일변 경도조협흐를 고이히 너기고 일변 잔잉히 너겨 ㄱ만이 경계 왓 오늘 모친이 반드시 그더로써 아이 오술 섬기라 흐시리니 천만 불평흐 일을 말나 화시 샤례 호읍흐더니 부인이 화시를 불너 관복을 낚히라 흐시니 명을 니어 나아가 관더를 밋드러 섬길시 투목으로 그 동지를 슬피니 화시 면식이 여토흐야 그 골홈과 썩를 밋매 손이 썰너 쉽디 못흔디라 그옥이 애들이 너기더니 관더를 밋츠매 모든 더 하덕홀시 부인이 추연히 감창흐야 눈물을 느리오니²⁸²⁾

282)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二, 46면.

위 인용문은 결국 성사된 소경과 석씨의 혼인 준비를 손수 하게 된 화씨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으면서 마음까지 그에 승복하지는 못하고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점에서 자신의 기질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화씨의 기질이 어떠한 단속에도 일시적으로만 다스려질 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소현성록> 본전에 나타난 이후의 사건과 <소씨삼대록>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경이 아들들의 스승으로 삼은 단경상이 제자들을 때리면서 가르치자 화씨는 단경상을 원망하고, 소경이 부재한 중에 외당 출입을 하고자 하나 외당을 관리하는 이흥이 열쇠를 주지 않자 화씨는 그를 잡아 가둔다. 양부인이 부재한 중에 가권을 위임 받아 공정치 못하게 집안을 다스리기도 한다. 화씨의 이러한 행동들은 매번 소경이나 양부인, 소월영의 단속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씨는 일시적으로만 누우칠 뿐 잘못을 꾸준히 반복한다. <창선감의록>의 심씨와 화춘처럼 최종적으로 개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로 내쫓기거나 불우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닌 채로 소경의 첫째부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속을 받고도 자신들의 기질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인적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소운성과 소운명의 모습을 통해서도 노출된다. 운명의 경우 양부인을 찾아온 여승의 예언처럼 네 명의 부인을 더 두기까지 한다. 그러나 개인적 욕망을 극복치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부정적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인물들이 다각적 면모를 지닌 것으로 형상화되고 또 상황 맥락에 따라 인물의 성격도 상대적인 것으로 규정되기에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예컨대 화씨는 부족함만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인물로 보이지만, 석씨가 둘째부인으로 들어왔을 때와 달리 셋째부인 여씨가 들어왔을 때는 협조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운성의 경우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는 사건을 많이 일으키지만, 소경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지 못한 호방함을 가졌다면 칭찬받기도 한다.²⁸³⁾ 더욱이 운성은 강한 효심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운성은 명현공주

283) “나는 일즉 님신희므로브터 던신의 다시 극히고 인시 혼암호여 밋사의 걸니여 비

의 혼인을 결코 원치 않았으나, 소경이 늑혼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옥에 갇히자 소경을 구하기 위해 명현공주와 혼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운성이 명현공주를 박대하는 이유도 결국 소경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징치이다.

운성이 욕망하는 대상이어서 그가 소경에게 계속된 단속을 받도록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이면서도 운성의 기질을 제어할 만큼 담대하고 엄격한 인물인 형씨도 다각적인 면모를 지닌 것으로 형상화된다. 소운성은 명현공주의 일이 있을 때에는 형씨를 몹시 아끼다가, 그 일이 해결된 후에는 형씨가 사치스러운 치장을 한다며 질타하기도 한다. 형씨 또한 소운성이 부마 생활을 했던 것을 조롱하고 아이를 밀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엄격하고 냉정한 인물로 설정된 석씨조차 운성의 목숨이 걸린 일에서는 감정적이 되며²⁸⁴⁾, 명현공주를 도와 악행을 저지르는 보모도 어떤 장면에서 감화가 되었다가 이내 원래대로 악행을 한다.

이러한 가변성은 <소현성록>이 일정한 강도와 범위만큼의 갈등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된다. <소현성록> 연작은 양부인과 소경에게서 지지되는 기존 담론의 영향력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어 인물 간 역학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예정된 인과에 따른 인식’이라는 플랫폼에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경의 금욕적인 태도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차단한다. 화씨와 혼인을 하고 나서도 양부인의 가

록 약간 문지 이시나 능히 유산흔는 호괴 업서 수천 니를 두고 능히 선인의 유흔을
프디 못헛엇거늘 네 이제 혼 번 헛헛매 내의 붓그러운 불민을 뺏고 네의 호의를 드
러내니 내 엇디 깃브며 슬프미 업스리오”(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九, 38면)

또한 소경은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온 소운성의 손을 한참 잡고 있으면서 “소
데 비록 용넌헛나 일죽 즈식이 즈란 후는 비록 속으로 인정이 둛헛야도 저히 보는
디 일죽 갓가이 안치도 아니몬 그 헛실을 다스리과라 헛미러니 금일 이 아히 성노
를 축범헛야 명이 검하의 위티헛앗다가 성은을 님스와 사라도라와 날을 보니 부즈
막음이 제어키 어려운디라 내 평싱 속의 나는 대로 헛고 지어홀 줄을 모로므로 깃
븐 막음이 나디 아니코 불안헛 의시 나므로 즈연 으즈의 손을 잡고 슬픈 정을 딴덩
헛미라”(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七, 79-80면)라고 말하기도 한다.

284) 이에 대해 소경은 석부인에게 “부인은 가히 권변을 조츠며 디헛야 은근헛고 도라
서면 박절헛며 말숨을 반드시 도롱헛야 너의를 달니헛거니와”라고 말하며 “평싱의
권도를 모르고 사롭의 혼단 니를 줄을 아디 못헛”는 자신과 비교한다.(이대본 <소
현성록> 券之七, 26면)

르침을 잊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호광순무사 벼슬을 제수받고 그 지역을 평정하고 오는 길에 만난 윤씨에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의남매’로서의 거리를 분명히 하는 점 등은 소경을 중심으로 갈등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담론에 대한 등장인물의 ‘인식’은 일시적으로나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서사의 전개 과정 중에는 완전히 내면화되지 못하여 인물의 행동을 완벽히 통제하지는 못하게끔 처리된다. 인물의 사사로운 욕망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만 차단하여 언제고 다시 갈등이 반복될 소지가 남아 있도록 형상화되는 것이다.

인물들이 고정된 성격을 갖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질서 실현의 플롯을 구현해야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만 다양한 인물들을 활용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또 인간에게는 다양한 면모가 있고 질서에 맞게 욕망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삶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술한 것과 같은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소현성록> 연작에 대한 해석은 ‘엄격한 질서의 실현’이 나타난다는 것과 ‘아기자기한 갈등’이 펼쳐진다는 것이 공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소경의 서모 ‘석파’가 주목된다. 석파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데²⁸⁵⁾ 작중 상황에 대해 양부인, 소경의 것과 대비되는 감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를 매개하기도 한다. 그 영향으로 소경은 호색하지 않음에도 여러 부인을 두게 되고 질투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스토리상으로는 결을 명확히 구별하기 힘든 이 점은 플롯 분석을 통해 석파가 무리하게 상황을 비약시킨다는 점을 파악해야만 드러나는 부분이다. 석파가 굳이 친정에 가도록 하고, 소경이 굳이 그 시기에 벼슬을 받도록 해 석파를 만나러 가도록 하는 사건의 흐름과 굳이 임금이 사냥하는 행사에 소월영과 양부인이 화씨를 빼놓고 가도록 하여 석씨 모녀와 같은 숙소를 공유하도록 하는 사건의 흐름 또한 그러하다. ‘석파’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와 그녀의 의지만이 석씨와의 인연을 성

285) ‘석파’의 인물 형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로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참고.

취하게 하는 개연성을 담보한다.

이렇듯 석파가 주도한 ‘석씨의 영입’은 <소현성록> 본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둘째부인이지만 양부인 다음으로 훌륭한 여성 인물로 묘사되는 석씨는 소경이 아니면 걸맞은 짝을 찾을 수 없을 연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석파는 이러한 합리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²⁸⁶⁾ 사실 화씨는 덕이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 뿐 큰 결함은 없는 인물이어서 둘째부인을 들어야 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 화씨를 부족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이미 소경이 잘 다스리고 있고 화씨에 대한 엄정한 기색도 그녀가 지나친 권세를 부리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었는데, 석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식에 소경도 동의하리라 짐작하는 것이다. 석파의 이러한 모습은 최종적으로 ‘소경의 일관된 태도’를 확인시켜주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의 변화를 이끄는 데 인위적으로나마 기여한다.

석파에 의해 갈등이 인위적으로 부여되는 점은 양부인의 인물 형상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소경보다 더 금욕을 강조하는 양부인이 소경이 둘째부인을 두는 것을 승인하는 행동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석파로 인해 화씨의 투기 감정이 자극되자 양부인은 독특한 논리로 석씨의 영입을 허락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양부인의 말에서 드러난다.

화씨 만일 투기 이시면 미시 경만 못하나 또 질투를 겸홀딘대 화씨 석시를 취
하야 독자의 일성을 헛도이 늙디 아닐 거시오 만일 공순하면 지질이 경으로 충
등하나 그 심정은 관홍홀 거시니 엇디 저근 얼굴이 밋디 못한다 하야 녀즈의
설오를 깃치리오 낭홍의 비상흔 용모로디 명광의 더러운 얼굴을 만나는 후세에
군주속인이 되야시니 내 다만 화씨 인물을 슬피고 얼굴은 니르디 아니리라²⁸⁷⁾

286) 석파 홀로 의심하야 심각하디 즈고로 남지 비록 단정하나 임의 즈식을 두고 다시
년과 차가디 점점 낡하디 이 반드시 미흡흔 뜻이 이셔 이러하디 내 또한 숙녀를
어더주어 낭군의 부인을 삼으며 낭군의 빵을 일워 7죽고 하리라 다만 다른 곳의
업스니 석쇼저로써 사랑의 풍도 곳 아니면 그 빵이 아니오 더 석쇼저를 타문의 보
내기는 차마 못하리니 내 당당이 둥미 되야 낭인의 가연을 일우고 정을 겹겹이 미
즈리라 주의를 덩하리라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76면)

287)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二, 36면.

위 인용문에서 화씨의 투기 감정을 방지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욱 자극하여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양부인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투기 감정이 없는 소월영이 자신의 행동과 화씨의 행동을 비교하며 그녀를 한심해 하는 것과 달리, 양부인은 화씨의 부족함을 모른 척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는 화씨의 투기를 교정한다는 이유로 짐짓 화씨가 고통스러운 일을 승인하고, 그간 강조했던 금욕에 대한 지론은 펼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개연성의 부과는 소경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경은 석씨와의 혼인이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석씨의 나이가 어리다고 여겨 동침을 피하고 있었는데,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고 우연한 기회에 동침을 하게 되어 석씨와 완전한 부부 관계를 이루고 집안 어른들의 근심을 푼다.

이렇듯 ‘석파’라는 인물을 도입하거나 인물이 평소의 지론을 훼손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갈등 발생의 동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애초의 설정을 거스르는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기에,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부가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시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경은 화씨의 투기를 엄정하게 다루면서도 화씨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애정이 계속해서 주어지리란 확신을 준다. 양부인과 소월영도 화씨의 괴로움을 연민하며 곤장 위로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과 위로가 화씨의 앙금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인 갈등 발생 장치들은 일정한 강도의 갈등을 계속해서 발생시키며 적당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소씨삼대록>으로 넘어와서 소운성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의 갈등은 석씨의 영입으로 추동된 갈등보다 한층 더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소운성이기에 앵혈을 지우기 위해 소영을 겁탈하는 일이나 형씨에게 첫눈에 반해 외조부에게 부탁해 자발적인 구혼을 시도한 일 등 갈등이 벌어질 만한 사건을 많이 일으킨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파동을 일으킨 사건은 명현공주와의 늑혼이다. 운성과 명현공주는 서로에 대한 불만을 끝내

풀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린다. 이는 소운성보다 먼저 제시되는 소운경의 이야기²⁸⁸⁾처럼 ‘쉬운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갈등의 강도와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명현공주는 악랄하게 그리는 한편 황제는 이성적인 인물로 그려 갈등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점도 그러하고, 두 사람에게 양부인과 소경, 석씨, 형씨 등 ‘규범’을 위시하는 인물들의 조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점도 그러하다. 이들의 조언은 하나같이 부부가 화락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운성과 명현공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해소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도 존재한다. 소경은 소운성과 명현공주의 갈등에 대해 각자가 지켜야 할 도리만을 이야기할 뿐 소운성의 감정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다.²⁸⁹⁾ 명현공주에 대해서도 지위에 대한 존중과 패악에 대한 경계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최종적으로는 명현공주가 자신의 부모인 소광과 양부인에게 욕된 말을 하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도로써 공주를 벌하고 소부에서 축출시킨다. 결국에는 효의 원리로 갈등이 일단락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운성과 소부를 원망하는 명현공주의 모습을 보면 <소현성록> 연작이 <홍길동전>과는 달리 언제까지고 반복될 소지가 있는 갈등 구도를 그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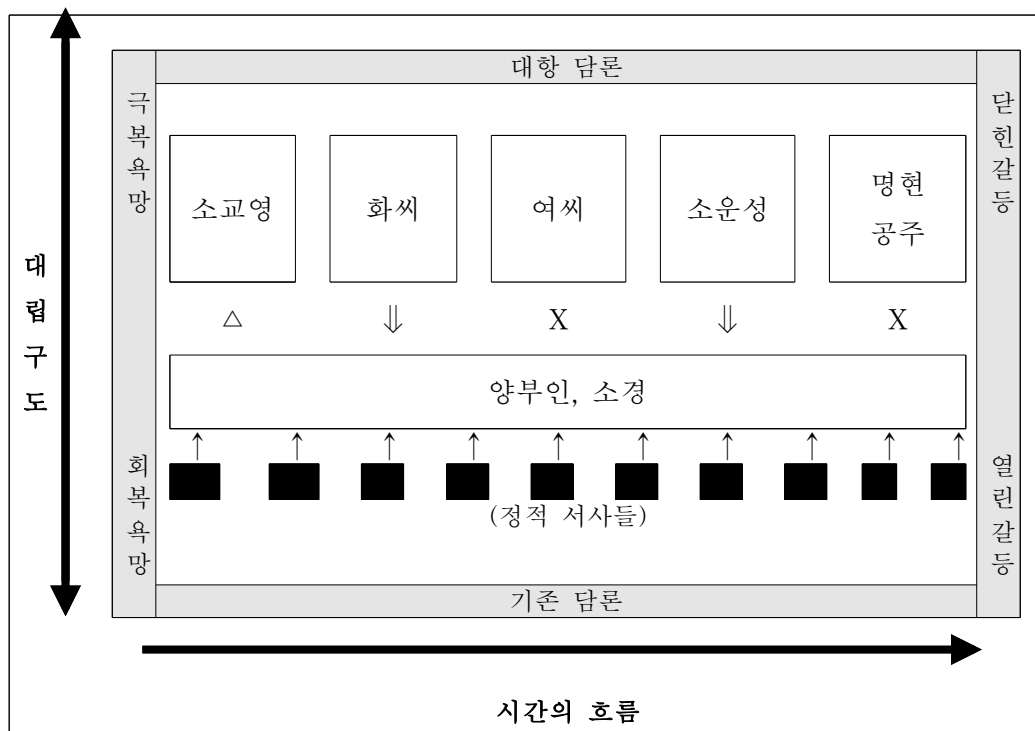
이렇게 인물의 기질 상 발현되지 않을 법한 갈등이 인위적으로 발현되거

288) 장자 소운경의 스토리는 ‘갈등의 쉽고 빠른 해결’을 보여준다. 소운경의 고난은 제시되지 않고 정혼한 위씨의 고난이 서술되는데, 계모 방씨의 위협이 친자의 자결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창선감의록>의 심씨와 화춘이 같은 편이 되어 형제를 견제하는 구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위씨의 경우 계모만이 적대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다가 계모가 지닌 욕망의 이유라 할 수 있는 친자 유흥이 방씨의 욕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막음으로써 갈등 또한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다. 또 소운경이 위씨와 우연히 만나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나 위씨가 남동생들과 쉽게 재회하는 것 또한 갈등의 빠른 해결에 기여한다. 방씨가 죽음을 맞이함에 따라 이후의 관계 회복에 대한 서술의 부담도 사라진다.

289) 소경은 소운성의 태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제 오히려 씨드롤가 흐더니 믈춤내 필부의 어린 신을 덕회여 조선의 브효를 기티고 아버의게 붓그러오물 닐위며 스텝의 죄인이 되니 이 엇디 즈식이라 흐리오’(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六, 103면)와 같이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양부인은 “이런 고로 네 아비 성의의 인성이 그릇되나 문호의 화와 형공 부녀의 명을 보호코져 호야 스정을 철석ᄇᆞᆫ티 호고 공의를 구디 잡으니”(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六, 113면)라고 소경의 의도를 대신 이야기한다. 운성의 생명보다 가문과 형공 부녀의 생명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나, 혹은 더욱 커질 법한 갈등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되는 등 전체적인 갈등의 강도와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소현성록> 연작에서 엿보인다. 갈등이 과도하게 심각해질 소지가 보일 때는 제어를, 갈등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소지가 보일 때는 촉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사 세계가 이 갈등을 ‘열린 갈등’으로서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열린 갈등이 ‘해소’에 이르지 않는 것은 ‘이상적 질서’의 힘이 발휘하는 견인력 때문이다. 서사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 질서가 모든 갈등의 심각성을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이러한 플롯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수렴형 플롯의 특징을 <그림 9>과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이는 양부인과 소경에 의해 지지되는 질서의 ‘인식(認識)’이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을 유지하며 수많은 인물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작품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적 서사들을 검은 사각형으로, 이것들이 이상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양부인과 소경을 향한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대항 담론에 속하면서도 기존 담론에 포용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물도 있고, 포용이 시도되었다가 철회되는 인물도 있다. 화씨와 소운성은 기존 담론에 포용되는 인물이어서 양부인과 소경을 향한 화살표(↓)로 이를 표시하였다. 포용되지 못하는 여씨와 명현공주는 ‘X’로, 포용이 시도되었다가 철회되는 교영은 ‘△’로 표시하였다. 이렇게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은 기존 담론의 장악력과 다양한 사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그림 9>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

(4) 수렴형 플롯을 통한 ‘가(家)’의 이상적 질서 실현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은 수렴형 플롯 유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여러 인물들이 벌이는 일탈에도 불구하고 수렴형 플롯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상적 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현성록> 연작에는 부부 갈등, 처첩 갈등, 계후 갈등 등 다채로운 갈등이 펼쳐지면서도 그것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도사리는 형태로 제시되고, 그럼으로써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일단락되거나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더라도 소부의 결속과 번영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이유는, 기존 담론 질서의 이상적 실현 자체의 견인력이 강하게 신뢰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 연작의 플롯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증거를 소운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 소운성은 석씨 소생의 셋째아들이지만 독보적인 능력으로 인해 아들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는 계후 갈등의 발생 소지가 다분한 설정이다. 그러나 소운성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가내 지위를 누리려는 욕망을 보이지 않고, 두 형도 소운성에게 그러한 경계심을 품지 않는다. 운성은 유람 중에 요괴를 만나 달아날 때 만형 운경만을 업고 달아날 만큼 집안의 장자로서 운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²⁹⁰⁾ 양부인이 화부인의 잘못된 치가를 꾸짖으면서 첫째부인 자리를 빼앗고 운성을 큰아들로 삼겠다는 경고를 하지만²⁹¹⁾ 이는 운성의 욕망이 아니며 양부인의 진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운성이 소부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소운성은 물론 누구에게도 뚜렷한 욕망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계후 갈등은 소부의 이상적 질서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다른 소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특징은 차별화된다. <유효공선행록>에는 소운성과 유사한 유형의 인물인 유우성이 적장자 위치로 설정되어 있는데 능력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계후를 다른 사람으로 잇고자 하는 부친의 의지가 드러난다. 또 <창선감의록>에는 계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적장자 화춘과 심씨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소현성록>과 같이 ‘독보적 능력의 셋째아들’이 등장하는 작품이 계후 갈등에 연루되지 않는 점은 독특한 면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계후 갈등이 불거지지 않고도 소운성이 자연스럽게 집안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 이후의 후계 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서술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씨 소생인 첫째 운경과 둘째 운희가 부모가 죽고 오래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운경은 “예법이 장자와 장손으로 잇게 되어 있어 내 자식이 총명하지만 아직 어려 많은 친척을 잘 거느리지 못할 것”이라며 “아우가 큰일을 맡아 식구들을 잘 거느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라고 당부한다.²⁹²⁾ 그렇다면 운

29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二, 65면.

29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一, 88면.

292)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69면.

성의 사후에 소부를 이끄는 것은 운경의 장자인 세현 또는 운성의 장자인 세광이 되어야 하는데, 작품에는 이에 대한 결정을 분명히 내려지지 않았다. “운경의 장자인 세현과 운성의 장자인 세광 등이 모두 채주 있다는 명성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행실이 높”²⁹³⁾다고 하며 소가촌의 집단적 우수성만을 강조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소현성록>의 플롯 특징은 갈등의 승패를 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욕망과 갈등을 다채롭게 형상화하고 있기는 그것의 성패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관조되고 묘사될 뿐이다. 종법 질서에 대한 수용과 거부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²⁹⁴⁾도 명분론과 현실론의 대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론의 측면에서 최대한의 규범성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은 ‘가(家)’의 이상적 질서 실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회복’ 욕망의 지속적 강조를 통한 ‘인식’으로의 귀결과 ‘기존 담론’이라는 예정된 인과 원칙의 작용, 서사 시간의 연장을 통한 ‘인식’의 상기로 나타낸 ‘수렴형 플롯’이다. 그럼에도 현실적 차원의 갈등이 다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이상적 질서의 장악력을 강하게 신뢰하여 ‘열린 갈등’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플롯은 독자로 하여금 다채로운 갈등이 주는 흥미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모범적인 치가 방식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 동력을 얻게 해 준다.

293)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十五, 88면.

294) 김정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IV.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설계

1.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구도

Ⅲ장에서 살핀 17세기 장편소설 플롯의 특징은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구도를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상술하였듯 ‘플롯’은 문학 지식이 주된 교육 내용이었던 6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에 그 용어가 명시되는 것은 물론 교과서의 학습활동으로도 활발히 구현되었다.²⁹⁵⁾ 그러나 교육 내용이 경직되고 제한되었다는 점이나 학습자의 주체적인 활동을 충분히 안내해주지 못하는 점 때문에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이란 용어로 지시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플롯은 소설의 ‘기획’과 ‘효과’를 아울러 살펴볼 때 유용한 개념이며 학습자가 개별적 해석을 하기에 앞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의 힘을 인식하고 실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플롯 교육은 다시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플롯’은 서사의 의도적 기획이자 짜임이기에 그것의 실체를 분석하고 완결성을 판단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텍스트 중심 교육²⁹⁶⁾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플롯 교육이 여기에 국한된다면 ‘플롯’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바를 일부만 다루는 것이 된다. 플롯이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꾀하며 사건을 인과적으로 배열하고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독자의 의미 구성 활동을 촉진시키고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플롯 교육은 의미 구성의 주체를 ‘독자’로 상정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 효과를 판단하게끔 독자 중심주의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추리소설적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엄태동의 논의²⁹⁷⁾는 플롯 교육의 구상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추리소설은 작가의

295) 류종렬, 앞의 글, 1999; 양운모, 앞의 글, 2001.

296) 박태호, 「인식론의 측면에서 본 세 가지 읽기 교육 이론」, 『교육논총』 52-2,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5에서 읽기 교육 이론을 텍스트 중심주의, 독자 중심주의, 맥락 중심주의로 구분하였다.

297)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탐구 : 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8, 427-465쪽.

의도적인 속임수와 그로 인한 독자의 관심 및 흥미 유발에 그 특징이 있다. 어떠한 단서를 통해 의미를 확신하게 만든 후 다시 다른 단서를 통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한 플롯 교육의 내용은 플롯 분석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플롯 분석을 시도하는 것, 해당 플롯 분석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 나아가 더 나은 분석을 위해 새로운 단서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탐구 학습’ 모형이 있다. 브루너(J. S. Bruner)에 의해 창안된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탐구를 통해 스스로 답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탐구(探究)’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며,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 된다. 지식을 처치하는 ‘사고방식’에 방점을 두는 탐구학습은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진단하는 플롯 교육과 친연하다. 학생 스스로의 탐구를 촉진시키는 교수학습 모형인 탐구학습을 활용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플롯을 도출하는 활동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²⁹⁸⁾

본 연구에서는 탐구학습의 방향에 부합하는 플롯 교육의 구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버리로 삼고자 한다. 첫째는 플롯의 유형을 바탕으로 플롯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이 어떻게 그러한 유형의 플롯을 나타나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플롯 유형의 이해를 통한 서사 구조화 교육’이고, 둘째는 그러한 플롯 유형을 통해 작품의 심층적·종합적 의미를 도출하는 ‘플롯의 유기적 해석을 통한 주제 탐구 교육’이다. 지금까지의 플롯 교육은 표층 요인에 대응하는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종합적인 형태 및 의미에 대한 고찰과 심층적인 의미에 대한 고찰을 포괄하여 다루지

298) 이홍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36-38쪽;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 *Strategies for teachers*, 임청환·권성기 역,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시그마프레스, 2006, 323쪽.

못하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1) 플롯 유형의 이해를 통한 서사 구조화 교육

서사 구조화 교육은 플롯이 지닌 ‘형태 구성’의 동력과 그 결과로서의 플롯 유형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때 관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구조로서 플롯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추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서사 구조’ 자체에 대한 습득이 아닌 ‘서사 구조화’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작품을 플롯 중심으로 이해할 때 활용 가능한 방법적 지식이 획득된다.

서사 구조화 교육이 탐구학습의 기조에 맞게 학습자를 주체로 한 자발적 활동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플롯을 ‘재구성(再構成)’하는 것이 목표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재구성’이란 ‘남아 있는 잔재를 보충하고 조합’하는 일로, 해석적인 담화 작업을 경유하여 내러티브가 올바르게 구성되고 이해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 작업이다. 재구성은 지금까지 감지되지 않았던 관계성과 의미망을 생산하고 파편들을 일관성 있는 전체로 연결해 준다.²⁹⁹⁾ 이는 또한 기성의 것을 자신의 문맥에서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맥에서 대상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³⁰⁰⁾ 플롯은 기본적으로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학습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구성이 객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제시된 플롯의 단서, 즉 플롯의 표층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토리 차원에서 자연적, 물리적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었던 사건이 플롯을 통해 재구성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스토리의 순행적 전개에 의해 미시적 단위

299) P. Brooks, 앞의 책, 2017, 88-90쪽.

300) 최인자, 「창의력을 위한 문제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론 - 서사 표현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2000.

에서만 인과성과 논리성을 획득했던 사건들이 플롯을 통해 전체 사건을 긴밀하게 아우르는 집약성을 갖추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리고 스토리 차원에서 사건 자체의 강도에만 의존하던 대립의 정도가 플롯을 통해 한층 부각되고 선명해질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 수 있다면 소설에서의 플롯의 작동 양상을 보다 명징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롯 재구성에 있어 주안이 되는 사항은 ‘사건의 선택과 강조’, ‘인과의 조직’, ‘배열의 순서와 간격 조정’이며, 각 과정을 통해 플롯이 자아내고자 한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일반적인 플롯 교육은 소설의 전개 방식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선조적 순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플롯이 스토리와는 다른 잠재력을 지닌 미적 형식으로서 갖는 특장은 자연적 질서에 의거한 스토리의 시간성을 변형 및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변형 및 재구성된 질서는 자연적 질서를 무질서하게 해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완결성을 갖고 구성된 새로운 논리적 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롯 교육은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소설에 자족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시간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사건의 선택과 강조 방식을 파악할 때, 인과의 조직 방식을 파악할 때, 배열의 특징을 파악할 때 소설이 기대고 있는 ‘가공된 시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가 자연적 시간 질서와 가공된 시간 질서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며 소설을 읽는 경우 시간성에 대한 독자의 인식 지평이 확장되며 플롯이 구현하는 서사 세계의 독자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고전소설 <구운몽>의 플롯은 성진이 세속에 대한 욕망을 품은 것으로부터 추동되고, 양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전개되며, 다시 성진의 삶으로 복귀한 후 깨달음을 얻는 결말로 되어 있다. 자연적 시간 질서를 염두에 두고서는 양소유의 삶의 과정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성진에서 양소유로, 다시 양소유에서 성진으로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존재 변화의 추이를 ‘환상성’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 둘 중 하나는 ‘허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연적 질

서에 비춘 스토리 파악만으로는 <구운몽> 같은 작품이 상정하고 있는 독특한 시간 질서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서사 세계의 유기성을 포착하기도 어렵다. 이는 이 작품의 독자적인 시간성인 동시적 시간성을 바탕으로 플롯 구성의 방식에 접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자연적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성까지도 다루어내는 플롯의 시간성을 바탕으로 독자는 서사 이해 능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소설의 미적 장치를 파편적으로 포착하고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플롯의 시간성 속에서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표층 요인을 바탕으로 한 플롯 재구성은 기저 요인인 욕망, 담론, 갈등의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심층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은 소설의 의미가 직접적이고 단선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연속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통찰케 한다. 욕망의 사건 추동력, 담론의 실제 세계 환기력, 갈등이 자아내는 서사적 긴장은 소설 속 등장인물과 서사 세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며 플롯의 형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기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음에 따라 플롯의 형태적 특성이 규정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양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텍스트상의 근거를 토대로 각 요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서사 능력으로 제시될 수 있다.

<구운몽>을 예로 들면 최초에 성진이 품게 되는 세속적 욕망이 양소유의 삶에서 실현되는 과정이 펼쳐지다가, 양소유가 본래 성진이 살았던 불가의 삶을 욕망하게 되면서 국면이 전환된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자신이 꿈을 꾸 이유에 대해서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하지만, 이후 육관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분별없는 관점’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가르침의 내용임을 알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이 깨달음은 ‘불교적 공(空) 사상’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결부에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이전까지 두드러지던 욕망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성진으로서, 양소유로서 개인의 계속된 욕망 성취가 작품의 주를 이루며, 불교적 공 사상의 메시지인 ‘분별하지 않음’은 욕망 성취의 과

정에서 신분과 존재를 초월한 애정 성취의 구체적인 장면으로서 이미 예비된 것이다.

이상의 분석 내용은 플롯 유형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구운몽>의 경우 양면적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주목 지점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종적인 플롯 유형도 다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안내한 것처럼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보다 타당하고 설명력 있는 서사 구조와 그에 따른 플롯 유형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구운몽>의 경우 불교적 공 사상 담론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여 불교적 질서의 실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수렴형 플롯으로 보이지만, 결말의 메시지와 전개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발산형 플롯의 면모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기에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더 합당한 이해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2) 플롯의 유기적 해석을 통한 주제 탐구 교육

플롯 교육은 단순한 서사 감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서사의 흐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되풀이되는 관념이나 관심사에 주목하고 유사성과 대조, 관련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서사의 형식과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해석 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³⁰¹⁾ 보다 메타적인 시각에서 전체 형식과 구조를 고찰하여 최종적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앞서 논의한 ‘플롯 유형 이해를 통한 서사 구조화 교육’ 외에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교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플롯의 유기적 해석을 통한 주제 탐구 교육’은 서사 구조화 교육에서 성취된 내용을 종합하여 주제 탐구에 적용하는 차원의 교육이다. 서사의 구조와 주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사건 조직 및 배열의 논리’와 ‘주제의 논리’에 플롯이 동시에 관여한다고 본 켈러의 논의에서도 제시된 바 있

301) T. Eagleton, *How to read literature*, 이미애 역,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책 읽는수요일, 2016, 308쪽.

다. 이렇게 주제에 대한 고려는 플롯 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플롯은 주제 도출의 객관적 근거로 소통되는 지식이므로 플롯 교육이 최종적으로 주제 교육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프라이가 말하였듯 플롯은 ‘움직이는 주제’이기에, 주제 탐구를 위해서는 플롯의 움직임 속에서 강조되는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인과적 배열’이 최종적으로 그려내는 거시적인 플롯 패턴과 욕망, 담론, 갈등의 기저 요인들에 의해 밝혀진 최종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 탐구의 기반은 마련된다.

주제는 텍스트의 문제적 사건인 ‘모티프’와 그 결합으로 해석되는 ‘텍스트의 중심 의미’, 그리고 이를 텍스트의 현실 효과로 확대시키는 ‘자기화된 의미’의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⁰²⁾ 이때 플롯은 모티프를 종합해 텍스트의 중심 의미를 자아내는 것이자, 실제 세계의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주제의 세 층위를 포괄하는 데 효과적이다. 독자는 플롯에 대해 형태적 사고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제 세계에서의 지향점을 탐색함으로써 서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구운몽>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양소유의 삶이 작품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양소유의 삶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성진의 최종적인 깨달음이 양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성진의 삶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주제는 서사 세계에서 지지되는 바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기에 두 삶 중 어떤 삶이 강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거시적 형태에 대해 언급하였듯 <구운몽>의 플롯에서 성진과 양소유는 자신이 처한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대한 욕망을 품는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니며, 최종적으로 제시된 담론의 내용에서도 차이의 분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인물의 삶은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것으로 의미가 귀결된다. 이렇게 플롯 형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기반으로 주제를 논하는 것은 독자 나름대로 주목한 지점과 자기화된 의미가 어떠한 지점에서 타당하고 어떠한 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2)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2006.

소설교육은 어떠한 이야기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일차적 목표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원으로 삼는 이차적 목표로 이루어진다. 두 목표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서 논리적 근거를 찾아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춘 이해의 내용을 구축해야 하며, 학습자의 기질과 상황에 맞게 작품에 대한 생각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교실 상황에서 표준으로서 권장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내용이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되 개별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플롯 개념은 논리적이고 객관적 감상을 이끌어내면서도 미적 형상을 해석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담당하기에 교육의 맥락에서 유용하다.

2.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내용

플롯 교육의 구도에서 이야기한 ‘서사 구조화 교육’과 ‘주제 탐구 교육’을 버리로 삼아 서사 재구성을 통해 플롯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탐구학습’의 모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탐구 학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³⁰³⁾

- 1) 질문 확인하기
- 2) 가설 만들기
- 3) 자료 수집하기
- 4) 가설 평가하기
- 5) 일반화
- 6) 탐구 과정의 분석

탐구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과 ‘관찰’에 근거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303)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 앞의 책, 2006, 326쪽.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각 가설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를 통해 임시적인 결론을 내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탐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전체 탐구 과정에 대해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탐구학습에 포함된다.

플롯 교육에 이를 적용해보면 해당 작품에서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가 학습자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된다. 구체적인 주목 지점은 학습자마다 다르지만, 작품 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질문이 주된 탐구 주제가 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문학적 장치로서 꾸며져 있는 플롯의 양상과 의미를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증거를 스스로 찾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탐구 활동이 도움이 된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며 탐구학습의 단계를 플롯 교육에 유의미하게 변형하여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롯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플롯 자체에 대한 교육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작품에서의 플롯 탐구를 위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플롯을 구성하는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차례로 살피며 플롯을 탐구하고 앞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스토리와 변별되는 플롯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 플롯의 유형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분석 결과 도출된 플롯 유형을 버리 삼아 작품의 심층 의미와 주제를 정교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따라 마련한 플롯 교육 내용은 고등학생, 나아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플롯’ 개념의 난도와 ‘탐구학습’의 자발적 수행이 원활한 수준, 그리고 과거 플롯 교육이 위치했던 학년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6차 교육과정까지 플롯 교육은 고등학교 ‘문학’ 과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현행 2015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문학’ 과목³⁰⁴⁾에 플롯 교육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비록 플롯 개념이 명시되지

304) 2015 ‘문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 중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

는 않았으나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성취 기준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로 상정되고 있다. 이는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며 이러한 주제 의식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두며, 플롯 유형과 의미를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서 다룸으로써 최종적인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플롯 교육과 궤를 같이한다. 이를 발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아래에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플롯에 대한 개념 학습

플롯에 대한 개념 학습은 본격적인 탐구학습에 앞서 플롯 탐구의 도구가 되는 개념들을 습득하기 위해 설정한 단계이다. ‘개념 학습’은 클로스마이에

역에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용 요소를 통해 플롯 교육의 실천을 피해볼 수 있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문학의 본질	• 언어 예술 • 진·선·미	• 문학은 언어를 대재로 한 예술로서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이 있다.	• 인간과 세계의 이해 • 삶의 의미 성찰 • 정서적·미적 고양	
문학의 수용과 생산	• 문학 능력 • 문학문화 • 작가와 독자 •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 • 문학의 확장	• 문학 활동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생산하며 문학화를 향유하는 행위이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 • 작품의 맥락 • 문학과 인접 분야 • 작품의 수용과 소통 • 작품의 재구성 및 창작 • 문학과 매체	• 작품 선택하기 • 맥락 이해하기 • 몰입하기 • 보조·참고 자료 활용하기 • 이해·해석하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 한국 문학 • 문학사와 역사적 갈래 • 문학과 사회·문화	• 한국 문학은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이다.	• 개념과 범위 • 전통과 특질 •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 • 문학과 시대 상황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 한국 문학의 발전상	• 감상·비평하기 • 성찰·향유하기 • 모방·개작·변용하기 • 창작하기 • 공유·소통하기
문학에 대한 태도	• 자아 성찰 • 타자의 이해와 소통 • 문학의 생활화	• 문학을 통해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 자아 성찰, 타자 이해 • 공동체의 문화 발전	• 점검·조정하기

(Klausmeier), 테니슨과 코치아렐라(Tennyson & Cocchiarella) 등의 논의에서 발전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가설 검증을 통해 귀납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개념 획득 모형’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³⁰⁵⁾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교육 내용은 가설 설정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탐구해 나가는 ‘탐구 학습’을 주축으로 삼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개념’에 대한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개념 학습이라고 하여 지식에 대한 일방적 전수는 아니며 교사의 설명과 직접 탐구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납적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탐구 학습’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플롯의 개념 학습을 위해 중심 화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스토리와의 변별성을 토대로 정립 가능한 플롯 개념, 소설에서 플롯이 지니는 위상, 플롯을 결정하는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의 종류,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플롯 유형의 종류 등이다. 이들은 II장에서 대넬베그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축한 플롯 교육의 이론적 전제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다. ‘단일형 플롯’과 ‘복합형 플롯’, ‘수렴형 플롯’, ‘발산형 플롯’, ‘교차형 플롯’, ‘통합형 플롯’, ‘사건’, ‘인과’, ‘배열’, ‘욕망’, ‘갈등’, ‘담론’ 등의 개념들은 학습자가 체험은 하지만 명명할 수는 없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르지않아 표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탐구를 위한 중요한 개념적 도구가 된다.

학습자가 이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각 화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만한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예시’와 함께 ‘비(非) 예시’를 제공하여 정의를 정확하게 다듬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³⁰⁶⁾ ‘플롯’의 개념을 학습할 때 미학적 가공이 많이 이루어진 서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면서 자연적 순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서사를 ‘비 예시’로 함께 든다면, 플롯에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물론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에 대한 명징한 이해까지 꾀할 수 있다. 유형에 대해서는 ‘수렴형 플롯’이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학습자에게 친숙한 다양한 소설이나 드라마의 목록을 언급하면서, 수렴형 플롯에 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발산형 플롯

305)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 앞의 책, 2006, 202쪽.

306) 예시와 비예시의 제공은 개념 획득 활동에서 학생들의 가설 설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위의 책, 222-223쪽.) 이후 ‘탐구 학습’의 가설 설정 단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것, 교차형 플롯이나 통합형 플롯에 해당하는 것도 함께 언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개념 학습을 통해 중심 화제가 되고 있는 개념과 그것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대넨버그가 정리한 플롯 유형인 ‘수렴’과 ‘발산’의 플롯을 바탕으로 플롯 이해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욕망, 담론, 갈등과 같이 기존에는 소설 해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던 용어들을, 플롯을 결정하는 기저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설정한 이유는 ‘기획’으로서의 플롯이 유사한 내용의 스토리를 어떻게 서로 다른 효과를 자아내도록 변형시키는지를 ‘차이’를 중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또 내용 중심의 분석이 형식을 근거로 객관성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해야만 학습자는 자신이 습득한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실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실제 작품 분석에 있어 해당 틀이 유용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플롯에 접근할 수 있다.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학습자가 탐구 학습을 통해 함당하고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여러 가지 사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이론가들이 행하는 소중한 작업과도 닮아 있다. 이를테면 대넨버그는 영미 소설사의 흐름을 단절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특정한 작품 경향을 고립시키지 않고 보편성을 획득한 것으로 조망하기 위해 플롯 유형을 ‘수렴’과 ‘발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편의를 위한 자의적 분류가 아니라 소설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개별 작품의 특성을 여타 작품과의 관련 속에서 보다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개념들이 이러한 노력의 결실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

(2) 스토리 요약을 통한 가설 설정

‘스토리 요약을 통한 가설 설정’은 본격적인 탐구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로,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에서 해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설로서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 자체로 완전한 미적 구성물이지만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고 조합되어 있어 한 눈에 그 구성에 대해 알기 어려운 소설 작품에서 학습자는 ‘무엇이 강조되는지, 어떻게 강조되는지, 왜 강조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해당 작품의 기획 의도에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스토리’를 요약하는 일이다. ‘스토리(story)’는 ‘시간성’을 바탕으로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한 것이며,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 요약이 가능한 것이다. ‘요약(要約)’은 생략과 압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³⁰⁷⁾ 읽기 단계에서부터 요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스토리 요약을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은 ‘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하다’의 원어 ‘prattein’이 단순히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듯³⁰⁸⁾ ‘행위’는 추상적이게 마련인 인물의 목적의식에 대해 그 내용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인물의 행위에 주목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작품의 스토리를 간추리는 것이 용이하며, ‘사건’의 기본 개념에 맞게 실질적인 상황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요약한 스토리는 본격적인 탐구학습을 위한 ‘질문 확인’의 자료로 사용된다. 스토리 요약을 통해 품게 되는 의문, 즉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는 스토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명되기 어려운 ‘간극’에 해당한다. 이는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해명될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확인은 탐구의 시작점이므로 가급적 학습자 스스로 제기하도록 유

307) 송기섭, 앞의 글, 179-180쪽.

또한 요약은 사건의 결합 관계로부터 요소들의 계열 관계를 도출하여 대립 양상을 분명히 드러내므로 갈등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최시한, 앞의 글, 1986.)

308) Aristotle, 앞의 책, 2017, 345쪽.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질문을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가능한 질문을 참고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사에서 논제로 삼았던 바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17세기 장편소설 네 작품의 경우,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왜 길동은 소원이 이루어져도 집을 떠나는가?’, ‘왜 길동은 제도 섬에서 부모의 상례를 치르는가?’ 등의 질문이, <사씨남정기>에 대해서는 ‘교씨의 목적은 왜 변화하였는가?’, ‘사씨는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첩 영입을 다시 시도하는가?’ 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 대해서는 ‘심씨와 화춘은 왜 갑자기 개과하는가?’, ‘윤여옥, 남채봉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이야기들이 왜 중간에 나오는가?’ 등의 질문이,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화씨와 소운성 등은 왜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가?’, ‘최종적 갈등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왜 행복한 결말이 나타나는가?’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

이러한 질문들은 ‘플롯’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명될 수 있는 것이기에 단순한 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루어져야 플롯 교육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 이 질문들이 학습자의 문제의식으로 확장되고 또 나름대로의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무엇이 작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이기에 이러한 플롯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라는 보편적인 의문을 토대로 가설 설정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이 작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인지’에 대한 질문은 곧 ‘핵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핵심 사건은 곧장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요약했을 때 드러나고, 나아가 작품 전체에서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학습자가 설정하는 핵심 사건의 성격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가설은 스토리의 단순 이해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롯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의가 있다.

가설 설정을 위해 학습자가 해야 할 일은 스토리 요약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지를 가늠해보는 것이다. 스토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작품의 유기성과 통일성은 ‘플롯’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발견

한 작품의 일반적인 원칙과 패턴이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임의의 가설을 설정해볼 수 있다. ‘핵심 사건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설정하면서 그 현상은 ‘플롯’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홍길동전>의 경우 길동의 행위를 중심으로 요약한 스토리에서 ‘이탈과 성취의 반복’이라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규칙성은 길동의 소원 성취가 이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는 이유에 대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홍길동전>은 더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다.’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길동이 율도국에서 부모의 상례를 직접 주관하는 모습도 해명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항 담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던 길동의 행보가 기존 담론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으로도 읽히기에, ‘<홍길동전>은 기존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상충된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뒤섞이는 소설의 장르적 특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가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혼란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학습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면 정련된 의미를 도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때 플롯에 대한 고찰이 요긴한 수단이 됨을 앞서 이루어진 개념 학습을 상기시킴으로써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플롯에 대한 면밀한 탐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가설 검증 작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3)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가설 설정의 단계까지 학습자는 플롯을 통한 작품 이해의 심화 가능성을 인지는 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

기에 여전히 해명하지 못한 의문들이 존재하고 자신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답변도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여 플롯의 효용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의 검증이 필요하다. 가설 검증은 탐구 학습에서 핵심이 되는 활동으로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때 체계적인 절차에 마련되지 않으면 학습자는 원활한 탐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는 II장에서 살핀 ‘플롯의 표층 요인’, ‘플롯의 기저 요인’에 순차적으로 주목하여 ‘플롯의 유형’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III장에서 17세기 장편소설 네 작품을 통해 입증된 것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앞서 설정한 가설에 부합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표층 요인, 기저 요인, 유형의 하위 개념을 붙여가며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표층 요인의 단서를 바탕으로 여전히 스토리 차원에 머물고 있는 사건들을 질서화하고, 심층 요인의 단서를 바탕으로 질서화된 플롯이 무엇의 영향으로 마련된 것인지를 가늠해봄으로써 작품에서 강조되었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된다. 이 과정은 스토리와는 변별되는 플롯의 효과와 의의를 체감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작품이 어떠한 유형의 플롯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는 첫 단계인 ‘개념 학습’을 통해 익힌 플롯 분석의 틀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물론 가설 검증을 위한 근거 수집과 그것의 분석 및 평가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지만, 개념 학습을 통해 익힌 용어의 정의나 작동 기제가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교사의 계속된 점검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①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근거 수집

스토리 요약을 위해 작품을 읽고 나름의 의문을 ‘가설’의 형태로 설정하기도 한 학습자는 가설 검증을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작품을 읽어야 한다. 이때의 읽기는 ‘발견적 읽기(heuristic reading)’에서 ‘해석적 읽기

(hermeneutic reading)’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독자는 처음 작품을 읽을 때 자신에게 익숙한 현실 논리를 따르며 모방적(mimetic) 차원에서 읽는데, 리파테르는 이를 ‘발견적 읽기’라고 하였다. 반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하여 작품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 때 소급적으로 읽는 것(retroactive reading)을 ‘해석적 읽기’라고 하였다. 스토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포착되는 단서가 아닌, 플롯 차원을 고찰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심층적 단서를 추적하는 것은 모방적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하게 만드는 ‘대조 경험’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작품이 지니는 의의(significance)를 발견하고 작품의 구조를 재설정할 수 있게 한다.³⁰⁹⁾

이러한 읽기를 위해 학습자가 가장 먼저 버리로 삼아야 하는 것은 플롯 유형을 결정하는 가시적 요인인 ‘표층 요인’이다.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근거를 수집해 나가는 것은 스토리의 차원에서는 나열되기만 했던 사건들이 어떻게 강조되고, 인과가 부여되고, 독특하게 배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스토리가 플롯으로 변형됨으로써 생기는 미학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근거 수집은 일차적 자료원인 작품 자체, 그 중에서도 형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상, 해당 작품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대상, 작가에 대한 정보, 작품 속 사건이 환기하는 실제 세계의 사건 등 이차적 자료원도 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하는 ‘플롯 교육’이 작품에 대한 별도의 배경 지식 없이도 작품 이해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증의 단계에서도 일차적 자료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 자료원에 대한 얕이 플롯 분석의 가능성과 효과를 축소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표층 요인인 ‘사건’과 그것의 ‘인과 관계’, 그리고 ‘배열’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개념 학습을 통해 익힌 분류의 틀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이다. ‘인식’과 ‘가정(假定)’의 사건, 예정된 인과와 구축되는 인과, 비선형적 배열과 선형적 배열에 대한 정의를 실제 작품의 면면에

309) 채영숙, 「리파테르의 구조시론과 그 실제」, 『고향논집』 8,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91.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살핀 네 작품 중 <홍길동전>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 작품에는 ‘지위 획득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강조된다. 이는 길동이 소망으로서 ‘가정(假定)’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길동은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 질서에서 찾을 수 없다. 도술과 지략과 같은 능력, 그리고 폭력을 동반한 호소와 같이 길동 개인의 노력이 지위 획득을 이루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인과의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앞서 강조되었던 ‘가정(假定)’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작품의 미학적 특징을 결정한다. 이에 더해 ‘지위 획득’ 사건이 점차 확대되는 공간 속에서 점차 높은 지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성취되는 배열은 선형적 배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전>은 더 높은 지위 획득을 위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다.’라는 가설은 플롯의 표층 요인만 보아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 작품의 일면만 보아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던 가설이, 작품 전체를 통어하는 플롯을 통해 보다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층 요인의 검토가 가설을 설정할 때의 생각에 한층 설득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과’나 ‘배열’에 대해 학습자가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나 단순한 인과성으로만 접근하기 쉬운데, 이 경우 스토리와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플롯 차원의 인과성은 ‘근본적인 차원’의 인과성을 말한다. 표면적인 사건 간 인과 관계가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플롯은 그것과는 별개의 더 근본적인 인과 원칙을 내포한다. 송기섭은 소설 <배따라기>를 분석하면서 형이 아내와 아우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로 인해 아내가 자살하고, 아우가 집을 나가고, 형이 아우를 찾아 떠돈다는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정밀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초월한 ‘운명’이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인과율로서 등장인물에게 인식된다고 하였다.³¹⁰⁾ 이렇게 플롯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근본적인 인과 원칙을 조희하도록 유도할 필

310) 송기섭, 앞의 글, 2015, 381쪽.

요가 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친연한 인과 원칙이 사용되었는지 혹은 다른 방식의 인과 원칙이 사용되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과성은 서술에 의해 강화되기도, 전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과 원칙을 보여주는 언어적 표현을 가능한 한 많이 찾은 다음에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스스로 가장 정합적인 논리를 인과 원칙으로 상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사적 합리성(narrative rationality)을 고려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인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인과 관계의 추적을 통해 단순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배열’에 대해서는 사건의 순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사적 시공간 상의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따짐으로써 단순성을 극복할 수 있다. 서사적 시공간은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이자 효과적 사건 배열의 장이 된다. 물론 선별되고 꾸며진 것이지만, 서사적 시공간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마치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실감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스토리의 파악만으로는 거둘 수 없는 효과이다. 플롯은 독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기획이기에, 어떠한 기획이 어떠한 효과를 자아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서사적 시공간을 바탕으로 배열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이러한 교육 내용을 사건이나 인과보다 더 가시적인 형상을 통해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배열’을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특징과 세부적 특징을 두루 살펴 시각화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배열 순서와 사건 간 간격, 사건이 일어나는 시공간의 이동과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III장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시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앞서 살핀 ‘사건’의 속성 및 ‘인과’의 구축 방식과 연계하여 ‘인식’의 사건과 ‘예정된 인과’, ‘비선형적 배열’이 서로 친연한 관계에 있다는 점, 반대로 ‘가정(假定)’의 사건과 ‘구축되는 인과’, ‘선형적 배열’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종합되어야 배열의 시각화가 플롯의 특징을 단적으로 파악해 해 주는 의미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 검증을 위한 표층 요인에서의 근거 수집이 플롯의 지

배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양상을 띠도록 학습자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② 기저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가설 평가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근거 수집은 플롯이 스토리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왜’ 그러한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를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표층 요인 차원에서 활용했던 근거들을 기저 요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욕망’, ‘담론’, ‘갈등’의 기저 요인은 각각 사건, 인과, 배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견인되는 내면이나 관념 차원의 역동을 플롯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플롯 분석의 잠정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저 요인에 기반을 둔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설득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와 ‘어떻게’에 대한 개연성 있고 자연스러운 설명을 위해서 기저 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핀 대로 기저 요인 중 ‘욕망’은 ‘사건’의 속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인식’의 사건은 ‘회복’ 욕망을 바탕으로, ‘가정(假定)’의 사건은 ‘극복’ 욕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홍길동전>에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길동의 욕망이 ‘호부호형을 할 수 있고 입신양명도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정(假定)’하는 사건을 추동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욕망과 사건의 연결이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 테면 <사씨남정기>의 경우 현 상황에 대한 ‘극복’ 욕망이 초반부 사씨와 교씨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이것이 이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가정(假定)’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사씨에게서 ‘회복’ 욕망이 나타나고 ‘천도(天道)’에 대한 ‘인식’의 사건이 뒤따르게 된다. <창선감의록>의 경우 화육에 의해 차자 화진이 계후를 이을 가능성이 ‘가정(假定)’되고 이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에 기초한 것이지만,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불거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심씨와 화춘은 이러한 가정(假定)이 현실화될 것을

염려하며 ‘적장자 계후’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회복’ 욕망을 보이고, 화진은 그러한 가정(假定)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며 역시 ‘회복’ 욕망을 보인다. 같은 ‘회복’ 욕망임에도 그 결이 다른 이유는 심씨와 화춘의 회복 욕망은 당대의 가부장적 질서 가운데 ‘적장자 계후’에만 초점을 맞춘 편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욕망은 계속 유지되지 않거나 그 성격이 변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동일한 사건의 의미도 다르게 결정된다. 예컨대 <사씨남정기>에서 자신의 신세가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교씨의 ‘가정(假定)’은 극복 욕망에 의한 것이지만 <창선감의록>에서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가정(假定)하는 심씨와 화춘의 욕망은 회복 욕망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의 차이에 따라 교씨의 ‘가정(假定)’은 ‘인식’으로의 변화를 겪지 못하는 데 반해, 심씨와 화춘의 ‘가정(假定)’은 ‘인식’으로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인물의 계층과 그가 처한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배경 지식에 기대지 않더라도 플롯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충분한 해명의 근거가 된다.

‘담론’과 ‘갈등’도 마찬가지이다. ‘담론’은 사건 간 ‘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이고, ‘갈등’은 ‘배열’에 영향을 주는 기저 요인임을 II장에서 살펴 바 있다. 기존 담론과 대항 담론, 비선형적 배열과 선형적 배열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지만 이 또한 욕망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일례로 <홍길동전>처럼 대항 담론을 형성하며 새로운 인과 관계를 구축해 나간 경우도 최종적인 국면에서는 기존 담론을 의식하는 양상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길동이 대항 담론을 완수한 이후에야, 그리하여 기존 담론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로 정립된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정된 인과 관계가 동원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길동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빛는 갈등은 초반에 처했던 ‘가(家)’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율도국’이라는 환상적 공간에서야 비로소 해소된다. 이 점은 이 작품의 갈등이 ‘단힌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길동이 ‘가(家)’의 중심 구성원 노릇을 하더라도 기존 질서 및 담론에 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때문에 서사 공간의 확대라는 배열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저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표층 요인에만 주목했을 때에는 다소 거칠고 단편적으로만 해명되었던 가설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게 돕는다. 표층 요인만으로는 플롯의 기획 의도를 일관성 있고 심도 있게 해명할 수 없기에 이를 통해 수집한 근거는 편파적이고 일의적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홍길동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모의 상례를 길동이 주관하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기존 질서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사건으로, ‘예정된 인과’의 실현으로, ‘비선형적 배열’을 띤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홍길동전>은 기존 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가설에 타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가(家)’에 대한 길동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점을 통찰하지 못하게 된다. 피상적인 장면을 넘어 기저 요인에 대한 통찰까지 나아가야 작품 이해에 있어 내적 유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플롯의 기획 의도 또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층 요인을 바탕으로 수집한 근거의 질을 기저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학습자는 처음에 설정한 가설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가설이 타당하면 보다 더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며 플롯 이해를 점차 정교화해 나갈 수 있다. 반면 타당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여 보다 타당한 명제에 도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때 가설 설정의 단계로 되돌아가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자신의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③ 플롯 유형의 도출과 플롯 효과의 체험

표층 요인에서 기저 요인으로 나아가는 플롯 분석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플롯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체험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지를 메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에 학습자는 단순히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플롯 교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는 달리 마음을 움직이는 플롯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 플롯 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토대로 도출되는 플롯 유형을 그것이 자아내는 효과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이전까지 가설 검증을 위해 살폈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을 단서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플롯 유형을 앞서 살핀 네 가지 플롯 유형 가운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형 분류의 자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일형 플롯으로 볼 수 있는 <홍길동전>의 경우 공통적인 속성이 발견되기 쉽고 그에 따라 그 의미도 수월하게 도출되지만,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같은 경우 상호 이질적인 속성이 비슷한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를 온당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속성의 공존이 승패를 가르고자 하는 공존인지, 점점을 찾아 화합하고자 하는 공존인지를 판가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의성을 최소화하며 ‘교차’와 ‘통합’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살핀 플롯의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만으로도 플롯의 기획 의도는 상당히 해명되기에 유형 분류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작품을 거시적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면 작품마다 존재하는 훨씬 섬세한 자질들이 포착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플롯 유형은 사건, 인과, 배열의 표층 요인과 욕망, 담론, 갈등의 기저 요인이 파편적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한 의미를 향해 통일성 있게 나아가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의 자유로운 감상에 존재하는 모순과 비일관성을 일관지(一以貫之)하게 정련화하는 역할을 플롯 유형이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플롯 유형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플롯의 의미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각 플롯 유형의 의미역을 기반으로 하여 색다르지만 타당한 해석을 피해 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플롯의 유형이 그것이 자아내는 효과와 관련지어 이해될 때 보다 종합적인 플롯 교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는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 그리고 이 두 단일형 플롯이 결합된 교차형 플롯과 통합형 플롯은 사건, 인과, 배열에서 욕망, 담론, 갈등에 이르기까지를 조직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각 플롯 유형은 작품의 미학적 구조를 압축하여 드러내

면서 모종의 효과를 자아낸다. ‘수렴형 플롯’은 ‘예정된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거나 ‘질서 실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발산형 플롯’은 ‘미지의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대안 탐색’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단일형 플롯의 효과는 각 유형이 교차되거나 통합된 복합형 플롯의 효과에 각기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미친다.

플롯의 효과는 각 요인이 스토리를 플롯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체험되는데, 이를 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바탕으로 한 근거수집 활용되었던 시각화의 작업이 유용하다. 시각화라고 하면 흔히 프라이탁(Freytag)이 극적 행위의 상승과 하강을 표시한 피라미드 도식이 연상된다. 실제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단계화에 빈번하게 활용한 이 도식은 갈등의 결과를 간명하게 포착하는 데는 유용하나 갈등이 무엇과 무엇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 사건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시각화된 ‘의미지도(semantic mapping)’를 작성하되 그에 결부된 기저 요인들의 추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플롯의 표면과 이면을 두루 파악할 수 있는 ‘재구성된 도식’을 통해 플롯상의 사건 배열과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최시한은 ‘배열’과 관련하여 요약된 줄거리의 배열과 작품 배열을 비교함으로써 ‘미적 효과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실제 작품이 요약될 때 제거, 축소, 강조, 보충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배열 순서가 왜 다르며 그 원칙은 무엇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요약되지 않으나 소설 속에서 연속되는 다른 사건은 무엇인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의 이동은 어떻게 변하거나 조정되는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독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프라이탁의 피라미드처럼 단계화하는 활동을 마지막에 시도하면서 자신의 반응과 작품의 구성 원리를 연계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³¹¹⁾ 최시한의 논의는 스토리 요약 단계에서 플롯이 이미 작용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311) 최시한, 앞의 글, 1986.

플롯의 시각화가 단순한 요약과 도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고 본 점은 공통된다.

이상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플롯 유형에 대해 분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지배적 특징을 명명할 용어를 찾는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타당한 명명을 추구하며 유형 분류에 임해야 하고, 해당 유형이 자아내는 효과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4) 플롯을 활용한 주제 해석의 정교화

이 단계는 플롯 유형에 기반한 의미역을 토대로 왜 이 작품에 이러한 플롯이 사용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해당 플롯 유형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지 일반화하는 활동, 당대의 시대 배경과 유사 작품, 장르 지식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작중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재고하고 주제로 거론되어 온 진술들도 보다 구체화해보는 활동이 가능하다. 스스로 분석한 플롯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과정이라는 점, 학습자가 지닌 다른 서사 경험과의 통합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앞서 진행해 온 탐구학습을 심화하고 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플롯이 부과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도출하는 개념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해 주고, 이후 다른 소설 작품을 경험할 때에 플롯을 즐기고 분석토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이력을 갖는다.

플롯 해석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앞서 살핀 플롯 유형의 일반적 의미를 점차 특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질서’와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질서’는 개인이 세운 것인지 사회의 것인지, 또 인물이 지지하는지 거부하는지 등에 따라 그 의미와 무게가 다르다. 여기서는 ‘미리 정해져 있어서 모두가 그것의 구속력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질서’라고 보며, 이 ‘질서’가 서사 세계의 문제 해결 장면에 힘을 발휘하는지의 여부로 ‘질서 실현 플롯’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수렴형 플롯의 징후이다.

반면 ‘대안’은 질서에 대한 불만족과 거부가 암시되어 있으며 당면한 상황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전개를 희망하고 가정(假定)했을 때 상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물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주요한 단서가 되며, 이 단서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대안 탐색 플롯’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네 작품에서도 보았듯 두 플롯이 명백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17세기 장편소설의 플롯에서 ‘가’라는 서사 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상 ‘대안 탐색’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플롯에서도 ‘질서’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며, ‘질서 실현’에 복무하는 플롯도 소설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기 위해서나 상상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두 플롯을 넘나드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제 제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차형 플롯’과 ‘문제 해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통합형 플롯’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학습자에 의한 보다 정교한 해석과 심층 탐구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플롯 해석의 정교화와 주제의 심층 탐구는 개별 작품을 놓고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른 작품의 플롯과 비교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의 징후가 함께 나타나 있되 그것이 결합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홍길동전>과 <소현성록>은 각각 발산형 플롯과 수렴형 플롯에 해당하면서도 그에 배치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 있어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이 외에도 17세기 장편소설 중 <숙향전>과 <구운몽>을 비교 자료로 동원할 수 있다. <숙향전>은 강력한 천상 질서에 의해 견인되며 주인공의 ‘인식’이 두드러지는 플롯이기에 ‘수렴형 플롯’의 전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구운몽>은 주인공의 ‘가정(假定)’이 초반부에 명백하게 제시되며 그 가정(假定)에 따라 다른 존재로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의 분량을 이루기에 ‘발산형 플롯’의 전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의 고전소설들도 시대에 따라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으로 분석한다면 질서 실현과 대안 탐색이라는 지향이 소설

의 플롯을 통해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소설사적 흐름으로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플롯 해석과 주제 탐구는 학습자들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한 현상은 플롯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각기 부각해서 바라보는 국면이 다른 결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 대한 열린 시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플롯 교육의 목적은 플롯 장치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의미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좁혀주는 것이지, 특정 경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롯을 통해 소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성 장치를 경험하는 것과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메타적으로 인지한 후에 의미를 부여할 때 얻게 되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학습자들은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다. 이는 성급한 서사 의미의 도출을 경계하고 서사 형식을 충분히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서사의 거시적 형태 파악을 가능케 하는 ‘플롯’을 문학교육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플롯의 개념과 구성 방식을 검토하고 17세기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 플롯 교육의 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I 장에서는 플롯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내용 중심의 플롯 논의와 형식 중심의 플롯 논의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와는 구분되는 플롯 개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플롯상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17세기 장편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 소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기 위해 플롯의 거시적 형태를 논한 대넌버그의 논의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II 장에서는 플롯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로 플롯의 개념과 주요 형태, 이를 결정하는 표층 요인과 기저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플롯의 개념은 스토리와는 구분되는 층위에서 ‘사건의 인과적 배열’과 ‘유기적 의미 부여의 구조’의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때 ‘사건’과 ‘인과성’, ‘배열’이라는 요소를 플롯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표층 요인으로 삼고 이것이 유기적 의미 부여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유기적 의미 부여의 과정에서 플롯이 담지하는 심층적인 내용과 플롯의 거시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심층적인 내용을 이루는 기저 요소로는 욕망, 담론, 갈등이 있으며 기저 요인의 속성은 강조되는 사건의 성격과 인과의 조직 방식, 배열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롯의 거시적 형태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버리로 삼을 수 있는 플롯 유형으로는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과 같은 단일형 플롯과 두 단일형 플롯의 ‘교차형 플롯’과 ‘통합형 플롯’과 같은 복합형 플롯을 설정하였다. 수렴형 플롯과 발산형 플롯 유형은 각각 ‘질서 실현’과 ‘대안 탐색’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으며,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과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은 각각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고 봄으로써 플롯의 형태와 의미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플롯 중심 소설 교육은 고전소설에서 개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 소설의 몰입 기제로서 플롯 장치의 효과를 체험케 한다는 점,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제 논의에서 형상에 대한 고려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Ⅲ장에서는 플롯 교육의 예시 자료로서 17세기 장편소설 플롯의 특징을 구성 방식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홍길동전>은 발산형 플롯, <사씨남정기>는 수렴과 발산의 교차형 플롯, <창선감의록>은 수렴과 발산의 통합형 플롯, <소현성록> 연작은 수렴형 플롯의 유형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각각 ‘질서 실현’,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대안 탐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기획이자 독자로 하여금 서사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법을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고전소설 플롯 교육의 구도와 세부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플롯 교육을 설계하였다. 플롯 교육은 크게 ‘서사 구조화 교육’과 ‘주제 탐구 교육’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탐구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플롯에 대한 개념 학습’, ‘스토리 요약을 통한 가설 설정’,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플롯을 활용한 주제 해석의 정교화’의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중 ‘플롯 탐색을 통한 가설 검증’ 단계를 다시 ‘표층 요인을 중심으로 한 근거 수집’, ‘기저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가설 평가’, ‘플롯 유형의 도출과 플롯 효과의 체험’으로 세분화하여 플롯을 순차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소설교육의 본령은 작품이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것을 자기 삶의 자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플롯 교육은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판단에 타당성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학습자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작품의 특정 부분에 조응하고 자신만의 감상을 표출하는 것을 문학교육은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 현장에서 표준으로 권장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이라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케 하는 감상법, 객관성을 갖추고 있어서 학습자들 간, 학습자와 교사 간 소통을 용이케 하는 감상법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감상법을 소설의 시간적·논리적 흐름 및 짜임을 지칭하는 ‘플롯’이라는 개념어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미적 형상을 해석의 언어로 바꿈으로써 학습자의 논리적·객관적 감상을 이끄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김동욱 소장 89장본 <洪吉傳傳>

김만중, 이래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이복규 편저, <설공찬전>, 『새로 발굴한 초기 국문, 국문본 소설』, 박이정, 1998.

이지영 역,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5, 1997.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2. 국내 논저

고영진,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훈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김대현, 「17세기 소설사의 한 연구-전기소설의 변형 야상과 장편화 과정」,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새문사, 1981.

김동욱, 「<홍길동전>의 유형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김동환, 「소설 교육을 위한 이론 개념의 정착과정 및 재설정 방안 연구」,

-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 연구 - 삼대록계 장편가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김민혁, 「《홍길동전》의 이중 서사 구조와 통일 서사 구조」, 『한국언어문화』 6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 김미령, 「〈사씨남정기〉에 담긴 혐오적 시선」, 『국학연구논총』 7, 태민국학연구원, 2016.
-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 김병권, 「〈창선감의록〉에 서술된 점복의 서사문학적 의미」,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 김성진, 「서사 이론 읽기 교육의 소통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김수연, 「〈창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무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 김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영찬, 「오늘의 ‘장편소설’과 ‘이야기’의 가능한 미래」, 『어문논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 김위경,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양상과 정치의식」,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 김일렬, 「〈홍길동전〉의 불통일성과 통일성」, 『어문학』 17, 한국어문학회,

1972.

-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전기소설과 관련하여」, 『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88.
-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김종철,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 김진경, 「플롯의 유형별 지도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태기, 「소설의 주제 읽기」, 『배달말교육』 9, 배달말교육학회, 1991.
- 김태호, 「서사적 사고의 작용 방식 연구」, 『문학교육학』 4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 김태호, 「서사적 도식의 의미 및 작용 방식과 서사교육적 수용 방향 연구」, 『청람어문교육』 50, 청람어문학회, 2014.
- 김필호,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욕망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현주, 「가문소설 투기 대목의 화소결합방식과 유형화」,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나병철, 「가능세계와 메타픽션-이청준의 메타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 남상득, 「조선조 후기 장편 대하소설 형성의 한 양상 - <청백운>과 <구운몽>,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 대비를 통하여」, 『한어문교육』 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7.
- 류정월, 「‘투기하는 부인’의 형상화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 류종렬, 「『문학』 교재 플롯이론을 통한 소설의 독해 지도연구」, 『외대어문논집』 14,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9.
- 류준경, 「여성 주체성을 향한 여정 : 「사씨남정기」 다시 읽기」, 『한문고

- 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 류준경,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 -사씨 형상의 형성배경과 의미」,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한국학논집』 3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영희, 「〈소현성록〉 연구사」, 『고소설연구』, 월인, 2002.
- 박일용, 「명혼소설의 낭만적 경향성과 그 소설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 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 박일용, 「〈창선감의록〉의 구성 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 박일용, 「이본 변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서술시각의 중층성」,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 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박태호, 「인식론의 측면에서 본 세 가지 읽기 교육 이론」, 『교육논총』 52-2,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5.
-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8.
-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서인석, 「조선 중기 소설사의 변모와 유교 사상」, 『민족문화논총』 4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 서정현, 「<창선감의록> 군담의 특징과 작자의식」,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 소인호, 「고소설 기술에 있어서 최초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 『우리문학연구』 21, 우리문학연구회, 2007.
- 송기섭, 「소설교육의 세 요소와 분석적 이해」, 『어문연구』 67, 어문연구학회, 2011.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신재홍, 「<사씨남정기>의 선악 구도」, 『한국문학연구』 12,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 신재홍, 「김만중 문학에서 어머니의 장르별 형상화와 그 의의」, 『독서연구』 48, 한국독서학회, 2018.
- 신형기, 「장편소설론 전개의 양상」, 『연세어문학』 18,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안성수, 「플롯의 미적 기능과 유형적 의미」, 『백록어문』 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2.
- 안창수, 「반향과 순응의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986.
-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02.
- 양승민, 「<금병매>를 통해 본 <사씨남정기>」,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 양윤모, 「소설 이론 교육과 실제 - 인과성과 플롯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 엄기주,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수선논집』 16,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탐구 : 인식론의 딜레마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8.
- 엄태식, 「〈창선감의록〉의 창작 저변과 서사적 특징」,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 오춘택, 「18세기 소설비평 -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구운몽〉 〈춘향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4, 민족어문학회, 2011.
- 오탉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우수진, 「소집단 활동을 통한 <오디세이아>의 연극적 읽기 - ‘LG 나는 배우다’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7.
- 우찬제, 「육망현시 소설유형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 유준희, 「과학적 설명모형의 구성과 서사교육에서 이야기 구성의 융합적 관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9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 윤재민, 「조선 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1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9.
- 윤주필, 「중세 지식인의 존재 방식과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7, 한국고소설학회, 1999.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 한국전기소설사』, 월인, 1999.
- 이강엽, 「소설교육에서의 주제 탐색 방법 시론」, 『국어교육』 87·88, 한국국어교육학회, 1995.
- 이강욱, 「〈홍길동전〉의 제문제와 그 해결」,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 이동재, 「대하소설의 창작 방법론」,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2012.
- 이문규, 「〈홍길동전〉의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이상근, 「〈홍길동전〉의 서사전략과 작가의 현실인식」, 『국어교육연구』 52, 국어교육학회, 2013.
-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 이성권,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를 통해서 본 초기 가정소설의 세

- 계」, 『우리어문연구』 11, 우리어문학회, 1997.
- 이승복, 「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관련 양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승복, 「〈사씨남정기〉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동아시아문화연구』 2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이원수, 「가정소설의 갈등구조와 그 의미」,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원수, 「〈홍길동전〉의 논리와 의미」, 『문화와 융합』 1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6.
- 이원수,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부가의 고민」,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 이윤석, 「〈홍길동전〉 해석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의 문제」,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 이윤석, 「경관 〈홍길동전〉 축약의 양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 이지영, 「조성기 사유와 〈창선감의록〉 작자의식의 간극」, 『고전문학연구』 38,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화 - 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이혜순 외,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 -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 이흥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 이희수,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족치료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49, 동양고전학회, 2012.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5.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하, 『창작과비평』 11-4·12-1, 창비, 1976·1977.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장미, 「심층적 갈등 중심의 플롯 이해 교육 연구 -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장소진, 『한국현대소설과 플롯』, 한국학술정보, 2007.
- 장시광, 「17세기의 소설 장르에 나타난 애정에 대한 욕망과 그 속성」, 『온지논총』 13, 온지학회, 2005.
-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14-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 장효현, 「전기소설 연구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전성운, 「17세기 장편국문소설과 명말 청초 인정소설의 상관성」, 『중국소설논총』 17, 한국중국소설학회, 2003.
- 정규복, 「〈창선감의록〉과 <원감록〉 및 <화진전〉의 상관성」, 『순천향어문논집』 2, 순천향어문학연구회, 1993.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 정래필, 「플롯구성을 활용한 이야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인물론과 생활문화』, 보고사, 2012.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 『비평문학』 35, 한국비평문학회, 2010.

-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 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 정진석, 「소설 주제 교육의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정출현, 「17세기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대비적 위상」, 『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998.
-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정혜경,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눈물의 작용과 의미」,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조광국, 「〈사씨남정기〉의 사정옥: 총부(家婦)캐릭터 - 예제(禮制)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 조광국, 「문학 교과에서 고전대하소설의 활용 - <옥루몽>, <하진양문록>, <유효공선행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주형예, 「조선후기 소설 장(場)에서 구성된 지식 :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담론의 실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 지연숙,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현실」, 『민족문학사연구』 17, 민족문학사학회, 2000.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사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적 구성」,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회, 1991.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차충환, 「고전장편국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 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2008.
- 채영숙, 「리파테르의 구조시론과 그 실제」, 『고황논집』 8,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91.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9.
- 최성민, 「서사텍스트의 가능세계에 대한 서사공학적 연구 - 소설 서사와 디지털 게임 서사의 수용 과정 비교를 통하여」, 『시학과 언어학』 25, 시학과 언어학회, 2013.
- 최수현, 「국문장편소설 공간 구성 고찰 - 〈임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 최시한, 「소설 교육의 한 방법 - 구성(플롯)을 중심으로」, 『배달말교육(모국어교육)』 4, 배달말교육학회, 1986.
-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0.
- 최시한, 「사건의 개념과 갈래 : 서술 층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최시한, 「사건의 개념과 갈래(2) : 스토리 층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 최인자, 「창의력을 위한 문제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론 - 서사 표현 교육

- 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2000.
- 최인자, 「허구적 서사물의 플롯 이해에 기반한 서사 추론 교육 연구」,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7.
-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한길연,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고전문학과 교육』 3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 한일섭, 「서사문학 플롯의 현대적 개념」, 『서강인문논총』 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999.
- 황병홍, 「<南征記>의 構造와 意味 : 유연수의 성격분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고대학』 30,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 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2006.

3. 국외 논저

- Abbott, H. Porter,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 Aristotle, *Techne rhetorike; Peri poietikes*, 천병희 역, 『수사학/시학』, 숲, 2017.
- Bal, Mieke, *Theorie van vertellen en verhalen*,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Bernstein, J. M., *The philosophy of the novel : Lukács, Marxism, and the*

- dialectics of for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Birke, Dorothee, “Historicizing Plot: A Poetics of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Review of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Plotting Time and Space in Narrative Fiction)”, *JOURNAL OF LITERARY THEORY*, 2010.2.8.
(<http://www.jltonline.de/index.php/reviews/article/view/159/506>)
- Bremond, C., “The Logic of Narrative Possibilities,” 최상규 역, 「서사 가능성성의 논리」,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Brooks, Peter, *Reading for the plot*,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 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강, 2011.
- Brooks, Peter, *Psychoanalysis and storytelling*, 박인성 역, 『정신분석과 이야기 행위』, 문학과 지성사, 2017.
- Burnett, Colin, “ICE POISON (Midi Z, 2014): Realist Transparency and Dedramatization in the Contemporary Art Film”, August 23, 2014.
(<https://colinatthemovies.wordpress.com/2014/08/23/ice-poison-midi-z-2014-realist-transparency-and-dedramatization-in-the-contemporary-art-film/>)
- Chatman, 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Clark, Matthew,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he “Iliad”“, *Phoenix* 55-1, 2001.
- Crane, R. S., “The Concept of Plot and the Plot of Tome Jones,” 최상규 역, 「플롯의 개념」,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Dannenberg, H. P., *Coincidence and Counterfactuality: Plotting Time and Space in Narrative Fiction*, Univ. of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2008.
- Eagleton, T., *How to read literature*, 이미애 역,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책읽는수요일, 2016.
- Eggen, Paul D. & Kaucha, Donald P., *Strategies for teachers*, 임청환 · 권

- 성기 역,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시그마프레스, 2006.
- Forster, E. M., *Aspects of the novel*,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84.
- Friedman, N., “Forms of the Plot,” 최상규 역, 「플롯의 제 형식」,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Herman, D., Jahn, M., & Ryan, Marie-Laure,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NY, 2005.
- Houghton Mifflin Company, *The American Heritage college dictionary*,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 Kermode, Frank, “Secrets and Narrative Sequence,” 전승혜 역, 「비밀과 서술 순서」, 석경정 외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서울출판사, 1997.
- Kukkonen, Karin, “Plot”,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2014.3.
- Lanser, S. S., “‘The Shadow Knows’: Negative Plotting and Feminist Thought.” Keynote Lecture, 2nd ENN Conference, Kolding. 2011.
- Lanser, S. S.,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d. Roland Greene and Stephen Cushman. 4th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Macdonell, Diane,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 Mendilow, A. A., *Time and the novel*, 최상규 역, 『시간과 소설』, 예림기획, 1998.
- Mills, Sara, *Discourse*,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 Moretti, Franco, *Modern epic*,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2001.
- Olsen, Stein H., *(The) Structure of literary understanding*, 최상규 역, 『문학이해의 구조』, 예림기획, 1999.
- Pavel, T. G., *The Poetics of Plot : The Case of English Renaissance Dram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5.
- Pavel, T. G., “Book review(Unnatural Narrative: Impossible Worlds in Fiction and Drama by Jan Alber, 2016)”, *Modern Philology* 115-1, 2017.

- Prince, G., *Narratology*,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개정판)』, 예림기획, 2015.
- Reid, Ian, *(The) Short story*, 김종운 역, 『단편소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Rimmon-Kenan, S., *Narrative fiction*,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2003.
- Ryan, Marie-Laure,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 Ryan, Marie-Laure, “Book review(Narrative Causalities by Emma Kafalenos, 2006)”, *Comparative Literature* 59-4, 2007.
- Ryan, Marie-Laure 편, *Narrative across media*, 조애리 외 역, 『스토리텔링의 이론, 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한울, 2014.
- Scholes, R., Phelan, J. & Kollog, R.,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 Segre, C., “Analysis of the Tale, Narrative Logic, and Time,” 최상규 역, 「이야기 분석, 서사 논리 및 시간」,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2007.
- Spinoza, B., *Ethica*,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1990.
- Tierno, Michael, *Aristotle's poetics for screenwriters*,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리스토텔레스와 영화』, 아우라, 2002.
- Todorov, Tzvetan, *Poétique de la prose*,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Abstract

A Study on Plot-Oriented Classical Novel Education

- Focusing on 17th Century Novels

Jeong, Bomi
Dept.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pecify the need and ways to use the concept of plot in literature education by preparing educational contents of classic novel plots focusing on the 17th-century novels. “Plot,” which is a key term in theories of the novel, is a concept distinct from “story,” and it is responsible for the literary value and completeness of narrative. However, in literature education, the concepts of “plot” and “story” have been used without much distinction,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discussions 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lot and specific ways to understand it. Given that a plot is an index that allows the reader to understand the temporality and causality of a literary work and is an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for interpreting and evaluating the work, it is a tool that promotes the learner’s novel analysis and communication, so there is a need to educate about it more actively.

Thus, this study organized the concept of plot, at the level distinct from story, into “causal arrangement of events” and “structure of making organic meaning.” In this case, “events,” “causality,” and “arrangement” become surface factors for understanding the plot type, and based on them, it was considered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depth contents that the plot contains and the plot’s macroscopic form. The base factors that make up in-depth contents include desire, discourse, and conflict, and the

attributes of base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mphasized events, method of organizing causality, and arrangement method. And finally, as the plot type that can serve as an index for understanding the macroscopic form and meaning of the plot, single-plots such as “convergent plot” and “divergent plot” or multi-plots such as “cross-over plot” and “integrated plot” of the two single-plots can be set. The convergent plot and divergent plot have the semantic role of “order establishment” and “alternative search” respectively. The cross-over plot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nd the integrated plot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have the semantic role of “problem posing” and “problem solving” respectively.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examine various plot types of individual works and impart meanings.

Plot-oriented novel education designed based on the propositions above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motes understanding of the method of securing probability in classical novels, allows the learner to experience the effect of a plot as an immersion mechanism for a novel, and prepares specific ways to consider configuration in a discussion on contents.

This study selected four novels of the 17th century as materials for plot education. They are “Honggildongjeon,” “Sassinamjeonggi,” “Changseongamuirok,” and “Sohyeonseongrok” series. These four works are similar in that they restructured issues in reality by introducing the narrative world “family(家),” constructed the logic of the narrative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ossibility and inevitability, and looked for an effective arrangement method to maintain tension in the narrative scope that became broader than the previous generation.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plot should be discussed in the 17th-century novel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rface factors and base factors comprehensively in order to analyze the plot type and meaning of the four works, “Honggildongjeon” had a divergent plot that explored an alternative world of “family,” and “Sassinamjeonggi” had a cross-over

plot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that showed the value of patriarchal order which supported “family” and at the same time showed the nature of problem posing by addressing such order sharply. “Changseongamuirok” had an integrated plot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that showed the nature of problem solv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order of “family” construct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search, and “Sohyeonseongrok” series had a convergent plot that limited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search as the ideal order of “family” was established. In each work, the plot not only secured intimacy based on family relations of the narrative world “family” and the real world but also gave a lesson and interest to the reader by combining the faith in the reality’s order and curiosity about an alternative world.

The results of analysis become the foundation for setting a structure for classical novel plot education. This can be set in two directions, “education on narrative structuring by understanding plot types” and “education on theme exploration through organic interpretation of plot.” In order to achieve education in the two directions through voluntary activities of the learner, this study considered it effective to design “inquiry learning” for finding out how and why the plot is configured. To concretize this into educational contents, a procedure was prepared in four steps, “concept learning about plot,” “setting a hypothesis based on the story summary,”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plot exploration,” and “elaborating the theme interpretation by utilizing plot.” From among these,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plot exploration” is carried out by “collecting evidence based on surface factors, evaluating the hypothesis based on base factors, and drawing of plot types and experience of plot effect.”

These education contents will not only increase understanding of a work by guiding the leader to figure out the plot type and meaning organically

but also have a significance in literature education as an analysis framework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me of a new work.

keywords : 17th-century novel, plot, plot type, surface factor, base factor, “Honggildongjeon”, “Sassinamjeonggi”, “Changseongamuirok”, “Sohyeonseongrok” series, literature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3-30422